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동산분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 회의일시 : 2017. 8. 10.(목)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5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1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공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선종영가집(언해)	공개
3	자치통감 권57~60	"
4	재조본 사분율 권47~50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국외반출>	
5	보물 제1358-1호 동여도 국외반출허가	공개

【검토사항】 11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6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유물 일괄	공개
7	선림보훈	"
8	선종영가집(언해) 권상	"
9	강화부 부내상 각진보상 각돈대상 각양군기잡물수목	"
10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괘	"
11	대동여지도	"
12	최익현 초상	"
13	부여 무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
14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제2초강대왕도)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명칭변경 예고>	
15	보물 제1629-1호, 제1629-2호 신한첩 명칭 및 번호 변경	공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정보 정정 예고>	
16	보물 제160호 유성룡 종가 문적, 보물 제876호 재령이씨 영해과 종가 고문서 지정정보 변경	공개

【보고사항】 1건

17	2017년도 국가지정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 관련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 결과보고	공개
----	--	----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7-04-001

1.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가. 심의사항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 문서’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14.3.13)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0.26)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2017년 제1차 위원회에 검토사항으로 부의한 바 있음
- 검토 결과,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일괄 비교조사 등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됨에 따라 보물 제989-2호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비교조사(’17.4.2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2017년 3차 회의(6.8)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6.29~’17.7.25)하고,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보물 제575호 [불상 1구(제575-1호)/ 1973.12.31.지정]
- 명 칭: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 소유자(관리자): 대승사

○ 소재지: 경북 문경시 산북면 대승사길 283, 대승사(전두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관계문서
수량	1점	11건
규격(cm)	346.8×278.9	조사보고서 참조
재질	목조	저지(楮紙)
제작연대	1675년	1869~1876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승격 지정 가치 있음)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조선시대 1675년에 조성된 것으로, 불화와 조각을 절묘하게 접목한 목각설법상 중에서 선구적인 작품이다. 현존하는 6점의 목각설법상(1684년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1692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178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 중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도상의 수도 많아 다른 목각설법상들의 모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팔대보살만다라경(八大菩薩曼荼羅經)』의 아미타팔대보살과 『관무량수경』의 구품연지, 『근수정업왕생첩경』의 내용이 절묘하게 접목시켜 그림이 아닌 조각으로 표현한 독특한 형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설법상과 자주 비교되는 1684년작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보존상태도 좋고 수준높은 표현력을 갖추고 있지만, 규모가 작고 도상의 수도 적으며, 판목 간에 표현들이 유기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제한된 공간 속에서 다양한 존상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존격의 성격에 맞게 입체적이며 유기적으로 표현되었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좌에 새겨져 있는 글씨를 통하여 불교 세계관을 엿볼 수 있으며, 그것이 외틀의 64괘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일부 없어지거나 후보된 것도 있지만, 당시의 신앙 형태의 한 단면을 잘 보여 준다는 점과 불화를 투각 형식으로 조각한 창의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관련문서를 제외하더라도 국보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승격 지정 가치 있음)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재 극락전 후불탱으로 봉안된 목각탱이다. 이 목각탱은 10매의 조각판을 조합하여 한 판을 형성한 것이다. 중앙에는 본존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주변에 보살 및 제자, 천왕상 등 24구를 정연하게 대칭을 이루며 배치하였다. 특히, 목각탱 존상 및 각 모티브에는 방제명을 적고 있어, 17세기 아미타극락회의 도상 연구에 가치있는 사례이다. 이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관무량수경>과 <근수정업왕생첩경변상도>를 융합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

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미타의 向法(東向)에 따라 사천왕을 배치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시기의 목각탱으로 인근 용문사에 1684년에 조각승 단응(端應)과 탁밀(卓密)이 조성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승사 목각탱은 용문사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불보살상의 존용 표현이나 작품에 있어서도 격이 뛰어나다. 게다가 대승사 목각탱은 목서명에 의해 강희14년(1675)경에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어, 현존하는 목각탱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사례로 추정된다.

그리고 대승사 목각탱은 단응과 탁밀이 조성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684)과 더불어 이들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승사 목각탱은 용문사에 비해 작품이 엄격하고 힘이 있어 동일 조각승이 유사 시기에 제작한 것 보다는 오히려 동일 공방에서 제작 하였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후불탱으로서 보기도문 목각탱이며, 겨우 6점의 목각탱 사례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더욱이 규모나 작품, 시기적인 면에 있어서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다. 국보로 승격해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된다.

○ (승격 지정 가치 있음)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후불탱화의 형식을 조각으로 표현한 ‘목각탱’으로, 총 10매의 판목을 조합하여 아미타극락세계를 장엄하게 표현하였다. 그동안 19세기 또는 17세기 후반 경의 작품으로 막연하게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 조사를 통해 강희14년, 즉 1675년에 제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현존하는 6점의 목각탱(1684년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1692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178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임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화기를 통해 이 목조설법상의 조성에 참여한 宗現이 9년 후 용문사 목각탱의 조성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목각탱이라는 새로운 도상의 파급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도상적으로는 고려~조선후기에 이르는 아미타계 불화의 도상을 기본으로 하여 勤修淨業往生捷徑變相圖 판화의 도상을 접목하여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내었으며, 이러한 도상은 추후 다른 목각탱의 모본이 되었다. 아울러 함께 전해져 오는 문서는 1869년부터 1876년에 이르기까지 목각탱 이안을 둘러싼 대승사와 부석사간의 소송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후기 사찰 간의 聖寶의 이동을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처럼 대승사 목조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는 현존하는 목조설법상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일 뿐 아니라 목조설법상의 移安을 둘러싼 문서가 함께 전해오는 등 자료적 가치가 높으므로, 국보로 승격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승격 지정 가치 있음)

본 대승사 목각탱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탱 가운데 가장 오래된 1675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양식 분석에 의하여 단웅, 탁밀 등 경상도 북부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조각승들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여타 목각탱의 기준이 된 작품으로 추정될 정도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구성을 갖추고 있다. 각각의 존상들은 매우 강한 고부조로 조각되었고, 작품의 예술적 성취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대승사 목각탱과 함께 조사된 예천 용문사 목각탱은 대승사 목각탱을 조성한 조각승으로 추정되는 단웅과 탁밀에 의해 조성된 작품으로 대승사 목각탱의 축약본으로 판단된다. 1684년에 단웅과 탁밀 등에 의해 조성된 우수한 작품으로, 원래의 봉안처에 그대로 봉안되어 있으며, 목각탱의 주존인 아미타삼존상도 완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작품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구성이 간결하며, 작품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이상 대승사 목각탱은 학술성, 작품성, 역사성 등에서 국보로 승격시켜 보존 관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용문사 목각탱은 뛰어난 학술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과 작품성에서 다소 미흡하므로 현 상태인 보물로 보존 관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승격 지정 가치 있음)

이 목각아미타여래상은 화면의 최하단 부분에 기록해 놓은 조성기를 통해, 1675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고, 현존하는 이와 같은 종류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중 최고·최대 작이며, 이후 제작되는 모든 목각설법상의 範本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화면의 구성과 도상은 고려시대 <관경16관변상도>나 아미타여래설법도의 전통적인 도상의 기반 아래, 16·17세기에 새롭게 간행·유통된 <근수정업왕생첩경변상도> 판화의 도상을 조선후기 조각승들이 접목하여 유례가 없는 새로운 불화형식을 만들어 내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할 만하다. 즉,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이러한 형식의 불화의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어서 중요하고, 여타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祖形이라는 점도 높이 평가해야 한다. 하나의 제한된 공간에 과거 비바시불을 통해 불법의 정통성과 영속성을, 원륜 대좌를 통한 불교의 우주관을, 시간 상징하는 글자와 12개의 괘를 통해 시공을 포괄하는 존재로서의 아미타여래를, 더 나아가 시방법계의 부처님의 세계를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용적으로나 도상적으로도 빈틈과 생략이 없어 그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최고의 작품이자 최대의 작품이며, 이러한 유형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구성과 상징성, 조형감각을 보여주고 있어 국가 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계문서는 1869년부터 1876년에 이르기까지 1·2차에 걸쳐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이안에 둘러싼 대승사와 부석사간의 소송 문서이다. 불상 이안 등 불교관련 분쟁을 다룬 문서는 거의 유일한 예여서 당시 이 설법상이 갖는 가치에 대한 사찰의 생각

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 (승격 지정 가치 있음)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후불화를 대신하는 후불목각탱으로 아미타극락회와 구품왕생의 장면을 조각으로 표현하였다. 채택된 도상은 고려말·조선초에 유행하던 <관경16관변상도>나 아미타여래설법도의 전통적 것과 조선후기 간행·유통된 <근수정업왕생첩경변상도> 판화 도상을 결합하여 새롭게 것으로 창안된 것이다. 1675년 종현(宗現)을 증사로 하여 단웅과 탁밀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추정되며, 현존하는 6점의 설법상중 가장 오래되고, 도상, 화면 구성 등이 다른 설법상의 원형이자 모본이 되는 작품이라 생각된다. 후불화를 대신하는 설법상은 예배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방제란에 존상의 이름을 기재한다든지 주제의 전달을 위해 구품왕생의 단계나 시공을 초월하는 불교의 우주관과 법에 대한 탐구, 극락왕생의 염원 등을 글로써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이후에 설법상은 이런 주제를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조형적으로도 불·보살과 권속들은 자연스럽게 입체감이 드러나며, 본존으로 시선이 모아지는 깊은 공간감 등은 다른 설법상들과 비교해 완성도가 높다.

한편 대승사 설법상은 1869년부터 1876년에 이르기까지 설법상 이안을 둘러싸고 대승사와 부석사간의 소송 분쟁을 보여주는 문서도 남아 있는데 불상 이안에 따른 분쟁을 다룬 문서로는 유일하며, 당시 조선후기 불교계 상황을 알려주는 보기 드문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점에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존하는 다른 설법상과 비교해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판단되며, 국보 승격의 요건이 충분한 작품으로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 지정

조사보고서

[보완 조사 :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 현 상

2007년,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밝혀진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강희(康熙) 14년(1675)에 경상북도 태백산(太白山) 부석사(浮石寺)에서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치(同治) 8년(1869)에 지금의 문경 대승사로 이안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관련 기록에 의하면, 대정(大正) 원년(1912)에 금어(金魚) 영운창률(影雲敞律), 환월상휴(煥月尙休), 퇴경상로(退耕相老), 용선경현(龍船景玟), 해성창흔(海城昌昕), 범운윤연(梵雲允衍), 육주인택(六洲仁澤), 대형(大炯), 창호(昌浩), 대흥(大興), 진한(鎭閑), 명수(明洙), 경오(景昨), 주경(珠經) 등에 의해 개금되었다고 한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외관상 10개의 나무를 이용하여 못을 사용하지 않고 짜 맞춘식으로 만든 다음, 그 위에 투조나 환조 기법으로 존상들을 조성한 것이다. 상하좌우틀 속에는 윗부분에 가로로 2개의 나무와 아랫부분에 1개의 나무가 있으며, 이들 나무 사이에 세로로 7개의 나무가 짜 맞춰져 있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학술조사보고서』(문경시·불교문화재연구소, 2011)에 의하면, X선 촬영 결과, 각 존상들에서는 얼굴, 어깨, 가슴, 배에서 옛 못[단정短釘]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들 못은 얼굴을 판목에 고정하거나 각 존상마다 남아 있는 금속제 후령통 등 복장물을 납입한 후 복장공 마개를 고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화면 상단 왼쪽 비천상 부분에는 작은 나무를 비교적 긴 못으로 고정한 흔적도 확인된다. 전체를 고정하기 위한 뒤쪽 판목 안쪽에는 투각된 공간을 종이로 발라 마감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일부 부재들은 1966년 이후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부재 중에는 좌우틀도 있는데 괘(卦)가 새겨진 상하틀과 다르다는 점과 1684년에 조성된 보물 제 989-2호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 상하좌우틀에 모두 괘가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후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구성하고 있는 존상 중에서 주존 아미타불상의 왼쪽에 있는 금강장보살상(金剛藏菩薩像)의 지물이 없어진 것을 제외하곤 모두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서방극락정토에서 아미타불이 설법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설법 장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즉 중앙에는 설법인을 결한 아미타불좌상을 중심으로 여러 보살과 권속들이 표현되어 있고, 윗부분에는 과거칠불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있으며, 아랫부분에는 극락정토의 구품 연지가 표현되어 있다. 설법 장면에 등장하는 존상들은 모두 아미타불을 향하고 있는데, 좌우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는 판목 1개 당 세로로 4존씩 배치할 수밖에 없는 조각의 한계 때문이다. 각 존상 옆에는 붉은 바탕의 방제란(傍題欄)에

금색 글씨로 존명들이 새겨져 있어서 어떤 존상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방제란에 적힌 존명들을 중심으로 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윗부분의 가로 판목 중앙에는 원형의 붉은 방제란 속에 과거칠불 중에서 첫 번째 붓다인 비바시불(第一毘婆尸佛)이 흰 글씨로 적혀 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양옆에서 구름을 타고 있는 6존의 불상이 과거칠불 중 제2 시기불(尸棄佛), 제3 비사부불(毘舍浮佛), 제4 구류손불(拘留孫佛), 제5 구나함모니불(俱那含牟尼佛), 제6 가섭불(迦葉佛), 제7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비바시불의 원형 방제란은 리본으로 양옆을 묶은 화려한 보개(寶蓋)로 장엄되어 있으며, 그 바깥으로는 좌우에 각각 1존씩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천녀와 구름이 조각되어 있다.

설법 장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중단에는 아미타불좌상을 중심으로 팔대보살상, 범천상·제석천상, 십대제자상, 사천왕상 등이 조각되어 있다. 이들 존상은 아미타불좌상만 있는 중앙의 세로 판목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세로 판목 3개에다 아래위로 각각 4존씩 배치하였다. 즉 각 단 3존씩 4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윗단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보면 다음과 같다.

1단	跋難陀龍王	(月光天子)	須菩提尊者	아	富樓那尊者	日光天子	難陀龍王
2단	帝釋天王	目犍連尊者	(地藏菩薩)	미	彌勒菩薩	舍利弗尊者	大梵天王
3단	阿難尊者	除障礙菩薩	大勢至菩薩	타	觀世音菩薩	金剛藏菩薩	迦葉尊者
4단	西方毘盧博文天王	南方毘盧勒叉天王	普賢菩薩	불	文殊菩薩	東方提頭禪陀天王	(北方毘沙門天王)

이 중에서 월광천자, 지장보살, 북방비사문천왕에는 방제란이 없지만, 도상적인 특징과 구성을 통하여 추측이 가능하다. 월광천자와 북방비사문천왕은 대칭적인 면에서, 지장보살은 민머리에 오른손으로 석장을, 왼손으로 보주를 쥐 전형적인 지장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추측이 가능하다. 이들 존상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팔대보살들(2단의 지장보살과 미륵보살, 3단의 제장애보살,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 금강장보살, 4단의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감싸고 있으며, 그 밖으로 십대제자 중 6존(1단의 수보리존자와 부루나존자, 2단의 목건련존자와 사리불존자, 3단의 아난존자와 가섭존자)이 배치되어 있다. 다시 그 밖으로 발란타용왕, 월광천자, 일광천자, 난타용왕(이상 1단), 제석천왕과 대범천왕(이상 2단), 사천왕상(4단)이 조각되어 있다.

이들 존상들의 자세는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아미타불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은 가부좌를 하고 있으며, 두 보살을 제외한 팔대보살상과 일광천자, 월광천자는 서 있고, 나머지 존상들은 꿇어 앉아 있다. 즉 존격에 맞게 자세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아미타불상의 대좌에도 짙은 청색의 방제란에 글씨가 있는데, 대좌 중대에는 붉은 글씨로, 하대 이하에는 흰 글씨로 내용이 쓰여 있다. 즉 윗부분부터 보면, 申時·未時·午時·巳時·辰時, 水輪·火輪·地輪, 水方·赤方·木方, 上品上, 未地·

午地·巳地 등이 있다. 아랫부분에는 서방극락정토 왕생과 관련되는 구품의 내용이 짙은 붉은 색의 연꽃 모양 방제란 속에 흰 글씨로 쓰여 있다. 즉 대좌 하대에 있는 짙은 청색의 방제란 속에 쓰여 있는 상품상(上品上) 좌우로 구품의 내용이 적혀 있다. 순서대로 배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中品中	上品下	上品上	上品中	中品上	
下品下		下品上			中品下	下品中

상하틀 중 윗틀에는 64괘 중 곤괘(坤卦), 범어 움자, 이괘(頤卦), 소축괘(小畜卦)가, 아랫틀에는 둔괘(遯卦), 구괘(姤卦), 건괘(乾卦)가 각각 새겨져 있다.

아미타불상과 권속들은 관목의 폭이 가진 한계와 제한된 공간 속에 다수의 존상들을 배치한 결과, 대부분 4등신의 비례를 갖추고 있으며, 옷주름도 단순하게 처리되었다. 다만 방형에 가까운 얼굴과 각진 콧날, 나뭇잎 모양의 광배 장식, 관세음보살상 보관 안쪽에 표현된 독특한 장식 등은 17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조각승 단응(端應)과 탁밀(卓密)에 의해 조성된 1684년작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유사하여 특정한 조각승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증명비구(證明比丘) 종현(宗現)의 이름이 두 설법상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아미타불좌상은 통견식으로 법의를 입고, 설법인을 결한 채 연화대좌 위에서 가부좌하고 있다. 불상은 얼굴을 숙여 가늘고 긴 눈으로 아래로 은근히 내려 보고 있다. 꽃문양이 음각된 커다란 광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광배 윗부분에는 도식화된 화염문이 표현되어 있다. 대좌는 수미연화좌로서 이것이 수미산이라는 것을 알려주듯이 대좌 중대에는 화륜, 수륜, 지륜 등이 쓰여 있는데, 이는 풍륜(風輪), 공륜(空輪)과 함께 수미산을 지지하는 오륜(五輪)을 상징한다. 또한 목방, 적방, 수방은 동서남북 중 동방, 남방, 북방을, 진시부터 감시는 시간을 뜻한다. 즉 아미타불상의 대좌는 단순히 대좌의 개념을 넘어서 불교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상하좌우틀의 64괘와도 연결된다.

팔대보살상은 존격에 따라 모두 다른 지물을 들고 있다. 관세음보살상은 여느 상과 같이 보관에 화불이 있으며, 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는데, 연꽃 위에는 정병이 올려져 있다. 대세지보살상은 보관에 정병이, 손에는 연꽃이 있는데, 연꽃 위에는 보협인(寶篋印)이 있다. 문수보살상은 여의(如意)를 들고 있으며, 보현보살상은 연봉우리를 들고 있다. 미륵보살상은 왼손으로 연잎에 감싸인 연꽃을 들고 있으며, 오른손으로 보주를 들고 있다. 지장보살상은 오른손으로 석장을, 왼손으로 보주를 들고 있다. 제장애보살은 오른손으로 칼을, 왼손으로 보주를 들고 있다. 팔대보살상의 지물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에 걸쳐 조성된 아미타팔대보살도에 보이는 지물들과 대부분 일치한다.

십대제자상 중 가섭존자는 정수리가 솟구쳐 올라가 있으며, 왼손 손등을 바깥으로 하여 감싸 권 다음 가슴 앞까지 들어 올렸다. 아난존자는 무릎을 꿇은 채 합장한 젊은 승려의 모습이다. 부루나존자와 수보리존자는 합장하고 있으며, 사리불존

자와 목건련존자는 두 손으로 불자(拂子)를 들고 있다. 대범천왕과 제석천왕도 무릎을 꿇은 채 합장하고 있다. 월광천자와 일광천자는 원류관을 쓴 제왕의 모습으로, 월광천자는 복숭아 가지를 들고 있으며, 일광천자는 화반을 들고 있다. 또한 용을 타고 있는 난타용왕과 발난타용왕 중에서 발란타용왕은 여의주를 들고 있다. 사천왕상 중 동방제두뢰천왕은 칼을, 북방비사문천왕은 비파를, 남방비루룩차천왕은 용과 여의주를, 서방비루막차천왕은 깃발과 보주를 각각 들고 있다.

서방극락정토의 구품연지(九品蓮池)를 표현한 아랫부분은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에 기록된 제 14관 상배생상(上輩生想), 제 15관 중배생상(中輩生想), 제 16관 하배생상(下輩生想)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중단에 아미타불과 팔대보살을, 하단에 구품 연지를 표현한 것이 17세기에 간행되었던 근수정업왕생첩경도(勤修淨業往生捷徑圖)와 유사하다. 실제 숙종 4년(1678)에 운흥사에서 간행된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근수정업왕생첩경변상도]와 비교해 보면, 세부적인 표현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도상 배치는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윗틀에 새겨져 있는 범자 음자는 [근수정업왕생첩경변상도]의 윗부분에 새겨진 <관세음보살본심미묘육자대명왕진언(觀世音菩薩本心微妙六字大明王眞言)>인 “옴마니반메훬”을 상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이 변상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려 준다. 따라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팔대보살만다라경(八大菩薩曼荼羅經)』의 아미타팔대보살과 『관무량수경』의 구품연지, 『근수정업왕생첩경』의 내용이 절묘하게 접목하여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근수정업왕생첩경변상도]와 차이점은 설법 청중들의 수가 많고, 구품왕생을 글자로 나타냈다는 것이다.

○ 문헌자료

1. [조성기]

□□初造成□□ 康熙十四年月日 證明比丘宗現 佛母比丘禪宗 緣化比丘清徹 大施主金就遠 黃金施主李姓名 造成于慶尙北道 □興郡太白山浮石 □ 同治己巳年月日 移安于慶北道 聞慶郡大乘寺

2. [개금불사와 이안기]

改金佛事緣起 大正元年壬子八月二十二日(陰曆七月十日) 改金于慶尙北道聞慶郡 四佛山大乘寺 證明 慧翁昶宥 雪翁鎬鼎 然翁時煥 誦呪 練雲象玩 德峯大仁 持殿 大庵仁雨 華應就正 梵山東杓 龍般景玆 奉齋 侑宗 金魚 影雲敞律 煥月尙休 退耕相老 龍般景玆 海城昌昕 楚雲允衍 六洲仁澤 大炯 昌浩 大興 鎮閒 明洙 景旴 珠經 鍾頭 敬照 昌奎 茶雨 景舜 南植 供司 蓮秀 慧照 別供 明宣 性林 有變 淨人 張鳳漢 明垓 金炳翼 鄭大用 裴聖模 別座 侑眞 都監 月波兌永 獨辦大施主 乾命朴廷澤 坤命孔氏 長子仁默 次子元默 化主清信女李氏福德月 時住持 退耕相老 山中時住 大衆 共八十二員

○ 참고자료

김은정, 「대승사 대웅전의 목각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2010.
문경시·(재)불교문화재연구소,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학술조사보고서』, 2011.



○ 조사내용

1) 하단 목서명

목각탱 하단 틀 중앙 부분에 주색 바탕에 목서로 조성기를 적고 있다.

○○初造成○○」康熙十四年月日」證明比丘宗現」佛母比丘禪宗」緣化比丘清徹」大施主金就遠」黃金施主李姓名」造成于慶尙北道」○興郡太白山浮石」同治己巳年月日」移安于慶北道」聞慶郡大乘寺」

改金佛事緣起」大正元年壬子八月二十二日(陰曆七月十日)改金于」慶尙北道聞慶郡」四佛山大乘寺」證明」慧翁昶有」雪翁鎬鼎」然翁時煥」誦呪」練雲象玩」德峯大仁」持殿」大庵仁雨」華應就正」梵山東杓」龍船景玆」奉齋」侑宗」金魚」影雲徹律」煥月尙休」退耕相老」龍船景玆」海城昌旻」梵雲允衍」六洲仁澤」大炯」昌浩」大興」鎭聞」明洙」景旻」珠經」鍾頭」敬造」昌奎」茶角」景舜」南植」供司」蓮秀」慧照」別供」明宣」性林」有燮」淨人」張鳳漢」明垵」金炳翼」鄭大用」裴聖模」別座」侑眞」都監」月波兌永」獨辦大施主」乾命朴廷澤」坤命孔氏」長子仁默」次子元默」化主清信女李氏福德月」時住持退耕相老」山中時住大衆」共八十二員」

2) 현상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은 극락전의 후불탱으로 봉안되어 있다. 세로 346.9cm, 가로 278.9cm 크기로, 목재 패널 위에 총 10매의 목각 도상판을 고정시킨 작품이다. 목각판에는 도금과 채색을 가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벗겨진 흔적이 보인다.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화면의 하단 틀에 적힌 목서 조성기에 의하면, 목각탱은 원래 강희14년(1675)에 太白山浮石寺에서 조성되었으나 동치8년(1869)에 문경 대승사로 이안되었으며, 대정 원년(1912)에 金魚影雲徹律를 비롯 총14명이 개금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3) 특징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은 10매(수직7매, 수평3매)의 목각판을 조합하여 한 판을 형성하고, 4번 가장자리에는 나무 틀로써 각각 고정시켰다. 목각판 대부분은 본존 아미타가 극락회에서 설법하는 장면으로, 최상단에는 천개와 주악천인과 과거불이

조각되어 있고, 최하단에는 구품왕생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목각탱은 대개 6cm전후 고부조와 투각 기법으로 조각되었다.

중앙에는 본존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주변에 보살 및 제자, 천왕상 등 24구가 정연하게 대칭을 이루며 배치되었다. 목각탱 존상 및 각 모티브 옆에는 명패처럼 주색 바탕의 방제란을 마련하고 그 안에 각 도상들의 존상명을 밝히고 있다.

화면 중앙에 위치한 아미타여래는 높은 연화좌 위에 연관형 광배를 갖추고 정면을 향해 하품중생인을 취하고 결가좌한 모습이다. 육신부는 흑철 위에 금색을 칠하고, 눈은 백색을 바른 백안에 먹색으로 동자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눈썹과 수염은 먹선 위에 녹청선을 긋고, 입술은 주색을 발랐다. 두부에는 먹색을 바르고, 정상계주와 중간계주는 금색을 발랐으나, 중간계주에는 주색을 바림하였다. 발제선에는 녹청선을 돌렸다. 본존의 신체는 이등변삼각형 구조로 안정적이며, 상호는 방형에 가까운 둥근 얼굴에 가늘고 긴 눈, 이마 등에 비해 돌출된 오뚝한 코, 가늘고 긴 입술이 특징적이다.

본존 주변의 보살상은 총 8위가 배치되었다. 본존의 좌우측, 본존 대좌의 좌우측, 본존 광배의 좌우측에 각각 좌상과 입상의 모습으로 지물을 쥐고 배치되어 있다. 방제명에 의하면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 금강장보살과 제장애보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미륵보살과 지장보살 등 팔대보살이다. 화면 가장 아래쪽 하단에는 사천왕이 좌우에 각각 2위씩 외호하고 있다.

화면 중단 팔대보살상의 외곽과 상단에는 천부와 제자상, 용왕들이 외호하고 있다. 나한상 모습을 한 사리불존자와 목건련존자 좌우에는 천의를 걸친 합장형의 대변천왕과 제석천왕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부루나존자와 수보리존자 가장자리에는 원류관을 쓴 제왕형 도상이 좌우 2위씩 배치되어 있는데, 일광·월광천자와 난타·발난타용왕이다.

그리고 가장 화면 최상단에는 천개와 서기를 표현하였다. 천개 가운데에는 과거칠불의 하나인 '第一毘婆尸佛'의 존명이 적혀 있다. 그 양측으로 과거불이 좌우 3위씩 배치되어 있다.

이어 최하단에는 구품왕생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낮은 방형좌 위에 안치된 연화좌는 상중하대로 구성된 매우 높고 장엄화된 형식이다. 하대 복련좌 중앙에는 '上品上'이라고 적혀있고, 그 양측으로는 둥근 항아리에서 피어오른 연엽을 각각 새기고, 만개한 연꽃에는 上品中, 上品下, 中品上, 中品下, 中品中, 中品下, 下品上, 下品中, 下品下 등의 구품왕생의 키워드가 적혀있다. 그리고 여러 단으로 구성된 중대에는 방위와 시간을 가리키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木方, 赤方, 水方, 그 위에는 地輪, 火輪, 水輪이 적혀있고, 그 상단에는 辰時, 巳時, 午時, 未時, 甲時 등이 각각 적혀 있다. 전체적인 방위는 자오선을 축으로 괘상들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방제명은 글자체 스타일로 보아 후대에 개금하면서 새로 추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도상들의 배치도를 나타낸 것이 아래 도식표이다.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의 도상명						
천녀			第一毘婆尸佛	천녀		
과거불				과거불		
용왕②	천부④	제자⑥	본존 아미타여래	제자⑤	천부③	용왕①
발난타용왕	월광천자	수보리존자		부루나존자	일광천자	난타용왕
천부②	제자④	보살⑧		보살⑦	제자③	천부①
제석천왕	목건련존자	지장보살		미륵보살	사리불존자	대범천왕
제자②	보살⑥	보살②		보살①	보살⑤	제자①
아난존자	제장애보살	세지보살		관세음보살	금강장보살	가섭존자
천왕④	천왕②	보살④		보살③	천왕①	천왕③
서방비루박차천	남방비루박차천왕	보현보살	문수보살	동방제두뢰타천왕	북방천왕	
中品中		上品下	上品上	上品中		中品上
下品下	下品上	未地	午地	巳地	中品下	下品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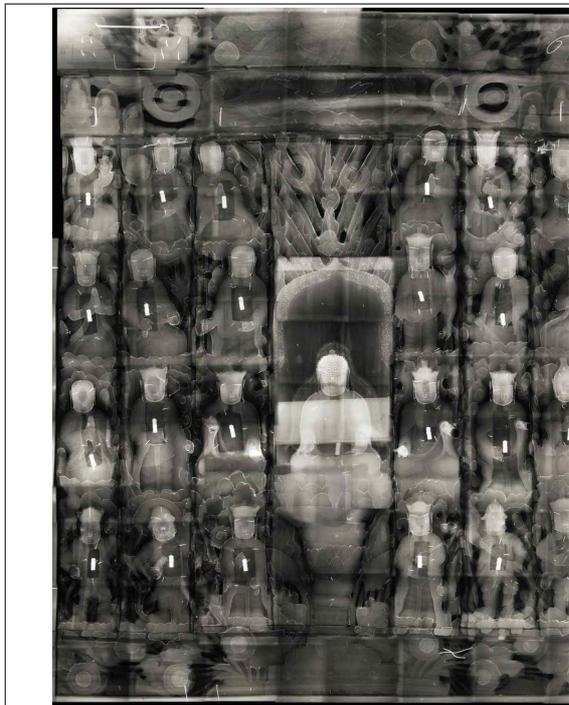
목각탱 가장자리 네 변에는 목재 틀로 마감하였는데, 상단 틀에는 범자, 역만자, 괘상 등이 새겨져 있고, 하단 틀에는 주지묵서와 괘상이 각각 새겨져 있다. 좌우 틀에는 괘상이 보이지 않으나 근대기 사진에는 남아 있었다고 한다.

화면의 하단 틀에 적힌 묵서 조성기에 의하면, 목각탱은 원래 강희14년(1675)에 太白山 浮石寺에서 조성되었으나 동치8년(1869)에 문경 대승사로 이안되었으며, 대정 원년(1912)에 金魚 影雲徹律를 비롯 총14명이 개금하였을 밝히고 있다. 다만 이 조성기는 개금 당시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판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1675년경), 346.9×278.9cm



X-RAY 촬영



본존 아미타여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하단 틀에 보이는 목서조성기

□

○ 내용 및 특징

10개의 판목으로 이루어진 방형 판에 아미타불과 청중으로 구성된 설법 장면이 부조된 목각탱이다.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의 4단에 걸쳐 정연하게 청중 존상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청중단의 위로는 하늘이, 아래로는 九品蓮池가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배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화면 하단에 서사된 중수개금기 내용 중에 1675년 조성되어 태백산 부석(사)에 봉안되었던 후불 탕임이 밝혀졌다.

전체 존상의 배치는 조선 후기 불화와 같이 청중들이 주존상을 둘러싼 형식인데, 종이나 천에 그려진 불화와 달리 伍列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 특이하다. 이는 존상이 표현된 7매의 판목들이 세로로 이어 붙여졌고 매 판마다 4존상씩 줄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7매의 새로 판목 중 좌우 6매의 판목들보다 약 2배 넓게 자리한 중앙 판목에 주존 아미타상이 배치되어 있으며, 좌우의 좁은 판목들에는 8보살, 6제자, 범천·제석천, 4천왕, 2천자, 2용왕 등 24존상이 크게 묘사되어 있다. 2매의 횡 판목으로 구성된 하늘부에는 좌우로 2비천과 6타방불이 부조되어 있고 중앙에는 붉은 바탕에 “第一毗婆尸佛”이라 적힌 원형 상징물이 자리하고 있다. 최하단에 위치한 1매의 횡 판목은 주존불의 대좌와 대좌 좌우의 두 물병, 그리고 물병에서 솟아 나간 連枝, 蓮花, 蓮葉이 좌우로 퍼져 마치 연못처럼 보이게 하였다. 퍼져 나간 연꽃 중에서 활짝 핀 9개의 연꽃에는 上品上에서 下品下까지의 구품의 명칭이 새겨져 있다.

현재 좌우 틀이 훼손되어 상하 틀만이 남아 있지만, 상하좌우의 틀이 모두 완존하였던 1905년 당시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네 틀에는 “十二辟卦方位圖”가 조각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復卦와 臨卦가 오기되어 있지만 12방의 표기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함께 아미타불 대좌에 음각된 時, 輪, 方, 地 등 시간이나 방위를 나타내는 표기는 모두 중앙에 午時, 赤方, 午地 등 남방을 나타내고 있어 12괘와 상통한다. 다만, 水輪, 火輪, 地輪은 上下로 중첩된 地水火風空輪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방위나 시간의 표기가 아니어서 의문이다.

○ 문헌자료(없을 경우 생략)

*「聞慶 大乘寺 木造阿彌陀幀 移安記」, 1869년, 괘와 괘 사이에 墨書.

■■初造成■■

(康)1)熙十四年月 日

證明比丘 宗現2)

佛母比丘 禪定

緣化比丘 清徽

大施主 金就遠

黃金施主 李姓名

造成于慶尙北道

(順)興郡太白山浮石

(寺)

同治己巳年月日

移安于慶北道

聞慶郡大乘寺

*「聞慶 大乘寺 木造阿彌陀幀 改金記」, 1912년 8월 22일, 괘와 괘 사이에 墨書.

改金佛事緣起

1) ()는 추정 글자. 이하 동일.

2) 단응탁밀과 함께 여러 불사에 증명으로 참여함.

大正元年壬子八
月二十二日(陰曆
七月十日)改金于
慶尙北道聞慶郡
四佛山大乘寺

證明 慧翁昶有

雪翁鎬鼎

然翁時煥

誦呪 練雲象玩

德峯大仁

持殿 大庵仁雨

華應就正

梵山東杓

龍船景玆

奉齋 侑宗

金魚 影雲敞律

煥月尙休

退耕相老

龍船景玆

海城昌昕

楚雲允衍

六洲仁澤

大炯

昌浩

大興

鎮閒

明洙

景昨

珠經

鍾頭 敬照

昌奎

茶角 景舜

南植

供司 蓮秀

慧照

別供 明宣

性林

有燮

淨人 張鳳漢

明培 金炳翼

鄭大用

裴聖模

別座 侑眞

都監 月波兌永

獨辦大施主乾命朴廷澤

坤命孔 氏
 長子 仁默
 次子 元默
 化主清信女李氏福德月
 時住持 退耕相老
 山中時住大衆
 共 八十二員

* 주존 대좌의 명문

申 未 午 巳 辰
 時 時 時 時 時

水 火 地
 輪 輪 輪

水 赤 木
 方 方 方

未 午 巳
 地 地 地

* <十二辟卦方位圖>

	3) (坤卦, 亥方)	4) (復卦, 子方)	(臨卦, 丑方)	
(剝卦, 戌方)	北			(泰卦, 寅方)
(觀卦, 酉方)	西		東	(大壯卦, 卯方)
(否卦, 申方)	南			(夬卦, 辰方)
	(遯卦, 未方)	(姤卦, 午方)	(乾卦, 巳方)	

3) 子方을 나타내는 復卦로 추정됨. 현재의 大過卦는 오기.

4) 丑方을 나타내는 臨卦로 추정됨. 현재의 中孚卦는 오기.

[보완 조사 :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 일반현황

- 지정현황 : 보물 제989-1, 989-2호
- 조사대상 : 醴泉 龍門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 규격 : 아미타여래 높이 89.8cm, 관음보살 높이 83cm, 대세지보살 높이 88.4cm, 설법상 187.6x180cm
- 수량 : 불상 3점, 아미타여래설법상1점
- 재질 : 나무
- 조성연대 : 1684년(숙종 10)
- 제작자 : 端應, 卓密, 學倫, 法淸, 坦性, 義禪, 體元, 學坦, 太敏

○ 조사내용

예천 용문사 대장전 목각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684년에 삼존불과 함께 제작된 것이며, 현재 보물 제989-1호와 제989-2호로 지정되어 있다. 모두 16판의 나무를 짜맞추어 제작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높이 187.6cm, 너비 180cm의 크기로 거의 정방형에 가깝다. 도상의 배치는 화면의 중앙에 꽃잎형의 광배를 등지고 높은 구품연지에서 피어난 수미대좌에 앉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하단에는 사천왕상을 일렬로 배치하고, 중단과 상단에는 관음·대세지를 비롯한 8대 보살과 가섭·아난의 兩大尊者를 일정한 크기로 배치하였다. 틀에는 ‘만’자와 ‘옴’자를 중심으로 12괘를 돌렸다. 양쪽 틀의 측면에는 타오르는 화염을 부착하였다. 오른쪽 화염(향좌측)의 뒤쪽 상단에 ‘辛未五月旬日 六月 日 方必 畫員 仁○’이라는 묵서명이 남아 있는데, 후대에 보수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용문사 목각설법여래상은 양식적으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공통된 특징을 보이는데, 두 설법상 모두 종현의 증명으로 조성된 것이며, 용문사 아미타여래설법상에 참여한 端應, 卓密, 學倫, 法淸, 坦性, 義禪, 體元, 學坦, 太敏 등의 조각승 집단에 의해 대승사 아미타여래설법상도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용문사 설법상의 구성 형식은 전반적으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따르고 있으나, 세부 구성과 등장인물, 세부표현 등에서 한결 간략해진 느낌이다. 이는 전각의 규모에 맞게 등장인물과 세부 구성을 조정하여 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용문사 아미타여래설법상과 대승사 아미타여래설법상은 모두 宗現의 증명 아래 용문사 설법상을 조성했던 조각승들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용문사 설법상은 대승사 설법상에 비해 도상의 구성과 완결성, 조각적 역량과 깊이, 예술적·종교적 감성, 그리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독창성 등 모든 면에서 대승사 설법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국보로 승격할 가치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림 8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1차 조사 :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

○ 조사내용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대승사 대웅전 후불벽에 봉안된 설법상으로, 1675년에 조성되었다. 화면의 하단, 아미타불의 뒷부분에서 발견된 조성기에 의하면 이 상은 원래 강희14년(1675)에 太白山 浮石寺에서 조성되었으나 同治8년(1869)에 문경 대승사로 이안되었으며, 大正元年(1912)에 金魚影雲徹律, 煥月尚休, 退耕相老, 龍船景玆, 海城昌旰, 梵雲允衍, 六洲仁澤, 大炯, 昌浩, 大興, 鎮閒, 明洙, 景旰, 珠經 등이 개금했다고 한다.

목조설법상은 후불벽을 장엄하던 불화를 천이나 종이 등이 아니라 나무를 透彫 또는 浮彫기법을 사용하여 조성한 것으로, 기법은 조각이지만 용도는 후불탱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흔히 木刻幀으로 불린다. 모두 10개의 나무를 잇대어 만들었는데, 본존이 조각된 중앙의 판목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 각각 3개씩의 판목이 세로로 길게 이어져 있으며, 밑에 1개, 그리고 위에 2개의 판목이 이어져 있고 이것을 다시 상하좌우 4개의 외곽 틀로 결구하였다. 각 존상들은 환조에 가깝게 조각되었으며, 인물 및 장식문양 외의 부분들은 투각기법으로 처리되었다.

전체적인 구성은 상단과 중단, 하단의 3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도는 조선후기의 불화와 같이 군도식 구도를 이루고 있으면서 단의 구별이 뚜렷하여 존상들이 서로 겹치지 않은 채 3~4층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이 상이 나무를 조각해서 각 존상을 표현해야 하는 목조설법상인 점에 기인하는데, 판목 1매 당 세로로 4구씩의

존상이 일렬로 서있는 것처럼 확일적으로 배치되었다. 먼저 상단은 2매의 판목으로 이루어졌다. 2매 중 아래 판목에는 과거칠불 중 첫 번째 부처인 第一毘婆尸佛의 명칭이 적힌 원형의 장식을 중심으로 좌우에 구름을 타고 오는 6구의 타방불이 배치되었다. 비바시불의 이름이 적힌 원형의 장식은 리본으로 양옆을 묶은 화려한 寶蓋로 장엄되어 있으며 그 양옆으로는 좌우에 각각 1구씩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천녀와 瑞雲이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 표현된 7구의 부처는 과거7불인 비바시불과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단은 이 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8대보살과 범천 및 제석천, 10대제자, 사천왕 등 총 25구의 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은 총7매의 판목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미타불을 조각한 중앙의 판목이 좌우 6개의 판목보다 너비가 조금 넓다. 존상들은 대부분 3~4등신 정도의 짧은 체구에 방형에 가까울 정도로 넓적한 얼굴, 각진 콧날이 특징적이며, 옷 주름은 간결하게 처리되었다. 각 존상의 옆에는 각각 명칭이 적혀있어 존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화면의 중앙에 아미타여래를 배치하고, 하단 좌우측에는 문수·보현보살과 사천왕상 4구, 그 위 좌우측에는 관음·대세지보살, 금강장·제장애보살, 가섭·아난존자, 그 위 좌우측에는 미륵·지장보살, 사리불·목건련존자, 대범천·제석천을, 그 위 좌우측에는 부루나존자·수보리존자, 일광천자·월광천자, 난타용왕·발난타용왕을 좌우대칭으로 배열하였다. 8대보살은 모두 지물을 들고 있는데, 관음보살은 보관에 화불인 아미타불을 모셨으며 손에는 정병이 올려진 연꽃을 들고 있다. 대세지보살은 경책이 놓여있는 연꽃을 들고 있으며, 보관에는 희미하게 정병의 흔적이 남아있다. 또한 문수보살은 如意, 보현보살은 연봉우리, 미륵보살은 왼손에 연잎으로 감싼 연꽃, 오른손에 보주, 지장보살은 오른손에 석장, 왼손에 보주를 들고 있다. 금강장보살은 지물이 없어져서 확인할 수 없으며, 제장애보살은 오른손에 칼, 왼손에 보주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지물은 고려~조선후기 불화에 표현된 8대보살의 지물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목각설법상의 도상이 기본적으로 조선후기 불화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단은 활짝 핀 9송이의 연꽃과 연잎, 연봉우리로 장식된 아미타불의 蓮池를 나타내고 있다. 9송이의 연꽃은 중앙에 上品上이라고 쓰인 연꽃을 중심으로 좌우에 4개씩 배치되었는데, 8개의 연꽃에는 上品中에서부터 下品下라고 적혀있어, <觀無量壽經>의 제14관인 上輩生想에서 제16관인 下輩生想까지를 연꽃으로 표현한 九品蓮池에서의 왕생장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연꽃에 인물이 직접 극락세계로 化生하는 모습을 표현하지 않고 본존불의 대좌 좌우에 마련된 꽃병에서 활짝 핀 둥근 연꽃 안에 上品上生에서 下品下生에 이르기까지의 九品化生을 문자로 표현한 점이 특징적이다.

중단에 아미타8대보살을 배치하고 하단에 구품연지를 배치한 이와 같은 구성은.

등장하는 권속의 수가 많고 왕생장면을 문자로 표현하였다는 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16·17세기에 간행·유통된 勤修淨業往生捷徑變相圖와 유사한 것으로 주목 받아 왔다. 따라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관무량수경과 아미타여래설법도 등의 도상에 근수정업왕생첩경변상도를 접목해서 새롭게 도상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이 상은 조성연대가 밝혀지지 않아서 막연하게 19세기 또는 1684년의 용문사 목각탱과 비슷한 시기인 17세기 후반 경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2007년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를 통해 새롭게 화기가 발견되었는데, 화면 하단 아미타불 뒷부분에는 “○○初造成○○」康熙十四年月日」證明比丘宗現」佛母比丘禪宗」緣化比丘清徹」大施主金就遠」黃金施主李姓名」造成于慶尙北道」○興郡太白山浮石」同治己巳年月日」移安于慶北道」聞慶郡大乘寺」”라고 적혀있어, 강희14년인 1675년에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화기에는 증명비구로 宗現이라는 승려가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용문사 목조설법상의 화기에서도 볼 수 있어 두 작품 간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종현은 대승사 및 용문사 목조설법상 외에도 용문사 금당 목조아미타불좌상, 상주 용흥사 삼세불괘불도(1684), 영월 보덕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삼존불(1687), 제천 정방사 목조아미타삼존불(1689), 상주 갑장사 금동관음보살좌상(1689) 중수 등에도 참여하였다. 화기에는 조각승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방형의 넓적한 얼굴 형태와 가늘고 긴 눈 높고 각진 매부리코, 입술모양, 끝이 휘어진 귀의 형태, 어깨로 흘러내리는 보발의 형태 뿐 아니라 이중으로 장식된 보관의 형태와 화문장식, 존상 뒤에 나뭇잎 모양의 장식을 배치하여 두광을 표현하는 듯한 방식이 17세기 후반의 조각승 端應과 卓密이 조성한 용문사 목조설법상(1684)의 양식과 흡사하여, 대승사 목조설법상 또한 단응과 탁밀이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승사에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관련된 문서가 11건 전해온다. 이 문서들은 1869년부터 1876년에 이르기까지 1·2차에 걸쳐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移安을 둘러싸고 대승사와 부석사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所志로, 대승사와 부석사의 승려들이 官府에 올린 上書와 等狀, 完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서에 의하면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원래 부석사에 있던 것인데, 1862년 대승사에 화재가 나서 법당과 승방이 모두 소실됨에 대승사의 승도들이 새로 법당을 중수하였으나 불상을 조성할 형편이 되지 않자 부석사에 있던 목조설법상을 옮겨왔다고 한다. 그러다 6년 뒤인 1875년에 부석사에서 반환을 요구하여 시비가 일게 되었는데, 1876년에 대승사에서 부석사 조사전의 수리비 250냥을 주기로 하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문서를 통해 목조설법상이 처음에는 부석사의 金色殿이라는 전각 안에 봉안되었다가 후에 무량수전으로 이안되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조성기>

○○初造成○○」康熙十四年月日」證明比丘宗現」佛母比丘禪宗」緣化比丘清徹」大施主金就遠」黃金施主李姓名」造成于慶尙北道」○興郡太白山浮石」同治己巳年月日」移安于慶北道」聞慶郡大乘寺」

改金佛事緣起」大正元年壬子八月二十二日(陰曆」七月十日)改金于」慶尙北道聞慶郡」四佛山大乘寺」證明」慧翁昶有」雪翁鎬鼎」然翁時煥」誦呪」練雲象玩」德峯大仁」持殿」大庵仁雨」華應就正」梵山東杓」龍船景玆」奉齋」侑宗」金魚」影雲敞律」煥月尙休」退耕相老」龍船景玆」海城昌旻」梵雲允衍」六洲仁澤」大炯」昌浩」大興」鎭閒」明洙」景旻」珠經」鍾頭」敬造」昌奎」茶角」景舜」南植」供司」蓮秀」慧照」別供」明宣」性林」有燮」淨人」張鳳漢」明埜」金炳翼」鄭大用」裴聖模」別座」侑眞」都監」月波兌永」獨辦大施主」乾命朴廷澤」坤命孔氏」長子 仁默」次子 元默」化主清信女李氏福德月」時住持 退耕相老」山中時住大衆」共 八十二員」

○ 문헌자료

김은정, 「대승사 대웅전의 목각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2010.
이용윤,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 관한 연구」,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 설법상 및 관계문서 학술조사보고서」, 문경시·(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 조사내용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아미타여래가 주재하는 극락세계를 회화적 기법과 조각적 기법을 절충하여 조성한 불화이며, 17세기 후반 이후 새롭게 창안되어 등장하는 불화의 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이와 같은 형식의 설법상은 대승사를 비롯하여 예천 용문사(1684년),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169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1782년) 등 6점이 전하며 모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우선 설법상은 대화면을 구성하기 위하여 크게 10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맨 밑에 1개의 판을 가로질러 기초를 마련하고 그 위에 세로로 된 7판의 나무판을 세우고, 두 개의 가로 판재와 외곽 틀을 야무지게 결구시켜 마무리하였다.

등장하는 존상들은 본존인 아미타여래와 팔대보살, 10대 제자, 사천왕상, 용왕 등의 권속들이 엄격한 좌우대칭에 입각하여 오와 열을 맞추어 질서 있게 구성되었다. 존상들은 방형에 가까 정도로 넓은 얼굴에, 각진 콧날과 평범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 정감이 있고 대중적이다. 옷 주름은 특출한 기교 없이 간결하고 힘 있는 선묘를 보인 가운데, 본존불은 연화대좌 위로 옷자락을 늘어 뜨려 율동감을 부여하였다. 존상들은 대체로 3-4등신의 단구적인 형태미를 보인다. 이와 같은 표현은 17

세기 후반 충청·강원,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한 조각승 단응과 탁밀의 작품과 닮은 점이 많고, 설법상의 제작시기와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와 지역 등이 같아 이들의 손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존상의 세부 배치를 살펴보면, 화면의 상단에는 하늘에 떠 있는 천개와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천녀, 설법을 듣기 위해 구름을 타고 오는 타방불 등이 표현되었다. 천개에는 과거칠불 중 첫 번째 과거불인 ‘第一毘婆尸佛’의 존명을 적어 놓았다. 화면의 중앙에 꽃잎형 광배를 등지고 높은 수미좌에 앉은 아미타여래를 두었고, 화면의 하단 좌우측에는 문수·보현보살, 사천왕상 4구(좌측에서 북동남서 순으로 배치)를, 그 위 좌우측에는 관음·대세지보살, 금강장·제장애보살, 가섭·아난존자, 그 위 좌우에는 미륵·지장보살, 사리불·목건련존자, 대범천·제석천을, 그 위 좌우측에는 부루나존자·수보리존자, 일광천자·월광천자, 난타용왕·발난타용왕을 좌우대칭에 입각하여 배열하였다. 제 존상들은 합장을 하거나 존상의 상징물을 든 모습이다. 본존불을 제외한 나머지의 존상들은 화면의 하단에서 상단까지 원근감 없이 좌상이나 입상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일정한 크기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권속들의 자세는 입상과 좌상 그리고 궤상 등 3가지 모습이 등장하며, 다른 예에서 드물게 본존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있는 존상들을 대거 배치시킨 점이 이채롭다. 각 존상의 옆에는 붉은색 바탕의 명패를 마련하고 그곳에 금색으로 존명을 적어 두어 도상의 이해를 돕고 있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구도는 하면의 최상단에 제일 과거불인 비바시불이 주악천녀와 타방불을 이끌고 도량으로 강림하는 장면을 배치하고, 최하단에는 구품 연못에서 연화 왕생하는 장면을 두어, 위·아래에서 흐트러짐 없이 설법장면을 탄탄히 받쳐주는 짜임새 있는 구도이다. 하단의 구품왕생 장면은 본존불의 대좌 좌우에 마련된 꽃병에서 피어난 아홉 개의 연꽃에 구품연지의 상징성을 담았는데, 연꽃에 인물이 직접 극락세계로 化生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활짝 핀 둥근 연꽃 안에 상품상생에서 하품하생에 이르기까지의 구품화생을 문자로 단순화시켜 그 상징성만 담았다.

이와 같이 구품왕생과 아미타여래 팔대보살이 한 화면에 가득 표현되는 사례는 고려시대 <관경16관변상도>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고, 특히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유사하게 도설한 사례는 조선 16·17세기에 간행·유통된 <勤修淨業往生捷徑變相圖>이다. 다만 <근수정업왕생첩경도변상도>와의 차이점은 등장하는 권속의 수가 많고, 왕생장면을 문자로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전통적인 <관경16관변상도>이나 <아미타여래설법도>를 기반으로 해서 16세기부터 17세기에 개관·유통된 <근수정업왕생첩경변상도>를 크게 접목해서 창안해 낸 불화로 판단된다.

아미타여래의 여래의 대좌는 원륜과 팔각, 연꽃, 등 다층 구조를 하고 있으며, 각 단마다 방위와 시간을 가리키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연화대좌를 받치고 있는 방형

의 단에는 午地를 중심으로 좌우에 巳地와 未地가 있으며, 단 위에는 구품왕생의 上品上을 상징하는 연꽃을 새겨 놓았고, 이는 구품왕생의 중심이 되고 있다. 연화 대좌는 복련과 양련의 연화좌 사이에 타원형의 받침대와 연꽃받침대를 중첩하여 쌓아 올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에는 木方, 赤方, 水方 이란 명문이, 다시 그 위에는 地輪, 火輪, 水輪이 있으며, 맨 위에 辰時, 巳時, 午時, 未時, 甲時 등이 적혀 있다. 지륜, 화륜, 수륜은 풍륜 공륜과 함께 수미산을 지지하는 오륜이며, 목방, 적방, 수방은 동서남북 중 동방, 남방, 북방을 가리키며, 진시에서 갑시까지는 12간지 중 사람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를 뜻한다. 한편 아미타불의 대좌에 새겨진 방위와 시간의 개념은 화면을 넘어 틀에 새겨져 있는 卦와 연결된다. 현재 좌우 틀이 사라졌지만 20세기 초 사진에는 좌우측에도 패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패의 형태는 팔괘를 중첩한 육십사괘이며, 이곳에는 『주역』의 육십사괘에서 12개의 괘를 뽑아 사방에 배치하였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아미타불을 중심에 두고 상단에 과거불 비바시불을 통해 佛法의 끝임 없는 영속성을, 아래의 연화대좌의 지륜, 화륜, 수륜을 새겨 불교적인 세계관과 우주관을 종합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연화대좌에 새긴 방위와 시간, 외곽 틀에 새긴 12개의 괘는 시공을 초월한 아미타불의 존재감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신앙체계를 갖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거치면서 존상 중심으로 간략해지고 남장사 보광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서는 구품왕생 장면은 생략되고 설법장면만 강조되었다.⁵⁾

관계문서는 1869년부터 1876년에 이르기까지 1·2차에 걸쳐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移安에 둘러싼 대승사와 부석사간의 소송과 관계된 문서이다. 조선 후기 소송은 주로 山訟으로 불상과 관련된 소송문서로서는 거의 유일한 예이다.

[조성기]

○○初造成○○」康熙十四年月日」證明比丘宗現」佛母比丘禪宗」緣化比丘清徹」大施主金就遠」黃金施主李姓名」造成于慶尙北道」○興郡太白山浮石」同治己巳年月日」移安于慶北道」聞慶郡大乘寺」

改金佛事緣起」大正元年壬子八月二十二日(陰曆」七月十日)改金于」慶尙北道聞慶郡」四佛山大乘寺」證明」慧翁昶宥」雪翁鎬鼎」然翁時煥」誦呪」練雲象玩」德峯大仁」持殿」大庵仁雨」華應就正」梵山東杓」龍船景玆」奉齋」侑宗」金魚」影雲徹律」煥月尙休」退耕相老」龍船景玆」海城昌昕」梵雲允衍」六洲仁澤」大炯」昌浩」大興」鎭閒」明洙」景旻」珠經」鍾頭」敬造」昌奎」茶角」景舜」南植」供司」蓮秀」慧照」別供」明宣」性林」有燮」淨人」張鳳漢」明培」金炳翼」鄭大用」裴聖模」別座」侑眞」都監」月波兌永」獨辦大施主」乾命朴廷澤」坤命孔氏」長子 仁

5) 이용윤,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 관한 연구」,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문경시, 재) 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pp.122-123.

默」次子 元默」化主清信女李氏福德月」時住持 退耕相老」山中時住大衆」共 八十二員」

○ 문헌자료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학술조사보고서」, 문경시·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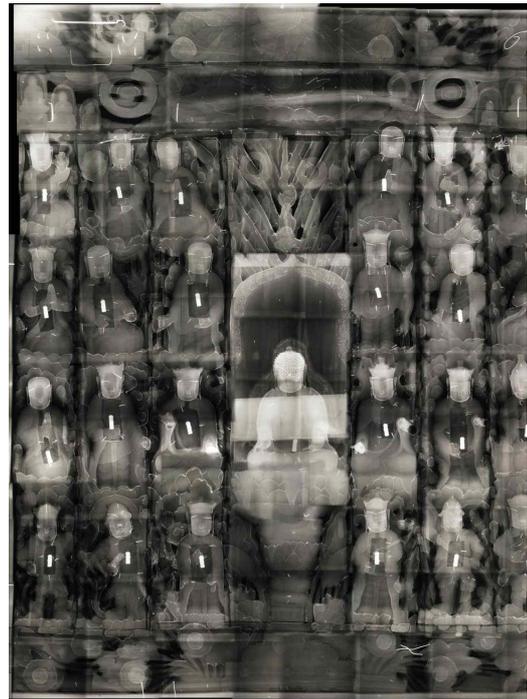


그림 1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1675년, 346.9x278.9

그림 2 X-RAY 촬영

□

위치 배열순(안①→밖③)	존명	상높이	최대폭
	규격단위(cm)		
중앙	아미타여래	62.6	46.1
좌1단①	문수보살	61.0	26.4
우1단①	보현보살	61.3	21.5
좌1단②	동방제두뢰천왕	61.0	33.9
우1단②	남방비루룩차천왕	57.6	33.9
좌1단③	북방비사문천왕	63.0	39.1
우1단③	서방비루박차천왕	60.3	28.6

좌2단①	관세음보살	51.0	35.5
우2단①	세지보살	55.3	36.1
좌2단②	금강장보살	66.2	27.1
우2단②	제장애보살	67.8	33.9
좌2단③	가섭존자	59.0	33.9
우2단③	아난존자	51.7	28.6
좌3단①	미륵보살	63.0	30.8
우3단①	지장보살	56.9	36.3
좌3단②	사리불존자	50.0	29.5
우3단②	목건련존자	55.8	29.9
좌3단③	대범천왕	54.7	34.6
우3단③	제석천왕	60.2	27.0
좌4단①	부루나존자	54.2	30.8
우4단①	수보리존자	52.8	33.6
좌4단②	일광천자	49.2	24.1
우4단②	월광천자	56.1	26.8
좌4단③	난타용왕	58.2	33.9
우4단③	발난타용왕	47.6	27.7

畫記欄: 백록색의 외곽틀 상·하단에 3개의 괘와 근자, 움자를 그리고, 아래 틀에는 붉은 색으로 일부를 덧칠해 그 위에 불상의 제작시기, 개금불사와 이안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다. 그리고 덧칠해 적은 화기 아래에도 또 다른 명문이 확인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1】

○ 현상 및 특징

문경 대승사 대웅전에는 가운데 높은 불단 위 삼존상 뒤에 액자형식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봉안되어 있다. 후불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 존상들은 높은 부조(浮彫)로 조각되어 있다. 화면은 크게 상중하의 3부분으로, 맨 아래는 9품 연지의 구품왕생장면을 나타내었고, 중단은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제보살과 청중들이, 상단은 천공을 표현하였다. 그중에서도 중단의 불보살과 청중들은 가운데 본존을 중심으로 양측 각각 3인씩 4단으로 서로 대칭되게 배치되어 있다. 불보살과 청중들은 본존을 향해 앉았으며, 시점이 본존으로 모아지는 구도로 공간의 깊이감이 느껴진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각 존상 옆에 방제란(傍題欄)을 두고 존명을

적어 도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있다.

아미타여래설법상의 내용을 보면 화면 중앙부는 맨 아래 9품 연지(蓮池)로 부터 쪽 뻗어 올라온 연화대좌 위에 아미타여래가 결가부좌의 자세로 하품중생인을 결하여 앉아 있다. 본존 곁에는 8명의 팔대보살이 둘러싸고 있는데 본존 좌우에는 연화좌에 앉아 연 가지를 든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있다(좌2단①, 우2단①). 관음보살은 정병이 놓인 연꽃가지를 들고 있으며, 대세지보살은 보협인이 놓인 연꽃가지를 들고 있다.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의 각각 아래에 문수보살(좌1단①)과 보현보살(우1단①)이 여의와 연봉 가지를 들고 있다. 관음보살(좌2단①)과 대세지보살(우2단①) 옆에는 금강장보살(좌2단②)과 제장애보살(우2단②)이 있는데 금강장보살은 오른손에 지물인 금강검을 잡고 왼손에 보주를 들고 있으며, 제장애보살은 지물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광배 좌우에 서 있는 보살은 미륵보살(좌3단①)과 지장보살(우3단①)이다. 미륵보살은 왼손에 연꽃, 오른손에 구슬을 쥐고 있으며, 대칭되는 위치의 지장보살은 오른손에 석장을 잡고 왼손은 보주를 쥐고 있다. 팔대보살 중 본존 좌우 협시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2구만 좌상이며, 그외 보살은 입상으로 구성되어 아미타삼존의 도상적 성격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팔대보살 주변에는 십대제자 중 여섯 제자가 본존을 향해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있다. 노인 모습의 가섭은 정수리가 높이 솟아 있으며, 왼쪽 손등을 바깥으로 하여 모아 권 손을 가슴 앞에 들고 있다(좌2단③), 이와 대칭 위치의 아난은 젊은 승려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어 두 손을 합장하였다(우2단③). 미륵보살 곁의 사리불존자(좌3단②)와 지장보살 곁의 목건련존자(우3단②)는 양손에 불자를 들고 있으며 상단에 있는 부루나존자와 수보리존자는 합장을 하고 있다(좌4단①, 우4단①). 사리불존자와 목건련존자 좌우에는 천의를 솔처럼 걸친 대범천왕과 제석천왕이 합장을 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좌3단③, 우3단③). 부루나존자와 수보리존자 옆에는 원류관을 쓴 제왕 모습의 인물이 서 있는데 이중 복숭아 가지를 든 인물이 월광천자이며(우4단②), 명문이 없는 화반을 든 인물은 일광천자로 추정된다(좌4단②). 일광과 월광 천자 옆으로는 각각 용을 타고 있는 난타용왕(좌4단③)과 여의주를 든 발난타용왕이 있다(우4단③). 설법회 장면 하단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곁으로 사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왼편에는 검을 든 동방제두뢰천왕(좌1단②)과 존명이 없지만 비파를 든 북방비사문천왕이(좌1단③), 오른편에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비루특차천왕(우1단②)과 당과 보주를 든 서방비루박차천이 서있다(우1단③).

화면의 최상단은 천공, 하단은 극락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천공은 장엄의 공간으로 천개아래에는 과거불인 ‘第一毘婆尸佛’의 존명이 적혀있고, 악기를 든 주악천, 설법을 듣기 위해 구름을 타고 오는 타방불과 과거칠불 등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하단은 극락세계에 구품왕생의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미타여래가 앉은 9층의 연화대좌는 화병으로 부터 뻗어 나온 연 가지와 그 끝에 만개한 연꽃이 하나씩 피어 있는데 가운데의 ‘상품상(上品上)’을 중심으로 좌우의 바깥으로부터 ‘하품하(下

品下), ‘하품중(下品中), ‘하품상(下品上), ‘중품하(中品下), ‘중품중(中品中), ‘상품하(上品下), ‘상품중(上品中)’의 구품왕생을 상징하는 글자가 적혀있다. 아미타여래의 대좌는 그 외에도 시간과 방위를 의미하는 명문도 보이는데 맨 아래 방형 기단의 안상에는 가운데 ‘오지(午地)’와 좌우로는 ‘사지(巳地)’와 ‘미지(未地)’가 적혀 있으며, 그 위로는 좌(향우)로부터 우(향좌)로 ‘목방(木方), ‘ 적방(赤方), ‘수방(水方)’ 다시 그 위로 ‘지륜(地輪), ‘화륜(火輪), ‘수륜(水輪), 맨 위에 ‘진시(辰時), ‘사시(巳時), ‘오시(午時), “ 미시(未時), ‘갑시(甲時)’가 적혀 있다.

아미타여래설법상의 제상들은 얼굴, 신체비례 등의 표현이 대동소이하다. 본존의 아미타여래좌상은 머리와 가슴을 앞으로 숙여 아래를 굽어보는 모습으로 어깨와 다리가 이루는 비례가 좋아 안정감이 있다. 방형의 작은 얼굴에 가늘고 긴 눈, 이마로부터 돌출된 듯한 오뚝한 코, 좁은 인중선, 가늘고 긴 입술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인상은 독특한데 이 얼굴은 1684년 단응과 탁밀이 조성한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닮았다. 오른쪽 어깨에는 내의를 입고 그 위에 다시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어 대의를 돌려 입었으며, 끝단은 물결모양으로 처리되어 있다. 가슴아래 입은 승각기는 접혀진 곳이 볼록하게 올라와 입체적으로 보이며, 배 앞으로는 두 개의 대칭되는 옷자락의 아래가 넓게 벌어져 W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탁밀의 의성 대곡사 대웅전 보살상(1694)의 표현과도 닮아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이 유파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다리를 덮은 옷자락은 대좌를 덮어 상현좌형식을 이루며, 가운데와 양측은 길고 뾰족한 삼각형의 구불구불한 옷자락으로 모양을 낸 것도 특징적이다.

입상은 좌상과 신체 높이가 거의 비슷하며, 머리가 크고 신체가 짧은 단구형으로 이는 조선후기 입상의 보편적인 표현방법이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무릎을 꿇어앉은 좌상의 표현이 매우 좋은 편인데 안쪽 상보다 바깥 쪽 상의 무릎 높이를 좀 더 높였으며, 자세와 방향도 유연하고 자유로와 사실감과 공간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외곽틀에 적힌 화기에는 康熙14年(1675) 조성연대만 기록되어 있지만 얼굴표현과 독특한 인상, 배 앞에 W자형으로 벌어진 옷자락과 상현좌를 이루는 3개의 뾰족하고 구불구불한 옷자락 역시 단응과 탁밀이 조성한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684)에서도 보인다. 또한 증명을 맡은 종현(宗現) 역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조성에서 증명을 맡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그 외에도 두 번의 화재로 불타 없어졌지만 이전의 외곽틀은 좌우 기둥에 각 3개의 괘 사이에 각각 문구를 배치하는 방식도 예전의 자료로 확인되어 대승사 목각아미타설법상의 조성자가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조성자 같은 유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단응과 탁밀은 1665년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 조성이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사례이며, 1692년 서귀포 영조사(永照寺) 목조아미타삼존불감조성까지 두 조각승의 활동은 이어졌다.

표1. 단응·탁밀의 불상조성활동

봉안처	연대	참여화승
金泉 直指寺 塑造四天王坐像	1665년	○○, 卓密, 敬遠, 思遠 法淸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1675년	端應, 卓密, ...
醴泉 龍門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木造阿彌陀幀	1684년	端應, 卓密, 學崙, 法淸, 坦性 義禪, 體元, 學坦, 太敏
安東 鳳凰寺 木造三方佛坐像	1692년	丹應, 卓密, 德崙, 寶雄, 裕特 尙念, 就英, 就還, 坦玉, 進念 宗印, 瑞崙, 道允, 琢璘, 廣什
西歸浦 永照寺 木造阿彌陀三尊佛龕	1692년	端應, 卓密 普雄 宗印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단응과 탁밀이 조성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684), 이들 유과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8세기 말)과 비교하여 사실감과 입체감 등 작품의 완성도가 높고, 불보살과 청중결에 방제란을 두어 알기 쉽게 도해하여 조각으로서 후불화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는 단응과 탁밀의 실험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참고 1】

〈적외선 촬영의 명문〉	〈개금불사와 이안기〉
「□□初造成□□ 康熙十四年月 日 證明比丘 宗現 佛母比丘 禪宗 緣化比丘 淸徹 大施主 金就遠 黃金施主李姓名 造成于慶尙北道 □興郡太白山浮石 □ 同治己巳年月日 移安于慶北道 聞慶郡大乘寺」	「改金佛事緣起 大正元年壬子八 月二十二日(陰曆 七月十日)改金于 慶尙北道聞慶郡 四佛山大乘寺 證明 慧翁昶宥 雪翁鎬鼎 然翁時煥 誦呪 練雲象玩 德峯大仁 持殿 大庵仁雨 華應就正 梵山東杓 龍般景玆 奉齋 侑宗 金魚 影雲徹律

	<p> 煥月尙休 退耕相老 龍般景玆 海城昌昕 楚雲允衍 六洲仁澤 大炯 昌浩 大興 鎮閒 明洙 景昨 珠經 敬照 昌奎 景舜 南植 蓮秀 慧照 明宣 性林 有變 張鳳漢 金炳翼 鄭大用 裴聖模 侑眞 月波兌永 乾命朴廷澤 坤命孔氏 長子仁默 次子元默 李氏福德月 退耕相老 大衆 共八十二員」 </p>
鍾頭	
茶甬	
供司	
別供	
淨人	
明培	
別座	
都監	
獨辦大施主	
化主清信女	
時住持	
山中時住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7-04-002

2. 선종영가집(언해)(禪宗永嘉集(諺解))

가. 심의사항

‘선종영가집(언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로부터 ‘선종영가집(언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3.4.2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8.25)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2017년 3차 회의(6.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6.29~'17.7.2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선종영가집(언해)(禪宗永嘉集(諺解))
- 소유자 : 김병구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남구
- 수 량 : 4책(상, 하)
- 규 격 : 半郭 20.7×15.3(30.8×21.0) (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조성연대 : 1464년(세조 10)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김병구소장 선종영가집(언해)는 세조 10년(1464) 경에 간경도감에서 인출한 초인본으로 인정된다. 권수면에 「교정(校正)」 인이 날인된 초인본으로, 4장의 결락이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같은 책 중에서 최고의 선본(善本)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한글 창제의 초창기에 인출된 관계로 초기의 한글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그리고 불교학 연구와 서지학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국가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대상본은 「校正」 인이 찍힌 간경도감본 『선종영가집』 초인본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것으로는 가장 선본이라고 하겠다. 또한 한글 창제 초기의 한글 연구에 도움을 주는 국어학분야의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불교학과 서지학연구에도 큰 도움을 주는 유산이다. 응당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선종영가집』 (언해본)은 세조(世祖)가 친히 구결(口訣)을 달고 신미(信眉) 등이 국역한 책으로 1464년(세조 10)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된 것이다.

조사본은 권수 상단에 있는 방형주인(方形朱印)의 ‘교정(校正)’을 통하여 1464년 당시 간경도감(刊經都監)의 교정을 거친 초간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문과 주해에 사용된 언해는 훈민정음 이후의 국어사 연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권하의 말미에 수록된 함허당설의(涵虛堂說義)의 끝부분에 4장의 낙장이 있고, 표지가 최근에 개장된 점은 있으나 본문의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상태로

보아 상하 2책으로 장책되었던 것을 근래에 분책하여 4책으로 장책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3책의 권수제면의 우측 난외에는 이암(頤菴)이라는 목서가 있다.

○ 내용 및 특징

禪宗永嘉集(諺解) / 玄覺(唐) 著; 行靖(宋) 註; 淨源(晉) 科門; 信眉(朝鮮) 等 諺解
木板本 [漢城]: [刊經都監], [世祖 10(1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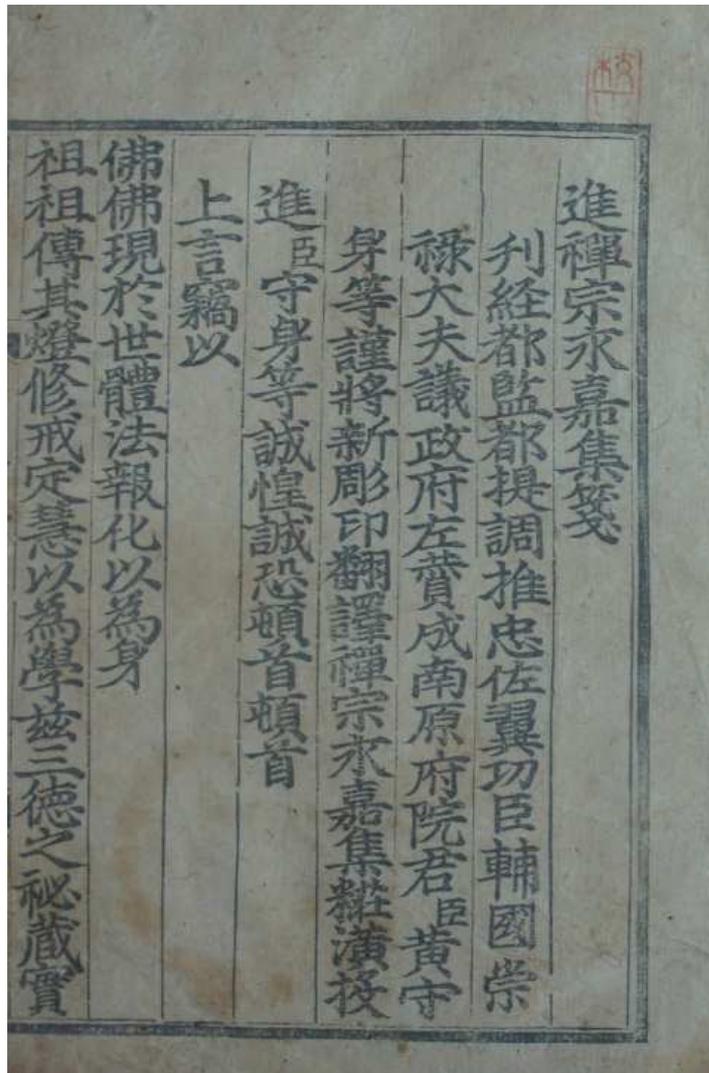
2卷4冊 : 四周雙邊 半郭 20.7×15.3cm, 有界, 8行19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8×21.0cm. 版心題: 永嘉集. 進箋: 天順八(1464)年…黃守身. 序: 魏靜. 印: 「校正」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은 불교의 핵심인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을 바탕으로 선정(禪定)에 들 때 유의할 점과 수행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구성은 모도지의(慕道志儀), 계교사의(戒橋奢意), 정수삼업(淨修三業), 사마지송(奢摩池頌),毗婆舍那(毗婆舍那頌),우필차송(優畢叉頌),삼승점차(三乘漸次),사리불이(事理不二), 권우인서(勸友人書), 발원문(發願文)의 열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 난해자에 대한 석음(釋音)이 있다. 이어서 함허당찬송병서(涵虛堂讚頌并序), 함허당설의(涵虛堂說義) 등이 붙어 있다.

이 책은 당나라 영가(永嘉) 현각선사(玄覺禪師 : 647-713)의 원저에, 당나라 위정(魏靜)이 주를 달았고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단을 나눈 즉 과문(科門)을 한 것은 진(晉)의 정원(淨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우왕(禡王) 7년(1381)에 나옹 혜근의 제자인 환선(田禪)이 이방직(李邦直)에게 부탁하여 충주 청룡사(靑龍寺)에서 처음 간행하였는데 전본이 보물 제641호로 지정된 바 있다.

김병구소장 『선종영가집』은 세조가 구결(口訣)을 달고 신미(信眉:1403-1480) 등이 언해한 것을 효령대군 등의 감수를 받아 간경도감에서 세조 10년(1464)에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은 상품의 고정지(藁精紙)로 인쇄한 데다 보존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다. 게다가 제1책과 제3책 제1행 상단에 「校正」印이 찍혀 있어서, 간경도감의 초인본임을 알 수 있다.



김병구 소장본 선종영가집 제1책 권수의 校正印

지금까지 지정된 국가문화재로는 다음의 3종이 있다.

- ①보물 제774-1호, 동국대학교 소장본, 1984지정 : 권상- 세조 10년(1464)원간, 권하-연산군 1년(1495) 원각사후쇄본
- ②보물 제774-2호, 겹외사 소장, 2010지정 : 권하 78장이하 낙장
- ③보물 제1163호, 한글박물관 소장, 1993.지정 ; 연산군 1년(1495) 인출 권하 1책.

○ 문헌자료

장영길, (역주) 선종영가집언해. 상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7.
 제6차 동산분과위원회 회의록(2014.10.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대구광역시, 2013.4.
 남권희, 대상자료 조사의견서, 2012.



○ 현 상

대체로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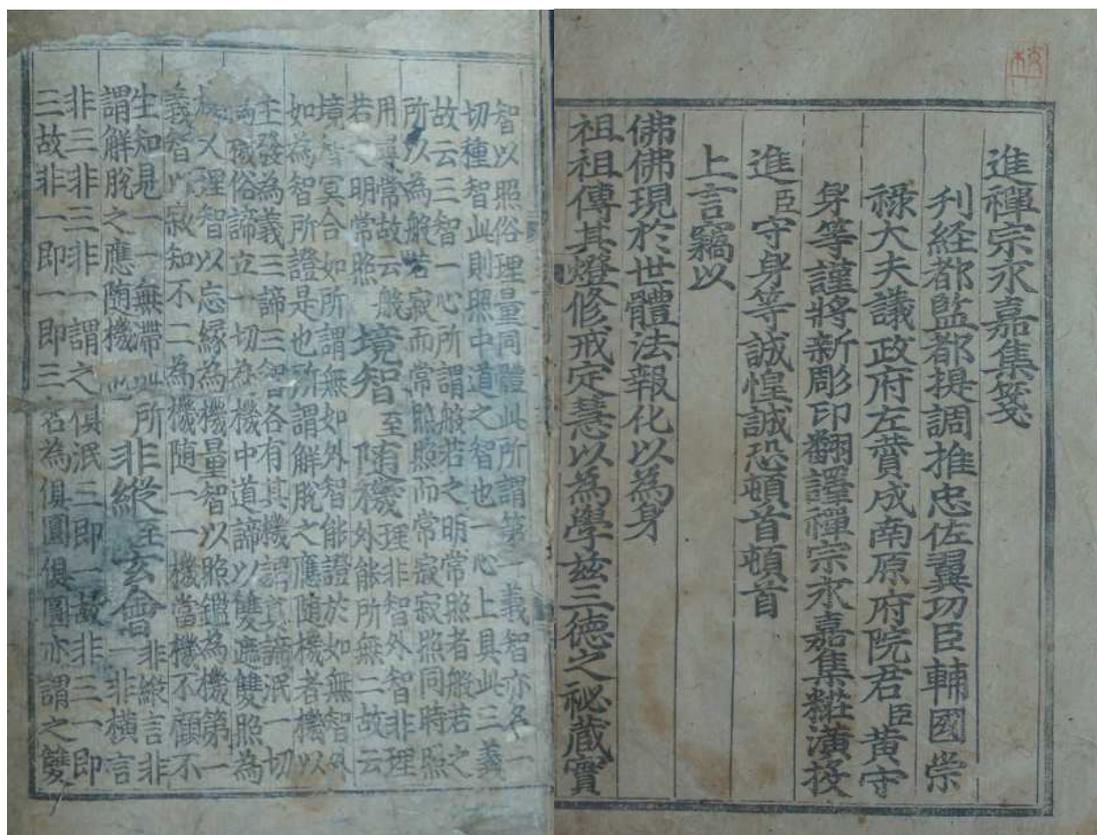
禪宗永嘉集(諺解) / 玄覺(唐) 著; 行靖(宋) 註; 淨源(晉) 科門; 信眉(朝鮮) 等 諺解
 木板本
 [漢城]: [刊經都監], [世祖 10(1464)]
 2卷4冊 : 四周雙邊 半郭 20.7×15.3cm, 有界, 8行19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8×21.0cm.
 版心題: 永嘉集
 進箋: 天順八(1464)年…黃守身
 序: 魏靜
 印: 「校正」

『선종영가집』은 당나라 영가(永嘉) 현각선사(玄覺禪師, 647~713)가 수행인의 입지와 수선의 요결에 대해 설명한 10편을 당나라 위정(魏靜)이 편집하여 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내용은 불교의 핵심인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을 바탕으로 선정에 들 때 유의할 일과 수행의 방법을 10문(十門)으로 나누어 간명하게 설명해 놓았다. 이후 송나라 때 행정(行靖)이 주석을 달고 정원(淨源, 1011~1088)이 항목별로 정리함으로써 선종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긴요하게 여기는 책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우왕 7년(1381)에 이방직(李邦直)이 나옹 혜근의 제자인 흰선(田禪)의 요청으로 충주 청룡사(靑龍寺)에서 처음 간행되었으며(보물 제641호), 조선시대 사찰에서 번각된 사찰본도 여럿 전한다.

조사대상의 이 책은 세조가 구결, 곧 현토를 달고 신미(信眉, 1403~1480) 등이 국역한 것을 효령대군과 고승들이 감수하여 세조 10년(1464)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언해본 『선종영가집』이다. 책머리에는 남원부원군 황수신(黃守身) 등이 올린 전문(箋文)과 봉교조조(奉敎雕造)에 참여한 인물들의 명단이 있다. 여기에는 황수신, 박원형, 조석문, 윤자운, 김수온, 원효연, 성임, 한계희, 강희맹, 노사신, 윤찬, 안관후, 김달전, 남륜, 권감, 이원효, 조지, 김영견, 최호, 김계창 등 20명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이어 『선종영가집』이라는 권수제 아래에 위정이 지은 선종영가집서(모두 17장)에 이어 본문이 시작된다. 본문은 「慕道志儀」, 「戒憍奢意」, 「淨修三業」, 「奢摩池頌」, 「毗婆舍那頌」(이상 권상), 「優畢叉頌」, 「三乘漸次」, 「事理不二」, 「勸友人書」, 「發願文」(이상 권하) 등에 대해 차례로 설명한 뒤 끝으로 석음(釋音)이 있다. 이어 함허당찬송병서(涵虛堂讚頌并序), 함허당설의(涵虛堂說義) 등이 붙어 있다. 본문은 한글로 토를 달았고, 국역부분의 한글에는 방점을

찍어놓았다. 굵고 가장 큰 자는 본문이고, 한 자 낮은 중간자는 행정의 주석이다. 정원의 과문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몇 글자에 불과하다.

김병구 소장의 이 책은 상품의 고정지(藁精紙)에 인쇄되었으며, 인쇄 및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간경도감의 초인본임을 나타내는 증거로 제1책과 제3책 제1행 상단에 「校正」印이 찍혀 있다. 상하권 각각 2책(모두 4책)으로 개장되었으나 손상된 부분을 보면 처음 상하 2책으로 장책되어 있었던 것을 근자에 4책으로 분책한 것으로 보인다. 권하 제1-2장의 상하부에는 손상이 있으며, 10여장까지 윗부분에 누습의 흔적이 있다. 또 개장할 때 상하를 절단함으로써 옛날 소장자가 적어놓은 목서가 약간 잘려나간 점이 아쉽다. 상하 2권은 제1책은 진선종영가집전 3장, 붕교조조(명단) 2장, 권상의 제1-48장, 제2책은 권상의 제49-120장, 제3책은 권하의 제1-37장, 제4책은 권하의 제38-149장, 함허당찬송병서(제1-3장), 함허당설의(제4-8장; 제4-12장 중에서 제9-12장 등 4장 결락)으로 나누어 장책되어 있다. 이중에서 득통 기화(得通 己和, 1376~1433)의 함허당설의 중에서 제9-12장 등 4장이 결락된 점이 아쉽다. 제3책의 권수제면 우측 란외에는 「頤菴」이라는 목서가 있는데 옛 소장자로 생각된다.



<권하의 마지막 장(이하 4장 결락)>

<제1책의 「校正」印>

현재 간경도감본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몇 종이 있다. 이중에서 동국대학

교 소장(1984.05.30.지정)의 보물 제774-1호는 권상은 세조 10년(1464)에 인쇄한 원간본이나 권하는 연산군 1년(1495)에 정현대비가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각사에서 인쇄한 후쇄본의 합질이다. 또 겹외사 소장(2010.12.21.지정)의 보물 제774-2호는 권하의 78장부터 결락되었고, 한글박물관 소장의 보물 제1163호(1993.06.15.지정)는 연산군 1년(1495)에 후인된 권하의 1책이다. 이외에도 호림박물관 소장의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76호(2015.06.18.지정)는 상하권 2책이지만 결락된 판본이다. 이렇게 김병구 소장의 간경도감본 『선종영가집』 2권4책은 완전성 측면에서 볼 때 현재까지 전하는 동일 판본 중에서 최고의 선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의 이 책은 권하의 말미에 있는 함허당설의의 제9-12장 등 4장이 결락되긴 하였으나 상하권을 거의 모두 갖춘 간경도감본으로 보존상태도 거의 완전하다. 이렇게 조사대상본은 「校正」印이 찍힌 간경도감본 『선종영가집』이며, 현재까지 공개된 것으로는 가장 선본이라고 하겠다. 또한 한글 창제 초기의 한글 연구에 도움을 주는 국어학분야의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불교학과 서지학연구에도 큰 도움을 주는 유산이다. 응당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헌자료

제6차 동산분과위원회 회의록(2014.10.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대구광역시, 2013.4.

남권희, 대상자료 조사의견서, 2012.

이미령, “선종영가집언해 연구 : 국어 표기법과 어휘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08.

□

○ 현 상

조사본 『선종영가집』 (언해본)은 개장되었다. 본문은 전체적으로 열화가 진행되었고, 일부 누습의 흔적이 있다. 접힘, 마멸, 찢김 등 훼손으로 인하여 본문의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보이나 전체적으로 인출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書誌事項

四周雙邊, 半郭 20.7×15.3cm, 有界, 半葉 8行19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大黑口. 板心題; 永嘉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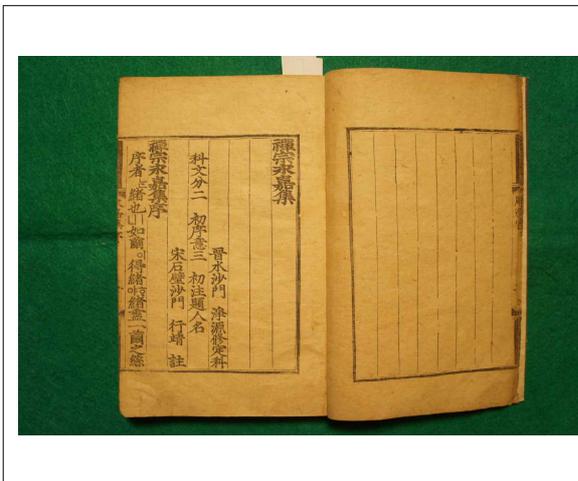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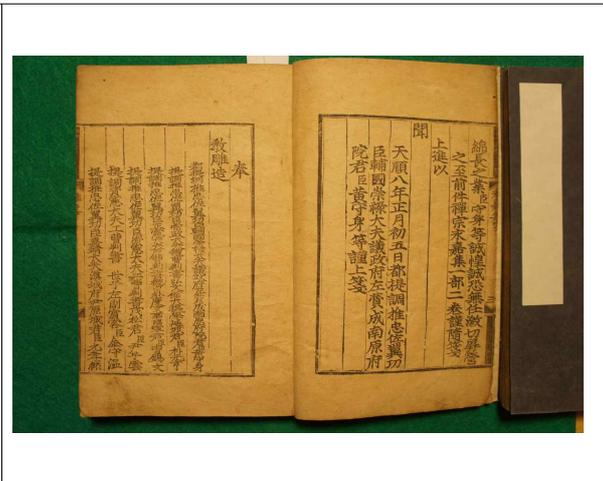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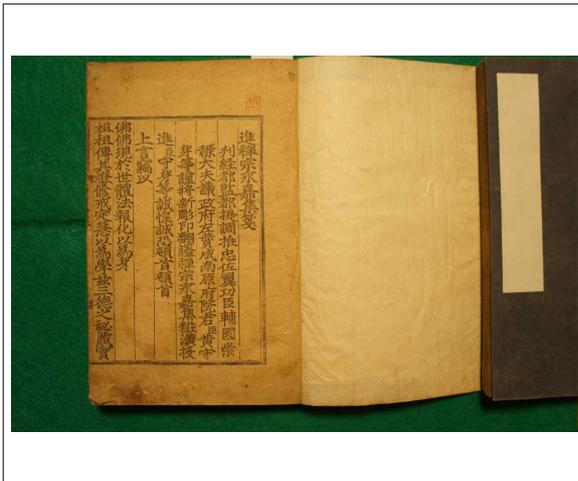
刊記 : 天順八年(1464)正月初五日部提調推忠佐翼功臣輔國崇祿大夫議 政府左贊成南

原府院君臣黃守身等謹上箋



『선종영가집』(언해본)은 중국 당의 영가 현각(永嘉玄覺) 선사가 수선(修禪)의 요결(要訣)을 찬술한 것으로, 중국 송의 행정(行靖)이 주해(註解)하고 정원(淨源)이 수정하여 항목별로 정리한 과(科)를 단 것을, 세조(世祖)가 친히 구결(口訣)을 달고 신미(信眉) 등이 국역한 것이다. 그 내용은 모도지의(慕道志義) · 계교사의(戒奢意) · 정수삼업(淨脩三業) · 사마타송(奢摩他頌) · 비바사나(毗婆舍那) · 우필차송(優畢叉頌) · 삼승점차(三乘漸次) · 이사불이(理事不二) · 권우인서(勸友人書) · 발원문(發願文) 등 모두 10개의 문(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간본은 1464년(세조 10)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상, 하 2책으로 간행된 것이다.

조사본 『선종영가집』(언해본)은 모두 4책으로 권상(卷上) 2책, 권하(卷下)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상-1에는 집전(集箋) 장(張)1~3, 봉교(奉敎) 조조문(彫造文) 장(張)1~2, 서(序) 장(張)1~17, 본문(本文) 장(張)1~48 까지 수록되었고, 권상-2에는 본문(本文) 장(張)49~120 까지 들어 있다. 권하-1에는 본문(本文) 장(張)1~77, 권하-2에는 본문(本文) 장(張)78~148, 석음(釋陰) 장(張)149, 함허당(涵虛堂)의 찬송병서(讚頌并序) 장(張)1~10, 함허당설의(涵虛堂說義)로 되어 있는데 끝부분 일부는 훼손되었다.



조사본은 본문을 굵은 대자(大字)로 새겨 넣었고, 송의 행정(行靖)이 주해(註解)한 내용은 본문보다 한 글자를 아래로 내려 중자(中字)로 하였다. 본문과 언해는 1행 19자, 주해와 언해는 1행 18자로 되어 있다. 변란은 사주쌍변(四周雙邊)이며, 반곽(半郭)은 20.7×15.3cm이다. 판심은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로 상하에 대흑

구(大黒口)가 있으며 판심제(板心題)는 영가집(永嘉集)이다.

한편, 권상-1과 권하-1의 권수 상단에는 방형주인(方形朱印)의 ‘교정(校正)’이 확인된다. 이를 통하여 조사본이 1464년 당시 간경도감(刊經都監)의 교정을 거친 언해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권하-1의 권수 하단 변란 밖으로 원소장자로 추정되는 ‘이암(頤菴)’이라는 묵서명과 수결이 있는데, 이는 상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상권과 하권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하여 수집되었던 정황을 보여준다.

○ 문헌자료

보물 제774호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권상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1984.05.30 지정)

3. 자치통감 권57~60(資治通鑑 卷五十七~六十)

가. 심의사항

‘자치통감 권57~60’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로부터 ‘자치통감 권57~60’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2.13.)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6.5.11)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2017년 3차 회의(6.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6.29~’17.7.2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자치통감 권57~60(資治通鑑 卷五十七~六十)
- 소유자 : 김응규(金應圭)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 량 : 4권 1책
- 규 격 : 36.5×24.3(반곽 27.8×19.9)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조성연대 : 1436년(세종 18)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취정사 소장의 『자치통감』 1책은 294권 100책 중의 영본 1책(권57-60)이

다. 그러나 세종 18년(1436)에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금속 활자본으로 조선초기의 출판 인쇄와 서지학분야에 가치가 있는 책이다. 더욱이 현재 동일 판본의 전본이 드물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司馬光의 「資治通鑑」은 政治와 軍事의 敘述을 爲主로 統治者에게 國家의 治亂興亡의 借鑑을 提供하는 것이 目的이었던 만큼, 朝鮮에서도 國家의 經營에 絶對적으로 필요한 書籍이었다.

調査本 「資治通鑑」은 世宗이 景福宮의 思政殿에서 名臣·學者들의 訓義와 校勘을 거쳐 「資治通鑑」의 編纂을 完了하고 柳義孫(1398~1450)의 序文을 붙여 世宗 18(1436)년에 初鑄甲寅字로 刊行하여 京外에 配布하였던 版本이다. 世宗朝에 鑄字所에서 初鑄甲寅字로 刊行된 「資治通鑑」의 版本은 國立中央圖書館·奎章閣 등에 所藏되고 있으나 그 傳本이 매우 稀貴한 版本이다.

調査本 「資治通鑑」은 歷史學·政治學·行政學·書誌學 등의 研究에 貴重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朝鮮時代 初期의 金屬活字印刷術研究에 크게 이바지될 수 있을 資料이다.

따라서 調査本 「資治通鑑」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價値가 充分한 것으로 判斷된다.

※근거 기준

調査本과 同一한 版本의 「資治通鑑」이 寶物 第1281號로 指定되어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자치통감』은 1434년(세종 16)년에 편찬에 착수하여 1436년(세종 18)에 완료된 세종 18(1436)년에 편찬이 완료된 총 294권 가운데 권57~60의 4권 1책본이다. 주자소에서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자치통감』의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등에 소장되고 있으나, 전해지는 내용과 수량이 많지 않아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조사본 『자치통감』 권57~60의 4권 1책은 기지정된 자료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초주갑인자 판본을 보완하고 있으며, 전해지는 것이 많지 않은 희귀본으로 정치학, 행정학 및 서지학 등의 역사적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資治通鑑」은 중국 北宋의 司馬光(1019~1086)이 역대의 史實을 밝혀 정치의 規範

으로 삼고 王朝의 興亡盛衰의 원인과 대의명분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1065년부터 1084년까지 편찬한 編年體 역사서로, 戰國時代 周나라 威烈王 23년(BC 403)부터 五代 後周의 世宗 6년(960)에 이르기까지 1362년간의 중국 역사를 편년체로 편찬한 것이다.

조사본 「資治通鑑」은 조선 世宗이 여러 신하와 학자들에게 명하여 思政殿에서 訓義, 參校하게 하고 世宗이 친히 검토한 후, 柳義孫의 서문을 붙여 세종 18년(1436)에 주자소에서 初鑄甲寅字 294卷으로 간행한 판본으로 추정되는 휘귀본이다. 초주 갑인자본 「資治通鑑」 완질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 없으며, 이미 보물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등 4곳을 비롯 국립도서관, 서울대규장각등 몇몇 기관에 零本만 남아 있을 뿐이다. 특히 조사본은 기 지정된 보물과도 권수가 중복되지 않고 보존상태도 양호한 귀중본으로 조선 전기 歷史, 政治 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이며 印刷文化 및 書誌學 연구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資治通鑑」은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근거 기준

조사본과 동일한 初鑄甲寅字本 「資治通鑑」이 寶物 第1281-1, 第1281-2, 第1281-3, 第1281-4號로 指定되어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표지는 오래전에 개장되었으며, 누습으로 인한 얼룩이 전권의 하부에 있으나 나머지는 대체로 온전함.

○ 내용 및 특징

資治通鑑. 卷57-60 / 司馬光(宋) 奉勅撰 ; 思政殿 訓義

金屬活字本(甲寅字)

[世宗 18年(1436)]

4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郭 27.8 × 19.9 cm, 有界, 10行19字, 下向黑魚尾 ; 36.5 × 24.3cm

版心題: 通鑑

『자치통감』은 북송 시대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편찬한 중국의 역사서이다. 전국시대인 주나라 위열왕 23년(BC 403)부터 오대 후주 세종 현덕 6년(959)까지 수록되어 있다. 내용이 방대한 탓으로 후대 송나라의 주희(朱熹, 1130~1200)는 큰 제목으로 강(綱)을 따로 세우고 사실의 기사는 목(目)으로 구별하여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이라는 서명으로 다시 편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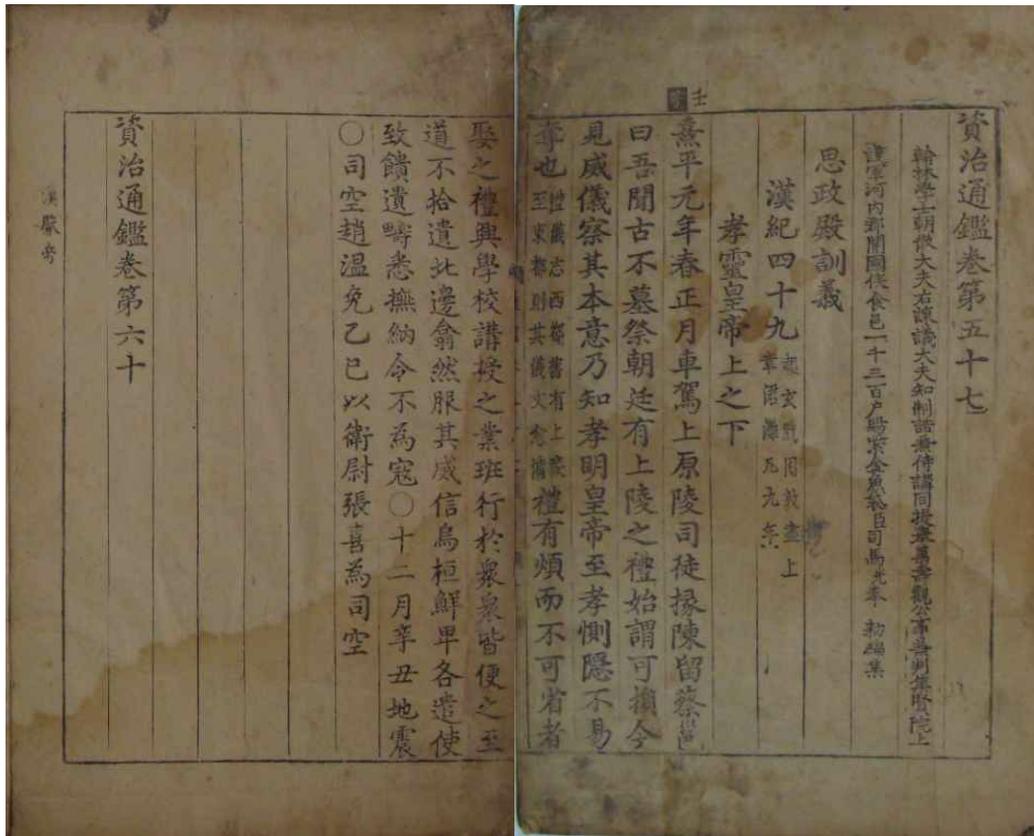
조선에서도 쉽게 이용하고자 중국의 인명, 지명, 고사에 대한 주석을 달게 된다. 곧 세종의 명을 받들어 윤희, 권도, 설순, 김말, 유의손 등 문신 40여명이 사마광의 『통감음주(通鑑音注)』, 『통감원위(通鑑源委)』, 『통감석의(通鑑釋義)』 등을 바탕으로 교정하고 가감하여 편찬하였던 것이다. 편찬이 끝나자 세종은 16년 7월 17일에 『자치통감』 인쇄에 소요되는 종이를 각도에 배정하는 등 물자를 준비토록 하였다. 드디어 18년(1436) 4월 4일에 주자소에서 갑인자를 사용하여 『자치통감』을 간행해내자 이를 대소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당시 1부는 294권 100책이었으며, 취정사 소장의 『자치통감』 권57-60의 1책은 이때 간행된 판본의 하나이다.

이 『자치통감』은 당시 역대의 중요한 주석서를 바탕으로, 경복궁 사정전에서 이 일을 하면서 주석을 교정 가감하였으므로 사마광의 『자치통감』과 구분하기 위해 『자치통감사정전훈의(資治通鑑思政殿訓義)』라는 서명으로도 일컫는다. “훈의”란 “뜻을 풀다.” 또는 “뜻을 설명한다.”는 의미이다. 훈의를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자치통감』이 중국의 역사기록이다 보니 중국의 인명, 지명을 비롯한 고사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읽을 때 발음과 글자의 뜻에 대한 풀이도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현전하는 동일한 판본으로는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양 원각사,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규장각, 서울역사박물관, 성주 회연서원, 울산박물관, 조동기(옛 성암고서박물관), 창녕 신흥사, 청주박물관, 화봉문고 등에 전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된 것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권236-238의 3권1책(제1281-1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권131-135, 246-250의 10권2책(제1281-2호), 고양 원각사 소장의 권193-195의 3권1책(제1281-3호), 울산박물관 소장의 권226-229의 4권1책(보물 제1281-4호) 등이다.

취정사 소장의 이 판본은 결락된 장은 없으며, 권57(26장), 권58(26장), 권59(30장),

권60(28장) 등 모두 110장이다. 아주 오래전에 개장한 흔적이 보이며, 권59의 제1장은 개장할 때 잘 맞추지 못한 탓에 다른 장과 높이의 차이가 있다. 비록 권57-60의 4권1책의 잔본에 불과하나, 조선 최고(最高)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본인데다 동일한 판본의 전본이 드물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권57(권수)와 권60(권미)

○ 문헌자료

오향령, “조선 세종대 《자치통감사정전훈의》와 《자치통감강목사정전훈의》의 편찬”, 『태동고전연구』 제15집, 1998

『세종실록』, 『국가기록유산』, 『문화재청』

□

○ 현 상

書誌記述 : 調査本「資治通鑑」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資治通鑑, 卷57~60 / 司馬光(1019~1086, 北宋) 奉勅編集 ; 思政殿(朝鮮) 訓義.
-- 金屬活字本(初鑄甲寅字). -- [漢城] : [鑄字所], [世宗 18(1436) 推定].
4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7.6×19.9cm, 界線, 10行19字 註雙行, 上下下向黑魚尾 ; 36.5×24.3cm. 楮紙. 線裝(五針眼訂).

卷首題: 資治通鑑

卷末題: 資治通鑑

版心題: 通鑑

內 容: -卷57; 漢紀49 孝靈皇帝上之下. -卷58; 漢紀50 孝靈皇帝中. -卷59; 漢紀51 孝靈皇帝下, 孝獻皇帝甲. -卷60; 漢紀52 孝獻皇帝乙.

狀 態: 一部の 面紙에 汚染의 흔적이 있으나 비교적 良好한 편임

所 藏: 鷲井寺(釜山廣域市 機張郡 日光面 上谷路 55)

傳來歷: 住持 金應圭스님의 恩師인 兩翼스님으로부터 傳해오는 文化財라 傳言함

既指定: 寶物 第1281號(卷236~238, 國立中央博物館), 寶物 第1281-2號(卷131~135, 卷246~250, 서울歷史博物館), 寶物 第1281-3號(卷193~195, 圓覺寺), 寶物 第1281-4號(권226~229, 蔚山博物館)

調査本「資治通鑑」은 중국 宋朝의 司馬光(1019~1086) 등이 元豐 7(1084)年에 編年體로 編纂한 中國의 通史를 底本으로 朝鮮 世宗(1397~1450)의 命으로 尹淮(1380~1436)·權蹈(1387~1445)·僕循(?~1435)·金沫(1383~1464)·柳義孫(1398~1450) 등 40여명의 文臣들이 司馬光의 「資治通鑑」에 「通鑑音注」·「通鑑源委」·「通鑑輯覽」·「通鑑釋義」 등의 歷代 主要 註釋書를 바탕으로 도합 294卷으로 訓義하고 校勘한 뒤 世宗 18(1436)年에 甲寅字의 金屬活字로 刊行한 版本 중 卷57~60의 4卷1冊이다. 本書의 編輯이 景福宮의 思政殿에서 행하여진 關係로 國王이 ‘思政殿訓義’로 賜名하여 ‘資治通鑑思政殿訓義’로 불리며, ‘思政殿訓義資治通鑑’ 또는 ‘通鑑訓義’라 別稱되기도 한다.

調査本「資治通鑑」은 釜山廣域市 機張郡 日光面 上谷路 55의 鷲井寺 住持인 金應圭스님의 恩師인 兩圭스님으로부터 傳해오는 文化財라 傳言되고 있다.

調査本「資治通鑑」의 保存現狀은 一部の 面紙에 汚染의 흔적이 있으나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要求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적 良好한 편이며, 현재 專門的 保存施設을 具備하지 못한 鷲井寺에 의하여 收藏·管理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資治通鑑」은 中國 北宋 中期의 政治家이며 史學家인 司馬光(1019~1086)이 皇命으로 治平 2(1065)년부터 元豐 7(1084)년까지 19년간에 걸쳐 編纂한 編年體의 歷史書

이다. 編纂者인 司馬光是 北宋의 政治家·學者로 자는 君實이고 號는 迂夫·迂叟 등이며, 諡號는 文正이다. 山西省 夏縣 涑水鄉 出身이라 ‘涑水先生’이라고도 하며, 死後에 ‘溫國公’에 封하여졌으므로 ‘司馬溫公’이라고도 한다. 寶元 2(1039)년에 進士에 及第하여 地方官을 두루 歷任한 뒤 嘉祐 6(1061)년에 起居舍人同知諫員에 轉職되고 神宗이 卽位하여 翰林學士에 任命하였으나, 駢文에 어둡다는 理由로 固辭하여 御史中丞이 되었다. 熙寧 3(1070)년에 神宗과 王安石(1021~1086)이 新法政治를 施行하자 이를 批判하고 舊法의 回復을 圖謀하다 失脚하여 洛陽에 隱遁하면서 神宗의 支援을 받아 前後 19년간에 걸쳐 『資治通鑑』 294권을 撰進하였다. 元祐 元(1086)년에 尙書左僕射兼門下侍郎에 起用되어 ‘元祐更化’를 主導하여 新法을 차례로 廢止함으로써 社會를 混亂에 빠뜨렸으나 執政한지 8개월 만에 卒去하였다. 溫公의 立場은 大地主와 大商人 등 保守勢力의 利益을 代辯하는 것이었으며, 死後에 新法黨에 의해 名譽가 剝奪되었다가 南宋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名譽가 回復되었다. 溫公은 治平 元(1064)년에 『春秋左氏傳』을 模倣하여 戰國과 秦代의 史實을 敘述한 『通志』 8卷을 撰進하였는데, 이를 擴大하여 編纂하라는 英宗의 皇命으로 이듬해(1065)부터 崇文院에 史局을 設置하고 國家의 積極的인 後援 아래 劉放(1023~1089)이 前漢과 後漢을, 劉恕(1032~1078)가 三國부터 南北朝까지를, 范祖禹(1041~1098)가 唐朝 및 五代를 각각 分擔·記述하여 着手한지 19년만인 元豐 7(1084)년에 戰國의 周 威烈王 23(BC 403)년에서 五代 後周의 顯德 6(959)년에 이르는 1,362년간의 歷事를 294卷으로 編年하여 撰進하였다. 編纂 當時까지의 正史는 물론 實錄·野史·小說·墓誌類 등 무려 322種의 各種 資料를 參考로 하여 『春秋左氏傳』의 書法에 따라 撰進되자, 神宗은 “지난 歷史를 거울삼아 治道에 도움이 되리라”는 意味에서 ‘資治通鑑’이라는 書名과 序文을 내렸다. 溫公이 『資治通鑑』을 撰述한 目的은 歷代의 史實을 밝혀 政治의 規範으로 삼고 王朝의 興亡盛衰의 原因과 大義名分을 밝히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史實을 있는 그대로 記述하지 않고 독특한 史觀으로 記事를 選擇하였으며, 政治나 人物의 得失을 評論하여 鑑戒가 될 만한 史蹟들을 주로 拾錄하였다. 또한 編年에 있어서도 三國의 경우에는 魏朝의 年號를, 南北朝의 경우에는 南朝의 年號로 각각 正統을 明示하였다. 특히 重要的 記事에는 ‘臣光曰’이라는 按語로 溫公 自身의 評論을 添加하고 있어, 溫公의 史觀을 뚜렷이 엿볼 수 있다. 史實의 眞僞與否에 대해서는 溫公 자신이 별도로 『通鑑考異』 30卷을 著述하여 史實의 考證에 參考가 되도록 하였으며, <通鑑目錄>과 <通鑑釋例>에는 目錄과 凡例가 잘 나타나 있다. 또한 溫公은 『稽古錄』을 著述하여 不足한 『資治通鑑』의 內容을 補充하고 있다. 『資治通鑑』은 魏朝로 紀年을 삼아 直筆한데 반해, 朱子(1130~1200)는 溫公의 이러한 史筆을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예를 들어 溫公은 삼국의 曹魏가 後漢을 繼承한 正統으로 認定하여 <魏紀>를 記述하였으나, 朱子は 溫公의 이러한 史觀을 問題로 여겨 昭烈帝(劉備)가 후한 獻帝를 이어 그 遺統을 繼承한 것으로 바로 잡아 『資治通鑑綱目』을 찬술하기도 하였다. 『資治通鑑』은 “天地間에 없어서는 안 될 書

籍인 동시에 學者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書籍”이라는 王鳴聲(1722~1797)의 評價처럼 學者들의 必讀書가 되면서 많은 註釋書가 編纂되었다. 그 중 劉安世(1048~1125)의 「資治通鑑音義」는 이미 失傳되었고, 比較的 完全한 狀態로 傳해지는 것이 南宋 史炤(1090~?)의 「資治通鑑釋文」과 王應麟(1223~1296)의 「通鑑地理通釋」이다. 그러나 「資治通鑑」에 대한 全面的인 註釋書는 宋末元初의 胡三省(1230~1302)의 「資治通鑑音註」이며, 이것이 通行本이다. 「資治通鑑」의 版本은 元代 以後로 거의 모든 版本이 胡三省의 註釋本이며, 祖本은 元祐年間に 刊行된 杭州刻本이나 이조차도 이미 失傳되고 紹興 2(1132)년에 余姚에서 刊行된 重刻本이 現存하고 있다.

한편, 調查本 「資治通鑑」은 朝鮮 世宗 16(1434)년에 王命으로 尹淮(1380~1436)·權韜(1387~1445)·薛循(?~1435) 등이 「通鑑源委」·「通鑑集覽」·「通鑑釋義」 등을 참고하여 「資治通鑑」의 難解한 곳에 註釋을 붙이는 것은 물론 金沫(1383~1464)·柳義孫(1398~1450)·李中允(?~?)·李師曾(1398~1464)·李季甸(1404~1459)·崔恒(1409~1474)·南季瑛(1415~?)·魚孝瞻(1405~1475)·姜孟卿(1410~1461)·閔媛(?~1458) 등에게 함께 參校하도록 하여 世宗이 친히 일일이 檢討한 후 도합 294卷으로 編纂을 完了한 바 있다.⁶⁾⁷⁾ 「資治通鑑」은 政治와 軍事의 敘述을 爲主로 統治者에게 國家의 治亂興亡의 借鑑을 提供하는 것이 目的이었던 만큼 朝鮮에서도 國家의 經營에 絶對的으로 必要한 書籍이었다.

調查本은 世宗 16(1434)년에 編纂에 着手한지 2년만인 世宗 18(1436)년에 編纂이 完了되자마자 柳義孫의 序文을 붙여 鑄字所로 하여금 初鑄甲寅字로 刊行하여 京外에 配布하였던 것으로 推定되는 版本의 卷57~60의 4卷1冊이다.

調查本 「資治通鑑」의 表題와 卷頭題 및 卷尾題는 ‘資治通鑑’이고 版心題는 ‘通鑑’이며, 版式의 邊欄은 四周單邊이다. 本文의 行字數는 10行19字이고 註文은 小字雙行이며 魚尾는 上下下向黑魚尾이다. 收錄內容은 卷57은 漢紀49(孝靈皇帝上之下)이고 卷58은 漢紀50(孝靈皇帝中)이며, 卷59는 漢紀51(孝靈皇帝下·孝獻皇帝甲)이고 卷60은 漢紀52(孝獻皇帝乙)이다.

世宗朝에 鑄字所에서 初鑄甲寅字로 刊行된 「資治通鑑」의 版本은 國立中央圖書館·奎章閣 등에 所藏되고 있으나 그 傳本이 매우 稀貴한 版本이며, 歷史學·政治學·行政學·書誌學 등의 研究에 貴重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朝鮮時代 初期의 金屬活字印刷術研究에도 크게 活用될 수 있을 資料이다.

따라서 調查本 「資治通鑑」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6) 春秋館 編, 「世宗實錄」, 世宗 16年 6月 26(辛未)日條.

召中樞院事尹淮·禮曹左參判權蹈·集賢殿副提學僕循等 會于集賢殿 考閱資治通鑑 其文義難曉之節 參究源委輯覽釋義 以至諸書 撰其所解 逐節附之 名之曰通鑑訓義 又選文臣集賢殿應教金末·校理柳義孫·右獻納李中允·前右獻納李師曾·集賢殿修撰李季甸·副修撰崔恒·吏曹佐郎南季瑛·世子左司經魚孝瞻·司憲監察姜孟卿·奉常錄事閔媛等參校 又以左承旨權孟孫兼掌之.

7) 春秋館 編, 「世宗實錄」, 世宗 16年 6月 26(辛未)日條.

召中樞院事尹淮·禮曹左參判權蹈·集賢殿副提學僕循等 會于集賢殿 考閱資治通鑑 其文義難曉之節 參究源委輯覽釋義 以至諸書 撰其所解 逐節附之 名之曰通鑑訓義 又選文臣集賢殿應教金末·校理柳義孫·右獻納李中允·前右獻納李師曾·集賢殿修撰李季甸·副修撰崔恒·吏曹佐郎南季瑛·世子左司經魚孝瞻·司憲監察姜孟卿·奉常錄事閔媛等參校 又以左承旨權孟孫兼掌之.

○ 지정사례

調査本과 同一한 版本의 『資治通鑑』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다음과 같다.

- 寶物 第1281號(卷236~238, 國立中央博物館)
- 寶物 第1281-2號(卷131~135·卷246~250, 서울歷史博物館)
- 寶物 第1281-3號(卷193~195, 圓覺寺)
- 寶物 第1281-4號(卷226~229, 蔚山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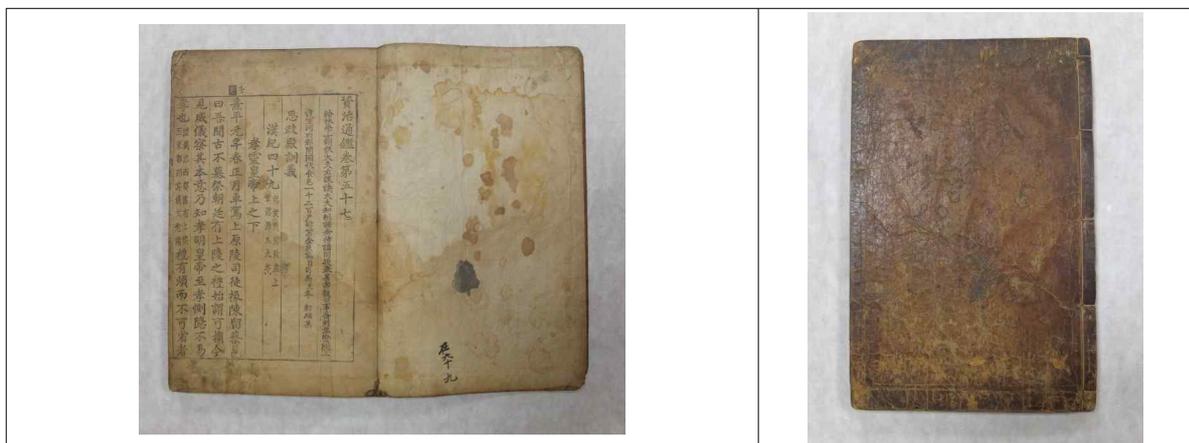
○ 문헌자료

- 서울歷史博物館 編, 『2010 洪斗善 寄贈遺物特別展』. 서울 : 서울歷史博物館 遺物管理課, 2010.
- 蔚山博物館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 調査報告書>(윤상기위원 조사보고서).蔚山 : 蔚山博物館, 2013.
- 문화재청 문화재검색(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m)

□

○ 현 상

조사본 『資治通鑑』은 전체적으로 열화가 진행되었고, 일부 누습 흔적과 오염 흔적 등이 보인다. 일부 장에 약간의 접힘, 마멸 등 손상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매우 좋다. 앞표지와 첫장의 상태로 보아 표지와 책사는 교체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내용 및 특징

書誌事項

資治通鑑 卷57~60 / 司馬光(1019-1086, 北宋) 奉勅編集 ; 思政殿(朝鮮) 訓義.

-- 金屬活字本(初鑄甲寅字). -- [漢城] : [鑄字所], [世宗 18(1436) 推定].

4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7.6×19.9cm, 界線, 10行19字 註雙行, 上下下向黑魚尾 ; 36.5×24.3cm. 楮紙. 線裝(五針眼訂).

卷首題: 資治通鑑

卷末題: 資治通鑑

版心題: 通鑑

조사본 『資治通鑑』은 중국 송의 사마광(司馬光, 1019~1086) 등이 원풍(元豐) 7년(1084)에 편년체로 간행한 중국의 통사를 저본으로 조선 세종의 명으로 윤희(尹淮, 1380~1436), 권도(權蹈, 1387~1445), 설순(偈循, ?~1435), 김말(金沫, 1383~1464), 류의손(柳義孫, 1398~1450) 등 40여명의 문신들이 사마광의 『資治通鑑』에 『통감음주(通鑑音注)』·『통감원위(通鑑源委)』·『통감집람(通鑑輯覽)』·『통감석의(通鑑釋義)』 등의 역대 주요 주석서를 바탕으로 총 294권으로 훈의(訓義)하고 교감한 뒤, 1436년(세종 18)년에 갑인자(甲寅字)로 간행한 판본 중 권57~60(4권 1책)이다. 이 책은 경복궁의 사정전(思政殿)에서 편집되었던 이유로 국왕이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라 이름하였고, ‘자치통감 사정전훈의(資治通鑑思政殿訓義)’ 또는 ‘사정전훈의 자치통감(思政殿訓義資治通鑑)’, ‘통감훈의(通鑑訓義)’라 부르기도 한다.

『자치통감』은 주(周) 위열왕(威烈王) 23년(BC403)에서 오대(五代) 후주(後周)의 현덕(顯德) 6년(959)에 이르는 1,362년간의 역사를 294권으로 간행한 책으로 편찬 당시까지의 정사는 물론 실록·야사 등 약 322종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서법(書法)에 따라 찬진되었다. 편년 사용은 삼국의 경우에는 위조(魏朝)의 연호를, 남북조의 경우에는 남조(南朝)의 연호로 각각 정통(正統)을 명시하였고, 중요한 기사에는 ‘신광왈(臣光曰)’이라는 안어(按語)로 사마광 자신의 평론을 첨가하고 있어 그의 역사관을 뚜렷이 살필 수 있다. 사실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사마광 자신이 별도로 『통감고이(通鑑考異)』 30권을 저술하여 사실의 고증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으며, 『계고록(稽古錄)』을 저술하여 부족한 『자치통감』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자치통감』은 학자들의 필독서가 되면서 많은 주석서가 편찬되었다. 그 중 유안세(劉安世, 1048~1125)의 『자치통감음의(資治通鑑音義)』는 이미 실전되었고, 비교적 완전한 상태로 전해지는 것이 남송 사소(史炤, 1090~?)의 『資治通鑑釋文(資治通鑑釋文)』과 왕응린(王應麟, 1223~1296)의 『통감지리통석(通鑑地理通釋)』이다. 그러나 『자치통감』에 대한 전면적인 주석서는 송말원초의 호삼성(胡三省, 1230~1302)의 『자치통감음주(資治通鑑音註)』로서 원대 이후의 대부분의 판본이 호삼성의 주석본이다.

조사본 『자치통감』은 1434년(세종 16)년에 편찬에 착수하여 1436년(세종

18)에 완료된 세종 18(1436)년에 편찬이 완료된 총 294권 가운데 권57~60의 4권 1책본이다. 표제와 권두제 및 권미제는 ‘資治通鑑’이고 판심제는 ‘通鑑’이며, 판식(版式)의 변란(邊欄)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다. 본문의 행자수는 10행 19자이고 주문은 소자쌍행(小字雙行)이며, 어미는 상하하향흑어미(上下下向黑魚尾)이다. 수록내용은 권57은 漢紀49(孝靈皇帝上之下)이고 권58은 漢紀50(孝靈皇帝中)이며, 권59는 漢紀51(孝靈皇帝下, 孝獻皇帝甲)이며 권60은 漢紀52(孝獻皇帝乙)이다. 세종대에 주자소(鑄字所)에서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된 『자치통감』의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등에 소장되고 있으나, 전해지는 내용과 수량이 많지 않아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 지정사례

조사본과 동일한 판본의 「자치통감」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보물 제1281호(권236~238, 국립중앙박물관, 1998.06.29 지정)
- 보물 제1281-2호(권131~135, 권246~250, 서울역사박물관, 2012.08.24 지정)
- 보물 제1281-3(권193~195, 원각사, 2012.12.27 지정)
- 보물 제1281-4호(권226~229, 울산박물관, 2015.04.22 지정)

□

○ 현 상

조사본 「資治通鑑」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취정사 住持 金應圭의 恩師인 兩翼 선사가 소장했던 여러 경전과 고서 중 하나로, 2007년 입적 후 제자인 김응규에게傳來되어 현재 취정사에서 소장, 관리하고 있다.

조사본 「資治通鑑」의 상태는 원래 표지가 망실되어 다른 고서의 표지를 사용해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장정한 것으로 보이며, 表題는 없고 본문의 면지에 부분적으로 누수로 인한 汚染의 흔적이 있으나 보존 상태는 비교적 良好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資治通鑑」은 중국 北宋의 司馬光(1019~1086)이 1065년부터 1084년까지 편찬한 編年體 역사서로 「通鑑」이라고도 한다. 戰國時代 周나라 威烈王 23년(BC 403)부터 五代 後周의 世宗 6년(960)에 이르기까지 1362년간의 중국 역사를 편년체로 편찬한 것이다. 全 294권.

원래 사마광은 治平 원년(1064)에 「春秋左氏傳」을 모방하여 戰國時代와 秦代의 史實을 서술한 「通志」 8卷을 英宗(재위:1064~1067)에게 헌상하였는데, 英宗 황제는 이것을 읽고 이를 擴大하여 編纂하라는 명을 내렸다. 다음해인 1065년부터 崇文院에 史局을 設置하고 사마광의 주재 하에 劉放(1023~1089)이 前後漢을, 劉恕(??)가 三國부터 南北朝까지를, 范祖禹(1041~1098)가 唐나라 및 五代를 각각 분담, 기술하여 착수한지 19년만인 元豐 7년(1084)에 전국시대 周나라 威烈王 23년(BC 403)부터 五代 後周의 世宗 6년(960)에 이르기까지 1362년간의 역사를 총 294卷으로 완성하였다. 英宗에 이어 등극한 神宗(재위:1068~1085)은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治道에 도움이 되리라”는 의미로 ‘資治通鑑’이라는 書名과 序文을 내렸다.

「資治通鑑」의 편찬을 위해 이용된 사료는 17史 등 正史는 물론 實錄, 野史, 文集, 小說, 墓誌類 등 300여종에 이르며, 서술방식은 「春秋左氏傳」을 따랐고 본문의 마지막에 史論을 덧붙였는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에는 ‘臣光曰’이라고 하여 사마광 자신의 평론을 가하고 있어 그의 사관을 엿볼 수 있다.

사마광이 「資治通鑑」을 찬술한 목적은 역대의 史實을 밝혀 정치의 규범으로 삼고 王朝의 興亡盛衰 원인과 대의명분을 밝히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고 독특한 史觀에 의하여 기사를 선택하고, 정치나 인물의 득실을 평론하여 鑑戒가 될 만한 사적을 많이 拾錄하였다. 편년에 있어서도 三國의 경우 魏나라의 연호를, 南北朝의 경우에는 南朝의 연호를 각각 써서 그것이 정통임을 명시하였다.

내용은 총 16紀, 294卷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周紀(권1~5) 5권, 秦紀(권6~8) 3권, 漢紀(권9~68) 60권, 魏紀(권69~78) 10권, 晉紀(권79~118) 40권, 宋紀(권119~134) 16권, 齊紀(권135~134) 10권, 梁紀(권145~166) 22권, 陳紀(권167~176) 10권, 隋紀(권177~184) 8권, 唐紀(권185~265) 81권, 後梁紀(권266~271) 6권, 後唐紀(권272~279) 8권, 後晉紀(권280~285) 6권, 後漢紀(권286~289) 4권, 後周紀(권290~294) 5권 등이다.

사마광은 「資治通鑑」 편찬과 함께 목록과 범례를 정리한 「資治通鑑目錄」과 史實의 고증에 참고가 되는 「資治通鑑考異」 30권도 찬집하였다.

「資治通鑑」의 초간본은 杭州에서 元祐 7년(1092)에 간행되었는데, 항주 초간본은 현재 전하지 않고 紹興 2년(1132)년에 余姚에서 간행된 판본이 현존하는 最古本이다. 「資治通鑑」은 “천지간에 없어서는 안 될 책인 동시에 학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는 王鳴聲(1722~1797)의 평가처럼 학자들의 필독서가 되면서 많은 註釋書가 편찬되었다. 그 중 劉安世(1048~1125)의 「資治通鑑音義」는 이미 逸失되었고,

비교적 완전한 상태로 전해지는 것이 南宋 史炤(1090~?)의 「資治通鑑釋文」과 王應麟(1223~1296)의 「通鑑地理通釋」이다. 그러나 「資治通鑑」에 대한 전면적인 註釋書는 宋末元初 胡三省(1230~1302)의 「資治通鑑音註」이며, 이것이 通行本으로 元代 이후 거의 모든 「資治通鑑」의 판본은 胡三省의 註釋本이다.

「資治通鑑」의 편찬자인 사마광은 중국 북송시대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이다. 字는 君實이고 號는 迂叟, 諡號는 文正이다. 陝州 夏縣(현 陝西) 涑水鄉 出身이라 涑水先生 이라고도 하며, 사후에 溫國公으로 봉해져서 司馬溫公으로도 불린다. 20세에 되던 해인 寶元 2년(1039)에 進士에 급제하여 地方官을 두루 歷任한 뒤 嘉祐 6년(1061)에 起居舍人同知諫員에 轉職되고 神宗이 즉위하여 翰林學士에 任命하였으나, 駢文에 어둡다는 이유로 고사하여 御史中丞이 되었다. 熙寧 3(1070)년에 神宗과 王安石(1021~1086)이 新法政治를 시행하자 이를 비판하고 舊法의 회복을 도모하다 실각하여 洛陽에 은둔하면서 19년간에 걸쳐 「資治通鑑」 294권을 撰進하였다. 哲宗(재위:1086~1099) 즉위 후인 元祐 1년(1086)에 尙書左僕射兼門下侍郎에 기용되어 ‘元祐更化’를 주도하였으나 執政한지 8개월 만에 사망하였다. 사후 新法黨에 의해 명예가 박탈되었다가 南宋代에 명예를 회복하였다.

조사본은 「資治通鑑」 전체 294권중 卷57~60까지의 4권1책으로 수록내용은, 권57에는 漢紀四十九(起玄默困敦盡上章涑灘凡九年): 孝靈皇帝上之下熹平元年 壬子(서기 172년) ~ 孝靈皇帝上之下光和三年 庚申(서기180년), 권58에는 漢紀五十(起重光作噩盡彊圉單闕凡七年): 孝靈皇帝中光和四年 辛酉(서기181년) ~ 孝靈皇帝中中平四年 丁卯(서기187년), 권59에는 漢紀五十一(起著雍執徐盡上章敦牂凡三年): 孝靈皇帝下中平五年 戊辰(서기188년) ~ 孝獻皇帝甲初平元年 庚午(서기190년), 권60에는 漢紀五十二(起重光協洽盡昭陽作噩凡三年): 孝獻皇帝乙初平二年 辛未(서기191년) ~ 孝獻皇帝乙初平四年 癸酉(서기193년)까지의 史實이 기술되어 있다.

初鑄甲寅字本 「資治通鑑」은 조선 世宗 16년(1434)에 왕명으로 尹淮(1380~ 1436), 權韜(1387~1445), 薛循(?~1435) 등이 「通鑑源委」, 「通鑑集覽」, 「通鑑釋義」 등을 참고하여 난해한 부분에 주석을 붙이고, 金洙(1383~1464), 柳義孫(1398~1450), 李中允(?~?), 李師曾(1398~1464), 李季甸(1404~1459), 崔恒(1409~1474), 南季瑛(1415~?), 魚孝瞻(1405~1475), 姜孟卿(1410~1461), 閔媛(?~1458) 등이 參校하게 하고 世宗이 친히 검토한 후, 柳義孫의 서문을 붙여 세종 18년(1436)에 주자소에서 294卷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은 思政殿에서 訓義하였기 때문에 「思政殿訓義資治通鑑」 또는 「通鑑訓義」라고도 불린다.

「資治通鑑」은 조선시대 국왕의 經筵과 왕세자 書筵의 교재로 사용되었고, 사대부들에게도 필독서였으나 현재 전하는 판본은 세종 18년의 초주갑인자본 외에는 肅宗年間에 처음 인출된 후 英祖대에 재 인출된 戊申字本외에는 간행사실이 알려진 것이 없다.

조사본 「資治通鑑」은 世宗 18년(1436)에 初鑄甲寅字로 인출하여 배포한 판본으로

추정되는 희귀본이다. 현재 초주갑인자본 완질은 알려진 것이 없으며, 보물 제 1281-1호(卷236~238,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281-2호(卷131~135, 卷246~250, 서울 역사박물관), 보물 제1281-3호(권193~195, 圓覺寺), 보물 제1281-4호(권226~ 229, 울산박물관) 로 이미 지정된 자료 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卷70-71, 206- 207, 281), 서울대 규장각(卷161-165), 고려대(卷26-30, 261-265) 등에 소장되어 있다.

初鑄甲寅字로 간행된 「資治通鑑」의 판본은 현재 완질본이 없고 전해지는 것이 드문 희귀본이다. 특히 조사본은 기 지정된 보물과도 권수가 중복되지 않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귀중본으로 조선 전기 歷史, 政治 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이며 印刷文化史 및 書誌學 연구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資治通鑑」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 管理할 만한 價値가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조사본과 동일한 판본이 보물로 4건 지정되어 있다.

- 보물 제1281-1호(卷236~238, 國立中央博物館)
- 보물 제1281-2호(卷131~135, 卷246~250, 서울歷史博物館)
- 보물 제1281-3호(권193~195, 圓覺寺)
- 보물 제1281-4호(권226~ 229, 蔚山博物館)

○ 문헌자료

- 서울歷史博物館 編, 「2010 洪斗善 寄贈遺物特別展」. 서울 : 서울歷史博物館 遺物管理課, 2010.
- 蔚山博物館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 調査報告書>(운상기위원 조사보고서). 蔚山 : 蔚山博物館, 2013.
-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
-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rcis>)
-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 (<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

4. 재조본 사분율 권47~50(再雕本 四分律 卷四十七~五十)

가. 심의사항

‘재조본 사분율 권47~50’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사분율 권47~50’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5.1.2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6.5.11)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2017년 3차 회의(6.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6.29~’17.7.2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재조본 사분율 권47~50(再雕本 四分律 卷四十七~五十)
- 소 유 자 : 김미정(법명: 무애, 대한불교 대성종 대성사 주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 2가 동아대학교박물관
- 수 량 : 4권 1책(인경본)
- 규 격 : 全郭 22.2×46.7, 40.2×29.2(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대장도감)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조성연대 : 1244년(고려 고종 31) 판각, 조선초기 인출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대성사 소장의 『사분율』 권47-50의 1책은 국보 제32호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조선 초기에 인본이다. 거질의 대장경 중에서 4권 1책에 불과하지만 보존상태가 온전한 조선초기의 선장형식의 인본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四分律」은 「四分律」은 부처님(佛)께서 入滅하신 100년 後에 達磨笈多(曇無德, ?~?)羅漢이 印度 上座部の 法藏部에 전해지는 根本律 중에서 自己의 見解에 맞는 것만을 4次에 걸쳐 뽑아내어 編纂한 律文佛書を 姚秦의 佛陀耶舍(?~?)와 竺佛念 등이 弘始 12~14(410~412)년경에 長安에서 함께 漢譯한 60卷本の 佛書이다.

調査本 「四分律」 卷47~50의 4卷1冊本은 匡郭과 刊記를 제외한 形態書誌學的 款式과 本文의 構成 및 刻手 등으로 미루어 볼 때, 高麗 高宗 31(1244)年頃에 板刻된 高麗大藏經板을 朝鮮 世祖 4(1458)年頃에 印出하여 線裝한 版本이다.

調査本 「四分律」은 그 傳本이 매우 稀貴한 版本이며, 佛敎學과 書誌學 등의 研究에 貴重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高麗時代의 大藏經研究에는 물론 朝鮮時代 初期의 木板印刷文化研究에도 크게 活用될 수 있을 資料이다.

따라서 調査本 「四分律」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근거 기준

調査本 「四分律」과 同一한 版本의 「四分律」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없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사분율』 권47~50(4권1책)은 광곽과 간기를 제외한 형태서지학적(形態書誌學的) 사항, 본문의 구성 체계 및 각수(刻手)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보 제32호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陝川 海印寺 大藏經板)」에 포함된 『사분율』과 동일한 판본으로, 1244년(고려 고종 31) 경에 판각(板刻)된 것을 1458년(조선 세조 4) 경에 인출(印出)하여 선장(線裝)한 판본(版本)이다.

이 자료는 전해지는 것이 많지 않은 희귀한 자료로서 불교학과 서지학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四分律」은 기원전 3세기 초 인도의 승려 達磨笈多(Dharmagupta, 曇無德, ?~?)가 五部律典 가운데 上座部 계통의 율전을 편찬한 法藏部の 律藏으로, 출가한 승려가 佛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율을 상세히 기록한 불교의 律典이다. 姚秦(後秦)의 佛陀耶舍(?~?)와 竺佛念(?~?) 등이 弘始 12~14년(410~412) 경에 長安에서 공동으로 漢譯하였고 전체 내용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四分律」이라고 불리는 총 60卷의 佛書이다.

조사본 「四分律」은 卷47부터 50까지의 4卷1冊으로, 匡郭과 刊記를 제외한 形態書誌學的 측면과 本文의 구성 체계, 刻手 등을 참고해 볼 때 ‘UNESCO 世界記錄遺

産'이자 '國寶 第32號'인 <海印寺大藏經版>에 포함된 「四分律」과 동일한 版本으로, 高麗 高宗 31년(1244) 경에 板刻된 것을 朝鮮 世祖 4년(1458) 경에 印出한 판본으로 추정된다. 특히 조선 초기에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으로 인출된 판본 중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가 없어 조사본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유일본이며, 원래 표지가 온전하게 남아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文化財的 가치가 매우 높은 귀중본으로, 고려시대 대장경 연구 등 불교학 및 조선 초기 인쇄문화연구를 위해서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四分律」은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 管理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자료로 판단된다.

※ 근거 기준

調査本 「四分律」은 조선 초기에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으로 인출된 판본 중 처음으로 알려진 유일본이며, 同一한 판본의 「四分律」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가 없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四分律. 卷47-50 / 佛陀耶舍, 竺佛念 共譯.
木板本
大藏都監: 高宗 31年(1244)刊, [朝鮮前期]後刷
4卷1冊(零本): 上下單邊 全郭 22.2×46.7cm, 無界, 23行14字, 無魚尾; 29.2 × 40.2cm

대성사 소장의 사분율 권47-50은 국보 제32호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재조본 고려대장경)의 창(唱)함에 속하는 율부 경전의 인본이다.⁸⁾ 5세기 초 계빈국 출

8) 1-10권은 和, 11-20권은 下, 21-30권은 睦, 31-40권은 夫, 41-50권은 唱, 51-60권은 婦함이다.

신의 불타야사(佛陀耶舍)와 중국의 축불념(竺佛念)이 함께 번역하였다. 내용은 출가(出家), 수계(受戒), 구족계(具足戒) 등의 의궤(儀軌)에 관한 것으로 전 60권이다. 이 중에서 1-22권은 비구에 관한 계율 7법 250계, 23-37권은 비구니에 관한 계율 4법 348계와 비구들이 지켜야 할 여러 규정, 38-49은 가죽을 사용하는 규정을 서술한 피혁 건도(건度)를 비롯한 14개의 건도,⁹⁾ 50-60권은 추가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권47은 비구들의 네 가지 분쟁과 그것이 생기게 되는 원인 및 그를 조종하기 위한 방법인 《멸쟁건도》, 권48은 비구니들에게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몇 가지 계율에 대하여 규정한 《비구니건도》, 권49는 비구들이 지켜야 할 일상 생활의 규범인 《법건도》, 권50은 집과 방 등 잡다한 문제들에 대한 《방사건도》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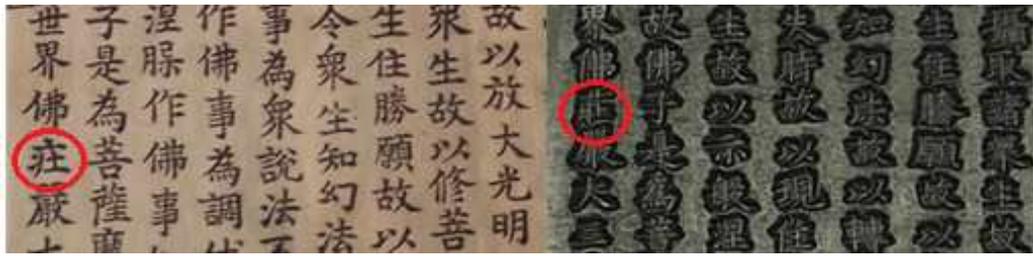
이 경관은 권57-60의 각권 끝의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와 같이 고려 고종 31년(1244)에 대장도감에서 판각되었다. 그러나 이 인본에는 이러한 간행기록은 인쇄되어 있지 않다. 1장의 행자수는 앞뒤 모두 23행 14자이다.

인본의 표지는 얇은 미황색, 현재는 끊어졌지만 원래는 가늘고 짙은 황색실로 엮은 오침의 선장본이다. 왼쪽에는 쌍행으로 된 종방형 안에 위에는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의 부호(符號), 그 아래에는 “四分律卷第四十七之五十”과 같이 제명과 권차, 종방형 바깥아래에는 천자문 함호인 “唱”을 묵서해 놓았다. 오른쪽 아랫부분에는 “共一二冊”과 같이 전 책수 표시가 있고, 그 왼쪽에는 수결이 있다. 이러한 표시는 <사진 4>의 일본 소장본의 일체경음의 권53-4를 볼 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대의 소장자가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50, 32장의 뒷면에 있는 서뇌(書腦) 아래 안쪽에는 <사진 1>과 같이 “□九莊”으로 보이는 음각의 인장이 찍혀 있다. 여기서 “莊”이란 <사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庄”과 통용되는 글자이므로 종이의 장수보다는 장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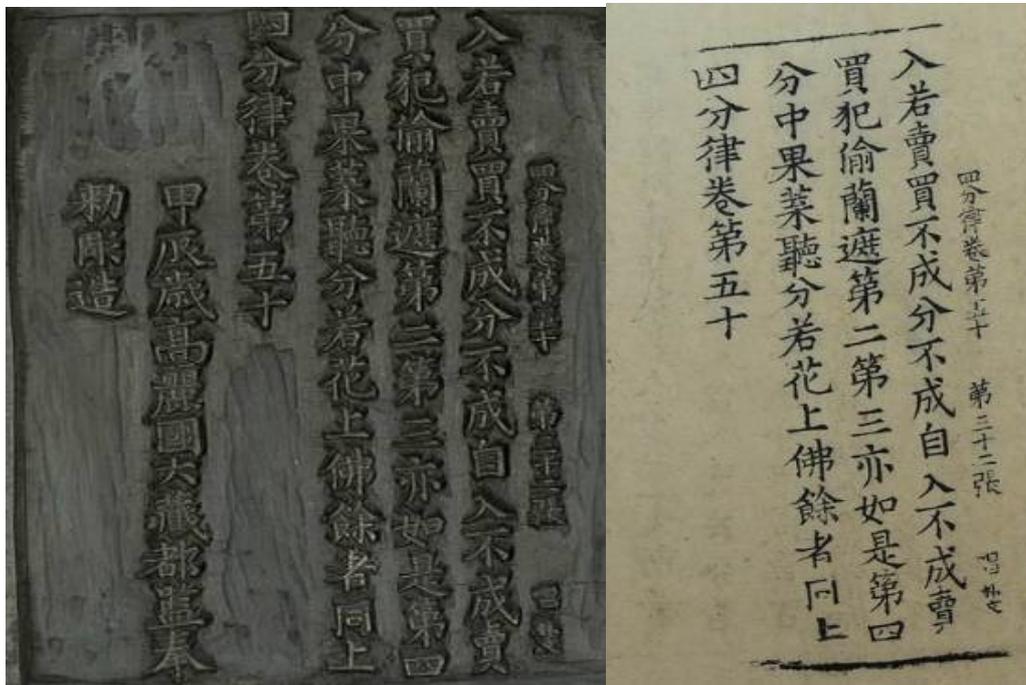
<사진 1> 권50의 마지막 장인 제32장

9) 건도(건度)란 장 또는 편에 해당하는 말이다



<사진 2> 莊嚴과 莊嚴

먼저 이 인본에는 <사진 3>과 같이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라는 원간기가 인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⁰⁾ 이러한 사례는 세조 3-4년 인본 또는 조선 초기의 인본에서 나타나는 사례에 해당한다.



<사진 3> 사분율 권50의 마지막 장인 제25장 간기부분
(좌측은 해인사대장경판, 우측은 대성사 소장본)

이러한 사실은 20여 년 전에 일본에 전하는 세조 3-4년의 인본에서 확인된 이후 국내 발견의 인본에서도 확인되었다. 곧 <사진 4>와 같이 조선전기의 인본으로 추정되는 송광사 사천왕상 복장의 현겁경 권7(1책)과 <사진 7-8>의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 권1-5(1책)에서 확인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성사 소장의 사분율 권 47-50은 고려시대의 인본이 아니라 조선전기 또는 초기의 인본임이 확실하다.

10) 권47,48,49의 권미도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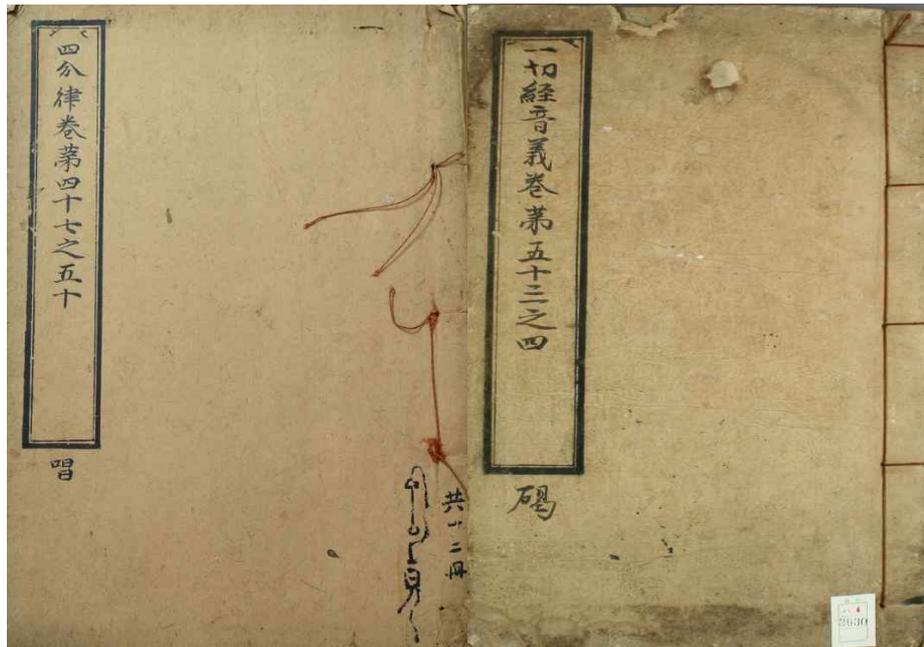
<사진 4> 현겁경권7 권미와 송광사 사천왕상복장의 현겁경 권7(2010년 발견)의 권미

한편 대성사 소장의 사분율 권47-50은 오침안정의 선장본형식이다. 원래 대장경은 두루말이(권자본) 형식으로 판각되었기 때문에 대장목록이나 일체경음의 등의 사전류를 제외하고는 가운데 판심이 없다. 그러므로 반접하여 선장본으로 장책하는 일이 쉽지 않고, 고려시대 이전에는 이렇게 장책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인본은 인본 한 장을 적절하게 반접하고, 가는 실로 오침안정으로 장책해 놓았다. 이러한 장책 방식이 언제부터 비롯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의문도 조선전기에 인출된 송광사 사천왕상 복장의 현겁경 권7(<사진 5> 참조)과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과승사 권1-5 등 2책의 장책방식을 보아 조선전기에는 이렇게 장책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사진 6>에서 보듯이 일본에 소장중인 “一切經音義 권53-4”는 대성사 소장의 사분율 권47-50과 쌍변의 종방형 안에 제명을 필사한 것이나 함차의 표시위치표시가 동일하다. 더욱이 “四分律卷第四十七之五十”과 “一切經音義第五十三之四”와 같이 “第”, “之”로 표시하는 권차의 표시법 등은 이들이 함께 인정되고 장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렇게 국내외 장책사례를 보면, 조선전기에는 대장경 인본을 오침 선장본으로 장책한 다음 표지에 제명과 권차를 묵서하는 방식으로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성사 소장의 이 인본은 조선전기에 간행되어 장책된 인본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장책된 조선전기의 인본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공개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사진 5> 대성사 소장의 사분율 권47-50과 송광사 사천왕상복장의 현겁경 권7(2010년 발견)



<사진 6> 대성사 소장의 사분율 권47-50과 일본 소장의 일체경음의 권53-54

그런데 이 인본의 인경시기를 조선전기 중에서 어느 시기인지를 밝히기는 쉽지가 않다. 추정한다면 정종, 태종, 세조연간일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전기 또는 그 전후에 간행된 서책 중에서 이와 같은 후지를 사용한 사례는 거의 보기 어렵다. 그러

므로 지질로 보아 이 인본은 국왕 또는 왕실용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 재조본 고려대장경 인본으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된 것은 <표1>과 같다. 이들은 대개 판각이후 바로 인출되었거나 늦어도 조선전기에 인출된 것으로 장척은 권자본이나 절첩장이다. 이에 비해 대성사 소장본의 사분을 권47-50의 1책은 조선전기의 인본이기는 하나 장척형식은 선장본으로 이전의 인본들과는 차이가 있다.

<표 1> 재조본 고려대장경의 국가문화재(보물) 지정현황¹¹⁾

구분	지정번호	명칭	인출시기	장척형식	관리자
1	제969호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64	13-14세기	권자본	국립중앙박물관
2	제972호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55	13-14세기	권자본	상동
3	제 1155호	재조본 경륜이상 권1	고려-조선전기	절첩장	가천박물관
4	제 1156호	재조본 경륜이상 권8	고려-조선전기	절첩장	국립중앙박물관
5	제 1658호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	13-14세기	권자본	원각사
6	제 1886호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	13-14세기	권자본	국립한글박물관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 「四分律」 卷47~50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四分律. 卷47~50 / 達磨笈多(?~?, BC3世紀 初) 編 ; 佛陁耶舍(?~?, 姚秦), 竺佛念(?~?, 姚秦) 等譯. -- 木板本(大藏都監). -- [漢城] : [印經處不明], [高麗 高宗 31(1244) 刻, 朝鮮 世祖 4(1458) 印出 推定].

4卷1冊 : 上下單邊, 全郭 22.2×46.7cm, 無界, 23行14字 內外, 註雙行, 無魚尾 ; 40.2×29.2cm. 藁精·楮紙. 線裝(五針眼訂).

題簽題: 四分律

卷頭題: 四分律

卷末題: 四分律

張次題: 四分律

函次名: 唱

11) 이외에 대장일람집(보물 제1335호)과 1503년에 해인사에서 추각한 예념미타도량참법(보물 제949호 외)이 있으나 이들은 성격이 약간 다르다.

內 容: -卷47(三分之十一); 靈諍捷度第十六之一. -卷48(三分之十二); 靈諍捷度第十六之二, 比丘尼捷度第十七之一. -卷49(三分之十三); 比丘尼捷度十七之下, 法捷度第十八. -卷50(四分之一); 房舍捷度初.

刻手名: -卷47; 01(-), 02(仁一), 03(英伯), 04(英白), 05(-), 06(惠印), 07(卍圭), 08(-), 09(正順), 10(正順), 11(保令), 12(保令), 13(宗素), 14(宗素), 15(元瑩), 16(-), 17(元瑩), 18(-), 19(惠之), 20(惠之), 21(□湛[宗湛?]), 22(宗湛), 23(法雷), 24(法雷), 25(印一[印幹?]), 26(仁幹), 27(光看[光著?]), 28(光看[光著?]). -卷48; 01(-[性良?]), 02(韓璉), 03(韓璉), 04(戒休), 05(戒休), 06(-), 07(全一[全一?]), 08(□□[性良?]), 09(性良), 10(長命), 11(長命), 12(惠右), 13(-), 14(戒山), 15(戒山), 16(仁京), 17(仁京), 18(益明), 19(益明), 20(成允), 21(□覺[性允?]), 22(-), 23(守呂), 24(中守), 25(中守), 26(日生), 27(日生), 28(東海), 29(東海), 30(-), 31(惠已[惠己?]), 32(中才), 33(-). -卷49; 01(-), 02(-), 03(曹規), 04(令順), 05(令順), 06(命尨[命龍?]), 07(命尨[命龍?]), 08(克中), 09(克中), 10(弘郎[命節?]), 11(弘郎[命節?]), 12(長存), 13(長存), 14(戒之), 15(戒之), 16(卍英), 17(卍英), 18(順眞), 19(順眞), 20(允兼), 21(允兼), 22(中□[中才?]), 23(中才), 24(心一), 25(心一), 26(-), 27(甘大), 28(允仁), 29(允仁), 30(曹守), 31(□守[曹守?]), 32(益恕), 33(益□[益恕?]), 34(□□[惠珍?]), 35(惠示[惠珍?]), 36(公□[公式?]), 37(公式). -卷50; 01(-), 02(宝山), 03(元呂), 04(元呂), 05(-), 06(金奇), 07(保印[保守?]), 08(保□[保守?]), 09(喜玄), 10(喜玄), 11(升有), 12(升有), 13(升有), 14(-), 15(文正), 16(文正), 17(中花[中希?]), 18(中花[中希?]), 19(惠暉), 20(惠暉), 21(盡母[只每?]), 22(盡母[只每?]), 23(能大), 24(能大), 25(朴文), 26(朴文), 27(惠光), 28(惠光), 29(了眞), 30(了眞), 31(朴文), 32(朴文).

狀 態: 一部の面紙에 汚染의 흔적이 있으나 비교적 良好한 편임

裝 訂: 원래 卷子本の 裝訂을 위한 板刻으로 추정되나, 後代에 印出하면서 線裝으로 裝訂하였음.

所藏者: 大成寺 (釜山廣域市 西區 玉川路 142-22, 峨帽洞 2街)

所 藏: 東亞大學校博物館 (釜山廣域市 西區 九德路 225, 富民洞 2街)

傳來歷: 釜山 大成寺의 創建主로 2006년에 入寂한 曉潭 김한순의 所藏本이 그 弟子인 무애 김미정에게로 傳來된 文化財라 傳言함.

既指定: 無.

「四分律」은 부처님(佛)께서 入滅하신 100년 후에 達磨笈多(曇無德, ?~?)羅漢이 印度 上座部の 法藏部에 전해지는 根本律 중에서 自己의 見解에 맞는 것만을 4次에 걸쳐 뽑아내어 編纂한 律文佛書를 姚秦의 佛陀耶舍(?~?)와 竺佛念(?~?) 등이 弘始 12~14(410~412)년경에 長安에서 함께 漢譯한 60卷本の 佛書로 「曇無德律」 또는 「

四分律藏」이라고도 하며, 「高麗大藏經」에는 물론 「大正新修大藏經」(第22冊)에도 수록되어 있다.

調査本 「四分律」은 釜山廣域市 西區 玉川路 142-22(峨嵋洞 2街)에 소재한 大成寺의 創建主로 2006년에 入寂한 曉潭 김한순의 所藏本이 그 弟子인 무애 김미정에게로 傳來된 文化財라 傳言되고 있다.

調査本 「四分律」의 保存現狀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良好한 편이다. 面紙는 完全하나 前後表紙의 角邊에 다소 말림현상이 있으며 裝訂用 綴絲는 斷絶된 상태이다. 특히 原來에는 卷子本의 裝訂을 위하여 板刻된 것이었으나 後代에 印經하면서 線裝으로 裝訂하였다.

調査本 「四分律」은 紙類文化財 保存處理專門家를 통한 前後表紙 裏面의 裱貼保守와 保存處理가 要求되고 있다.

調査本 「四分律」은 현재 大成寺에 專門的인 保存施設이 具備되지 않은 狀態라, 東亞大學校博物館이 大成寺로부터 寄託을 받아 收藏·管理하고 있는 形편이다.

○ 내용 및 특징

「四分律」은 부처님(佛)께서 入滅하신 100년 後에 達磨笈多(曇無德, ?~?)羅漢이 印度 上座部의 法藏部에 전해지는 根本律 중에서 自己의 見解에 맞는 것만을 4次에 걸쳐 뽑아내어 編纂한 律文佛書を 姚秦의 佛陀耶舍(?~?)와 竺佛念(?~?) 등이 弘始 12~14(410~412)년경에 長安에서 함께 漢譯한 60卷本의 佛書이다. 전체의 內容이 第1分에 比丘의 250戒, 第2分에는 比丘尼의 348戒와 受戒犍度·說戒犍度 등 4犍度, 第3分에는 自恣犍度·皮革犍度·衣犍度·藥犍度·迦絺那衣犍度 등 14犍度, 第4分에는 房舍犍度·雜犍度·結集·調部 등의 4部分으로 分次되어 있어 「四分律」이라 일컬으며, 「曇無德律」 또는 「四分律藏」이라고도 한다. 「四分律」은 「高麗大藏經」에는 물론 「大正新修大藏經」(第22冊)에도 수록되어 있다.

編者인 達磨笈多(Dharmagupta, ?~?)는 曇無德·曇摩鞠多·曇摩屈多迦 등으로 音寫되고 法藏·法護·法鏡·覆法 등으로 意譯되는 紀元前 3世紀 初頃の 印度의 僧侶이다. 紀元前 4世紀頃の 論師인 第4祖 優婆鞠多(?~?)의 5대 제자 중의 한 분으로 目犍蓮(?~?)의 五藏說을 이어받아 五藏을 주장하였다. 처음에는 化地部에 속하였으나, 五藏說이 化地部의 論理에 어긋나므로 獨立하여 한 部를 만들었다고도 한다. 이 曇無德部는 曇無德律이라고도 하는데, 그 內容이 4種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四分律宗이라고도 한다. 이 四分律宗은 唐朝에 南山의 道宣(596~667)이 크게 일으켰다.

譯者인 佛陀耶舍(Buddhayaśas, ?~?)는 산스크리트어 'Buddhayaśas'의 音寫이며 '覺明'이라 翻譯되고 있다. 北人道 罽賓國의 婆羅門 出身으로 13歲에 出嫁하여 27歲에 具足戒를 받으면서 大小乘의 經典 數百萬言을 능히 暗誦할 수 있고 世間の 法術도 익혔을 정도로 精進하였다. 後에 沙勒國에 이르러 太子 達摩弗多의 尊敬과 歡待를 받으며 宮中에서 지내다가 龜茲國에서 온 鳩摩羅什(344~413)에게 「阿毘達磨」

와 「十誦律」을 가르쳤는데 鳩摩羅什이 그를 좇아 공부하였다. 그 후에 鳩摩羅什의 請으로 五胡十六國時代에 甘肅省의 姑臧을 거쳐 後秦의 弘始(姚秦) 10(408)년에 長安에 이르러 姚興(366~416)의 歡待를 받으며 鳩摩羅什과 함께 譯經에 參與하여 「四分律」과 「長阿含經」 등을 번역하였다. 弘始 15(413)년에 다시 罽賓國으로 돌아가 「虛空藏經」 등을 얻었다고 전해지나 그 후의 行蹟은 알려진 바가 없다.

共譯者인 竺佛念(?~?)은 前秦·姚秦의 승려로 甘肅省 涼州(武威) 出身이다. 어려서 出嫁하여 뜻을 堅固하게 가지고 여러 經典을 익히는 한편 外典도 공부한 人物이다. 그가 前秦(苻秦) 建元 10(375)년경에 長安으로 왔을 때 僧伽跋澄(?~?)이 曇摩難提(?~?) 등과 함께 長安에 到着하자 朝廷의 要請을 받아 僧伽跋澄이 「婆須蜜所集論」을 翻譯하고 曇摩難提이 「王子法益壞目因緣經」과 「增一阿含經」 및 「中阿含經」 등을 翻譯하는데 助力하였으며 그는 傳語의 職責을 맡았다. 그는 「梁高僧傳」 卷1에 의하면 姚秦 弘始年間에 「菩薩瓔珞經」·「十住斷結經」·「出曜經」·「菩薩處胎經」·「中陰經」 등 5部를 翻譯하여 譯經宗師로 불리었다고 하며, 「三藏記集」 卷2에 의하면 5部 외에도 「王子法益壞目因緣經」도 翻譯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開元釋教錄」 卷4에 의하면 「增菩薩瓔珞本業經」·「鼻奈耶」·「持人菩薩經」·「大方等無想經」·「菩薩普處經」·「十誦比丘尼戒所出本末經」 등 6部까지 도합 12部 74卷을 翻譯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大方等無想經」·「菩薩普處經」·「十誦比丘尼戒所出本末經」 등은 모두 없어지고 傳來되지 않는다. 또한 後에 長安에서 入寂하였다고 傳해지나 入寂年度를 비롯한 歲壽 등은 알 수 없다.

「四分律」 60卷本은 初分, 第二分, 第三分, 第四分 등 도합 4分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初分은 比丘 250條의 戒律條目을 포함한 20卷이고 (2) 二分은 比丘尼 348條의 戒律條目과 受戒·說戒·安居·自恣(上) 등 4犍度を 포함한 15卷이며, (3) 三分은 自恣(下)·皮革·衣·葯·迦絺那衣·拘睺彌·瞻波·呵責·人·覆藏·遮·破僧·滅諍·比丘尼·法 등 15犍度の 14卷이고 (4) 四分은 房舍犍度和 染犍度 및 五百集法·七百集法·調部毗尼·毗尼增一 등을 포함한 11卷이다.

그러나 이러한 卷數의 分類는 高麗藏本에 根據한 것이며, 宋·元·明 등의 3藏本에는 多少의 出入이 없지도 않다. 또한 以上の 四分이 구별은 經義에 근거하여 分類된 것이 아니라 段章의 名稱에 의거하여 判立된 것이다.

調査本 「四分律」 卷47~50의 4卷1冊本은 匡郭과 刊記를 제외한 形態書誌學的 款式과 本文의 構成 및 刻手 등으로 미루어 볼 때 ‘UNESCO 世界記錄遺產’이자 ‘國寶第32號’인 <海印寺大藏經版>에 포함된 「四分律」과 동일한 版本으로, 高麗 高宗 31(1244)年頃에 板刻된 것을 朝鮮 世祖 4(1458)年頃에 印出하여 線裝한 版本인 듯하다. 그러나 원래 <海印寺大藏經>版本에는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와 같이 ‘甲辰歲’(고려 고종 31, 1244)의 板刻時代를 비롯하여 ‘高麗國’ 및 ‘大藏都監奉勅彫造’의 板刻主體와 板刻處 등의 刊記가 板刻되어 있었을 것이나, 調査本 「四分律」의 各 卷末에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의 刊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마도 朝鮮 世祖朝에 이르러 印出할 때에 勝國의 國號를 忌避한 緣由에서 말미암은 듯하다.

調査本 「四分律」의 題簽題·卷頭題·卷末題·張次題 등은 ‘四分律’이고 函次名은 ‘唱’이다. 版式의 邊欄은 上下單邊이며 本文의 行字數는 23行14字 内外이고 註文은 小字雙行이다. 卷子本 形式의 裝訂을 念頭に 두고 板刻된 것이라 界線을 비롯하여 板心이나 板口 및 魚尾 등은 없다.

調査本 「四分律」의 收錄內容은 卷47은 ‘三十一’으로 <靈諍捷度第十六之一>이 수록되고 卷48은 ‘三十二’로 <靈諍捷度第十六之二>과 <比丘尼捷度第十七之一>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49은 ‘三十三’으로 <比丘尼捷度十七之下>와 <法捷度第十八>이 수록되어 있고 卷50은 ‘四分之一’로 <房舍捷度初>가 수록되어 있다. 紙質은 藁精과 楮가 섞인 薄韓紙·厚韓紙 및 黃色韓紙 등이며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이다.

한편 調査本 「四分律」의 每板에는 本文을 板刻한 刻手名이 板刻되어 있는데, 卷47에는 01(-), 02(仁一), 03(英伯), 04(英白), 05(-), 06(惠印), 07(卍圭), 08(-), 09(正順), 10(正順), 11(保令), 12(保令), 13(宗素), 14(宗素), 15(元瑩), 16(-), 17(元瑩), 18(-), 19(惠之), 20(惠之), 21(□湛[宗湛?]), 22(宗湛), 23(法雷), 24(法雷), 25(印一[印幹?]), 26(仁幹), 27(光看[光著?]), 28(光看[光著?]) 등이 板刻되어 있고 卷48에는 01(-[性良?]), 02(韓璉), 03(韓璉), 04(戒休), 05(戒休), 06(-), 07(全一[全一?]), 08(□□[性良?]), 09(性良), 10(長命), 11(長命), 12(惠右), 13(-), 14(戒山), 15(戒山), 16(仁京), 17(仁京), 18(益明), 19(益明), 20(成允), 21(□覺[性允?]), 22(-), 23(守呂), 24(中守), 25(中守), 26(日生), 27(日生), 28(東海), 29(東海), 30(-), 31(惠已[惠己?]), 32(中才), 33(-) 등이 板刻되어 있으며, 卷49에는 01(-), 02(-), 03(曹規), 04(令順), 05(令順), 06(命龙[命龍?]), 07(命龙[命龍?]), 08(克中), 09(克中), 10(弘郎[命節?]), 11(弘郎[命節?]), 12(長存), 13(長存), 14(戒之), 15(戒之), 16(卍英), 17(卍英), 18(順眞), 19(順眞), 20(允兼), 21(允兼), 22(中□[中才?]), 23(中才), 24(心一), 25(心一), 26(-), 27(甘大), 28(允仁), 29(允仁), 30(曹守), 31(□守[曹守?]), 32(益恕), 33(益□[益恕?]), 34(□□[惠珍?]), 35(惠示[惠珍?]), 36(公□[公式?]), 37(公式) 등이 板刻되어 있고 卷50에는 01(-), 02(宝山), 03(元呂), 04(元呂), 05(-), 06(金奇), 07(保印[保守?]), 08(保□[保守?]), 09(喜玄), 10(喜玄), 11(升有), 12(升有), 13(升有), 14(-), 15(文正), 16(文正), 17(中花[中希?]), 18(中花[中希?]), 19(惠暉), 20(惠暉), 21(盡母[只每?]), 22(盡母[只每?]), 23(能大), 24(能大), 25(朴文), 26(朴文), 27(惠光), 28(惠光), 29(了眞), 30(了眞), 31(朴文), 32(朴文) 등이 板刻되어 있다.

調査本 「四分律」은 高麗 高宗 31(1244)年頃に 板刻된 高麗大藏經板을 朝鮮 世祖 4(1458)年頃に 印出한 것으로 그 傳本이 매우 稀貴한 版本이며, 佛敎學과 書誌學 등의 研究에 貴重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자료이다. 특히 高麗時代의 大藏經研究에는 물론 朝鮮時代 初期의 木板印刷文化研究에도 크게 活用될 수 있을 資料이다.

따라서 調査本 「四分律」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 지정사례

調査本 「四分律」과 同一한 版本의 「四分律」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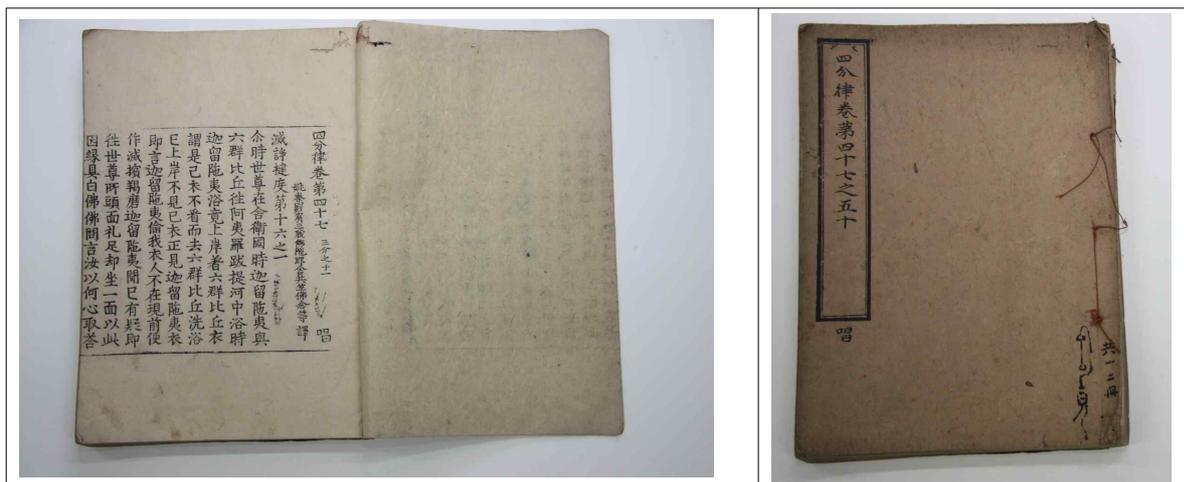
○ 문헌자료

- 増上寺史料編纂所 編, 「増上寺三大藏經目錄解題」. 東京 : 増上寺史料編纂所, 1982. p.47.
- 馬場久幸, 「高麗大藏經이 日本佛敎에 미친 影響」. 博士學位論文. 益山 : 圓光大學校大學院, 2008. pp.145~146.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등의 指定·認定 資料報告書> 및 <檢討意見書>. 釜山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2015.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編, <文化財委員會 有形分科委員會 審議議決書>. 釜山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2015.
- 최영호 編, <大成寺 所藏 「四分律」 調査報告書>. 釜山 : 釜山廣域市, 2014.
- 김미정(大成寺 住持 무애), <大成寺 四分律 所藏 經緯書>. 釜山 : 峨眉山 大成寺 住持 무애, 2015.
- 文化財廳 文化財檢索(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

□

○ 현 상

조사본 『사분율(四分律)』 권47~50은 본래 권자본(卷子本)의 형식으로 판각되었으나 후대에 인경 후 선장(線裝)한 상태이다. 표지에는 약간의 말림현상이 있으며 철사(綴絲)는 훼손된 상태이다. 현재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수탁 관리중이다.



○ 내용 및 특징

書誌事項

四分律. 卷47~50 / 達磨笈多(?~?, BC3世紀 初) 編 ; 佛陁耶舍(?~?, 姚秦), 竺佛念(?~?, 姚秦) 等譯. -- 木板本(大藏都監). -- [漢城] : [印經處不明], [高麗 高宗 31(1244) 刻, 朝鮮 世祖 4(1458) 印出 推定].

4卷1冊 : 上下單邊, 全郭 22.2×46.7cm, 無界, 23行14字 內外, 註雙行, 無魚尾 ; 40.2×29.2cm. 藁精·楮紙. 線裝(五針眼訂).

題簽題: 四分律

卷頭題: 四分律

卷末題: 四分律

張次題: 四分律

函次名: 唱

刻手名: -卷47; 01(-), 02(仁一), 03(英伯), 04(英白), 05(-), 06(惠印), 07(世圭), 08(-), 09(正順), 10(正順), 11(保令), 12(保令), 13(宗素), 14(宗素), 15(元瑩), 16(-), 17(元瑩), 18(-), 19(惠之), 20(惠之), 21(□湛[宗湛?]), 22(宗湛), 23(法雷), 24(法雷), 25(印一[印幹?]), 26(仁幹), 27(光看[光著?]), 28(光看[光著?]). -卷48; 01(-[性良?]), 02(韓璉), 03(韓璉), 04(戒休), 05(戒休), 06(-), 07(全一[全一?]), 08(□□[性良?]), 09(性良), 10(長命), 11(長命), 12(惠右), 13(-), 14(戒山), 15(戒山), 16(仁京), 17(仁京), 18(益明), 19(益明), 20(成允), 21(□覺[性允?]), 22(-), 23(守呂), 24(中守), 25(中守), 26(日生), 27(日生), 28(東海), 29(東海), 30(-), 31(惠已[惠己?]), 32(中才), 33(-). -卷49; 01(-), 02(-), 03(曹規), 04(令順), 05(令順), 06(命龙[命龍?]), 07(命龙[命龍?]), 08(克中), 09(克中), 10(弘郎[命節?]), 11(弘郎[命節?]), 12(長存), 13(長存), 14(戒之), 15(戒之), 16(世英), 17(世英), 18(順眞), 19(順眞), 20(允兼), 21(允兼), 22(中□[中才?]), 23(中才), 24(心一), 25(心一), 26(-), 27(甘大), 28(允仁), 29(允仁), 30(曹守), 31(□守[曹守?]), 32(益恕), 33(益□[益恕?]), 34(□□[惠珍?]), 35(惠示[惠珍?]), 36(公□[公式?]), 37(公式). -卷50; 01(-), 02(宝山), 03(元呂), 04(元呂), 05(-), 06(金奇), 07(保印[保守?]), 08(保□[保守?]), 09(喜玄), 10(喜玄), 11(升有), 12(升有), 13(升有), 14(-), 15(文正), 16(文正), 17(中花[中希?]), 18(中花[中希?]), 19(惠暉), 20(惠暉), 21(盡母[只每?]), 22(盡母[只每?]), 23(能大), 24(能大), 25(朴文), 26(朴文), 27(惠光), 28(惠光), 29(了眞), 30(了眞), 31(朴文), 32(朴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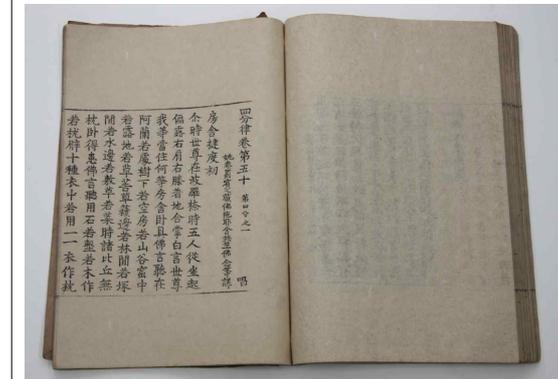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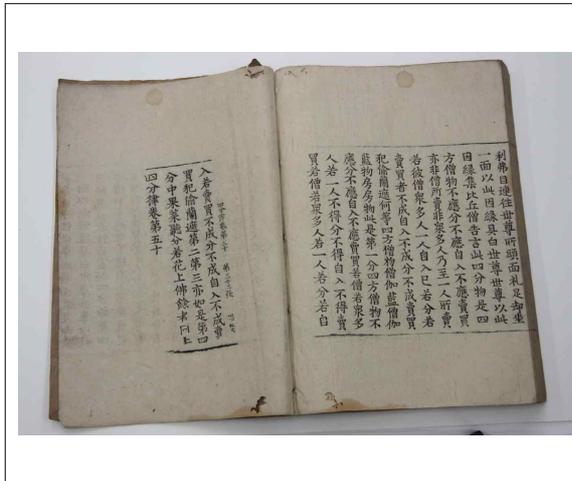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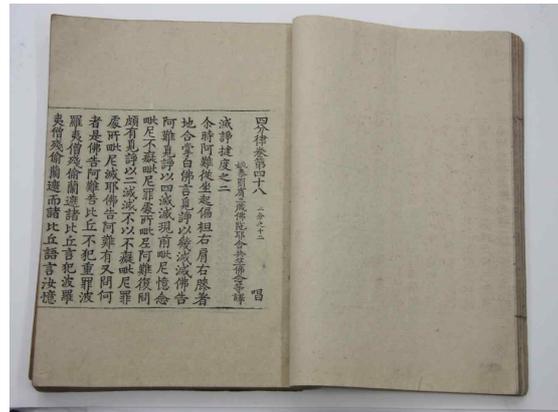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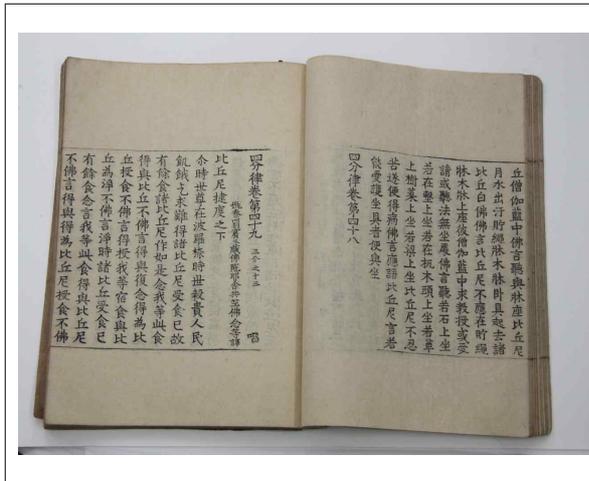
『사분율(四分律)』은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100년 후에 달마급다(達磨笈多, ?~?)가 인도 상좌부(上座部)의 법장부(法藏部)에 전해지는 근본율(根本律) 중에서 자기

의 견해에 맞는 것만을 4차에 걸쳐 뽑아내어 편찬한 율장(律藏)을 중국 요진(姚秦)의 불타야사(佛陀耶舍, ?~?)와 축불념(竺佛念, ?~?) 등이 장안에서 함께 한역한 60권본이다.

『사분율』 60권본은 초분(初分), 제2분(第二分), 제3분(第三分), 제4분(第四分) 등 도합 4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초분은 비구 250조의 계율조목(戒律條目)을 포함한 20권이고 (2) 제2분은 비구니 348조의 계률조목과 수계(受戒)·설계(說戒)·안거(安居)·자인(自恣, 上) 등 4건도(犍度)를 포함한 15권이며, (3) 제3분은 자인(自恣, 下)·피혁(皮革)·의(衣)·약(藥)·가치나의(迦絺那衣) 등 15건도의 14권이고 (4) 제4분은 방사건도(房舍犍度)와 염건도(染犍度) 및 오백집법(五百集法)·칠백집법(七百集法) 등을 포함한 1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이같은 권수(卷數)의 분류는 고려대장경본(高麗大藏經本)에 근거한 것으로, 중국 宋·元·明 등의 3藏本에는 약간씩 차이가 존재한다.

조사본 『사분율』 권47~50(4권1책)은 광곽과 간기를 제외한 형태서지학적(形態書誌學的) 사항, 본문의 구성 체계 및 각수(刻手)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보 제32호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陝川 海印寺 大藏經板)」에 포함된 『사분율』과 동일한 판본으로, 1244년(고려 고종 31) 경에 판각(板刻)된 것을 1458년(조선 세조 4) 경에 인출(印出)하여 선장(線裝)한 판본(版本)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래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판본에는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와 같이 ‘甲辰歲’(고려 고종 31, 1244)의 판각 시기를 비롯하여 ‘高麗國’ 및 ‘大藏都監奉勅彫造’의 판각 주체와 판각처 등의 간기(刊記)가 있었으나, 조사본 『사분율』의 각 권말(卷末)에는 간기가 나타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이는 조선 세조조에 이르러 인출할 때에 국호(國號)를 기피한 이유때문으로 이해된다.

조사본 『사분율』의 제침제(題簽題)·권두제(卷頭題)·권말제(卷末題)·장차제(張次題) 등은 ‘四分律’이고 함차명(函次名)은 ‘唱’이다. 판식(版式)의 변란은 상하단변(上下單邊)이며 본문의 행자수는 23행 14자 내외이고 주문(註文)은 소자쌍행(小字雙行)이다. 권자본 형식의 장정을 옆두에 두고 판각된 것이라 계선(界線)을 비롯하여 판심(板心)이나 판구(板口) 및 어미(魚尾) 등은 없다. 또한 매 판에는 본문을 판각한 각수의 이름이 판각되어 있다. 조사본 『사분율』의 수록 내용은 권47은 ‘三十一’으로 <靈諍犍度第十六之一>이 수록되고 권48은 ‘三十二’로 <靈諍犍度第十六之二>과 <比丘尼犍度第十七之一>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49은 ‘三十三’으로 <比丘尼犍度十七之下>와 <法犍度第十八>이 수록되어 있고 권50은 ‘四十一’로 <房舍犍度初>가 수록되어 있다.



○ 지정사례 :

조사본 『사분율』 권47~50과 동일한 판본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문헌자료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등의 指定·認定 資料報告書> 및 <檢討意見書>. 釜山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2015.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編, <文化財委員會 有形分科委員會 審議議決書>. 釜山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2015.
- 최영호 編, <大成寺 所藏 「四分律」 調查報告書>. 釜山 : 釜山廣域市, 2014.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 「四分律」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四分律. 卷47-50 / 達磨笈多(?~?, 印度) 編 ; 佛陀耶舍(?~?, 姚秦), 竺佛念(?~?, 姚秦) 共譯. -- 木板本(大藏都監). -- [漢城] : [發行處不明], [高麗 高宗 31(1244) 刻, 朝鮮 世祖 4(1458) 印出]

4卷1冊(全60卷12冊) : 上下單邊, 全郭 22.2 × 46.7cm, 無界, 23行14字, 註雙行, 無魚尾 ; 40.2 × 29.2cm. 藁精·楮紙. 線裝(五針眼訂)

表 題: 四分律

卷頭題: 四分律

卷末題: 四分律

張次題: 四分律

函次名: 唱

內 容:

- 卷47(三分之一): 滅諍捷度第十六之一
- 卷48(三分之一): 滅諍捷度之二, 比丘尼捷度第十七
- 卷49(三分之一): 比丘尼捷度之下, 法捷度第十八
- 卷50(四分之一): 房舍捷度初

刻手名:

- 卷47: 01(·), 02(仁一), 03(英伯), 04(英白), 05(·), 06(惠印), 07(世圭), 08(·), 09(正順), 10(正順), 11(保令), 12(保令), 13(宗素), 14(宗素), 15(元瑩), 16(·), 17(元瑩), 18(·), 19(惠之), 20(惠之), 21(□湛[宗湛?]), 22(宗湛), 23(法雷), 24(法雷), 25(印一[印幹?]), 26(仁幹), 27(光看[光著?]), 28(光看[光著?])
- 卷48: 01([性良?]), 02(韓璉), 03(韓璉), 04(戒休), 05(戒休), 06(·), 07(全一[全一?]), 08(□□[性良?]), 09(性良), 10(長命), 11(長命), 12(惠右), 13(·), 14(戒山), 15(戒山), 16(仁京), 17(仁京), 18(益明), 19(益明), 20(成允), 21(□覺[性允?]), 22(·), 23(守呂), 24(中守), 25(中守), 26(日生), 27(日生), 28(東海), 29(東海), 30(·), 31(惠已[惠己?]), 32(中才), 33(·)
- 卷49: 01(·), 02(·), 03(曹規), 04(令順), 05(令順), 06(命龙[命龍?]), 07(命龙[命龍?]), 08(克中), 09(克中), 10(弘郎[命節?]), 11(弘郎[命節?]), 12(長存), 13(長存), 14(戒之), 15(戒之), 16(世英), 17(世英), 18(順眞), 19(順眞), 20(允兼), 21(允兼), 22(中□[中才?]), 23(中才), 24(心一), 25(心一), 26(·), 27(甘大), 28(允仁), 29(允仁), 30(曹守), 31(□守[曹守?]), 32(益恕), 33(益□[益恕?]), 34(□□[惠珍?]), 35(惠示[惠珍?]), 36(公□[公式?]), 37(公式)

-卷50: 01(·), 02(宝山), 03(元呂), 04(元呂), 05(·), 06(金奇), 07(保印[保守?]), 08(保□[保守?]), 09(喜玄), 10(喜玄), 11(升有), 12(升有), 13(升有), 14(·), 15(文正), 16(文正), 17(中花[中希?]), 18(中花[中希?]), 19(惠暉), 20(惠暉), 21(盡母[只每?]), 22(盡母[只每?]), 23(能大), 24(能大), 25(朴文), 26(朴文), 27(惠光), 28(惠光), 29(了眞), 30(了眞), 31(朴文), 32(朴文)

刊記: 高麗 高宗 31(1244) 刻, 朝鮮 世祖 4(1458) 印出 추정
裝訂: 線裝, 원래 卷子本으로 장정하기 위한 板刻이나 조선 세조때 인출본을 線裝으로 장정함
表紙: 楮紙, 원래 표지로 추정됨
題簽: 표지에 검정선으로 그림. 세로 26.9 × 가로 4.8 cm
狀態: 保存狀態는 매우 良好한 편임
所藏: 大成寺(부산광역시 서구 옥천로 142-22, 아미동 2가)
管理: 東亞大學校博物館(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 2가)
傳來歷: 1963년 釜山 大成寺 창건 시부터 2006년 入寂할때까지 주지를 지낸 曉潭(속명: 김한순)의 소장본으로, 제자인 무애 김미정에게 전해짐
既指定: 없음

조사본 「四分律」은 1963년 釜山 大成寺 창건 시부터 2006년 入寂할때까지 주지를 지낸 曉潭(속명: 김한순)의 소장본으로 제자인 무애 김미정에게 傳來되어 그의 사후인 2014년 초 효담스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되었다고 하며, 大成寺에서 東亞大學校博物館에 기탁하여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 2가의 동아대학교에 수장, 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四分律」의 보존 상태는 장정을 위한 紅絲가 끊어지고 표지이면과 卷47 앞부분 面紙 몇 장의 상단 오른쪽 여백에 줌으로 훼손된 부분이 다소 보이나 전체적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다. 또한 원래 卷子本으로 장정하기 위한 板刻을 조선 세조때 인출하면서 線裝으로 꾸몄다.

○ 내용 및 특징

「四分律」은 기원전 3세기 초 인도의 승려 達磨笈多(Dharmagupta, 曇無德, ??)가 五部律典 가운데 上座部 계통의 율전을 편찬한 法藏部の 律藏으로, 출가한 승려가 佛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율을 상세히 기록한 불교의 律典이다. 姚秦의 佛陀耶舍(??)와 竺佛念(??) 등이 弘始 12~14년(410~412) 경에 長安에서 공동으로 漢譯하였고 전체 내용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四分律」이라고 불리는 전체 60卷 12冊의 佛書이다.

編著者인 達磨笈多(Dharmagupta ?~?)는 기원전 3세기 초에 살았던 인도의 승려로 인도의 論師인 優婆鞠多(?~?)의 제자이며, 曇無德, 曇摩鞠多, 曇摩屈多迦 등으로 音寫되고 法藏, 法護, 法鏡, 覆法 등으로 意譯되어 불린다. 처음에는 化地部に 속하였으나, 五藏說이 化地部の 論理에 어긋나므로 독립하여 한 部를 만들었다고도 한다. 이 曇無德部는 曇無德律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이 4種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四分律宗이라고도 한다.

譯者인 佛陀耶舍(buddhayaśas, ?~?)는 산스크리트어 'buddhayaśas'의 音寫이며 '覺明'으로 번역된다. 현재 카슈미르 지역인 북인도 罽賓國의 바라문 출신으로 13세에 출가하여 27세에 具足戒를 받고 沙勒國에 이르러 太子 達摩弗多의 존경과 환대를 받으며 궁중에서 지냈다. 그때 龜茲國에서 온 鳩摩羅什(344~413)에게 「阿毘達磨」와 「十誦律」을 가르쳤으며, 그 후 鳩摩羅什의 請으로 五胡十六國時代に 甘肅省의 姑臧을 거쳐 姚秦(後秦)의 弘始 10년(408)에 長安에 이르러 姚興(366~416)의 환대를 받으며 鳩摩羅什과 함께 譯經에 참여하여 「四分律」과 「長阿含經」 등을 번역하였다. 弘始 15년(413)에 다시 罽賓國으로 돌아가 「虛空藏經」 등을 얻었다고 전해지나 그 후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다.

共譯者인 竺佛念(?~?)은 前秦~後秦의 승려로 甘肅省 涼州 出身이다. 어려서 출가하여 뜻을 堅固하게 가지고 여러 경전을 익히는 한편 外典도 공부했다. 그가 前秦 建元 10년(375) 경에 長安으로 왔을 무렵 僧伽跋澄(?~?)도 曇摩難提(?~?) 등과 함께 長安에 도착하자 朝廷의 요청으로 僧伽跋澄이 「婆須蜜所集論」을 번역하고 曇摩難提이 「王子法益壞目因緣經」과 「增一阿含經」 및 「中阿含經」 등을 번역하는데 조력하였으며 그는 傳語의 직책을 맡았다. 「梁高僧傳」에 의하면 後秦 弘始年間(399~415)에 「菩薩瓔珞經」, 「十住斷結經」, 「出曜經」, 「菩薩處胎經」, 「中陰經」 등 5部를 번역하여 譯經宗師로 불리었다고 하며, 「三藏記集」에 의하면 5部 외에 「王子法益壞目因緣經」도 번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開元釋教錄」에 의하면 「增菩薩瓔珞本業經」, 「鼻奈耶」, 「持人菩薩經」, 「大方等無想經」, 「菩薩普處經」, 「十誦比丘尼戒所出本末經」 등 6部까지 합해 총 12부 74권을 번역했다고 하는데, 「持人菩薩經」외에는 모두 逸失되었다. 나중에 長安에서 입적했는데, 입적한 해나 世壽는 알려지지 않는다.

전체 四分으로 구성된 내용을 보면, 初分은 권1부터 권21까지로 比丘의 具足戒인 250계가 수록되어 있는데, 250계는 죄를 범하면 교단에서 쫓겨나는 4가지 婆羅夷法, 죄를 범하면 20명 이상의 대중에게 참회해야만 승려로서 남을 수 있는 13가지 僧殘, 계를 범하면 그 재물을 대중에게 내놓고 참회해야 하는 30가지 捨墮罪, 죄를 범한 뒤 대중에게 참회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90가지 單墮罪, 익히고 닦아야 할 100가지의 衆學戒, 서로의 다툼을 없애고 화합을 얻게 하는 7가지 滅諍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二分은 권22부터 권36까지의 15권으로 되어 있으며 比丘尼 348계가 수록되어 있다.

比丘의 250계와는 달리 婆羅夷法이 8계, 僧殘이 17계, 捨墮罪가 30계, 單墮罪가 178계로 비구보다 계율이 더 세분되어 있고, 衆學戒와 滅諍法은 같다. 三分은 권37부터 권49까지 13권이며, 내용은 수도정진기간인 安居 때에 지켜야 할 사항, 안거하는 동안에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自恣에 관한 것, 옷과 약에 관한 것, 惡性比丘를 꾸짖는 법, 죄를 짓고 숨기는 비구를 참회시키는 법, 비구니에 대한 특수한 威儀 등 16종의 편장으로 되어 있다. 四分은 권50부터 권60까지의 11권으로, 방에 머무는 방법이나 기타 雜法에 관한 것, 경전 편찬에 관한 五百結集 및 七百結集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조사본은 「四分律」 권47부터 50까지의 1책으로, 卷47(三分之一)에는 滅諍捷度第十六之一이 수록되어 있고, 卷48(三分之一)에는 滅諍捷度之二, 比丘尼捷度第十七, 卷49(三分之一)에는 比丘尼捷度之下, 法捷度第十八, 卷50(四分之一)은 房舍捷度初가 기술되어 있다.

조사본은 匡郭과 刊記를 제외한 形態書誌學的 측면과 本文의 구성체계 및 刻手 등을 고려해 볼 때 ‘UNESCO 世界記錄遺産’이자 ‘國寶 第32號’인 <海印寺大藏經版>에 포함된 「四分律」과 동일한 版本으로, 高麗 高宗 31년(1244) 경에 板刻된 것을 朝鮮 世祖 4년(1458) 경에 印出한 판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사본에는 <海印寺大藏經> 판본 卷尾題 다음에 새겨진 “甲辰歲(고려 고종31, 1244)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의 刊記는 누락되어 있다.

사용된 종이는 藁精과 楮가 섞인 여러 종류의 두터운 한지와 黃色한지 등이며 장정은 紅絲, 五針眼訂의 線裝本이다. 표지 왼쪽 상단에는 題簽 형태의 사주쌍변 직사각형(세로 26.9 × 가로 4.8 cm)을 검은색으로 그리고 “四分律卷第四十七之五十”이라는 表題를 썼다. 또한 調查本 「四分律」의 총 130張, 每板에는 本文을 판각한 刻手名이 기재되어 있는데, 매권 첫 번째 판의 각수명은 모두 누락되어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四分律」은 일찍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신라시대 고승들이 많은 주석서를 남겼고, 「梵網經」과 함께 출가한 승려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근본계율서로 채택되어 널리 유통되었다. 즉 출가자들의 모든 규범과 생활이 이 책에 준하여 행해졌던 것이다. 이 책에 대한 우리나라 고승들의 주석서로는 智明(?~?)의 「四分律羯磨記」, 慈藏(590~658)의 「四分律羯磨記」와 「四分律木叉記」, 圓勝(?~?)의 「四分律羯磨記」, 「四分律木叉記」, 元曉(617~686)의 「四分律羯磨疏」, 「四分律疏科」, 「四分律宗記」 및 「四分律諸緣記」, 憬興(?~?)의 「四分律羯磨記」, 「四分律捨毗尼要」, 明晶(?~?)의 「四分律決問」 등이 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고려판 인경본은 「禮念彌陀道場懺法」, 「瑜伽師地論」, 「大方廣佛華嚴經」등 몇 종에 불과하고 「四分律」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조사본 「四分律」은 조선 세조 4년(1458)에 印出된 것으로 추정되는 印經本으로 원래 표지가 온전히 남아있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특히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으로

조선 초기에 인출된 판본 중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가 없어 처음 소개되는 유일본이며, 고려시대 대장경 연구 등 불교학 및 조선 초기 인쇄문화 연구를 위해서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四分律」은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 管理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자료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四分律」이 國家文化財로 지정된 事例는 없다.

○ 문헌자료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등의 指定·認定 資料報告書> 및 <檢討意見書>. 釜山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2015.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編, <文化財委員會 有形分科委員會 審議議決書>. 釜山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2015.
- 최영호 編, <大成寺 所藏 「四分律」 調査報告書>. 釜山 : 釜山廣域市, 2014.
- 김미정(大成寺 住持 무애), <大成寺 四分律 所藏 經緯書>. 釜山 : 峨眉山 大成寺 住持 무애, 2015.
- 문화재청문화유산정보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II.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국외 반출

안건번호 동산 2017-04-005

5. 보물 제1358-1호 동여도(東輿圖) 국외반출허가

가. 심의사항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3주년 기념 전시를 위한 보물 제1358-1호 동여도(東輿圖) 국외반출 허가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39조에 근거하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신청한 보물 제1358-1호 동여도 1조(23첩) 중 제일 첩 대한 국외반출 허가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신청기관 : 서울역사박물관
- 대상문화재 및 수량 : 보물 제1358-1호 동여도(東輿圖) 1조(23첩) 중 제일 첩
- 반출 및 전시기간
 - 반출기간 : 2017년 8월 24일 ~ 2017년 11월 28일
 - 전시기간 : 2017년 9월 09일 ~ 2017년 11월 17일
- 전시장소 : 바티칸박물관
- 전시명칭 :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한국 천주교회 230년 그리고 서울

라. 국외반출 대상 조사 결과

- 목 적 : 반출대상 유물 보존 상태 등 조사
- 조사일자 : 2017. 8. 7.(월)
- 조사장소 : 국립서울역사박물관
- 조사자 :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장 장상훈, 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 박지선
- 조사자 의견
 - <보물 제1358-1호 동여도(東輿圖) >
 - 표지를 감싼 견 부분에 일부 접힘 분위가 확인되므로 안정화 조치 요함

- 국외전시를 위한 포장 작업 이전에 상기 손상부위에 대한 안정화 조치를 진행하기 바라며, 적정 습도가 유지되는 밀폐 진열장에 전시하기를 권고함
- 상태 대체로 양호하여 해외전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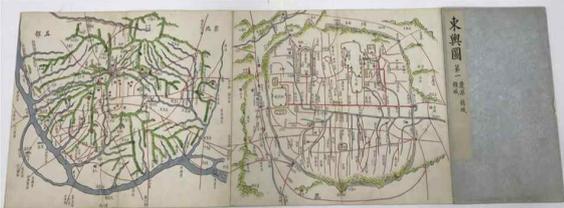
마. 우리청 의견

- 국가지정문화재 해외반출 현지조사 결과 대체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표지의 접힘 부분 안정화 조치 후 반출 권고하며 유물 포장과 운반에 주의를 요함
- 약 10주 가량의 전시기간 동안 유물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통하여 전시 면이 가급적 순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바티칸박물관 측과의 전시 협약서 또는 계약서 제출, 내용 확인 필요

바. 의결사항

- 부결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신청 목록 사진 및 세부사항

① 지 정 번 호	보물 제1358-1호	
② 명 칭	동여도(東輿圖)	
③ 수 량	23첩 중 제일 첩	
④ 규 격	길이 400×671cm	
⑤ 보 관 장 소	서울역사박물관	

검 토 사 항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7-04-006

6.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유물 일괄 (密陽 表忠寺 三層石塔 出土 遺物 一括)

가. 검토사항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유물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재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4년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14.5.15),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됨
- 이와 관련,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유물’에 대한 지정조사('16.1.2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2017년 제3차 위원회에 검토사항으로 부의한 바 있음
- 백자 사리기 봉안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보류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확인 결과 석탑 보존처리 기간(1995.5.17~1995.7.28) 동안 봉안했다는 확인을 받았음. 이에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다시 부의함
-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출토 유물 일괄(密陽 表忠寺 三層石塔 出土 遺物 一括)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 소 재 지 :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1338(단장면 구천리 23)

- 수 량 : 불·보살상 20점과 개수탑기비 1점 외 기타유물
- 규 격 : 불입상 높이 16.2cm, 불입상 높이 16.8cm 외
- 재 질 : 금동, 석조, 쇠, 수정
- 형 식 : 불상, 탑, 석비 등
- 조성연대 : 통일신라~조선시대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표충사 삼층석탑출토 유물들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20구의 금동 불상과 탑에 봉안된 여러 공양물들 및 석탑의 보수를 알려주는 조선초기의 <개수 기비>(1491년)를 포함하고 있다. 이 유물들은 표충사의 역사 뿐 아니라 한국미술사 및 불교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적심부에서 출토된 일괄유물은 불상과 청동탑, 석탑중수기비, 상평통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중을 이루는 불상은 더러 머리와 대좌 등이 파손되어 완전하지 못하지만, 전세품이 아닌 출토지가 분명한 곳에서 한꺼번에 시기를 달리하는 불상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들 불상이 어떠한 연유로 석탑의 적심부에 봉납되었는지 지금으로선 분명히 알 수 없으나, 불상의 상태가 완전한 것에서 주물상태가 불량하거나 일부 파손된 것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시주자들이 소중히 보관해 오던 불상을 석탑 중수를 계기로 자신들이 바라는 염원을 담아 시납한 것으로 여겨진다. 석탑 내에 사리장엄구 이외 불상을 봉납하는 사례는 통일신라시대 석탑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형식과 양식, 그리고 다양한 시대 층위를 가진 불상이 다량으로 봉납된 사례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드문 사례이다. 또한 이는 통일신라 9세기 대에 건립된 석탑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실증적 자료이기도 하다.

표충사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금동불상 및 청동탑편, 석탑중수기비, 상평통보 등은 금동불상 연구와 석탑의 공양의식, 중수사례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되므로, 일괄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표충사 석탑 안의 7세기 후반부터 고려시대까지 금동불이 함께 봉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머리카 다리, 대좌가 결실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유물인 것으로 보

아 탑에 봉안하기 위해 별도로 제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작기법상으로 보면 통주조의 원각상은 주로 10cm 이하의 소형상이 많고, 10cm 이상의 것은 뒤가 편불인 경우가 많다. 이 중에서 특이한 것은 광배꽃이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뒷면 어깨에 축을 내어 광배를 세운 방법인데 대체로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초를 추정되는 불상에서 편불이나 주조상태나 목덜미가 얇은 경우에 이 방식을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상적으로는 머리에 보관턱이 마련된 여래상인데 보관을 쓴 여래는 일반적으로 비로자나불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상은 통인의 수인을 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불상과 같이 발견된 표충사 삼층석탑 개수비는 수리와 관련된 15세기의 기록으로 표충사 원래의 사명이나 조선전기의 탑 중수와 관련된 대한 다양한 내용을 알려준다.

이 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표충사 삼층석탑출토 유물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조각의 편년과 도상, 제작기법 등을 비롯해 통시대를 거쳐 다양한 유물들이 총망라된 유일한 사례이며,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연구의 과제로 삼는 불교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현 상

1995년 실시된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보물 제 467호)의 해체보수작업 과정에서 발견된 유물은 1층 탑신의 사리공(舍利孔)에서 백자사리함, 유리구슬, 청동편 등과 기단 적심부(積心部)에서 불상 19점, <개수기비(改修記碑)>, 청동탑편, 상평통보, 청동편, 철편 등이다. 이 가운데 석탑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수기비>에는 홍치4년(1491)에 탑을 보수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기단부에서는 조선후기에 사용된 상평통보가 출토되어 석탑이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보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탑신부에서 발견된 백자사리함과 그 안에 납입되어 있던 유리구슬과 청동편 등은 탑을 보수하면서 공양물로 탑 안에 봉안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함께 사찰에 전해오던 금동불상들이 기단부에 안치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내용 및 특징

금동불 20구는 모두 소형상으로 불상이 17구, 보살상이 3구인데, 광배와 대좌를

갖춘 완전한 상은 없으며, 현존 크기가 최대 16.8cm이고 최소 4.2cm이다. 금동불은 통일신라 9세기부터 고려후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주조된 상들로서 주조기법과 조형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해 볼 때 대략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대좌와 옷주름의 형태와 전체적인 비례 등의 조형적인 면에서 볼 때 통일신라시대로 편년될 수 있는 상들이 다섯 구(목록 No. 4, 5, 6, 15, 18)이고, 다음으로 뒷면이 거의 없는 이른바 ‘편불(片佛)’ 형태인 상들(목록 No. 1, 2, 3, 7, 8, 9, 14)과 통주식으로 주조된 불·보살입상(목록 No. 10, 11, 13, 17, 19)들, 주조공(鑄造孔)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길게 뚫려있는 불입상(목록 No. 12)의 13구는 고려초에서 전기로 편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주조기법이 떨어지고 조형적인 면에서도 쇠퇴한 단계를 보여주는 두 구(목록 No. 16, 20)의 제작시기는 고려후기로 생각된다.

통일신라시대 불입상들은 전체적으로 상호가 뚜렷하고 옷주름의 표현이나 양감이 좋은 편이며 뒷면 아랫쪽에 광배축이 돌출되어 있어(No. 4, 5, 6, 15) 원래는 몸 전체를 감싸는 주형거신광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서 고려시대 불입상들(No. 1, 2, 3, 7, 8)은 대부분 대의 옷주름이 선각되어 있고 상호가 분명하지 않으며 대좌형태도 단순한데 뒷면의 목부분에 광배축이 돌출되어 있다. 이 가운데는 제작당시의 주조결함으로 몸체가 기울고 대좌가 틀어지거나(No. 9) 옷자락의 일부가 떨어지고 수인이 훼손된 경우(No. 14)도 보인다.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불입상 가운데 한 구(No. 5)는 머리의 높이는 육계 아래에 보관을 씌웠던 것으로 보이는 턱이 있고 흠이 파여 있어 주목된다. 고려시대의 보살입상(No. 17)은 16cm로 비교적 큰 편이고 중량도 358g으로 출토된 20구 가운데 가장 무겁다. 오른팔을 잃었는데 왼손이 너무 커서 비례면에서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보관에서 무릎 아래로 길게 늘어진 영락, 가슴의 조백(條帛) 등은 고려시대 보살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출토 이후에 판불로 이름 지워진 불좌상은 타출기법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주조된 상이므로 ‘판불’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 목록에는 육안으로 도금(鍍金)이 확인되는 불상은 금동여래입상으로, 금이 보이지 않으면 청동여래입상으로 명칭을 주었는데, 여래[佛]는 금인(金人)이라는 경전상의 내용에 따라 동(銅)으로 주조하여 도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래는 모두 금을 입힌 금동불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금동여래입상’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불상으로 분류되지 않고 첩편(鐵片)으로 분류된 유물 가운데 길이 4.84cm의 파편(No. 25)은 첩불의 손가락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 크기로 보아서 등신대(等身大) 높이의 첩불상이 사찰에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청동향로의 다리(No. 24), 청동탑의 일부(No. 21)와 그 기단에 장식되었던 불보살상편들(No. 26), 크기 5.4cm의 나신(裸身)의 청동인물상은 고려시대 유물로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금속제 유물과 함께 출토된 높이 71cm, 최대폭 61cm의 <개수기

비>(1491년)에 음각된 발원문에는 재악산(載岳山) 영정사(靈井寺)에서 홍치 4년 신해 2월에 기연(既然) 비구를 비롯한 스님들과 대중들이 시주하여 탑을 보수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석탑의 보수에 관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

○ 내용 및 특징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도 1]은 신라시대 전형양식을 따르는 석탑으로 9세기경에 건립된 석탑으로 보물 제467호로 지정되어 있다. 석탑의 건립과 관련된 기록은 1677년(숙조 3)에 작성된 『영정사고적기(靈井寺古蹟記)』에는 흥덕왕(興德王) 4년(829) 그의 셋째 왕자가 앓고 있던 악성 피부병을 죽림사(竹林寺)¹²⁾에서 약수를 마시고 치유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절을 중창하고 삼층석탑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단층기단에 간결한 형태미를 보이는 석탑의 양식적인 연대와 『영정사고적기』에 기록된 건탑(建塔)의 연대가 잘 부합되기 때문에, 아마도 9세기 무렵에 조성된 석탑으로 볼 수 있다.



도 1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9세기



도 2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 통일신라~고려



도 3 석탑개수기비, 68×59×10cm, 1491년

1995년 5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이루어진 삼층석탑에 대한 해체보수작업에서 1층 탑신과 기단 적심부(積心部)에서 다량의 공양품이 발견되었다. 1층 탑신 사리공에서 출토된 것은 백자사리함, 유리구슬, 청동편 등이고, 기단 적심부(積心部)에서 출토된 것은 불상 19점[도 2], ‘석탑개수기비(石塔改修記碑, 도 3)’, ‘청동탑편’, ‘상평통보(常平通寶)’, 청동편, 철편 등이다. 금동불상은 통일신라, 나말여초, 고려시대 등 3개의 시대 층위를 보이며, 청동탑편은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탑개수기비’는 홍치 4년(1491) 2월에 既然 비구를 비롯한 여러 스님들과 사부대중들이 참여하여 탑을 보수한 금석문 자료이다. 작은 규모의 금동불상은 1491년에 석탑이 보수되던 해에 한꺼번에 납입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 중수 때

12) 표충사는 원래 이름은 竹林寺로, 829(흥덕왕 4)에 중창하여 영정사로 고쳐 불렀던 것을, 1839년(헌종 5)에 밀양시 무안면에 있던 表忠祠를 영정사로 옮기면서 절 이름을 表忠寺라고 하였다.

납입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대층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석탑을 건립한 이후 몇 차례의 보수가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석탑의 기단 적심부에서 발견된 불상들은 여래입상, 여래좌상, 보살입상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조성시기는 통일신라시대와 나말여초, 고려전기 등 세 시기로 편년된다. 여래입상은 모두 통견착의법으로, 다시 허리 아래쪽에서 U자형이 두 갈래로 흘러내린 우전왕식 통견착의법(I형식)[도 4, 도 5]과 U자형의 주름이 한 갈래로 무릎 아래까지 흘러내린 아육왕식 통견착의법(II형식)[도 6, 도 7]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전왕식 통견착의법과 아육왕식 통견착의법 중에서 다시 내의의 표현 여부에 따라 I-1형식(내의가 표현 되지 않은 것)과 I-2형식(내의가 표현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도 4 우전왕식 통견착의법 I-1형식, 여래입상, no1 도 5 우전왕식 통견착의법 I-2형식, no7 도 6 아육왕식 통견착의법 II-1형식, no14 도 7 아육왕식 통견착의법 II-2형식, no10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불상(연번 1~5)은 큼직한 복발형의 육계와 양감있는 얼굴, 뚜렷하고 입체적인 주름선, 유연한 신체곡선과 풍만한 부피감을 보이고 있다. 통일신라~나말여초로 편년되는 불상(연번6~16)은 높은 육계에 가름한 얼굴, 신체의 유연한 굴곡은 잘 드러내었으나 옷 주름은 마치 신체의 일부인양 깊이를 얇게 선각하여 긴장감 넘치는 탄력성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였다. 통일신라시대 보살입상은 2점으로, 두 점 모두 대좌와 불상이 하나로 구조되었다. 한 점[도 8]은 허리는 잘록하고 불신은 단구적인 형태미를 보이며, 천의는 양어깨를 걸쳐 팔뚝으로 흘러 내렸다. 다른 한 점[도 9]은 머리는 결손 되었고, 三屈의 유연한 자세와 균형 잡힌 신체 곡선을 통해 감각적인 형태미를 보여준다. 연번 18·19은 고려시대 불상으로, 금동여래좌상[도 10]은 거칠게 타오르는 화염광배를 배경으로 톱니모양으로 표현된 仰蓮의 연꽃대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는데, 육계가 불분명한 팽이모양의 머리, 눈·코·입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이국적인 상호(相好), 투박하게 묘사한 옷주름 등은 강화 관청리 출토 금동여래좌상과 한 공방에서 제작하였다고 할 만큼 양식적으로 유사하고, 나아가 단호사·대원사 철조여래좌상 등 충주지역의 신비주의 경향의 철불 등과도 시대양식을 공유한다. 늘씬한 신체비례를 보이고 있는 금동보살입상[도 11]은 삼보문이 새겨진 삼화형 보관, 풍만한 턱살이 강조된 얼굴, 보관에서부터 무릎까지

U자형으로 길게 드리운 띠모양의 영락장식, 가슴 앞에서 T자형으로 교차한 천의자락과 나비매듭으로 묶어 내린 垂飾 등은 당진 영탑사 금동비로자나삼존좌상의 협시보살상, 동국대학교 금동보살입상 등 11-12세기 보살상들과 양식적으로 상통한다.

제작기법은 통주식과 중공식 등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확인되며 중공식은 마치 관불처럼 머리와 등 뒤를 크게 노출시켜 동(銅)을 최대한 아꼈다. 대부분의 불상 뒷면에는 광배를 꽃았던 축이 남아 있다. 대좌와 불신을 한 몸으로 제작된 것도 있고, 별도로 제작하여 축으로 연결한 것도 있다. 광배를 남기고 있는 작품은 나말여초의 동조여래입상 1점[도 12]과 고려시대의 여래좌상[도 10] 등 2점이며, 나머지는 모두 광배를 소실하였다. 청동탑[도 13]은 심하게 파손되었는데, 형태는 목탑의 뼈대를 연상시키듯 그 골격만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청동탑의 기단과 탑신에 부착되었던 여래상과 신장상은 분리된 채 남아 있다.



도 8 금동보살입상, 통일신라, No5



도 9 금동보살입상, 통일신라, No17



도 10 금동여래좌상, no19



도 11 금동보살입상, no18



도 12 동조여래입상, no16



도 13 청동탑편 및 상평통보

청동탑과 불상이 석탑의 공양품으로 납입된 사례는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보물 제429호)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표충사 삼층석탑이 우수하고 다량이어서 그 수준을 달리한다.



○ 현상 및 특징

표층사 삼층석탑은 보물 제467호로 표층사 경내 조사당과 팔상전 앞에 위치하며, 이층기단 위에 옥신을 올린 통일신라시대의 탑이다. 문화재관리국은 1995년 5월17일에서 8월24일까지 약 3개월이 넘는 시간에 걸쳐 석탑해체보수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1층 탑신부 정방형 사리공내에서 조선백자, 유리구슬, 청동편 등이 발견되었고, 기단내 적심부에서 불상, 석탑개수비, 청동소탑편, 상평통보 등 28건 49점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기단의 적심부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역사성을 가진 것들로,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료1. 탑내출토 유물 목록 참조)

1. 금동여래입상(연번1)

전체적으로 신체의 균형이 잘 맞으며 시무외·여원인을 취했지만 오른쪽 손가락은 모두 구부린 모습이다. 대의는 통견식으로 입고, 옷주름은 Y자형식인데 주조후 선각한 것으로 보인다. 상의 뒷부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크게 주조 구멍이 뚫려 있으며 내면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다. 광배꽃이는 바깥의 무릎 높이 정도에서 높게 돌출되어 있으며, 원발 아래에도 축이 있다. 이 상의 특이점은 머리 위에 보관 턱이 마련되어 있는데 원래 보관불은 비로자나불에 해당하는 도상적 특징으로 지권인을 하지 않은 비로자나불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금동여래입상(연번2)

앞의 금동불상(연번1)과 대동소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오른손과 머리는 결실되었다. 광배형식으로 뒷면 무릎의 위치에 광배꽃이가 있으며, 조주 마무리 상태가 좋지 않다.

3. 금동여래입상(연번3)

다리 아래와 왼손은 결실되었다. 단정한 얼굴에 시무외·여원인을 취했으며, 통견식으로 대의를 입고, 다리선을 따라 옷주름이 Y자 형식을 이룬다. 신체 뒷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편불이며, 하단에 1개의 광배꽃이와 2개의 형지(形持)가 남아 있다.

4. 금동여래입상(연번4)

도금이 잘 남아 있고 상태도 좋은 편이다. 이층의 연화좌 위에 시무외·여원인을 하여 곧게 정면으로 서 있다. 엄숙한 얼굴 표정에 대의는 통견식으로 입었으며, 옷

주름은 Y자 형식으로 다른 상에 비해 좀 더 입체적이다. 뒷면에 구조공 없는 통주식으로 불상과 대좌를 따로 별조한 결합식으로 보이며, 대좌 안쪽에 축이 나와 있다. 하단에 광배꽃이가 나와 있다.

5. 금동보살입상(연번5)

머리와 얼굴, 오른쪽 대좌, 천의의 양측 끝자락이 훼손되어 있다. 대좌와 상이 하나로 구조되어 되었으며, 거의 원각상에 가깝다. 왼손에는 연봉을 들고 오른 손은 천의자락을 쥐고 있으며, 얼굴은 근엄한 표정을 하고 직립의 자세이다. 어깨에 두른 천의는 양 팔을 따라 내려오고, 목에는 중앙 드리개와 연결되는 영락이 2단으로 장식되어 있다. 뒷면 중앙에 1개의 광배꽃이가 있다. 자세나 장신구 등 삼국시대의 전통이 남아 있는 통일신라의 불상으로 추정된다.

6. 동조여래입상(연번 6)

시무외·여원인을 반대로 하고 있으며, 머리가 앞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얼굴은 침울해 보이며, 정면의 신체는 비만해 보이지만 입체감이 없고 평면적이다. 오른쪽에 내의를 입고 그 위에 대의로 양 어깨를 감싸 입었으며 옷주름은 Y자형을 이룬다. 벌어진 가슴으로 사선의 승각기와 수평의 허리띠가 노출되어 있다. 뒤는 거의 열려 있는 편불형식으로 우측에는 잡물이 붙어 있어 면이 고르지 못하다, 목덜미 쪽으로 광배꽃이와 두발 아래 대좌꽃이가 남아 있다.

7. 동조여래입상(연번 7)

시무외·여원인을 하여 정면관의 자세를 하고 있으며, 앞의 동조상(연번6)과 옷, 신체표현 등이 거의 동일하다. 뒷면은 팔과 몸의 윤곽이 드러나는 편불이며, 목덜미에 광배꽃이와 양 발 아래 대좌꽃이가 남아 있다.

8. 금동여래입상(연번 8)

머리가 결실되었으며 오른쪽 대좌부 쪽으로 파손도 있다. 무릎 부위에 도금이 남아 있다. 두 손은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이 심하게 구부러져 손 갖춤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내의 위에 대의로 양 어깨를 감싸 입었으며, Y자형의 옷주름을 이룬다. 가슴에는 사선으로 내려오는 승각기가 드러나 있다. 정면은 비만한 모습으로 신체나 옷주름은 양감이 없고 매우 평면적이며, 간략하다. 이 상은 연번 6과 7의 불상과 대동소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상의 특이점은 양측 팔꿈치 정도의 높이에 축이 나와 있는데 광배꽃이의 용도로 사용된 듯 하며, 연번 12의 불상에 경우 같은 모양의 축이 어깨 정도의 위치에 보이며, 별도의 광배꽃이를 만들지 않았다. 머리의 결실로 목덜미의 광배꽃이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원래 광배꽃이를 제작하지 않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발아래에는 대좌꽃이가 남아 있다.

9. 동조여래입상(연번9)

목과 가슴 쪽에 파손이 있으며, 양 손가락, 발목이하 부분이 결실되었다. 소발에 머리와 육계구분이 분명하며, 가름한 얼굴에 표현은 침잠하다. 통견식으로 대의를 입었으며, 옷주름은 가슴으로부터 다리까지 U자형의 옷주름이 이어진다. 옷주름은 선각으로 형식적이고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허리에서 한 번 절단 된 듯 굴곡져 있는데 10세기 초로 추정되는 안압지 출토 금동비로자나불입상과 유사한 특징이다.

10. 금동여래입상(연번10)

머리에 비해 신체가 짧고, 배를 앞으로 살짝 내민 자세로 연화좌 위에 서 있다. 손끝이 부러져 손 갖춤은 정확하지 않다. 근엄한 표정에 통견으로 대의를 입었으며, U자형 옷주름이 연속적으로 아래까지 이어지고, 대의 안으로 사선의 승각기는 여러 개의 옷주름선이 표현되어 있다. 대좌와 상이 하나로 구조되었으며, 목덜미 쪽으로 1개의 광배 축이 있고, 뒷면이 거의 드러나 있는 편불이다.

11. 동조여래입상(연번11)

얼굴, 수인, 법의 특징이 연번 9번의 불상과 대동소이하다. 상과 대좌가 하나로 구조되었으며, 뒷면의 왼쪽 어깨에 땀질 자국이 있다. 광배꽃이는 없다.

12. 동조여래입상(연번12)

6엽의 연화좌 위에 시무외·여원인을 하여 정면관의 자세를 취했다. 통견식으로 대의를 입고 옷주름은 Y자형식이다. 고개가 우측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으며, 대좌도 좌측면이 일그러져 있다. 뒷면은 머리와 신체가 관통하는 편불형식이며 광배꽃이는 없다. 특이점은 연번 8의 불상과 같이 뒷면의 우측 어깨쪽에 광배를 끼우기 위한 축이 나와 있다.

13. 금동여래입상(연번13)

약 8cm의 소형으로 대좌와 하나로 구조된 원각상이다. 시무외·여원인을 하여 원형의 큼직한 대좌 위에 서 있으며, 통견식으로 대의를 입고, U자형의 옷주름이 무릎까지 연속되어 있다.

14. 동조여래입상(연번14)

상과 대좌가 하나로 구조된 약 6cm 크기의 소형상이다. 높은 대좌 위에 시무외·여원인을 취해 서 있으며, 머리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 얼굴 표현은 알

아보기 어렵다. 통견식으로 대의를 입고, U자형의 옷주름이 큼직하게 선각으로 표현되어 있다. 뒷면에 장방형으로 머리와 신체에 얇은 홈이 있으며, 광배꽃이는 없다.

15. 금동여래입상(연번15)

높은 대좌 위에 시무외·여원인을 해서 있는 10cm이하의 소형상이다. 얼굴은 알아보기 어려우며, 대의는 통견식으로 입고 옷주름은 U자형식이다. 표면에 기포 흔 같은 작은 구멍들이 있으며, 뒷면은 편불형식으로 가운데에 큼직한 광배꽃이가 있다.

16. 동조여래입상(연번16)

6cm의 소형상으로 상, 광배, 대좌가 하나로 주조되었다. 얼굴 표현은 알아보기 어려우며, 대의는 통견식으로 입고 옷주름은 U자형식이다. 광배 가장자리가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다.

17. 금동보살입상(연번17)

머리가 결실되었으며, 가슴과 다리, 대좌에 도금이 남아 있다. 안상이 뚫린 6각 기단 위에 이중 연화좌를 마련하고 그 위에 시무외·여원인을 하여 한쪽 다리에 힘을 뺀 삼굴 자세를 하고 있다. 몸은 가늘고 길어 보이며, 양 어깨에 두른 천의 자락은 팔 아래에서 결실되었다. 군의는 몇 개의 선각으로 옷주름이 표현되어 형식적이고 도식적이다. 뒷면은 얇게 홈이 져 있으며, 상단에 광배꽃이가 마련되어 있다.

18. 금동보살입상(연번18)

이 상은 통주조로 제작되었으며 오른팔과 양 발이 결실된 상태이다. 머리에 비해 몸이 길고 밋밋하며, 팔은 굵고 긴 편이다. 다리의 모양이 삼굴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자세가 어색하다. 정수리의 높은 보발은 아래를 묶어 상단을 네 가닥으로 펼쳐 놓은 모양이며, 보관은 띠 형태이다. 얼굴 턱 아래가 부분 듯 불룩하며, 작은 눈에 친근한 인상이다. 귀걸이와 목걸이, 팔찌를 착용하고, 목으로부터 이어지는 긴 띠가 길게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같은 형태는 고려 초로 추정하는 개성 관음굴 불상에서도 같은 장신구를 볼 수 있다. 가슴에 조백의 띠 자락이 가슴 앞으로 흘러내리고, 양 어깨에 두른 천의는 왼팔을 감아 돌아 내려오는 모양인데 왼팔의 자락이 훼손되었다. 군의는 길게 신체에 밀착되게 입었으며, 허리로 부터 내려오는 띠 매듭은 나비모양으로 한 번 묶어 자락이 길게 내려와 있다. 뒤편에는 광배꽃이가 없는 원각상이며, 천의와 군의도 표현되어 있다. 얼굴, 옷자락, 장신구 등의 특징으로 보아 고려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나 제작국에 대한 것은 의문이 된다.

19. 금동여래입상(연번19)

상, 대좌, 광배가 하나로 조각되었다. 투조된 화염 광배를 배경으로 연화좌에 걸가 부좌하여 오른 손은 들고 왼손은 다리 위에 둔 아미타인의 손 모양을 갖추고 있다. 육계와 머리의 구분이 없으며, 얼굴은 토속화된 모습이다. 대의는 통견식으로 입어 옷자락을 왼쪽 팔로 넘겼으며, 벌어진 가슴 앞의 대의는 V자형으로 벌어져 있다. 뒷면은 평면으로 주조된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20. 기타(연번20-26, 28)

동조의 판불(연번20), 청동탑 일괄품(연번21,22), 청동향로다리(연번23), 철제 손가락(연번24), 청동편(연번25,26), 상평통보(연번27), 유리구슬이 있다. 고려 청동탑은 옥개의 구성, 높이 등으로 보아 7층탑으로 추정되며, 작은 인물상(연번22)은 원래 탑의 구성의 일부로 추정된다.

철제 손가락은 굵기 정도로 보아 엄지편으로 추정되며, 팔상전의 봉안되어 있는 철제여래상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선시대 상평통보와 청동편 등은 장식의 일부로 추정되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21. 삼층석탑개수비(연번 27)

기단 적심에서 불상과 같이 발견되었다. 10cm 두께의 판에 10행 약120자를 음각하였는데 홍치4년(1461)에 계심(械心)이 주도하여 시주자들의 시주로 탑을 수리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조】 자료1. 탑내출토 유물 목록

연번	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이미지
1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13.8cm 귀-귀: 2.3cm 어깨폭: 3.2cm 두께: 0.3cm 광배꽃아: 1.2cm 무게 220g	
2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현존고: 10.7cm 두께: 0.3cm 광배꽃아: 1.3cm 무게: 201g	
3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8.5cm 두고: 2.3cm 귀-귀: 1.7cm 어깨폭: 2.0cm 두께: 0.6cm 무게: 96g	
4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11.5cm 상고: 8.9cm 두고: 2.1cm 어깨폭: 2.2cm 대좌고: 2.6cm 두께: 0.3cm 무게 154g	
5	금동보살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6.7cm 상고: 4.8cm 어깨폭: 1.3cm 대좌고: 1.9cm 무게: 57g	
6	동조여래입상	동조	1	총고: 16.2cm 어깨폭: 4.0cm 무게: 294g	

연번	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이미지
7	동조여래입상	동조	1	총고: 16.8cm 어깨폭: 4.5cm 무게: 255g	
8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11.8cm 어깨폭: 4.2cm 두께: 0.2cm 무게: 162g	
9	동조여래입상	동조	1	총고: 8.0cm 어깨폭: 2.0cm 무게: 70g	
10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11.0cm 어깨폭: 2.0cm 무게: 143g	
11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11.0cm 어깨폭: 1.7cm 무게: 116g	
12	동조여래입상	동조	1	총고: 11.4cm 어깨폭: 2.0cm 무게: 134g	
13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8.4cm 어깨폭: 1.2cm 무게: 86g	

연번	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이미지
14	동조여래입상	동조	1	총고: 6.3cm 어깨폭: 1.0cm 무게: 56g	
15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8.1cm 무게: 96g	
16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5.0cm 상고: 3.0cm 광배폭: 1.8cm 무게: 26g	
17	금동보살입상	동조 도금	1	현고: 9.3cm 어깨폭: 1.5cm 대좌고: 2.9cm 두께: 0.4cm 무게: 26g	
18	금동보살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16.0cm 두고: 3.0cm 면폭: 1.5cm 무게: 358g	
19	금동여래좌상	동조 도금	1	총고: 5.8cm 두고: 1.7cm 어깨폭: 1.9cm 좌폭: 2.5cm 두께: 0.4cm 무게: 66g	
20	관불	동조	1	높이: 4.2cm 너비: 2.0cm	

연번	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이미지
21	청동탑일팔	동조	일팔 1	청동탑높이: 16.0cm 청동탑최대폭: 4.0cm	
22	청동신장상	동조	1	인물상높이: (대)5.4cm	
23	청동향로다리	동조	1	높이 6.7 폭 4.1cm	
24	철제불상 손가락 (엄지 추정)	철조	일팔 1	길이: 4.8cm 단면직경:2.8cm	
25	청동편	청동	6		
26	청동편	청동	2		
27	상평통보	동조	1	직경: 2.3cm	
28	개수탑기비	석재	1	높이 :68.0cm 너비: 59.0cm 두께: 10.0cm	
이 상 28건 34점					

2. 영정사삼층석탑개수담기(靈井寺三層石塔改修塔記)

「○名載岳山靈井寺也

弘治四年辛亥二月日改修塔記

夫塔開剝圮窳傾危頽落既然

比丘□□同□比丘文一信了木一見有重新之

志以振寒□遂□于□成造指揮處

□□正□心□義□□□居大衆百

八餘□日也禪宗大禪師械□百同□□施

都□智照施主□山主徐同

□主□午 禾万

刻記雪印」

7. 선림보훈(禪林寶訓)

가. 검토사항

‘선림보훈’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선림보훈’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5.1.2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6.10.1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선림보훈(禪林寶訓)
- 소 유 자 : 충주박물관
-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가금면 중앙탑로 112-28 (충주박물관)
- 수 량 : 2권1책
- 규 격 : 반곽(半郭) 17.9×13.4(28.3×18.0) (cm) 内外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조성연대 : 1378년(고려 우왕 4) 刻, [後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선림보훈』은 고려 우왕 4년(1378)에 충주의 청룡선사에서 간행한 고려본이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동일한 판본이 이미 보물 제700호로 지정되어 있듯이 고려말기부터 조선으로 이어지는 시기의 우리 불교 사상이나 선종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그리고 간행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실이 남아 있어서 고려말기 지방 사찰본의 간행 특징도 살필 수 있다. 충주박물관 소장본은 누습의 흔적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전하는 동일한 판본 가운데 가장 선본으로 추정되며, 2014년 4월 18일에 구입하였다는 소장경위 역시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선림보훈」은 깊은 선정을 닦은 선사들의 도와 덕에 관한 교훈을 모은 선법서로 이는 총림의 도덕이 쇠퇴하여 가는 것을 염려하여 고승들의 법어나 수행을 수렵하여 납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한 것이었다.

조사본은 고려 우왕 4(1378, 선광 8)년에 충주의 선찰인 청룡선사에서 중국의 판본을 복각하여 개판된 2권1책의 판본으로 현재 보물 제700호로 지정되어 리움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판본과 동일한 판본이다.

조사본에는 선림보훈(권상), 선림보훈(권하)의 본문을 비롯하여 원간행질(묘기), 원간계송(우무), 원간발(정선), 복간발(환암), 인문, 복간질 등이 수록되어 있어, 본서가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전말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물론 모연자와 조연자 및 각판과 류판처 등의 기록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더욱이 조사본은 현재 전래되고 있는 판본 가운데 판각술과 인출술이 가장 정교한 고려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본 「선림보훈」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선림보훈』은 1378년(고려 우왕 4년, 宣光 8)에 충주의 청룡선사(淸龍禪寺)에서 개판된 판본이다. 고려시대 간행된 책으로 발문 및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을 통하여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인쇄사는 물론 불교사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중요하기에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대체로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禪林寶訓. 卷上·下 / 宗杲(宋), 士珪(宋) 共著 ; 淨善(東吳) 重集 ; 妙機 校證
 木板本
 忠州 : 靑龍禪寺, 禡王 4(1378)刊 [後印]
 2卷1冊, 左右雙邊 半郭 17.9×13.4cm, 有界, 10行20字, 上下小黑口, 下向黑魚尾 ; 28.4×17.9
 cm
 版心題: 訓
 原刊記: 甲午中秋吳門比丘永中謹識 / 板留長蘆禪寺印行
 [跋]: 宣光八年戊午(1378)二月書于宴晦菴
 [刊記]: 留板忠州靑龍禪寺

『선림보훈(禪林寶訓)』은 송나라 때 완성된 선종(禪宗) 관련 서적으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의 하나이다. 대혜 종고(大慧宗杲, 1089~1163)와 죽암 사규(竹庵士珪, 1082~1146)가 이전에 학덕이 높은 고승들의 좋은 말씀이나 행동들을 모아 둔 것을 바탕으로 남송의 승려인 정선(淨善)이 순희(淳熙) 연간(1173~1189)에 조안(祖安)의 소장본을 얻어 상하권으로 나누어 거듭 엮은 것이다. 이 판본에 수록된 내용은 <표 1>과 같이 명교 계승(明教契嵩)부터 나암 도추(懶菴道樞)까지 39명의 어록이다.

<표1> 선림보훈에 수록된 승려

1	明教契嵩	11	真淨克文	21	雪堂道行	31	心聞雲賁
2	圓通居訥	12	湛堂文準	22	黃龍死心	32	拙菴佛照德光
3	大覺懷璉	13	靈源惟清	23	草堂善清	33	密菴咸傑
4	曉舜老夫	14	佛鑑慧勲	24	山堂道震	34	自得慧輝
5	法遠錄公	15	佛眼清遠	25	妙喜宗杲	35	瞎堂慧遠
6	五祖法演	16	高菴善悟	26	萬菴道顏	36	簡堂行機
7	白雲守端	17	歸雲如本	27	昭覺大辯	37	慈受懷深
8	晦堂祖心	18	圓極彥岑	28	佛智端裕	38	靈芝元照
9	黃龍慧南	19	東山慧空	29	水菴端一	39	懶菴道樞
10	洪英邵武	20	浙翁如琰	30	月堂道昌		

충주박물관 소장의 이 판본은 우왕 4년(1378)에 충주의 청룡선사에서 송본(宋本)을 번각하여 간행한 목판본이다. 『선림보훈』은 처음 순희 연간에 간행된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이어 간행하게 된다. 시이나 코유(椎名宏雄)의 조사에 따르면, 충주박물관 소장의 이 판본은 초간이후 오산판(五山版) A본(1287년경), 원판(元版,

1294년), 오산판 B본(1331-1391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용과 편성은 건장사(建長寺) 정속암(正續庵)에서 간행된 오산판 A본과 동일하지만 권하가 끝난 뒤에 영중(永中)이 갑오년 8월에 쓴 지(識), 목판이 소장된 장노선사(長蘆禪寺)에서 인출하였다는 인기(印記), 태평흥국선사 주지인 묘기(妙機)가 교증(校證)하였다는 기록, 임인년 중양일에 석산 우무(錫山 尤袤, 1127-1194)의 원발문, 정선(淨善)이 쓴 발문과 고려의 환암 혼수가 1378년에 쓴 발문, 모연 조연자 그리고 고려의 목판이 충주의 청룡선사에 보관되고 있었다는 등 책의 완성과 간행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사진1> 충주박물관 소장본 권미



<사진2> 리움 소장본 (보물 제700호) 권미



<사진3>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 권미

이중에서 정선(淨善)의 서문형식의 글을 통해 그가 처음 이 책을 엮게 된 과정과 간행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선림보훈』은 묘희(妙喜, 1088~1163)와 죽암(竹庵, 1082~1146)이 강서의 운문사(雲門寺)에서 함께 엮은 것이다. 나는 순희 연간에 운거(雲居)에서 노스님인 조안(祖安)에게서 이 책을 얻었으나 처음과 끝이 완전하지 못하였다. 이후 10년에 걸쳐 어록(語錄)이나 전기(傳記) 속에 있는 것을 모으니 거의 50여 편이 되었으므로 이 모두를 300편으로 분류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은 내가 얻은 대로의 선후만 있을 뿐 고금(古今)의 차례는 갖추지 않았다 … 장차 판목에 새겨 널리 전하러 하니 반드시 마음을 함께하는 동지가 있을 것이다. 동오(東吳)의 사문 정선은 정중히 쓴다.

이때 간행된 송본이 고려에 전래되자 고려에서는 이 판본을 바탕으로 번각을 하게 된다. 환암(幻菴)의 발문에 따르면, 선광 8년(우왕 4, 1378) 2월에 연회암(宴晦菴)에서 “요암 행제공(了庵 行齊公)에게서 한 부를 얻어 제자인 상위(尙偉)에게 간행을 맡겼다.”고 한다. 발문이 끝난 다음 행에는 「幻庵」과 「沙門無作」이라는 인장이 각각 양각과 음각으로 각인되어 있다. 이어 모연(募緣)에는 상위(尙偉)와 만회(万恢), 조연(助緣)에는 우바새 고식기(高息機)와 우바이 최성연(崔省緣)이 맡았음을 알 수 있다. 판각장소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 “목판은 충주 청룡선사에 보관되어 있었다.”(留板忠州靑龍禪寺)고 하므로 청룡선사 또는 인근의 사찰로 추정된다.

간행을 주도한 환암 혼수(1320~1392)의 자는 무작(無作), 호는 환암(幻庵), 법명이 혼수(混修)이다. 공민왕 19년(1370)에 공부선(功夫選)에서 유일한 합격자로 선발되어 우왕이 즉위한 뒤에는 보제존자(普濟尊者)의 칭호를 받은 고려의 마지막 국사이다. 말년에 충주 청룡사 근처의 연회암(宴晦庵)에서 수행을 한 선승이다.

그런데 청룡사에서는 같은 해에 환암의 주도로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보물 제720호)도 간행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환암의 발문에는 “병진년(1376년) 안거(安居)가 끝나갈 때에 설법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하는 이가 있어서 이 책을 설법하였는데, 청중 가운데 신사(信士) 고식기(高息機)가 감동하여 이 책의 간행 광포를 희망하여 간비(刊費)를 보시하였으므로 제자 만회(万恢) 등에게 맡겨 판각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이 두 책은 같은 해에 환암의 주도아래 동일한 실무자와 지원자에 의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룡사에서는 이듬해에 『호법론(護法論)』도 간행하였다.

충주박물관 소장의 이 판본의 전체 장수는 권상은 40장, 권하는 46장 등 모두 8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락되거나 손상된 장은 없다. 앞뒤의 표지는 오래 전에 개장된 것으로 보이며, 표제(表題)는 “『禪林寶訓』 上下”, 권수제는 『선림보훈』, 판심제는 “훈(訓)”이다. 책의 판심부분과 우측 아래 부분에는 누린색의 누습 흔적이 남아 있다.

동일한 판본으로는 국내에는 삼성미술관 리움소장본(보물 제700호, 1981.03.18),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소장본(청구기호: 貴1840 20), 고양 대성암 소장본(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04호, 2015.03.09) 등이 있다. 해외에는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가 기증한 일본의 동양문고와 중국의 국가도서관 소장본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충주 박물관 소장본이 가장 선본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 이후에 간행된 조선판본으로는 중종 20년(1525)의 순천 대광사본(大光寺本,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52호, 2015.01.23), 중종 37년(1542)의 금강산 표훈사본(表訓寺本), 1555년의 황주 이순재가본(李順才家本) 그리고 연대미상의 천녕사본(天寧寺本) 등 4종이 알려져 있다.

○ 문헌자료

-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대상 회의자료』, 충청북도, [2016]
- 椎名宏雄, “『禪林寶訓』 諸版の系統”(『印度學佛教學研究』 第44卷 第1號, 1988. 12)
- 강호선, “고려말 幻庵混修의 활동과 그 의미”(『禪學』 제43호, 2016. 4)

□

○ 현 상

조사본 「선림보훈」은 원래 문화재매매업자인 ‘김은하’가 (주)코베이의 ‘삶의 흔적 경매전’에서 낙찰을 받아 소장하던 문화재를 충주박물관이 2014년 2월 21일에 박물관자료감정위원회의 감정평가를 거쳐 2014년 4월 18일에 ‘김은하’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현재 충북 충주시 가금면 중앙탑로 112-28의 충주박물관에 수장되어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선림보훈」은 서구와 서각의 일부에 다소 오염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며, 표지는 후대에 개장된 것인 듯하다. 또한 포서갑과 포서갑의 제첩제도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 내용 및 특징

「선림보훈」은 깊은 선정을 닦은 선사들의 도와 덕에 관한 교훈을 모은 선법서이다. 일찍이 남송조의 임제종 양기(992-1049)과의 묘회보각 대해종고선사(1088-1163)와 죽암사규선사(1082-1146)가 운거산 운문사의 옛터에 토굴을 짓고 20여년 동안을 살면서 고승 100여편을 지을 때에 모은 것이다. 이는 총림의 도덕이 쇠퇴하여 가는 것을 염려하여 고승들의 법어나 수행을 수립하여 남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간행을 통한 유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순희연간(1174-1189)에 동오(소주)의 정선선사(?-?, 남송)가 운거산을 유람하다가 노승 조암선사로부터 「(선림)보훈」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별레먹고 손실된 불완전한 상태여서 10여년 동안 다른 어록들과 전기를 참고하여 황룡혜남선사(1002-1069)에서 불조졸암선사(1121-1203)과 간당행기선사(1113-1180)에 이르기까지 50여편을 더 수집하고 보완하여 300여편으로 편성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정선선사의 “「(선림)보훈」은 옛적에 묘회보각 대해종고선사(1088-1163)와 죽암사규선사(1082-1146)께서 강서의 운문사에서 토굴을 짓고 수도하실 때에 함께 편집한 것이다. 나는 순희연간(1173-1189)에 운거산에서 노닐다가 조암 노사로부터 이를 얻게 되었는데, 세월이 오래된 탓에 종이 슬어 권두와 권미가 완전하지 못한 점을 애석하게 여겨왔다. 그 뒤로 어록이나 전기 중에서 보이는 대로 10여년 동안이나 집적한 끝에 가까스로 50여편이 되었다. 그리하여 [위로는] 양기묘회선사(992-1049)와 황룡혜남선사(1002-1069)에서부터 [아래로는] 불조졸암선사(1121-1203)와 간당행기선사(1113-1180)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선사들께서 남긴 어록을 절요하고 수집하여 300편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이는 집적된대로 순서를 정하였을 뿐, 시대순으로 편집하지는 않았다. 대체적인 내용은 남자들로 하여금 권세와 리익을 추구하거나 나와 남을 구별하는 마음[인아견]을 깎아내며, 도덕과 인의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었다. 그 문체는 여유롭고 평이하여 궤변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투가 없어서 실로 입도를 돕는 원대한 법문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경판에 새겨 널리 전포하려면 반드시 한 번 보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도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 비록 언덕이나 골짜기에서 늙어 죽는다 하더라도 뜻[위]과 바람[원]이 만족되리라. 동오(소주)의 사문 정선은 쓰다.”라는 발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정선선사에 의하여 중집된 「선림보훈」의 간행에 관한 사실은 “이 전질이

간행된 지 이미 오래다. 목판은 송원화상의 탐원에 유판되어 왔는데 어느날 저녁에 [탐]원의 화재로 목판도 함께 소훼되어 식자들이 민망하게 여겨왔다. 이에 중연을 모아 다시금 새로이 침재하여 그 전래를 오래토록 하고자 하니, 견문한 인사들은 물론 여러 대로들이 함께 천재의 위까지 주선하니 기원한 바가 매우 흡족하도다! 갑오년 중추에 오문비구 영중은 삼가 지하다. 목판은 장로선사에 유판하고 인행하다. 안경부의 태평흥국선사주지사조비구 묘기(?-?)가 교증하다.”라는 영중선사의 <지문>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편집된 「선림보훈」은 그 뒤 명조말에서 청조에 걸쳐 몇 가지의 주석서가 저술되었다. 명조 승정 8(1635)년에 운서사의 대건선사가 저술한 「선림보훈종의」 1권이 처음 나온 이래로 이를 토대로 명조 永歷 4(1650)년 장문권과 장문헌이 편찬한 「선림보훈합주」 4권이 나왔다. 이어 영력 8(1654)년에는 앞의 합주에 서를 썼던 행성선사가 42선승들의 깊은 뜻을 넘송 74수로 나타낸 「선림보훈송」 1권이 저술되었다. 그 후로도 청조 강희 17(1678)년에 덕옥선사의 「선림보훈순」 4권과 강희 45(1706)년에 지선선사의 「선림보훈필설」 3권이 저술되었다. 이처럼 많은 주석서가 나오게 된 것은 그들의 서문마다 밝히고 있듯이 총림이 쇠퇴함에 따라 총림의 귀감이 되는 것을 밝히고자 한 때문이다.

정선선사가 중편한 명간의 「선림보훈집」 4권본에 의하면 권1에는 「明敎契崇」에서 「眞淨克文」까지 77편, 권2에는 「湛堂文準」에서 「浙翁如琰」까지 72편, 권3에는 「雪堂道行」에서 「棲賢寺辯公」까지 77편, 권4에는 「佛智端裕」에서 「懶庵道樞」까지 64편 등 도합 290편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선림보훈」이 간행되었는데, 그 초간이 바로 고려 우왕 4(1378, 선광 8)년에 충주의 선찰인 청룡선사에서 중국의 판본을 복각하여 개판된 충주박물관 소장의 조사본이다. 조사본과 동일한 판본이 현재 보물 제700호로 지정되어 리움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다.

충주박물관 소장의 조사본 고려 목판본 「선림보훈」 2권1책의 서지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조사본의 표제와 권수제 및 권말제는 ‘선림보훈’이며 판심제는 ‘훈’이다. 판식의 변란은 상하는 단변이고 좌우는 쌍변이며, 반곽의 크기는 세로 17.9cm이고 가로 13.4cm이다. 본문에는 계선이 있고 행자수는 10행20자이며 주는 쌍행이다. 판구는 상하에 대흑구가 있고 판심의 어미는 상하하향흑어미이다. 책의 크기는 28.3cm이고 가로는 18.0cm이며, 지질은 저지이고 장정은 오침안정법에 의한 개장된 선장이다.

조사본에 수록된 내용은 선림보훈(권상), 선림보훈(권하), 원간행질(묘기), 원간계송(우무), 원간발(정선), 복간발(환암), 인문, 복간질 등이다.

조사본의 권말에 수록된 보각국사 환암훈수의 발문에 의하면, “이상의 「(선림)보

훈」은 송조의 고승인 묘희보각 대혜종고선사와 죽암사규선사께서 여러 말학들이 대체로 성명만을 추구하고 도덕을 수행하지 않음을 걱정하여 존숙의 고담과 총림의 유훈 중에서 경중할만한 것들을 공집하여 2권으로 나누고 그 제목을 「선림보훈」이라 한 것이다. 양가의 요암행제(?-?)공께서 그 중의 1부를 구득하여 [보고는] 일찍이 결코 없었던 [처음 보는] 것이라 감탄하며 문인 상위선사에게 판각하여 널리 류포할 것을 부촉하자, 환암은 그 말미에 몇 마디 어구로 제하는 바이다. 선광 8(고려 우왕 4, 무오)년 2월에 연회암에서 쓰다.”고 하여 본서가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전말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조사본 권말의 간행질에 의하면 “상위선사(?-?)와 만회선사(?-?)가 모연하고 우바새 고식기(?-?)와 우바이 최성연(?-?)이 조연하여 충주의 청룡선사에 류판하다.”고 기록되어 있어, 모연자와 조연자 및 각판과 류판처의 기록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조사본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선림보훈」은 조선 중종 20(1525)년에 순천의 대광사에서도 상·하 2권으로 간행된 바 있으나, 조사본은 현재 전래되고 있는 판본 가운데 간행기록이 확실하고 판각술과 인출술이 가장 정교한 고려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본 「선림보훈」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조사본 「선림보훈」과 동일한 판본의 「선림보훈」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로는 리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 제700호의 「선림보훈」(2권1책, 1981년 3월 18일 지정)이 있다.

조사본 「선림보훈」은 리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 제700호의 「선림보훈」보다 보존상태가 훨씬 양호한 판본이다.

○ 문헌자료

- 종고, 사규 원집, 정선 중집, 「선림보훈」. 목판본(원간부간본). [충주] : [청룡선사 연회암], [우왕 4(1378)]. <충주박물관소장본>
-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 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신청서. [청주] :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선림보훈’

□

○ 현 상

조사본 『선림보훈』은 서구(書口)와 서각(書脚)의 일부에 다소 오염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표지는 후대에 개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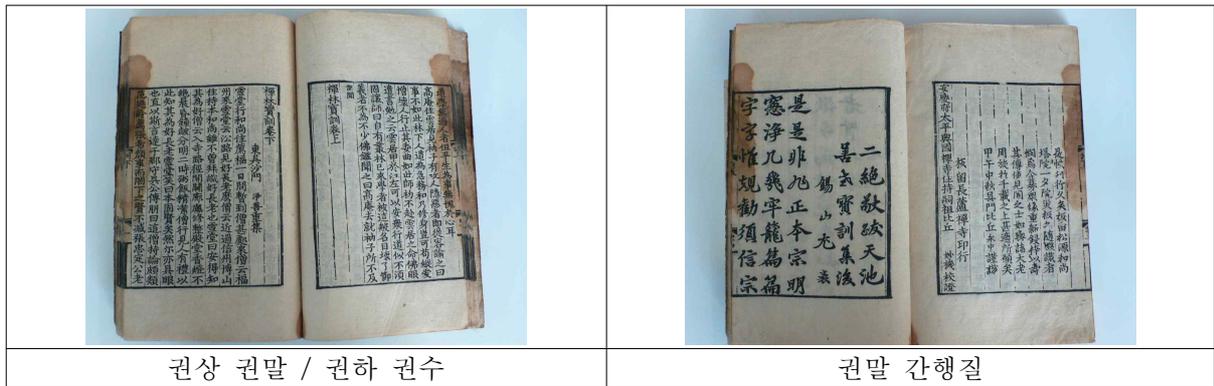
○ 내용 및 특징

『선림보훈(禪林寶訓)』은 깊은 선정(禪定)을 닦은 선사들의 도와 덕에 관한 교훈을 모은 선서(禪書)이다. 일찍이 남송의 임제종(臨濟宗) 양기(楊岐, 992~1049)과의 대혜종고(大慧宗杲, 1088~1163)와 죽암사규(竹庵士珪, 1082~1146)가 운거산(雲居山) 운문사(雲門寺)의 옛터에 토굴을 짓고 20여년 동안을 살면서 고송(古頌) 100여편을 지을 때에 모은 것이다. 이후 동오(東吳;蘇州)의 사문 정선(淨善)에 의해서 양기방회(楊岐方會, 992~1049) 선사와 황룡혜남(黃龍惠南, 1002~1069) 선사에서부터 불조졸암(佛照拙庵, 1121~1203)와 간당행기(簡堂行機, 1113~1180) 선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수집되어 300편으로 분류되었다. 명대 간행된 책의 내용을 보면 권1에는 「명교설숭(明教契崇)」에서 「진정극문(眞淨克文)」까지 77편, 권2에는 「담당문준(湛堂文準)」에서 「절옹여염(浙翁如琰)」까지 72편, 권3에는 「설당도행(雪堂道行)」에서 「서현사변공(棲賢寺辯公)」까지 77편, 권4에는 「불지단유(佛智端裕)」에서 「나암도추(懶庵道樞)」까지 64편 등 도합 290편이 수록되어 있다.

『선림보훈』의 간행에 대해서는 권말에 나오는 「간행질(刊行秩)」에서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 전질이 간행된 지 이미 오래다. 목판은 송원(松源) 화상의 탑원(塔院)에 유판(留板)되어 왔는데 어느날 저녁에 원의 화재로 목판도 함께 소훼되어 식자들이 민망하게 여겨왔다. 이에 중연을 모아 다시금 새로이 침재(鋟梓)하여 그 전래를 오래토록 하고자 하니, 견문한 인사들은 물론 여러 대로들이 함께 천재의 위까지 주선하니 기원한 바가 매우 흡족하도다! 갑오년 중추에 오문비구(吳門比丘) 영중(永中)은 삼가 지 [識] 하다. 목판은 장로선사(長蘆禪寺)에 유판(留板)하고 인행(印行)하다. 안정부(安慶府)의 태평흥국선사(太平興國禪寺) 주지 비구 묘기(妙機)가 교증(校證)하다.”

是帙刊行久矣 板留松源和尚塔院 一夕院災板亦隨燬 識者憫焉 令募衆緣 重新鋟梓 以壽其傳 使見聞之士 如與諸大老 周旋於千載之上 甚適所願矣 甲午(1174, 高麗 明宗 4, 宋 淳熙 1)中秋 吳門比丘永中謹識 板留長蘆禪寺印行 安慶府太平興國禪寺住持嗣祖比丘妙機校證.



권상 권말 / 권하 권수

권말 간행질

『선림보훈』의 주석서는 명말 청초(明末清初)에 걸쳐 저술되었다. 1635년(崇禎 8)년에 운서사(雲棲寺)의 대건(大建) 선사가 저술한 『선림보훈종의(禪林寶訓踵義)』 1권, 1650년(永曆 4)년 장문권(張文圈)과 장문헌(張文憲)이 편찬한 『선림보훈합주(禪林寶訓合註)』 4권, 1654년(永曆 8)년 행성(行盛) 선사가 42선승들의 깊은 뜻을 염송(拈頌) 74수로 나타낸 『선림보훈송(禪林寶訓頌)』 1권 그리고 청대에는 1678년(康熙 17)년 덕옥(德玉) 선사의 『선림보훈순(禪林寶訓順)』 4권, 1706년(康熙 45)년 지선(智禪) 선사의 『선림보훈필설(禪林寶訓筆說)』 3권 등이 저술되었다.

조사본 『선림보훈(禪林寶訓)』은 1378년(宣光 8) 충주의 선찰인 청룡선사(淸龍禪寺)에서 중국의 판본을 복각한 간행본이다. 조사본의 표제와 권수제 및 권말제는 ‘禪林寶訓’이며 판심제는 ‘訓’이다. 판식의 변란은 상하는 단변이고 좌우는 쌍변이며, 반곽의 크기는 세로 17.9cm이고 가로 13.4cm이다. 본문에는 계선이 있고 행자수는 10행 20자이며 주는 쌍행이다. 판구(板口)는 상하에 대흑구(大黑口)가 있고 판심의 어미는 상하하향흑어미이다. 책의 크기는 28.3cm이고 가로는 18.0cm이다.

권말에 수록된 보각국사(普覺國師) 환암혼수(幻庵混脩, 1320~1392)의 발문에는 간행과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寶訓』은 송조의 고승인 묘희보각(妙喜普覺) 대혜종고(大慧宗杲) 선사와 죽암사규(竹庵士珪) 선사께서 여러 말학들이 대체로 성명만을 추구하고 도덕을 수행하지 않음을 걱정하여 존숙(尊宿)의 고담(高談)과 총림의 유훈(遺訓) 중에서 경중(警衆)할만한 것들을 공집하여 2권으로 나누고 그 제목을 『선림보훈』이라 한 것이다. 양가(兩街)의 료암행제(了庵行齊) 공께서 그 중의 1부를 구득하여 일찍이 결코 없었던 것이라 감탄하며 문인 상위(尙偉) 선사에게 판각하여 널리 유포할 것을 부촉하자, 환암(幻庵)은 그 말미에 몇 마디 어구로 제(題)하는 바이다. 선광(宣光) 8년 2월에 연회암(宴晦菴)에서 쓰다.”

右寶訓者 宋之高僧妙喜竹菴 愍諸末學 多求聲名 不脩道德 共集尊宿之高談 叢林之遺訓 可以警衆者 析爲二卷 目之曰禪林寶訓 兩街了庵行齊公得之一部 歎未曾有 囑門人尙偉禪者 募緣彫板 廣令流布 幻菴爲題數語于末 宣光八年戊午二月書于宴晦菴。

한편 권말에는 모연(募緣)하였던 상위(尙偉) 선사, 만회(万恢) 선사 그리고 과 조연(助緣)으로 참여하였던 고식기(高息機)와 최성연(崔省緣) 등이 수록되었고, 목판이 충주의 청룡선사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권말 발문



권말 간행질

○ 지정사례

보물 제700호 선림보훈(禪林寶訓) (삼성미술관 리움, 1981.03.18 지정)

8. 선종영가집(언해) 권상(禪宗永嘉集(諺解) 卷上)

가. 검토사항

‘선종영가집(언해) 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원도지사로부터 ‘선종영가집(언해) 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5.3.23)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6.19)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선종영가집(언해) 권상(禪宗永嘉集(諺解) 卷上)
- 소유자(관리자) : 극락암
-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2길 26 극락암
- 수 량 : 1권 1책
- 규 격 : 半郭 20.4×15.2(30.8×21.8) (cm)
- 재 질 : 고정지(藁精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조성연대 : 1464년(세조 10), 인출 16세기 초반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조사본 『선종영가집』(언해본) 권상은 1464년(세조 10)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상, 하 2책으로 간행된 판본 가운데 영본 1책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래 책의 앞에 보이는 간경도감 제조 황수신(黃守身) 등이 올린 「진선종영가집전(進禪宗永嘉集

箋)」 및 「봉교조조(奉敎雕造)」 등이 결락되었고, 본문의 일부 결락과 착간 등이 보이는 현상은 후쇄본으로서의 특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1464년 당시 간경도감(刊經都監)의 간본으로서 훈민정음 이후의 국어사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평가되기는 하나, 이미 지정된 판본과 비교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본 조사 대상본 『禪宗永嘉集』은 중국 당(唐)나라의 승려 영가현각(永嘉玄覺, 665-713)의 저술로 당(唐)의 경주자사(慶州刺史) 위정(魏靜)이 수도(修道) 입지(立志)로부터 수선(修禪) 요결에 이르기까지 언급한 글을 편집하여 서문(序文)을 쓰고 열편을 묶어 『선종영가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어 송나라 용산(龍山) 석벽사(石壁寺) 행정(行靖)이 주를 달고 진수사문(晋水沙門) 정원(淨源)이 수정과문(修定科文)한 책이다. 천태종과 선종의 교리를 종합한 최초의 저술로서 송나라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조사 대상본은 세조 10년(1464) 간경도감에서 상하 2권으로 간행한 『선종영가집언해(禪宗永嘉集諺解)』 중 상권(上卷) 1책의 영본(零本)이다. 특히, 이 언해본은 세조의 언해본 발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의 간본이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문자인 ‘△, ○, ㅎ’ 과 겹자음의 다양한 용례, 방점 등이 수록되어 있어 국어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보물 제774호로 지정된 『선종영가집』과 비교하여 보면 간경도감 제조 황수신(黃守身) 등이 올린 「진선종영가집전(進禪宗永嘉集箋)」이 결락되어 있으며 본문이 69장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상권을 분권해 한 책으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상권의 내용을 두권으로 분책한 일부로 파악된다. 또한 53장, 60~64장 일부에 낙장이 있고 69장이 65장의 앞으로 제작된 것을 살필 수 있다. 판본학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인쇄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마땅히 소중히 보존, 관리해야 하는 자료이나 기 지정된 완질의 판본이 있는 점, 상하권 중 상권을 분책한 일부인 점, 그리고 자료의 상태 등으로 미루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신청대상의 『선종영가집(언해본)』 권상은 1464년 간경도감에서 조성된 원판을 1464년부터 1528년 4월 사이에 고정지에 인출한 불교 전적으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국어사 연구와 더불어 당시의 인출불사와 장정형태 및 불교사상적 경향 등과 같은 역사·문화적인 실체를 담고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국어사 연구의 원천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동일 원판의 인출본도 10종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학술적 가치와 희소성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신청대상의 인출본의 경우는 황수신 등의 「진선종영가집전」 1~3장 및

봉교조조문 1~2장, 본문 제53·60~64·70~120장 등 거의 절반의 장차가 결락되어 있고 권하도 결권되어 있으므로, 원천자료의 완전성 등을 포함한 문화재적 가치에서 제한된 측면이 보이는 실정이다.

특히 동일원판의 인출본으로 동국대 도서관 소장본(보물 제774-1호) 및 산청 겹외사 소장본(제774-2호)의 『선종영가집(언해)』은 상·하의 2권으로 결장도 거의 없는 상태로 완전성을 갖추고 있으며, 권상으로 일부 장이 결락된 남원 백련사 소장본과 본문의 제52~73장이 결락된 정보문화재단 소장본의 경우에는 현재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28호 및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6호로 각각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해인사의 장경판전에는 신청대상의 동일 원판을 1520년(중종 15 : 正德 15) 안음현(安陰縣 : 지금의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장수사(長水寺)에서 복각한 목판도 온전하게 현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로써 신청대상의 『선종영가집(언해)』 인출본은 원천자료의 희소성 등에서도 제한되는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때문에 신청대상의 『선종영가집(언해)』 권상 인출본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기준과 문화재적 가치 등에서 제한되고 미흡한 측면이 보인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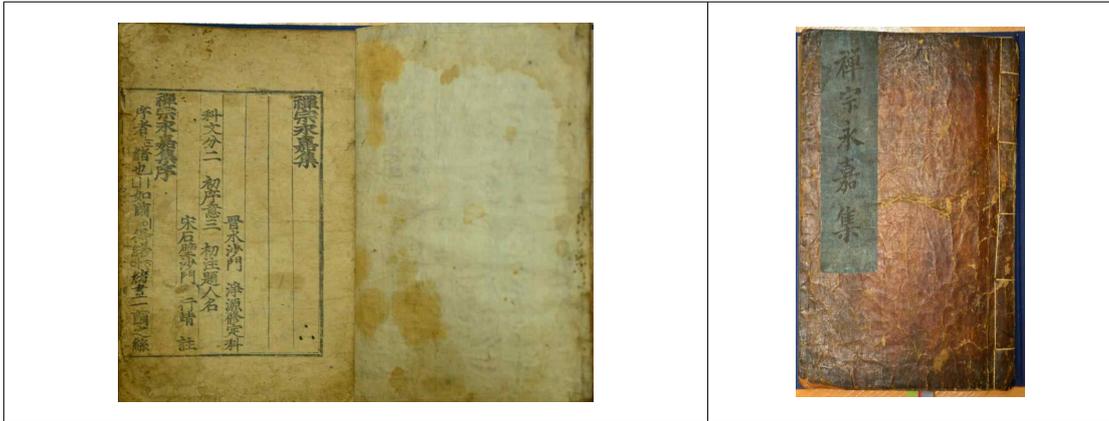
○ 현 상

조사본 『선종영가집』(언해본)은 전체적으로 열화가 진행되었고, 일부 누습의 흔적이 있다. 본문의 일부가 낙장되었고, 착간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상권을 분권하여 1책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내용 및 특징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은 중국 당의 영가 현각(永嘉玄覺) 선사가 수선(修禪)의 요결(要訣)을 찬술하고, 송의 행정(行靖)이 주해(註解)하고 정원(淨源)이 수정하여 항목별로 정리한 과(科)를 수록한 책으로 선종의 요결서로서 우리나라의 선림(禪林)에서 많이 이용한 책이다.

언해본 『선종영가집』은 세조가 구결을 달고 신미(信眉) 등이 국역하여 1464년(세조 10) 간경도감에서 새긴 목판에서 찍어낸 것이다. 이 책의 책머리에는 남원부



원균 황수신(黃守身) 등이 올린 전문(箋文)이 있고 뒤이어 「선종영가집서(禪宗永嘉集序)」(총 17장)가 있다. 그리고 봉교조조(奉敎雕造)에 참여한 인물들의 명단이 있고 이어 본문이 시작되는데, 본문은 「모도지의(慕道志義)」 · 「계교사의(戒驕奢意)」 · 「정수삼업(淨脩三業)」 · 「사마타송(奢摩他頌)」 · 「비바사나송(毗婆舍那頌)」(이상 권상), 「우필차송(優畢叉頌)」 · 「삼승점차(三乘漸次)」 · 「사리불이(事理不二)」 · 「권우인서(勸友人書)」 · 「발원문(發願文)」(이상 권하) 등 모두 10개의 문(門)에 대해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조사본 『선종영가집』(언해본) 권상(1책)은 본래 상권에 수록되었던 본문 가운데 「모도지의(慕道志義)」 · 「계교사의(戒驕奢意)」 · 「정수삼업(淨脩三業)」 만을 담고 있어 상권을 분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간경도감 제조 황수신(黃守身) 등이 올린 「진선종영가집전(進禪宗永嘉集箋)」과 「봉교조조(奉敎雕造)」 등이 결락된 상태이다. 본문 역시 69장까지 있으나 53장과 60~64장 총 6장이 떨어져 나갔고 69장은 65장의 앞에 있는 등 착간(錯簡)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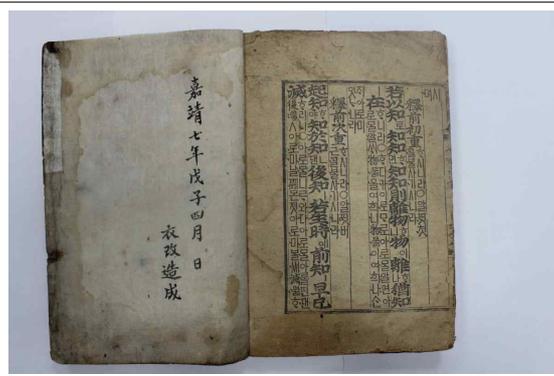
제53장 결락



제60장-제64장 결락



제69장 제65장 앞으로 착간



제68장 / 嘉靖七年 戊子 四月 衣改造成 日

조사본의 서지적 특징을 보면 본문은 굵은 대자(大字)로 새겨 넣었고, 송의 행정(行靖)이 주해(註解)한 내용은 본문보다 한 글자를 아래로 내려 중자(中字)로 하였다. 본문과 언해는 1행 19자, 주해와 언해는 1행 18자로 되어 있다. 변란은 사주쌍변(四周雙邊)이며, 반곽(半郭)은 20.7×15.3cm이다. 판심은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로 상하에 대흑구(大黑口)가 있으며 판심제(板心題)는 영가집(永嘉集)이다. 한편, 책의 뒷표지 내지에는 목서로 ‘嘉靖七年 戊子四月 衣改造成’이라 적혀져 있어 1528년(중종 23년)에 표지를 새로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간경도감본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몇 종이 있다. 이 중에서 동국대학교 소장(1984.05.30.지정)의 보물 제774-1호는 권상은 1464년(세조 10)에 인쇄한 원간본이나 권하는 1495년(연산군 1)에 정현대비가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각사에서 인쇄한 후쇄본의 합질이다. 또 겹외사 소장(2010.12.21.지정)의 보물 제774-2호는 권하의 78장부터 결락되었고, 한글박물관 소장의 보물 제1163호(1993.06.15.지정)는 연산군 1년(1495)에 후인된 권하의 1책이다. 한편 최근 조사된 개인소장본은 상,하권을 거의 모두 갖춘 간경도감본으로 보존상태도 거의 완전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 지정사례

- 보물 제774-1호 선종영가집 언해(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1984.05.30 지정)
- 보물 제1163호 선종영가집 언해 권하(한글박물관, 1993.06.15 지정)
- 보물 제1297호 선종영가집 (한글박물관, 1999.12.15 지정)
- 보물 제774-2호 선종영가집 언해(겹외사, 2010.12.21 지정)

○ 문헌자료

- 이미령, 『선종영가집언해 연구-국어 표기법과 어휘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08

□

○ 현 상

판식의 형태는 사주쌍변(四周雙邊)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0.4cm 가로 15.2cm이다. 계선(界線)이 있으며 행자수(行字數)는 8행19자이다. 주문(註文)은 雙行이다. 판구는 대흑구(大黑口)이고 어미(魚尾)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1.0cm 가로 21.8cm이고 지질은 황색 고정지(藁精紙)로 두께는 0.12~0.25mm이다. 장정은 선장(線裝)이나 표지는 후대에 개장(改裝)되었다. 개장에 대한 기록은 권말에 기록된 ‘嘉靖七年戊子四月日 衣改造成’으로 확인되는데 ‘嘉靖七年’은 中宗 23(1528)이다. 표제(表題)는 ‘禪宗永歌集’이며 판심제는 ‘永歌集’이다. 보물 제774호로 지정된 『선종영가집』 권상(120장본)과 비교하여 보면 간경도감제조 황수신(黃守身) 등이 올린 「진선종영가집전(進禪宗永嘉集箋)」이 결락되어있으며 본문이 69장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상권을 분권해 한 책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보존상태와 인쇄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53장, 60~64장 일부에 낙장이 있고 69장이 65장의 앞에 제작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선종영가집』은 중국 당(唐)나라의 승려 영가현각(永嘉玄覺, 665-713)의 저술이다. 영가현각은 665년 중국 절강성(浙江省) 영가현(永嘉縣)에서 태어났고 법명(法名)은 현각(玄覺), 속성(俗姓)은 대씨(載氏), 자(字)는 명도(明道)이며 호(號)는 진각(眞覺), 시호(諡號)는 무상대사(無相大師)이다. 8세에 출가하였고 어린시절부터 경(經)·론(論)을 연구하였으며 특히 천태(天台)의 지관(止觀)에 정통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육조혜능(六祖慧能)의 제자인 현책(玄策)의 인도로 혜능을 만나 그의 인가(印可)를 받아 제자가 되었다. 이후 온주(溫州) 용흥사에 주석했으며 개원(開元) 1년(713)에 49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저술로는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외에 『증도가(證道歌)』, 『관심십문(觀心十門)』 등이 있다. 당(唐)의 경주자사(慶州刺史) 위정(魏靜)이 수도(修道) 입지(立志)로부터 수선(修禪) 요결(要訣)에 이르기까지 언급한 글을 편집하여 서문(序文)을 쓰고 열편을 묶어 『선종영가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어 송나라 용산(龍山) 석벽사(石壁寺) 행정(行靖)이 주를 달고 진수사문(晋水沙門) 정원(淨源)이 수정과문(修定科文)한 책이다.

조사대상본인 『선종영가집』은 현각이 선종의 요결(要訣)과 수선(修禪)을 심득(心得)한 내용을 찬술한 것으로 불교의 핵심이 되는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을 바탕으로 하여 깨달아가는 수행방법을 십단(十段)의 문장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를 설명한 책이다. 이는 수도(修道)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입지(立志)와 사사(事師)에 관한 내용인 모도지의(慕道志儀), 수도(修道)에 뜻을 세운 자가

삼가야 할 신구의의(身口意) 삼업(三業)의 교사(橋奢)와 망심요동(妄心擾動)을 경계하는 글인 계교사의(戒橋奢意), 삼업(三業)을 정수(淨修)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인 정수삼업(淨修三業), 사마타(奢摩他) 즉 지(止)를 수(修)함에 있어 요청되는 오종기심(五種起心)과 육종료간(六種料簡)을 말하는 사마타송(奢摩他頌), 비발사나(毗鉢舍那) 즉 관(觀)을 수(修)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발사나송(毗鉢舍那頌), 정(定)의 편수(偏修)나 혜(慧)의 편학(偏學)의 폐단(弊端)을 고치기 위해 이변(二邊)을 사(捨)해야 함을 강조하는 우필차송(優畢叉頌), 자해(自解)가 밝아졌다 하더라도 이타행(利他行)을 할 때에는 그 오(悟)의 심천(深淺)이 있으므로 삼승(三乘)의 점진적(漸進的) 적용(適用)이 필요함을 밝히는 삼승점차(三乘漸次), 사(事)와 이(理)는 융통(融通)을 이(二)함을 강조하는 이사불이(理事不二), 사(事)·이(理)가 이미 융통(融通)되었으므로 우인(友人)에게 권학(勸學)하는 글인 권우인서(勸友人書), 일체중생(一切衆生)을 제도(濟度)하겠다고 서원(誓願)하는 발원문(發願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말 나옹(懶翁) 혜근화상(惠勤和尚)의 제자 착선(繫禪)이 이방직(李邦直)의 도움을 받아 우왕 7(1381)년 충주 청룡사(靑龍寺)에서 한문본을 간행 것을 시작으로 세조 10년(1464) 간경도감본, 연산군 1년(1495)본, 연산군 5년(1499) 합천 석수암(石水庵)본, 중종 20년(1525) 순천 대광사(大光寺)본, 선조 1년(1568) 보은(報恩) 복천사(福泉寺)본, 선조 3년(1570) 지리산 신흥사(臣興寺)본, 선조 5년(1572)본, 선조 8년(1575) 장연(長淵) 천불사(千佛寺)본 등이 전래되고 있다. 특히 세조 10년(1464) 간경도감에서 상하 2권으로 간행한 『선종영가집언해(禪宗永嘉集諺解)』는 세조가 직접 원문에 한글로 토를 달고 신미(信眉)와 효령대군 등이 언해한 것이다. 책머리에 간경도감 도제조인 황수신(黃守身)의 전문(箋文)과 도제조 이하 간행 관여자의 관직과 이름이 실려 있고 끝에 신미와 효령대군의 발문이 있다. 이외에도 성종 13년(1482), 연산군 1년(1495), 중종 15년(1520) 안음(安陰) 장수사(長水寺)본등의 언해본이 전해지고 있다. 『선종영가집(언해)』의 체제는 전문, 서(序), 권상(卷上), 권하(卷下), 석음(釋音, 피자(僻字) 34개의 음과 뜻을 간략히 해설한 것)에 이어 함허당(涵虛堂)의 찬송병서(讚頌并序)와 설의(說義)로 되어있다. 석음(釋音)을 제외하고는 모두 언해되어 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선종영가집』은 앞서 언급한 고려 우왕7(1381)년에 간행된 보물 641호 『선종영가집』, 상권은 세조10(1464)년, 하권은 연산군1(1495)년 간행된 보물 774-1호 『선종영가집(언해)』, 세조10(1464)년 간행된 보물 774-2호 『선종영가집(언해)』가 있다. 그러나 774-2호는 상권은 완본이나 하권의 78장 이하가 결락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보물 774-1 하권과 동일본인 보물 1163호 『선종영가집(언해), 卷下』가 있으며 성종 3(1472)년에 간행된 보물 1297호 『선종영가집』이 있다. 따라서 기지정 문화재와 비교하여 보면 조사 대상본인 『선종영가집』은 보물 제774호로 지정된 『선종영가집』 권상(120장본)에 수록된 간경도감제조 황수신(黃守身) 등이 올린 「진선종영

가집전(進禪宗永嘉集箋)」이 결락되어 있으며 본문이 69장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상권을 분권해 한 책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 기타(소장경위)

극락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말사로 고려 혜종 2(945)년 창건되었다. 이후 1878년 이전까지의 연혁은 전하지 않고 다만 1878년 4월 산불로 불타 없어진 것을 1881년 사미 봉진(奉眞)이 중건하였다고 하며 6.25때 다시 불에 타고 휴전뒤인 1953년에는 절터가 비무장지대에 속하게 되었다. 비구 법선(法善)이 1962년 현재 위치에 중창하고 1990년 승 덕현(德玄)이 대웅전을 중건하였다. 조사 대상본은 승 법선과 승 덕현으로부터 현 주지인 정오에게 전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 문헌자료

- 국립중앙도서관(2003), 선분해제 5
- 백두현(2008),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국어사자료의 가치’, 한국학논집 37, 65-113, 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소
- 송일기(2008), ‘王龍寺院 三尊佛像의 腹藏典籍에 관한 研究’,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2), 393-420, 한국문헌정보학회
- 천혜봉(1985), 國寶12 書藝·典籍, 예경산업사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현 상

선(禪) 수행의 요결(要訣) 등을 담고 있는 『선종영가집』은 당(唐)나라의 영가사문(永嘉沙門) 현각(玄覺)이 찬술한 이후, 송나라의 석벽(石壁)사문 행정(行靖)이 주석하고 진수(晉水)사문 정원(淨源)이 수정하여 과별(科別)로 정리한 불교 전적이다. 『선종영가집』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1381년(우왕 7) 충주 청룡사(靑龍寺)에서 한문본으로 간행되었으며, 세조 때에는 한글로 번역되어 목판으로 조성되었다. 『선종영가집』 언해본은 세조가 친히 한자원문에 한글로 토를 달고,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 등의 번역과 효령대군(孝寧大君) 등의 감수를 거쳐, 1464년(세조 10)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상·하 2권의 목판으로 조성되었다.

신청대상의 『선종영가집』 언해본은 1464년 간경도감에서 조성된 상·하 2권 가운데 상권의 일부로, 고정지에 인출하여 오침철장법의 선장본으로 제작하였으며, 전체는 앞표지-격지(隔紙)-서문(전체 17장)-본문(전체 63장)-격지-뒷표지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지에는 문양이 있고 식물성 유지로 짐작되는 것이 덧칠되어 있으며, 표지의 좌

측 상단에는 감지에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이라 묵서하여 제첨(題簽)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서문은 권제(禪宗永嘉集)-과주(科註)정보-서문제목(禪宗永嘉集序)-서문 과주-찬술정보-서문·과주 내용으로 이어지며, 본문은 권수제-본문 과주-찬술·과주정보-본문·과주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다.

뒷표지의 격지에는 ‘가정칠년무자사월일 의개조성(嘉靖七年戊子四月日/ 衣改造成)’이라 묵서되어 있으므로, 표지가 1528년(중종 23) 4월에 개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신청대상의 언해본은 인출상태가 비교적 선명하고, 인출종이의 종류도 고정지이며, 표지개장이 1528년이라는 사실에서 인출시기를 해당 원판이 조성된 1464년부터 1528년 4월 사이에 인출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신청대상의 언해본 권상은 동일원판으로 인출한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보물 제774-1호) 및 경상남도 산청군 겹외사 소장본(보물 제774-2호)의 『선종영가집』 언해본 권상에서 보이는 집전(集箋 : 전체 3장)-서문(序文 : 전체 17장)-봉교조조문(奉敎雕造文 : 전체 2장)-본문(전체 120장)과 같은 전체 구성체계와 달리, 간경도감도제조(刊經都監都提調) 황수신(黃守身) 등의 「진선종영가집전(進禪宗永嘉集箋)」 1~3장 및 봉교조조문 1~2장, 본문 제53·60~64·70~120장이 결락되어 있으며, 제69장이 제65장의 앞에 위치하는 등 보존과 완전성에서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신청대상 『선종영가집(언해)』의 서문 제목은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을 이어 ‘선종영가집서(禪宗永嘉集序)’, 본문의 권수제는 ‘선종영가집권상(禪宗永嘉集卷上)’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판심제는 서문의 경우에 ‘영가집서(永嘉集序) 일(一)’, 본문의 경우에 ‘영가집권상(永嘉集卷上) 일(一)’과 같이 줄인 경전이름+권차+장차의 형태로 새겨져 있다. 아울러 서문·본문의 내용은 한문 원문을 대자로 표기하였고, 과주(科註)를 본문보다 한 글자 내려 중자로 새겼으며, 언해문을 소자 쌍행으로 배열하는 한편, 한글 현토와 언해문 사이에는 백권(白圈 : ○모양)을 새겨 구분하고 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현존 문헌이 제한되어 있으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문자인 ‘△, ◦, ㄱ’ 뿐만 아니라 겹자음의 다양한 용례, 방점 등이 모두 나타나 있으므로, 신청대상의 『선종영가집(언해)』 인출본은 국어사 연구의 귀중한 원천자료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 동일원판의 인출본이 10종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1464년부터 1528년 4월 사이에 인출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역사·문화적인 가치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기타(소장경위)

해당 「강원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결서(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사전심의)」에 따르면, 신청대상의 『선종영가집(언해)』 권상은 지정신청자 극락암의 현 주지 정오

스님이 범선 스님에게 받은 덕현 스님으로부터 전해 받았다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하였다고 한다.

9. 강화부 부내상 각진보상 각돈대상 각양군기잡물수목 (江華府 府內上 各鎭堡上 各墩臺上 各樣軍器雜物數目)

가. 검토사항

‘강화부 부내상 각진보상 각돈대상 각양군기잡물수목’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원도지사로부터 ‘강화부 부내상 각진보상 각돈대상 각양군기잡물수목’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5.11.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6.19)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강화부 부내상 각진보상 각돈대상 각양군기잡물수목
(江華府 府內上 各鎭堡上 各墩臺上 各樣軍器雜物數目)
- 소 유 자 : 지암정사(智庵精舍)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길 192-19
- 수 량 : 1책(45장)
- 규 격 : 33.4×22.5 半郭 24.5×18.0 (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필사본(筆寫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조성연대 : 1854년(철종 5)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조사본 『강화부 부내상 각진보상 각돈대상 각양군기잡물수목(江華府府內上各鎮堡上各墩臺上各樣軍器雜物數目)』은 1854년 당시의 강화부 각 진보 및 돈대의 각종 군기 현황을 기록한 「각양군기잡물수목(各樣軍器雜物數目)」이다.

강화부 전체의 군기 상황뿐 아니라 각 진보·돈대 등에 배치된 무기 및 군수 물자 현황 등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어 19세기 강화부의 방어태세를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다만, 문서 자체의 자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해유(解由)’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해유이관(解由移關)」 또는 「해유첩정(解由牒呈)」 또는 인수인계 문서로 작성되었던 「중기(重記)」의 문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성책고문서(成冊古文書)라는 사실과 수록된 내용 역시 일부 돈대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 등에서 본 유물의 유일한 가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조사 대상본 ‘江華府府內上各鎮堡上各墩臺上各樣軍器雜物數目’은 1854년 2월 강화부의 각 진보 및 돈대 등의 각종 군기 현황을 강화유수(江華留守)의 책임하에 정리한 고문서이다. 강화부 전체의 군기 상황뿐 아니라 각 진보·돈대 등에 배치된 무기 및 군수 물자 현황을 기록하고 있다. 책면 마다 강화부 보유 화약과 조총 등의 군수물목 수량을 적으면서 ‘회부(會付)’라 기록하고 있고 작성자인 이노병(李魯乘)은 1853년 12월 2일 강화유수로 제수받았으므로 다음 해 2월 강화도의 군수 물목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작성된 해유(解由)문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존 강화부의 방어체계에 대해서는 『강도지』와 1783년 『강화부지』 등을 참고하여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江華府府內上各鎮堡上各墩臺上各樣軍器雜物數目’은 강화도의 방어태세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생각된다. 또한 병인양요 이전 조선의 군사적 능력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1차적인 역사 사료로서 행정사, 국방사, 지방사 등의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의 형식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않고 일부 결락되어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문서가 작성된 이후 바로 폐기되어 『팔상록』 작성의 용도로 활용된 것은 첩정(牒呈)의 부분으로서의 가능성 혹은 패인사본(郚印寫本)의 문제까지도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이 자료는 해유문서 중 실제 인계된 문서 양식은 누락되어 있고 물목(物目) 중심으로 작성된 성책 고문서로서 원본 자료이기 보다는 2차 자료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조사 대상본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유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국내에는 조세박물관, 육군박물관 소장자료 등에 시기적, 형태적, 내용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약 100여종의 해유문서가 확인되고 있다. 이번 지정조사를 계기로 이들 해유문서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적극적인 일괄조사를 실시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하여 상대적으로 지정 사례가 적은 귀중 고문서의 보존 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지정 가치 미흡, 도 문화재로 권고)

신청대상의 『강화군기수목』 필사본은 1854년 2월 강화부 유수 이노병이 강화부 군기물목·현황 등의 인수인계 때 작성한 해유문건 가운데 해유첩정으로, 19세기 중엽 강화군의 군수현황과 방어체계를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 자료로서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및 희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면서 해유첩정식 가운데 군기물목·현황의 앞 내용에 해당하는 강화부유수의 해유사 등의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듯하며, 군기물목·현황 가운데도 화포 등과 관련된 내용 및 일부 돈대 등의 기록이 결락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자료의 완전성 등에서 제한된 측면이 보인다. 그리고 해유문서의 일괄문서 가운데 한 종류인 해유첩정에 해당되며, 작성 시기도 19세기 중엽으로 자료의 완전성과 시기성 등 문화재적 가치에서 제한적인 측면이 보이기도 한다. 아울러 17~19세기 중엽 경에 작성된 조선시대의 해유문서 현재 60건 내외가 현존하므로, 해유문서 가운데 희소성에서 제한된 측면이 발견되는 측면도 있다.

특히 1846년(헌종 12) 5월 작성되었다가 같은 달 이조의 조훈(照訖)까지 받은 현 풍현감해유문서(玄風縣監解由文書)도 일괄문서에 거의 완전성을 가지면서 지방 및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1887년(고종 24) 작성된 어변당부산포진해유문서(魚變堂釜山浦鎭解由文書) 정도만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08호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문화재적 가치 평가에서 심사숙고할 근거기준도 남아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신청대상의 『강화군기수목』 필사본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기준과 문화재적 가치 등에서 제한된 측면이 보이므로, 도지정문화재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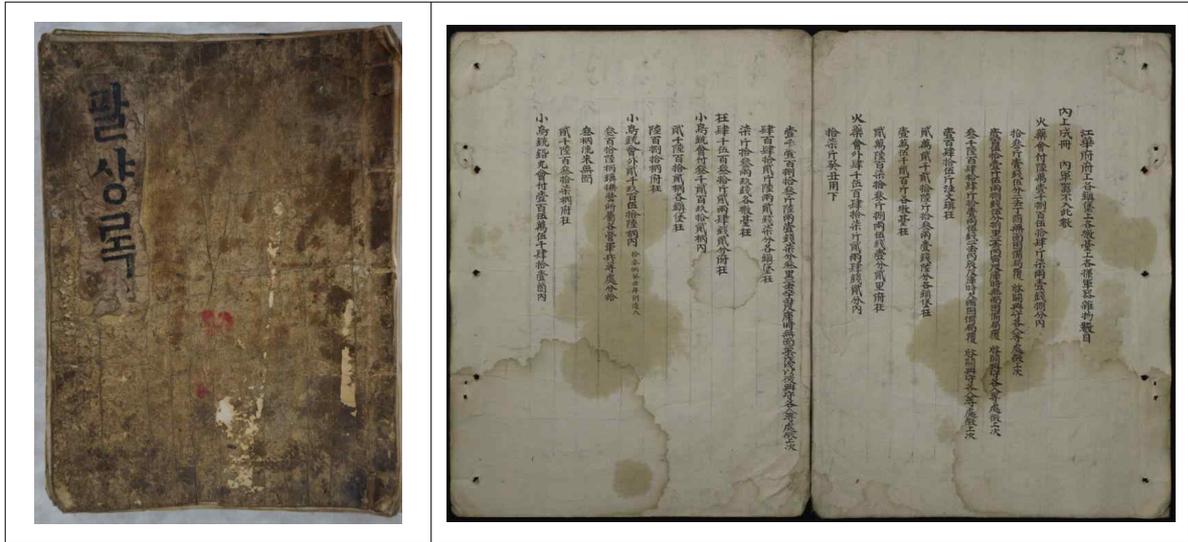
○ 부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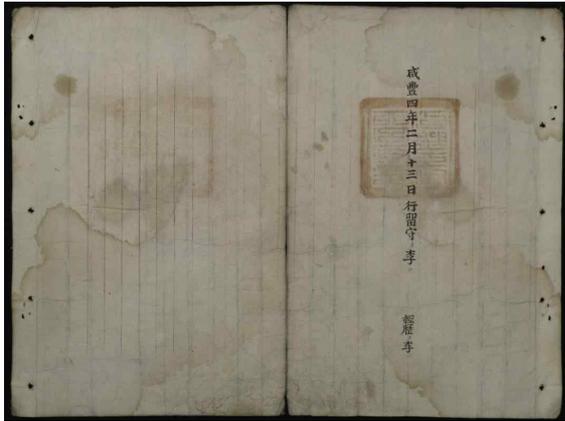
조사본 『강화부 부내상 각진보상 각돈대상 각양군기잡물수목(江華府府內上各鎮堡上各墩臺上各樣軍器雜物數目)』은 꺾지판(野紙板)을 찍은 이후 필사한 것이다. 궁서로 필사된 「팔상록」의 이면에 필사되어 있는 문서로 원 자료의 폐기 이후 뒷 장을 불경 필사 용도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성책되었고 이후 현재 모습으로 해체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서 일부에 다소 오염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조사본 『강화부 부내상 각진보상 각돈대상 각양군기잡물수목(江華府府內上各鎮堡上各墩臺上各樣軍器雜物數目)』은 꺾지판 판식의 변란(邊欄)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며, 매 본문에 계선(界線)이 있으며 반엽(半葉) 12행으로 되어 있다. 판구는 백구(白口)이고 어미(魚尾)는 내향이엽화문어미(內向二葉花紋魚尾)로 되어 있다.

표제는 ‘팔상록’이라 묵서되어 있고, 이면에 강화군기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있다. 문서의 처음에 ‘江華府府內上各鎮堡上各墩臺上各樣軍器雜物數目’이라 기록되었고, 문서의 끝부분에는 ‘咸豐四年二月十三日行留守臣李[手決] 經歷臣李[手決]’이라 되어 있고 관인이 찍혀 있어 작성 연대가 1854년임을 알 수 있다. 『철종대왕실록』에 1854년(철종 5, 咸豐 4) 강화부 유수를 지냈던 인물로는 10월에 제수받았던 김



병국(金炳國)과 11월에 제수받았던 조연창(趙然昌)이 있다. 그리고 이전해인 1853년 12월에는 이노병(李魯秉)이 제수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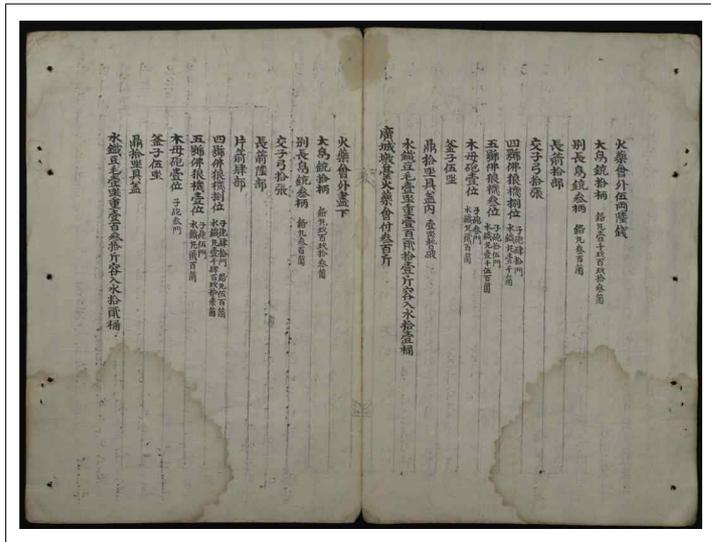
임신에 이노병을 강화유수로 삼았다
 (壬申以李魯秉爲江華府留守)
 (『哲宗大王實錄』卷之五 十二月 壬申)

따라서 문서에 나오는 ‘行留守 李’는 이노병(李魯秉)이었다고 판단된다.

문서는 1854년 강화부 각 진보 및 돈대의 각종 군기 현황을 정리하였다. 강화부 전체의 군기 상황뿐 아니라 각 진보·돈대 등에 배치된 무기 및 군수 물자 현황 등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특히 책면마다 강화부 보유 화약과 조총 등의 군수물목 수량을 적으면서 ‘회부(會付)’라 표현하고 있어 이 문서는 보유한 물품의 변동 사항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마다 상급 기관에 보고를 하며, 관리 교체 시 ‘해유(解由)’를 위한 인수인계 문서로 작성되었던 「중기(重記)」와 같은 성격의 문서로 판단된다.

다만 현존하는 「중기」 문서는 각 항목 옆에 관리의 성명과 전체적으로 그 아래 문서와 각종 물품, 건물의 유무와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때 본 문서는 ‘해유(解由)’를 위해 작성된 「중기」 이전에 1854년 당시의 강화부 각 진보 및 돈대의 각종 군기 현황을 기록한 「각양군기잡물수목(各樣軍器雜物數目)」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문서 1면에는 강화부 전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약 물량이 정리되어 있다. 강화부 전체 보유 화약은 회부(會付) 61,854근 7냥 1전 8푼, 회외(會外) 4,574근 2냥 4전 2푼 등 막대한 물량이 적혀 있다. 그리고 각 진보와 돈대별로 배치된 화약 수량을 적고 있다. 다음으로 소조총(小鳥銃)과 연환(鉛丸)의 수량이 기록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는 화포 관련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결장되어 확인이 어렵다. 이어서 각종 궁시(弓矢) 보유량이 표시되어 있고, 다시 결장되어 확인이 어렵다. 이어 44개 돈대의 군수 물품 현황이 적혀있는데, 각 돈대별로 양이 유사하다.



돈대에 이어 강화부 성(內城)에서 보유하고 있던 군기 수량이 대(臺)·낭(廊)·포(舖) 별로 기록되어 있어 성곽방어용 병기 종류와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봉수·사찰·요망소(瞭望所)에 배치된 군기 수량이 기록되어 있고, 창고인 제창(濟倉)과 외무고(外武庫)에 있는 각종 화포 및 갑옷 등 보관병기와 물자가 기록되어 있다.

문서의 끝부분에 「사영군기질(四營軍器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강화부 소속 외 4영(營) 이었던 전영(前營:부평부), 좌영(左營:통진부), 우영(右營:풍덕부), 후영(後營:연안부)의 군기현황을 기록하여 놓은 것이다. 강화부는 1678년(숙종 4) 이곳 방어를 위해 진무영(鎭撫營)을 창설하여 강화부 및 인근 4개 고을을 5개 영으로 편성하였다. 중영(中營)인 강화부를 중심으로 섬 밖에 4영을 별도로 둔 것이다. 4영은 유사시 강화부 내의 정해진 방어 지역으로 들어와 방어를 하도록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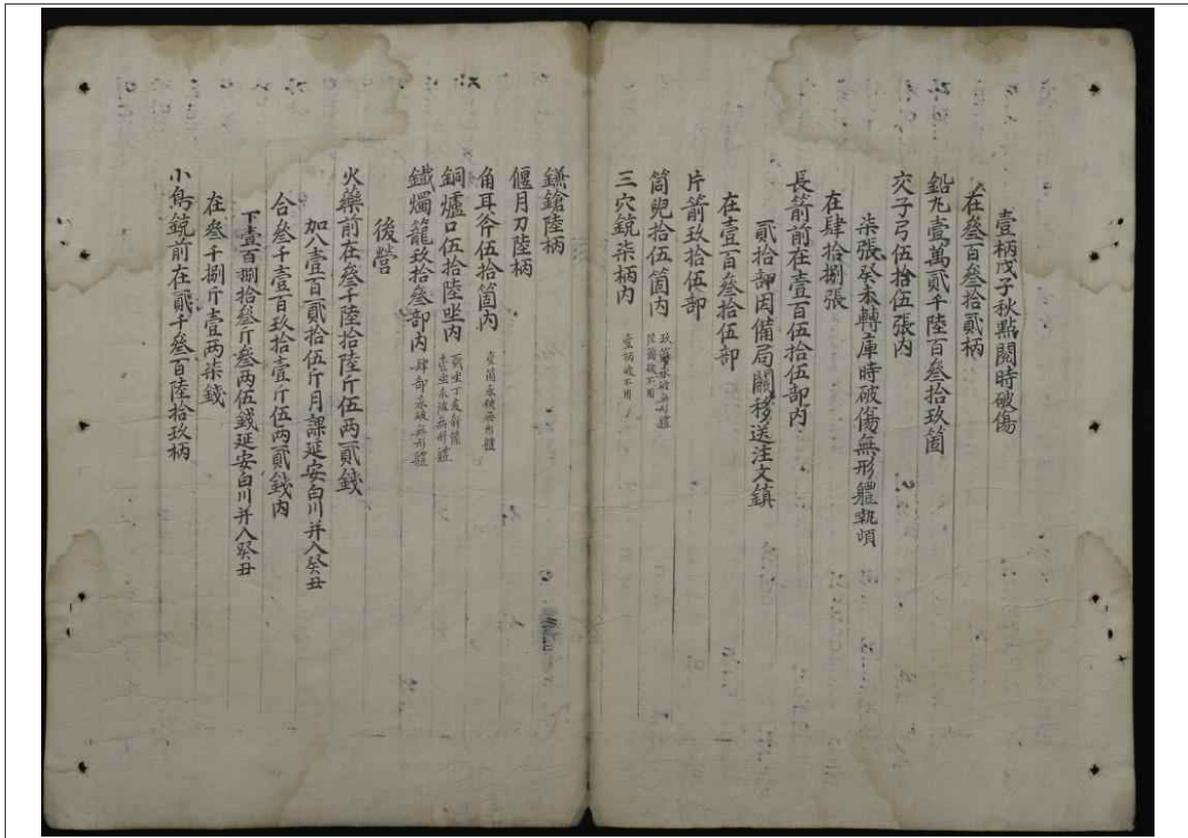
○ 지정사례

동일 유형의 문화재 지정 사례는 없음

□

○ 현 상

판식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계선(界線)이 있으며 반엽(半葉) 12행으로 되어 있다. 판구는 백구(白口)이고 어미(魚尾)는 내향이엽화문어미(內向二葉花紋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3.2cm, 가로 22.5cm이고 지질은 저지(楮紙), 장정은 선장(線裝)이다. 특이한 점은 한글 궁서로 필사된 『팔상록』의 이면에 필사되어 있다는 것이다. 江華府府內上各鎭堡上各墩臺上各樣軍器雜物數目の 이면을 재활용하여 후대에 『팔상록』을 필사하고 제책한 것으로 보인다. 江華府府內上各鎭堡上各墩臺上各樣軍器雜



物數目은 목판으로 틀을 찍어 내용을 필사하였다.

표제(表題)는 ‘팔상록’이라 묵서되어 있고 이면에 강화군기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있다. 권두제(卷頭題)는 ‘江華府府內上各鎭堡上各墩臺上各樣軍器雜物數目’이며 권말(卷頭)에 ‘咸豐四年二月十三日行留守臣李[手決] 經歷臣李[手決]’이 기록되어 있고 관인이 있어 철종 5(1854)년에 작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조사 대상본 ‘江華府府內上各鎭堡上各墩臺上各樣軍器雜物數目’은 1854년 2월 강화부의 각 진보 및 돈대 등의 각종 군기 현황을 강화유수(江華留守)의 책임하에 정리한 고문서이다. 강화부 전체의 군기 상황뿐 아니라 각 진보·돈대 등에 배치된 무기 및 군수 물자 현황을 기록하고 있다. 책면 마다 강화부 보유 화약과 조총 등의 군수물목 수량을 적으면서 ‘회부(會付)’라 하고 있고 실록에 의하면 작성자인 이노병(李魯秉)은 1853년 12월 2일 강화유수로 제수받았으므로 다음 해 2월 강화도의 군수 물목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작성된 해유문서(解由文書)임을 알 수 있다.

해유(解由)란 관원이 교체될 때 후임자에게 그 사무(事務)와 소관물건(所管物件)을 인계하고 재직중의 회계와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일을 말한다. 해유는 재정(財政), 현물(現物), 군기(軍器)에 관계되는 것으로 호조(戶曹), 병조(兵曹)의 소관이었고 해유를 받지 못하면 전직(轉職), 승진(昇進), 녹봉(祿俸)에 제약(制約)을 받았다. 해유에 필요한 문서로는 지방관일 경우 전임관이 후임관에게 보내는 ‘解由移

關’, 전임관의 ‘해유이관’에 이상이 없을 때 후임관이 該道觀察使(兼巡察使)에게 올리는 ‘解由牒呈’이 있고, 관찰사가 ‘해유첩정’을 添付(粘連)하여 호조 또는 병조에 보내는 ‘移關’, 호조·병조에서 관찰사의 ‘이관’(첩정을 첨부한)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유를 하면서 해유 사실을 이조에게 통고하는 ‘이관’, 그리고 이에 따라 이조에서 해관원(전임관)에게 발부하는 照訖(解由證)이 있다. 보통 조흘을 받으면 해관원으로서 정상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관직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유문서는 조선 시대의 인사제도, 지방행정, 재정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료이다. 일반적으로 해유문서의 작성은 실질적으로 향리들이 담당하였다. 이러한 자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해유문서는 약 100건 정도로 추산된다.

‘江華府府內上各鎮堡上各墩臺上各樣軍器雜物數目’은 부처의 일대기를 다룬 한글 필사본 『팔상록』의 이면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 『팔상록』은 권4에 해당되며 최성엽이라는 사람이 우봉최씨 일가의 극락왕생과 안녕수복을 기원하며 필사한 것이다. ‘江華府府內上各鎮堡上各墩臺上各樣軍器雜物數目’가 기록된 후 같은해 이를 재활용하여 이면에 『팔상록』을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말에 ‘咸豐四年二月十三日 行留守臣李[手決] 經歷臣李[手決]’이라 기록하고 관인을 날인하여 작성 연대가 1854년임을 알 수 있다. 『철종실록』의 기록에 보면 1853년 12월 이노병(李魯秉:1780~?)을 강화유수로 제수하였고 이노병은 이후 1854년 10월까지 재직한다. 따라서 ‘行留守李’는 이노병임을 알 수 있다. 공문서 처리 행정실무를 담당하던 경력(經歷)이 유수 이름 밑에 성을 쓰고 수결하였다.

수록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강화부 보유 화약과 조총 등의 군수물품 수량을 적으면서 ‘회부(會付, 금전이나 곡물 등을 장부에 회록(會錄)하고 넘겨주는 일)’라 하고 있으므로 이 자료가 해유문서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책 1면에는 강화부 전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약 물량이 정리되어 있다. 강화부 전체 보유 화약은 회부(會付) 61,854근 7냥 1전 8푼, 회외(會外) 4,574근 2냥 4전 2푼 등이다. 다음에는 결락된 부분에 이어 총 53개 돈대 중 44개 돈대의 보유 화약 및 군기, 솔 등 각종 물품 현황이 기록돼 있다. 또한 소조총(小鳥銃)과 연환(鉛丸)의 수량이 기록되어 있고 화포 관련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나 결락되어 확인이 어렵고 이어 각종 궁시(弓矢) 보유량이 표시되어 있고 다시 결락되어 있다. 다음 내용에서는 44개 돈대의 군수물품 현황이 적혀있는데 각 돈대별로 양이 유사하다. 돈대에 이어 강화부 내성(內城)에서 보유하고 있던 군기 수량이 대(臺)·낭(廊)·포(舖) 별로 기록되어 있어 성곽방어용 병기 종류와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봉수·사찰·요망소(瞭望所)에 배치된 군기 수량이 기록되어 있고 창고인 제창(濟倉)과 외무고(外武庫)에 있는 각종 화포 및 갑옷 등 보관병기와 물자가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 부분에는 ‘사영군기질(四營軍器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강화부 소속 外 4영(營)이었던 전영(前營:부평부), 좌영(左營:통진부), 우영(右營:풍덕부), 후영(後營:연안부)의 군기현황을 기록한 것이다. 강화부는 1678년(숙종 4) 이곳 방어를 위해 진무영(鎭撫營)을 창

설하여 강화부 및 인근 4개 고을을 5개 영으로 편성하였다. 중영(中營)인 강화부를 중심으로 섬 밖에 4영을 별도로 둔 것이다. 4영은 유사시 강화부 내의 정해진 방어 지역으로 들어와 방어를 하도록 한 것이다. 강화부 전체의 군기 상황뿐 아니라 각 진보 및 돈대, 4영(營) 등에 배치된 무기 및 군수 물자 현황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어 19세기 중반 병인양요 직전 강화부의 방어 태세 전반을 살필 수 있는 군사사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그러나 해유문서 중 실제 인계된 문서 양식은 누락되어 있고 물목(物目) 중심으로 작성된 성책 고문서로서 원본 자료이기 보다는 2차 자료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서의 형식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않고 일부 결락되어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 기타(소장경위)

현 지암정사 주지 성담의 스승 지암(1884-1969)이 소장하고 있던 유물로 특히 이 자료는 2012년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이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지암정사 소장본을 조사하던 중 확인한 자료이다.

○ 문헌자료

- 김효경, 이혜은(2016), ‘해유문서를 통해 본 18세기 서북진의 군비 실태’, 군사 98, 203-24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박준호(2009), 조선시대 문서행정의 역사, 소와당
- 박진철(2009), ‘고문서(古文書)로 본 17세기 조선(朝鮮) 수군(水軍) 전선(戰船)의 무기체계(武器體系)’, 嶺南學 (16), 449-48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이현수(2003), ‘鴻山縣監 解由文書를 통해 본 18세기말 忠淸道 鴻山縣의 軍備 實態’, 古文書研究 23, 121-161, 한국고문서학회
- 정구복(2012), ‘조선시대 해유제도와 해유문서’, 조선시대 해유문서, 한국학중앙연구원
- 조미은(2012), ‘해유문서의 현황과 특징’, 조선시대 해유문서, 한국학중앙연구원
- 조미은(2012), ‘19세기 해유문서(解由文書)와 중기(重記)에 관한 사례연구 - 「영월부사(寧越府使) 해유문서(解由文書)」와 『윤등내중기(尹等內重記)』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40, 179-212, 한국고문서학회
- 최승희(1995),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

○ 현 상

신청대상의 필사본 1책은 표제에 ‘괄상록’이라 묵서되어 제첨(題簽)이 되어 있고, 표지 안에는 『괄상록(언해)』 권4의 목록·내용 및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등 45장이 궁서체로 묵서되어 오침철장법의 선장본으로 제책된 상태이다. 그런데 『괄상록

『(언해)』 각 장의 뒷면에는 『강화부부내상각진보상각돈대상각양군기잡물수목』(이하 『강화군기수목』)의 제목과 내용 등이 먹으로 필사되어 있다. 때문에 『팔상록(언해)』 권4는 『강화군기수목』의 뒷면 여백을 재활용하여 조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청대상의 『강화군기수목』은 1854년(철종 5년) 문서로 작성되었다가 용도 폐기된 이후 『팔상록(언해)』 권4의 조성불사에 재활용되었던 것이다.

○ 내용 및 특징

『강화군기수목』의 제1행에는 ‘강화부상각진보상각돈대상각양군기잡물수목(江華府府上各鎭堡上各墩臺上各樣軍器雜物數目)’이라는 제목에 이어 제2행부터는 강화부에서 보유한 각종 군기목록 및 현황 등이 묵서되어 있으며, 강화부 보유 화약과 소조총(小鳥銃) 등의 군수물자 수량항목에는 ‘회부(會付)’라 표현되어 있다.

마지막 장의 끝부분에는 ‘함풍사년이월십삼일행유수신이[수결] 경력신이[수결](咸豐四年二月十三日行留守臣李[手決] 經歷臣李[手決])’이라 묵서되어 있고 연월일의 부분에 관인이 찍혀 있다. 이 가운데 ‘행유수 이(行留守 李)’의 경우는 1853년(철종 4) 12월 이노병(李魯秉)이 강화부유수에 임명(『철종실록』 권5, 철종 4년 12월 임신)되었다가 1855년 7월 사헌부 대사헌으로 제수(『철종실록』 권7, 철종 6년 7월 丁丑)되었으므로, 이노병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로써 『강화군기수목』은 1854년(철종 5 : 咸豐四年) 2월 13일 강화부 유수 이노병이 전임관으로부터 강화부의 군기물목·현황을 인수인계를 받은 때 작성한 해유 문서 가운데 해유첩정(解由牒呈)으로 진단할 수 있다. 해유문서의 일괄문서로는 전임 지방관이 후임 지방관에게 보내는 해유이관(解由移關), 전임관의 해유이관에 이상이 없을 때 후임관이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올리는 해유첩정(解由牒呈), 관찰사가 해유첩정을 첨부하여 호조·병조에 보내는 해유이관, 호조·병조에서 관찰사의 이관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 사실을 이조에 알리는 해유이관, 이조에서 해유를 받고자 하는 전임관에게 발급하는 조할(照訖) 등이 있다. 『강화군기수목』은 해유의 일괄문서 종류 가운데 해유첩정에 해당된다.

1854년 2월 이노병이 경기도 관찰사에게 전임관의 해유를 올린 『강화군기수목』은 강화부에서 보유한 화약·소조총·연환(鉛丸) 등의 수량과 함께 각 진보(鎭堡)·돈대(墩臺) 및 내성(內城)·봉수(烽燧)·사원·요망소(瞭望所), 전후좌우의 4영(四營: 부평부·연안부·통진부·풍덕부) 등의 각종 군기물목과 현황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당대 강화부의 방어체계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문서는 강화부의 방어체계를 파악하는데 핵심적으로 활용한 『강도지』와 1783년 『강화부지』 등에 비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부의 방어체계를 진단할 수 있는 당대 기록이며, 강화도의 방어체계가 소상하게 정리된 최초의 문건으로, 역사적·학술적·사료적 가치가 높고 희귀성도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 해유첩정식(解由牒呈式) 가운데 군기물목·현황의 앞 내용에 해당하는 강화부유수의 해유사(解由事)와 같은 내용 등이 보이지 않는 듯하며, 군기물목·현황 가운데도 화포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이 결장되어 있는 상태로 자료적 완전성 등에서 제한된 측면도 보인다.

○ 기타(소장경위)

해당 「강원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결서(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사전심의)」에 따르면, 신청대상의 필사본 『강화군기수목』은 지정신청자 지암정사의 현 주지 성담 스님이 은사 지암(이종욱) 스님으로부터 이어받아 보관하다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하였다고 한다. 성담 스님이 주문진의 동명사 주지로 재임하던 지암 스님을 7년간 시봉하고, 동명사를 물려받아 주지에 임명될 때 전해 받아 현재 지암정사에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 문헌자료

- 이노병을 강화부 유수로 삼았다(以李魯秉爲江華府留守 : 『철종실록』 권5, 철종 4년 12월 壬申).
- 이노병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以李魯秉爲司憲府大司憲 : 『철종실록』 권7, 철종 6년 7월 丁丑).

10.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가. 검토사항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원도지사로부터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5.11.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6.19)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문화재자료 제168호(2015.11.06 지정)
- 명 칭 :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 소 유 자 : 향운암(香雲庵)
- 소재지 : 강원도 동해시 발한천로 43-68
- 수 량 : 1책(90장)
- 규 격 : 半郭 27.3×19.6(38.0×24.0) (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조성연대 : 1470년(성종 1)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는 남송의 지반(志磐)이 ‘수륙무차평등재’의 의식 및 절차 등에 관한 것을 모아 6권으로 정리한 것을 편집한 의례서로서 조선 성종대 정희대왕대비가 세조대왕과 예종대왕 및 덕종(懿敬王)의 명복을 빌기 위하

여 당대의 명필이었던 박경(朴耕)에게 큰글자의 해서로 판하본을 서사하도록 하여 왕실에서 조성한 목판에서 인출한 것이다.

더욱 권말에 있는 김수온의 발문 내용을 통하여 조사본은 1470년(성종 1)에 간행되었던 ‘지반문(志磐文)’ 200건 가운데 하나로서 초인되었던 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기지정된 보물 제1105호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는 물론 현존하는 다른 판본들과 비교하여 내용과 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본 조사 대상본인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는 수륙무차평등재의 기원과 의식, 그리고 절차 등에 관한 것을 모은 불교의 의례서로 내용적으로는 수륙재를 비롯한 불교학 및 관련 역사연구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형태서지학적인 측면에서 조선 중기의 목판인쇄사를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특히 권말에 있는 김수온의 발문으로 보아 세조비 정희왕후(1418-1483)가 세조·예종·덕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성종 1(1470)년 왕실 주도로 간행한 판본이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전적 중 성종연간(1479-1494)에 왕실과 사찰 등에서 간행된 것은 22건이며 이중 향운암 수재의례의 간행연도인 1470년에 간행된 불서는 3종이며 나머지 19종은 성종 원년 이후에 간행된 불서이다. 수륙재와 관련된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 제1105호인 호림박물관 소장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이 있으나 그 편의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향운암 소장의 조사 대상본은 왕실이 주관하여 간행한 수륙재의 기본서이며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례』 및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의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판본의 수륙재 관련 자료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15세기 초기 판본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통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평가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신청대상의 『수재의례』 인출본 1책은 세조의 후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가 1470년(성종 1) 7월 경 세조와 아들인 예종·의경왕(덕종)의 극락왕생 등을 기원하면서 왕실에서 주도하여 조성한 원판을 먹으로 찍어 제책한 불교의례서이며, 당대의 명필인 박경(朴耕)이 대자의 해서(楷書)로 판하본을 조성하였다. 본 인출본은 원판을 조성한 당시 무렵에 찍은 초기인본으로 짐작되며, 당시의 불교경판 조성실태, 인출불사와 장정형태, 왕실불교의 불교의례(水陸齋)와 사상적 성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 학술적·자료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신청대상의 인출원판과 동일한 인출본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인출원판보다 앞서 조성된 사례도 현재까지 거의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문화재로서의 역사·문화적인 희소성과 시기성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인출본은 제53장의 1장만 결장되어 있는 등 완전성도 거의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신청대상의 인출본보다 후대인 16세기에 조성된 관문사 소장 인출본(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57호),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인출본(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25호), 향운암 소장 인출본(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68호)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성종 때 왕실과 사원 등에서 간행된 전적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전적이 22건이며, 이 가운데 신청대상 『수재의궤』의 추정 간행연도와 동일한 1470년 간행본서는 3종이고, 나머지 19종이 성종 원년 이후 간행한 불교전적이므로, 신청대상의 『수재의궤』 인출본은 문화재적 가치와 위상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신청대상의 『수재의궤』 인출본 1책은 다양한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도 및 희소성·시기성·완전성 등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기준과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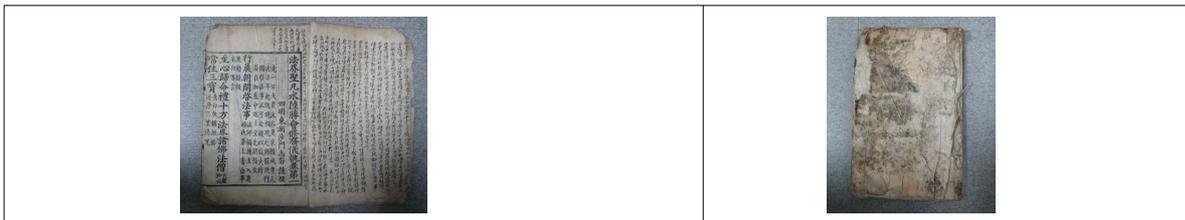
- 보류

조사보고서

□

○ 현 상

조사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는 앞표지는 박락되었고 뒷표지는 결락된 상태이다. 표지의 이면에 ‘대성암유전(大聖庵留傳) [手決]’이라 묵서된 장서기가 확인된다. 본문에 일부 누습의 흔적이 있고 전체적으로 접힘, 찢김 등 약간의 손상이 확인되고 있으나 인쇄 및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는 불교의 야외 법식인 ‘수륙재(水陸齋)’의 의식 절차를 정리한 책으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로도 알려져 있다. 이 책은 남송의 승려인 지반(志磐)이 ‘수륙무차평등재’의 의식 및 절차 등에 관한 것을 모아 전 6권으로 정리한 것이다.

‘수륙재’는 「수륙무차평등재(水陸無遮平等齋)」를 약칭한 것으로 물(水)이나 물(陸)의 고혼(孤魂)과 아귀(餓鬼)를 달래고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공양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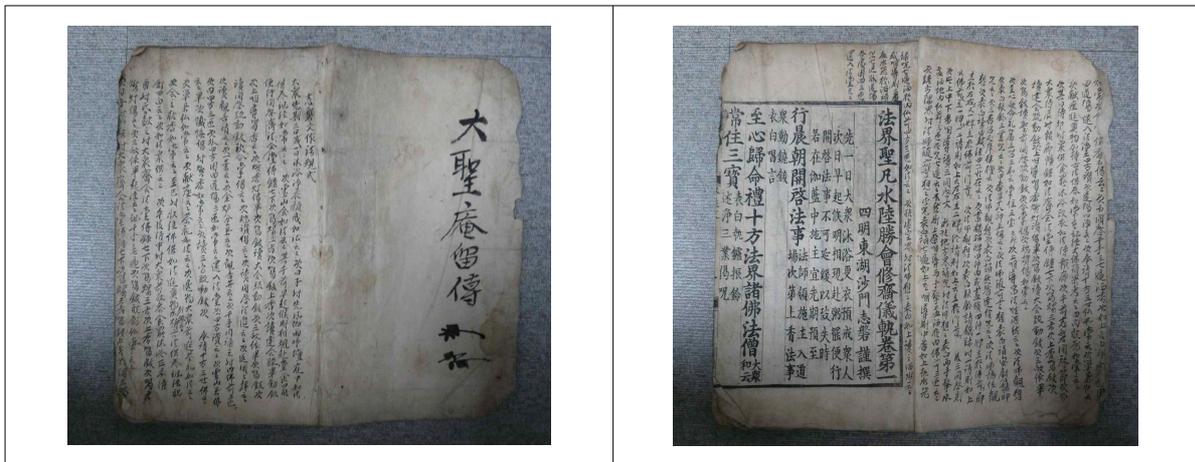
수륙재의 의식과 함께 관련 찬술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고려시대에는 1342년(충혜왕 3)년에 죽암(竹庵) 유사(猶師)가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책을 찬술하였고, 조선시대에는 1470년(성종 1)에 ‘지반문(志磐文)’과 ‘중례문(中禮文)’이 각 200권씩 간행되었다. 이후 1496년(연산군 2)에 『수륙잡문(水陸雜文)』이 편찬되었고, 그 뒤로도 여러 고승들의 저술이 많이 나왔는데 수록된 의식이 너무 번잡하였던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를 줄여 수정·보완한 의례문이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범음집(梵音集)』에 포함된 「수륙재의문(水陸齋儀文)」과 「천지명양수륙재의문산보집(天地冥陽水陸齋儀文刪補集)」 그리고 백과 공선(白坡巨璇, 1767~1852)의 『작법귀감(作法龜鑑)』에 수록된 「수륙재의문(水陸齋儀文)」 등이 그 예이다.

조사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의 권수제는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이나 권말제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이다. 표제는 ‘지반문[志磐文]’이라 묵서되어 있다. 1책 91장의 목판본으로 현재 제53장만이 결락되었고 본문은 양호한 상태이다. 판식(板式)의 변란(邊欄)은 사주단변(四周雙邊)으로 반곽은 27.3×19.6cm이며, 본문에는 계선이 있고 행자수는 8행 14자로 주문(註文)은 쌍행이다. 판구(板口)는 대흑구(大黑口)이고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이며 판심제는 ‘수륙문(水陸文)’이라 하였다. 책 크기는 38.0×24.0cm이다.

책의 앞부분에 「지반문작법규식(志磐文作法規式)」 1장이 필사로 첨보(添補)되어 있다. 권두제에 이어 ‘사명동호사문지반근찬(四明東湖沙門志磐謹撰)’이라 하여 찬자를 밝히고 이어 ‘행신조개계법사(行晨朝啓法事)’라는 내용부터 시작하여 「소청사직편(召請四直篇)」, 「안위공양편(安位供養篇)」, 「봉송사자편(奉送使者篇)」, 「안위공양편(安位供養篇)」, 「봉청상위편(奉請上位篇)」, 「봉영부욕편(奉迎赴浴篇)」, 「찬탄관욕편(讚嘆灌浴篇)」, 「인성귀위편(引聖歸位篇)」, 「헌좌안위편(獻座安位篇)」, 「찬례삼보편(讚禮三寶篇)」, 「소청중위편(召請中位篇)」, 「봉영부욕편(奉迎赴浴篇)」, 「가지조욕편(加持澡浴篇)」, 「출욕참성편(出浴參聖篇)」, 「천선예성편(天仙禮聖篇)」, 「헌좌안위편(獻座安位篇)」, 「인예향욕편(引詣香浴篇)」, 「가지조욕편(加持澡浴篇)」, 「가지화의편(加持化衣篇)」, 「수의복식편(授衣服飾篇)」, 「출욕참성편(出浴參聖篇)」, 「고혼예성편(孤魂禮聖篇)」, 「수위안좌편(受位安座

篇)」, 「선밀가지편(宣密加持篇)」, 「가지멸죄편(加持滅罪篇)」, 「주식현공편(呪食現功篇)」, 「고혼수향편(孤魂受饗篇)」, 「설시인연편(說示因緣篇)」, 「원성수은편(願聖垂恩篇)」, 청성수계편(請聖受戒篇)」, 「참제업장편(懺除業障篇)」, 「발홍서원편(發弘誓願篇)」, 「사사귀정편(捨邪歸正篇)」, 「석상호지편(釋相護持篇)」, 「득계소요편(得戒逍遙篇)」, 「수성십도편(修成十度篇)」, 「의십호과편(依十獲果篇)」, 「관행계찬편(觀行偈讚篇)」, 「회향계찬편(廻向偈讚篇)」, 「화재수용편(化財受用篇)」, 「경신봉송편(敬伸奉送篇)」, 「보신회향편(普伸廻向篇)」 등 42편이 들어 있고, 책의 마지막에는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의 「跋文」이 수록되었다.

곧 조사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의 내용에는 「설회인유편(設會因由篇)」, 「엄정팔방편(嚴淨八方篇)」, 「주향통서편(呪香通序篇)」, 「주향공양편(呪香供養篇)」, 「소청하위편(召請下位篇)」, 「기성가지편(祈聖加持篇)」, 「보신배헌편(普伸拜獻篇)」, 「공서회향편(供聖廻向篇)」, 「기성가지편(祈聖加持篇)」, 「보신배헌편(普伸拜獻篇)」, 「공서회향편(供聖廻向篇)」 등이 보이지 않아 기지정된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37편 구성은 물론 일반적인 54편으로 구성된 다른 판본과도 다른 것이 확인된다.



대왕대비전하께서 『의문』을 훌륭히 하는 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레 하시 고는 나아가 판목에 새겨 간행하기까지 하시어 역대의 임금들께서 극락에 환생할 수 있는 구실이라도 얻고자 하시는 바는 실로 소신이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 한계 를 엿볼 수 있을 바 결코 아닐 뿐일진저! 성화(成化) 6(1470, 성종 원)년 7월 보름 전 어느 날 [望前有日] 에 보국승록대부 행지중추부사 김수온은 교서를 받들어 삼 가 발문을 쓰다”

(右大字水陸儀文板本我/ 大王大妃殿下爲/ 世祖大王/ 睿宗大王/ 懿敬王冥福而成者 也盖水陸之制/ 創於梁朝功德之勝播於傳記/ 而世所遵用其本不同繁者傷/ 於浩穰略者 失於簡嚴儀文無// 所折衷用者難於所擇遂使我/ 佛無遮之儀有所不行久矣/ 大王大妃殿 下特命刊於志磐文且/ 使臣朴耕更寫大楷豈以其文/ 之極其規模之大盡其節目之/ 詳而 名身文句繁簡得宜便於/ 舉行者爲非諸本之所可及歟/ 嗚呼三界大矣而吾// 佛所以利澤 者無不周十類廣矣而/ 衆生之所以輪轉者無不至然/ 以一夕之熏功能遍/ 諸佛之力而能 拯衆生之苦者無右/ 於水陸之法之勝則我/ 大王大妃殿下所以拳拳於儀文之/ 善之繡梓 而求爲/ 列聖超生極樂之資者實非小臣思// 議比量所可窺其涯涘者矣/ 成化六年秋七月 望前有日輔/ 國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臣/ 金守溫奉/ 教謹跋)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조사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는 왕실에서 박경에게 대자의 해서로 판하본(板下本)을 서사(書寫)하도록 하여 조성한 목판에서 인출된 간행본으로서 인출 상태로 보아 발문이 작성된 1470년(성종 1)의 초인본(初印本)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보물 제1105호 수륙무차평등재의찰요 (성보문화재단, 1991. 12. 16 지정)

□

○ 현 상

판식의 형태는 사주쌍변(四周雙邊)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7.3cm 가로 19.6cm이다. 계선(界線)이 있으며 행자수(行字數)는 8행14자이다. 주문(註文)은 雙行이다. 판구는 대흑구(大黑口)이고 어미(魚尾)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8.0cm 가로 24.0cm이고 지질은 저지(楮紙), 장정은 선장(線裝)이다. 표제(表題)는 '志磐文'이며 권두제(卷頭題)는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판심제(版心題)는 '水陸文', 권말제(卷末題)는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이다. 책의 앞 2면에 걸쳐 「志磐文作法規式」이 보사(補寫)되어 있다. 책의 마지막면에 책주(冊主)명이 지워져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존상태와 인쇄상태가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는 육지와 물에서 죽어간 孤魂들을 달래는 불교 의례인 수륙재(水陸齋)때 행하는 여러 의식 절차를 정리한 불교의례서이다. 이 자료는 남송의 승려 지반(志磐)이 수륙재의 기원과 의식 및 절차 등에 관한 것을 모아 전 6권으로 정리한 것을 고려의 죽암 유사(竹菴 猶師)가 편집한 것이다. 지반(志磐)의 법호(法號)는 '대석(大石)'이며 남송 咸淳 5(1269)년에 종감(宗鑑, ?~1206)의 「釋門正統」 8권을 수정·보완하여 「佛祖統紀」 54권을 편찬하고 남송 咸淳 6(1270)년에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6권을 저술하였으며 또한 「宗門尊祖儀」도 저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수륙재로 불리는 수륙무차평등재(水陸無遮平等齋)는 중국 梁朝의 武帝에 의하여 天監 4(505, 武帝 4)년에 금산사(金山寺)에서 齋를 베푼 것이 그 시작으로 알려져있다. 수륙재 의식은 唐朝에서도 크게 성행하였고 宋朝에 들어서는 熙寧年間에 東川이 「水陸文」 3권을 다시 편찬하여 보급함으로써 수륙재가 널리 성행하게 되었다.

수륙재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고려 광종 21(970)년 갈양사(葛陽寺)에서 개설한 것이 최초이다. 선종 때에는 태사국사(太史局事)로 있었던 최사겸(崔士謙)이 송나라에서 수륙재의 의식절차를 적어놓은 「수륙의문(水陸儀文)」을 가져와 보제사(普濟寺)에 수륙당(水陸堂)을 새로 세웠고 일연(一然)의 제자 혼구(混丘)가 「신편수륙의문(新編水陸儀文)」을 찬술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정책적으로 불교 의식이 유교의식으로 바뀌어 갔으나 태조는 진관사(津寬寺)를 국행수륙재(國行水陸齋)를 여는 사사(寺社)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태조 4년(1395)에는 견암사(見巖寺)와 석왕사(釋王寺) 관음굴(觀音窟) 등에서 고려의 영혼을 달래는 수륙재를 열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륙재의 문제는 이후 논란이 이어졌음에 불구하고 쉽게 폐지되지 않는 않았으나 중종때에 이르러 유생들의 반대가 강력해짐에 따라 왕실 중심의 수륙재는 이어지지 못했고 민간에서만 전해지고 있다.

수륙재의 의식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수륙재에 대한 재의(齋儀)도 다양하게

편찬되었다. 고려 충혜왕 3(1342)년에 竹庵 猶師가 「天地冥陽水陸齋儀」를 찬술(纂述)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성종 1년(1470) 「天地冥陽水陸齋儀」가 간행되었다. 연산군 2(1496)년에 「水陸雜文」이 著述되었으며 그 뒤로도 여러 高僧들의 著述이 많이 나왔다. 朝鮮時代에 「天地冥陽水陸齋儀」는 「志磐文」으로 불리면서 「仔夔文」 등과 함께 불교 의례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수록된 의식이 번잡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한 의례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들 의례문을 축약한 것으로는 「梵音集」에 포함된 「水陸齋儀文」, 「天地冥陽水陸齋儀文刪補集」, 白坡 巨璇禪師(1767~1852)의 「作法龜鑑」에 수록된 「水陸齋儀文」, 「水陸無遮平等齋儀榜集」, 「釋門儀範」에 수록된 「水陸齋儀文」 등이 있다.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는 志磐文作法規式, 召請四直篇, 安位供養篇, 奉送使者篇, 安位供養篇, 奉請上位篇, 奉迎赴浴篇, 讚嘆灌浴篇, 引聖歸位篇, 獻座安位篇, 讚禮三寶篇, 召請中位篇, 奉迎赴浴篇, 加持澡浴篇, 出浴參聖篇, 天仙禮聖篇, 獻座安位篇, 引詣香浴篇, 加持澡浴篇, 加持化衣篇, 授衣服飾篇, 出浴參聖篇, 狐魂禮聖篇, 受位安座篇, 宣密加持篇, 加持滅罪篇, 呪食現功篇, 孤魂受饗篇, 說示因緣篇, 願聖垂恩篇, 請聖受戒篇, 懺除業障篇, 發弘誓願篇, 捨邪歸正篇, 釋相護持篇, 得戒逍遙篇, 修成十度篇, 依十獲果篇, 觀行偈讚篇, 廻向偈讚篇, 化財受用篇, 敬伸奉送篇, 普伸廻向篇의 4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은 기지정된 보물 1105호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와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만,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의 판본은 계명대학교에 소장된 成宗 元(1469)년 版本을 비롯하여 松廣寺에 소장된 成宗 14(1483)년 鎮安 中臺寺版本, 中宗 8(1513)년 順天 大光寺版本, 中宗 10(1515)년 淸道 雲門寺版本, 日本小倉文庫(東京大學)에 소장된 中宗 30(1535) 忠淸道版本, 中宗 33(1538)년 安東 廣興寺版本, 明宗 1(1546)년 鶴鳳山 石頭寺版本, 明宗 17(1562)년 綾城 雙峯寺版本, 明宗 20(1565)년 瑞山 普願寺版本, 宣祖 4(1571)년 康津 無爲寺版本, 宣祖 6(1573)년 淸州 空林寺版本, 宣祖 7(1574)년 順天 松廣寺版本, 宣祖 37(1604)년 晉州 能仁菴版本, 仁祖 12(1634)년 海南 大興寺版本, 仁祖 13(1635)년 泰仁 龍藏寺版本, 仁祖 15(1637)년 梁山 通度寺版本, 仁祖 18(1640)년 和順 萬淵寺版本, 仁祖 20(1642)년 順天 松廣寺版本, 孝宗 2(1651)년 寶城 開興寺版本, 孝宗 9(1658)년 咸鏡道 千佛山 開心寺版本, 孝宗 10(1659)년 昆陽 栖鳳寺版本, 顯宗 2(1661)년 襄陽版本, 肅宗 20(1694)년 海印寺版本, 壬午年 曹溪山 松廣寺版本, 庚辰年 和順 萬淵寺版本 등이 전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선시대에 걸쳐 상당수의 다양한 판목이 제작되어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지정대상본과 동일한 판본의 추가적인 확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권말에 있는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의 발문(跋文)에 이 판본이 “[貞熹]大王大妃殿下께서 世祖大王과 睿宗大王 및 懿敬王의 冥福을 빌기 위하여 造成한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대왕대비전하께서 「志磐文」을 간행하시고 또한 臣 朴耕(?~1507)에게 다시금 大字의 楷書로 서사하도록 하였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향운암

소장본은 정희대비(1418-1483)가 世祖(1417-1468)와 睿宗(1450-1469), 德宗(懿敬王, 1438-1457)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당대의 명필이고 성종 15(1484)년에 주자소(鑄字所)에서 만든 갑진자(甲辰字)의 부족한 자본(字本)을 보사(補寫)하였던 박경(朴耕, ?-1507)에게 板下本을 서사(書寫)하도록 하여 왕실에서 조성한 목판에서 성종 원(1470, 成化 6)년 무렵에 인출(印出)한 간본(刊本)으로 파악된다.

○ 문헌자료

-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 박세민(1993),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서울 : 삼성암
- 千惠鳳(1990),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 범우사
-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 韓國學中央研究院 編, 『韓國民族文化大百科』.

□

○ 현 상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이하 『수재의궤』)는 1270년(송나라 度宗 6 : 咸淳 6) 남송(南宋)의 대덕고승 지반(志磐)이 물과 육지에 외로이 떠도는 영혼과 아귀를 위로하고 구제하기 위해 불법(佛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의식인 수륙무차 평등재(이하 수륙재)의 기원·의식·절차 등을 수집·정리하여 전체 6권으로 찬술한 불교의례서로, 『지반문(志磐文)』·『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수륙재의찬요』로도 명명되기도 한다.

지반이 찬술한 『수재의궤』는 우리나라에서 왕실 및 사원 등의 주도로 1470년(성종 1 : 成化 6)부터 1469년(효종 즉위년 : 順治 6)까지 최소 10차례 이상이나 조성하여 수륙재의 설행과정에서 원천텍스트로 활용되었다. 신청대상 『수재의궤』의 인출원판은 권미제 다음에 새겨진 김수온(金守濫)의 발문에서, 1470년(성종 1 : 成化 6) 7월 경 왕실이 주도하면서 당대의 명필인 박경(朴耕)에게 필사하게 하여 대자의 해서(楷書)로 조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의 『수재의궤』 인출본은 오침철장법의 선장본 1책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앞표지-격지(隔紙)-공격지(空隔紙 : 전체 1장)-본문(전체 88장)-발문(전체 2장)-격지-뒷표지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표지는 두꺼운 닥종이로 일부 마모되어 있으면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표지의 왼쪽 상단에는 ‘지반문(志磐文)’이라는 표제가 묵서되어 있다. 앞표지 안의 격지에는 ‘대성사유전[수결](大聖庵留傳[手決])’이라는 장서기가 묵서되어 있다. 인출불사 때 첨가된 공격지에는 장정 이후에 ‘지반문작법규식(志磐文作法規式)’이라는 제목과 관련 내용이 먹으로 필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본문 제1장의 광곽 밖 여백

부분까지 이어진다. 본문은 권수제－찬술정보－본문(의례절차·진언 등)－권미제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으며, 「소청하위편(召請下位篇：제12편)」의 편명을 포함하는 제 53장의 1장이 결장되어 있는 듯하다. 발문은 김수온(金守溫)이 지었으며, 발문의 마지막 행의 아래 여백 부분에는 ‘책주□□묘법연화경(冊主□□妙法蓮華經)’이라는 내용이 후대에 묵서되어 있는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신청대상의 『수재의궤』 인출본에는 표제가 ‘지반문(志磐文)’, 권수제가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권제일(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卷第一)’, 찬술정보가 ‘사명동호사문 지반 근찬(四明東湖沙門 志磐 謹撰)’이라 표기되어 있으면서 권미제에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일권(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一卷)’이라 표기되어 있다. 아울러 본문·발문의 관심제도 ‘지반문(志磐文) 일(一)’, ‘지반문발(志磐文跋) 일(一)’과 같이 줄인 경전이름+권차+장차의 형태로 표기되어 있으며,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일권’이라는 권미제가 새겨진 제89장의 관심제도 ‘지반문(志磐文) 팔십구(八十九)’라 표기되어 있다. 때문에 신청대상의 『수재의궤』 인출본은 남송의 승려 지반이 찬술한 수륙재의 불교의례서로, 『지반문』·『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으로도 명명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 인출본의 본문에는 수륙재의 불교의례서로 활용되는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및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지반문』과 다른 불교의례서)의 편명에 있는 「설회인유편(設會因由編)」·「주향공양편(呪香供養編)」 등이 보이지 않고, ‘행신조개계법사(行晨朝開啓法事)’라는 내용부터 시작하여 「소청사직편(召請四直篇：제1편)」·「소청중위편(召請中位篇：제12편)」·『보신회향편(普伸廻向篇：제44편)」 등 4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문에는 ‘이상의 대자 『수륙의문』 판본은 우리 대왕대비전하(정희왕후)께서 세조 대왕과 예종대왕·의경왕(덕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조성한 의례집이다……대왕대비전하께서 특별히 『지반문』을 간행하도록 명령을 내리시고 신 박경에게 대자의 해서로 필사하게 하였다……성화 6년(1470：성종 1) 가을 7월 보름 이전의 어느 날……행지중추부사 신 김수온이 명령을 받들어 삼가 발문을 지었다(右大字水陸儀文板本我/ 大王大妃殿下爲/ 世祖大王/ 睿宗大王/ 懿敬王冥福而成者也……大王大妃殿下特命刊於志磐文且使臣朴耕更寫大楷……成化六年秋七月望前有日……行知中樞府事臣/ 金守溫奉/ 教謹跋)’라는 내용 등이 표기되어 있다. 때문에 신청대상의 『수재의궤』 인출원판은 세조의 후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尹氏)가 1470년(성종 1) 7월 경 세조와 아들인 예종·의경왕(덕종)의 극락왕생 등을 기원하면서 왕실주도로 조성한 불교경관이며, 서체는 당대의 명필 박경이 쓴 해서로 확인된다. 이로써 신청대상의 인출본은 당대 왕실의 불교사상적 경향 및 경관조성 성격 등과 같은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실체를 진단할 수 있는 학술적·자료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청대상의 인출본은 표지 및 내지가 일부 마모되어 있고 공격지에 묵서되어 있으면서도 원형을 상당히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본문의 인출상태도 뚜렷한 상태 등에서 원판이 조성된 1470년 무렵에 인출한 초기인본으로 짐작된다. 이로써 본 인출본은 15세기 중엽 당시 인출불사 등에 담긴 다양한 문화적인 실체를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가치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대상의 인출원판을 찍은 인출본은 현재까지 거의 확인되지 않는 희소적 가치와 함께 원판 복원의 핵심 텍스트로서의 성격도 확보하고 있다. 신청대상의 인출본과 동일한 인출본은 현재까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듯하며, 1470년 경 조성된 경판의 인출본으로 추정되는 송광사 소장본과도 구두점(句讀點)의 표기유무와 어미의 형태 및 변란 밖의 시주질(施主秩) 유무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송광사 소장 인출본은 구두점이 없고, 어미 형태가 상하내향화문어미(上下內向花紋魚尾)이며, 좌우 변란 밖에 ‘정귀남(丁貴男 : 제25장)·순화(順化 : 제26장)·시주인명(施主印明 : 제40장)·신화비구(信和比丘 : 제64·67장)·응현(應玄 : 제73장)·시주박개(施主朴介 : 제87장)’라는 시주질이 양각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서 신청대상의 인출본에는 본문 내용에 구두점이 있고, 상하내향흑어미이며, 해당 장차에 시주질도 발견되지 않는 등 송광사 소장본과 다른 경판의 인출본으로 확인된다. 더구나 송광사 소장 인출본의 본문 글자형태는 신청대상의 인출본에 비해 둔탁한 느낌도 보이는 듯하기도 한다. 때문에 신청대상의 인출원판보다 앞서 조성된 사례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듯하므로, 신청대상의 인출본은 원천자료로서의 역사·문화적인 희소성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기타(소장경위)

해당 「강원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결서(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사전심의)」에 따르면, 신청대상의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 1책은 지정신청자 향운암의 현 주지 정상 스님이 향운암의 창건주인 안승옥 스님에게서 전래 받았다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하였다고 한다.

11.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가. 검토사항

‘대동여지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로부터 ‘대동여지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4.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5.1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 소 유 자 : 부산대학교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도서관
- 수 량 : 1점(22첩)
- 규 격 : 각 첩 세로 30.8cm, 가로 20.0cm
- 재 질 : 지본 목판 및 수묵담채
- 형 식 : 분첩 절첩식
- 조성연대 : 1861년(철종 12) 및 20세기 초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조사된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대동여지도>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에는 우선 완결성 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제1첩의 ‘지도유설’ 2면과 ‘도성도’ 1면, 제2첩의 ‘전국행정통계표’는 각각 바탕이 다른 별도의 종이에 손으로 쓰거나 그린 것으로서 결실된 부분을 나중에 작성하여 추가한 것이다. 설사 나중에 보

완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지 못한 점도 큰 결점이 된다. 즉, 제2첩의 ‘도성도’의 경우 다른 신유본의 도성도를 그대로 모사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크기를 축소하였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데군데 오류를 범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모사한 필사본 필치도 조야(粗野)한 수준에 머물렀다.

동일 판본일 경우 선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은 보관 상태도 다른 선본과 비교해 보면 떨어진다.

따라서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대동여지도>는 진정성과 완전성 면에서 부족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부산대학교도서관 소장 <대동여지도>는 이제까지 알려진 29질의 <대동여지도>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보물 제850호로 지정되어 있는 세 질의 판본, 즉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본(신유본, 관리번호 47[7-마-20]),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신유본, 서3078),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古4709-5)에 비추어, 지도유설, 도성도, 통계 부분이 필사본으로 보완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부산대 소장본이 <대동여지도>의 여러 판본 중 비교적 이른 시기의 판본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후대의 보완 작업이 <대동여지도> 판본의 초기 형태를 오히려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지정 가치가 부족한 근거로 제시한다.

<대동여지도>의 여러 판본을 비교해 보면 <대동여지도>의 형식과 체제는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존 판본을 모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각 단계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판본을 골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동여지도 판본의 초기본으로는 현존 판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본(971[7-마-65])이나 장서각 소장본(사부2-4957) 중 한 판본을 지정하는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 즉 표제, 지도유설, 도성도, 통계 등이 모두 실려 있지 않고, 이후 수정되는 오류 사항들이 제작 초기의 상황 그대로 남아 있음이 주목된다.

○ (지정 가치 미흡)

부산대 소장본은 신유본의 초기 형태 중 하나로서 지도학사적인 의의가 없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도유설, 도성도, 경조오부도, 통계표 등이 기록된 면의 지질이 전도가 그려진 부분의 지질과 다르다는 점, 필사된 지도유설과 통계표, 도성도의 필체가 같지 않다는 점, 필사된 도성도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 도성도의 채색안료가 후대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적지 않은 결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부산대 소장본은 이미 보물로 지정된 다른 인쇄본들에 비추어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부산대 소장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현 상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대동여지도>는 현재 22개의 절첩(折帖)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첩은 卍자의 연속무늬 능화판을 찍은 담청색 종이로 장황되어 있으며 각 표지의 좌상에는 ‘大東圖’라는 표제와 함께 ‘一’부터 ‘二十二’까지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 이외에 제 1첩 표지에는 ‘共二十二’ 라는 전체 첩 수가 적혀있다. 도서관 측의 기록에 의해 이 <대동여지도>는 1964년에 현재의 상태로 입수되어 1965년에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 입수 전에 좀먹은 부분을 배접하고 탈락된 글자에 보필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장황도 새로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대동여지도>는 고산자 김정호(金正浩, 1804 경-1866 경)가 목판 인쇄로 제작한 전국지도이다. <대동여지도>는 초간된 신유본(辛酉本)과 재간된 갑자본(甲子本)의 2종류가 전하는데,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대동여지도>는 1861년(철종 12)에 간행된 신유본에 속한다. 제1첩에는 표제와 간기(刊記), 방안축척표, 지도표(地圖標), 지도유설(地圖類說), 도성도(都城圖),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 등이 실려 있다. 제2첩의 제9 및 제10면은 지도가 그려진 사이의 공면(空面)이 되는데 이 두 면에 ‘전국행정통계표’가 쓰여 있다. 제3첩부터 제22첩까지는 지도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대동여지도>는 제1첩의 ‘지도유설’ 2면과 ‘도성도’ 1면, 제2첩의 ‘전국행정통계표’는 필사되어 있다. 기 보물로 지정된 성신여대 소장 신유본 <대동여지도>의 ‘지도유설’과 ‘전국행정통계표’는 목활자로 인쇄되었으며 ‘도성도’ 또한 목판인쇄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대동여지도>의 ‘지도유설’ 2면, ‘도성도’ 1면, ‘전국행정통계표’ 2면 등 총 5면은 결실되었던 것을 개장할 때 새롭게 제작해 포함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필사된 5면의 바탕 종이가 나머지 지도 부분과 다른 점에서도 방증된다.

‘도성도’를 목판인쇄된 다른 신유본과 비교해 보면 똑같이 모사하지 않고 크기를

정사각형의 비율로 약간 작게 축약해 그렸음이 확인된다. 또한 글씨를 베껴 쓰면서 澄清坊을 澄漕坊, 慶幸坊을 慶華坊 등으로 잘못 쓴 오류가 발견된다. 지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베껴 그릴 때 나타나는 오류도 곳곳에 발견된다. 한편 경북궁, 창덕궁·창경궁, 경희궁, 문묘 등의 영역에 채색된 황색, 개천의 물길을 칠한 청색, 도로를 표시한 적색 안료의 발색은 전통 채색이 아닌 화학 안료라 생각된다.

‘경조오부도’의 도성 부분에도 황색을 칠하고 도로에 해당하는 먹선 위에는 적색으로 조잡하게 덧선을 그었다. ‘貞陵’, ‘孝昌墓’, ‘宣禧墓’ 라고 쓴 글씨 옆에는 적색으로 동그란 표시가 있는데 이전 소장자의 개인적인 표식이었다고 여겨진다.

각 첩을 펼쳐 놓고 보면 목판 인쇄한 먹색이 고르지 않아 진한 부분과 흐린 부분의 편차가 뚜렷하며 제 5첩의 일부는 인쇄 후 밀려서 먹이 번져 있다.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보물로 기 지정된 <대동여지도>에 비해 좋은 편은 아니다.

□

○ 현 상

부산대학교도서관 소장 <대동여지도>김정호가 제작한 목판본 대축척 분첩 절첩식 전국지도 <대동여지도> 전 22권으로 완질이다. 22권 모두 능화판 표지로 제작되어 있으며 이 표지 위에는 ‘大東圖’라는 제침이 묵서로 적혀있다. 목판 인쇄 후 가채하였다. 책의 규격은 세로 30.7cm, 가로 19.8cm 내외이다. 제1권에는 ‘大東輿地圖’라는 지도의 명칭과 ‘古山子校刊’이라는 간행자의 명의, ‘當寧十二年辛酉’라는 제작연대(1861년)가 명기되어 있다. 표지의 충식이 비교적 심한 편이어서 배접으로 보완한 뒤 가필한 부분도 있다. 부산대학교도서관이 수서할 때 날인한 도장이 찍혀 있으며 1964년 8월 17일에 도서로 등록되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 내용 및 특징

경조오부도는 목판인쇄본이지만, 지도유설과 도성도는 필사본이며 용지 자체가 인쇄본과 달라서 후대의 보완임을 추정할 수 있다. 제2권에 수록된 통계 부분도 필사본이며 이 경우에도 용지가 인쇄본과 다르다. 제4권에 수록된 十萬峯 인근 경계의 모습은 목판 수정 이전의 것으로 대동여지도 판본 중 첫 단계에 해당된다. 제6권에 수록된 황초령 인근의 묘사는 목판 수정 이후의 것으로 이전 판본의 오류가 수정되어 있다. 제9권의 通達驛은 최초 위치에 기입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위치(고원 아래부분)에 필사로 기입하였다. 이는 최초 목판에 판각되어 있던 통달역을 삭제한 뒤 목판을 채 보완하지 못한 단계를 시사한다. 즉 통달역 지명의 위치 수정 작업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된다. 즉 목판 보완을 통한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제17권의 안연역은 최초 제작시의 모습 그대로이며, 東津은 최초 내용을 수정한 상태(감포와 지서하 사이에 위치)이며, 청도의 월경지 경

계가 실선으로 표현된 잘못이 아직 수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요컨대 부산대학교도서관 소장 <대동여지도> 판본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도유설이나 도성도는 이 판본의 제작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후대에 필사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 세부 수정 작업도 일부만 이루어져 있어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통달역 지명이 필사로 보완되어 있는 점은 이제까지 확인된 바 없는 독특한 사례이다.

○ 문헌자료

蘇在龜, 1997, “金正浩 原作 大東輿地圖 木板의 調査”, 美術資料 58, 130-132.

李祐炯, 1990, 『大東輿地圖의 讀圖』, 匡祐堂

장상훈, 「대동여지도 판본 비교」, 『한국지도학발달사』,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09.

장상훈,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 소장 목판본 대동여지도 시론」, 『동원학술논문집』 14, 2013.

□

○ 내용 및 특징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1861년에 만들어낸 대축적 조선전도이다. 한국고지도 발달사의 종점에 해당하는 지도이기도 하다. 남북 방향으로 22개의 첩으로 되어 있으며, 1첩이 하나의 층이 된다. 22개의 첩을 펼쳐서 이어붙이면 전체 지도의 크기는 세로 6.7m에 달한다.

지도의 맨 위쪽 오른쪽 끝 면이 제1책의 첫 면이다. 지도의 표지에 해당하는 이 면에는 제목(대동여지도), 발행연도(1861년), 저자(고산자)가 표시되어 있다. 지도의 여백에는 축척표(방격표), 지도표, 도성도, 경조오부도, 지도유설, 통계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모눈이 가로로 8개, 세로로 12개가 들어 있는 방격표는 지도 한 면의 크기를 보여준다. 지도표는 <대동여지도>에 사용된 22종의 각종 기호들을 기록해 둔 것이다.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에서 산줄기와 물줄기를 표현한 방식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조선의 고지도 제작자들은 산을 하나의 줄기로 이어서 표현해 왔으며, 또 아무리 낮고 보잘것없는 산줄기라도 큰 물줄기와 관계되었을 때에는 과장해서 묘사하는 전통을 이어 왔다. 백두산에서 시작되는 산줄기를 대간, 정간, 정맥으로 등급화하여 묘사하는 전통도 마찬가지이다. <대동여지도>의 산줄기들은 백두대간에서 골을 이루는 작은 산들에 이르기까지 굵기를 달리 하고 있다. 군현의 鎭山이나 宗山일 경우, 혹은 산성이 나 봉수가 있는 경우는 특별히 강조되었다. 김정호는 전통적인 산줄기 관념을 계승하면서도 독특한 표현법을 구사했다. 그것은 산과 산줄기를 45도 각도로 평면에 투영하여 생기는 그림자모양과 비슷하다.

<대동여지도>에 묘사된 백두산, 칠보산, 삼각산 등 여러 산줄기에는 다양한 표정들이 숨어 있기도 하다. <대동여지도>에 그려진 물줄기는 하류에서 두 줄기로 이

어지다가 상류의 어느 지점부터 한 줄로 묘사된다. 두 줄과 한 줄이 만나는 지점은 뗏목이나 배가 다닐 수 있는 종점에 해당한다.

도로는 실제와는 달리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 위로 10리마다 점이 찍혀 있는데, 그 간격은 일정하지 않다. 두 점 사이의 간격은 평야지대나 하천을 따라가는 곳에서는 지도상의 평균(2.5cm 정도) 정도로 유지되는 데 비해, 산간에서는 급격하게 좁아진다. 얼핏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이 간격 차이 안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다. 여행자는 좁은 간격의 10리 표시를 보고 산간에 가파른 도로나 굽은 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동여지도>는 등고선이 없는 지도이지만, 등고선을 대신할 만한 여러 보완장치들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대동여지도>에는 군현별 경계가 점선으로 그려져 있어서 자료적인 가치를 더한다. <대동여지도>는 양천처럼 지금은 없어진 군현이나, 양주처럼 변화가 심한 군현들이 조선시대에 그 영역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려 준다. <대동여지도>의 점선들을 따라가다 보면 수원이나 광주처럼 내륙 군현의 영역이 서해안까지 뻗어 들어간 경우들도 볼 수 있다. <대동여지도>는 바다가 고속도로였던 시대에 내륙 군현들이 해안에 기지를 가져야 했던 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대동여지도>는 오늘날 조선시대의 도로망과 수로교통망을 복원하고, 지형의 변화를 추적해 나가는 데에도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대동여지도>는 22권의 목판본 지도책이다. 1861년에 간행되어 신유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과, 1864년에 간행되어 갑자본이라고 불리는 두 종류가 있다. 현재 국내외 공공도서관 등에 20여종 가량이 소장되어 있다. 이밖에 신유본과 갑자본을 그대로 옮겨 그린 필사한 필사본 <대동여지도>가 있고, <대동여지도>보다 더 많은 지명을 담고 있는 별개의 필사본 지도들이 <동여도> 등의 이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부산대학교 소장본은 1861년에 간행된 신유본의 하나이다. 같은 신유본들 사이에도 적지 않은 차이점들이 관찰되는데, 부산대 소장본은 신유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초기본에 해당한다.

지도유설, 도성도, 경조오부도, 통계표 등이 기록된 면의 지질은 지도가 그려진 다른 면의 지질들과 육안으로 보기에 달라 보인다. 특히 도성도, 지도유설, 통계표 등은 목판이 아니라 필사되어 있는데, 필사한 필체가 같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이에 의해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3책 끝부분 강화도 남단 해역의 경우 바다표시 위로 덧칠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

부산대 소장본의 도성도는 다른 대동여지도의 도성도를 보고 필사해 넣은 것인데, 필사자의 수준이 높지 못해서인지, 여러 가지 면에서 오류가 있다. 도성도 좌측 상단에 있는 물길의 사방으로 만나는 듯 그려진 부분이 있는데, 세로 방향의 것은 물길의 사방이 아니라, 탕춘대성을 잘못 옮겨 그린 것이다. 도면안의 지명을 전사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확인된다. 필사자는 징청방을 징조방으로, 경행방을 경화방으로 잘

못 옮겨 었다. 묵서된 지명과 도로 위에 각각 노란색, 빨간색을 덧칠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들 안료의 색감은 전통시대의 안료로 채색된 것과 달라 보인다. 아마도 흑백의 도성도가 필사된 뒤에 제삼자가 그 지도 위에 채색하고 나서 사본에 붙여 넣었던 것 같다. 채색의 시점은 근대시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부산대 소장본은 목판 인쇄된 부분들이 지도학사적인 측면에서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서술한 필사 부분의 문제점들 때문에 하나의 완결된 지도책으로서의 결함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 문헌자료

- 蔣尙勳 (2008), 목판본 『대동여지도』 판본 비교 연구. 한국고지도연구학회 학술대회

12. 최익현 초상(崔益鉉 肖像)

가. 검토사항

‘최익현 초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청양 모덕사 최익현 초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5.4.7)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6.2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31호(2014.09.01 지정)
- 명 칭 : 청양 모덕사 최익현 초상(靑陽 慕德祠 崔益鉉 肖像)
- 소 유 자 : 최창규
- 소재지 : 충남 청양군 목면 나분동길12 모덕사(청양백제체험박물관 보관)
- 수 량 : 1점
- 규 격 : 105.3×55cm(초상화) 140×63cm(족자)
- 재 질 : 견본채색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909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현재 전하는 여러 본의 최익현 초상 사이의 상호 관계가 아직 불분명하다. 특히 채용신이 그린 1905년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국립제주박물관의 모관본 <최익현 초상>(보물 제1510호)와 비교해 볼 때 이 작품과 얼굴의 묘사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정본의 존재를 상정할 수도 있다.

향후 연대가 더 올라가거나 유사한 작품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 최익현이란 인물의 역사적 비중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여러 본을 모두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역사성, 희소성, 예술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작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청양 모덕사 최익현 초상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는 미흡하며, 충청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231호로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 판단 근거로 아래 몇 가지를 제시함.

첫째 이 작품은 1909년 제작된 것으로 연대가 20세기 이후이며, 유사한 작품이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둘째, 이 작품은 이모본(移摹本)이므로 예술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원본이 주로 지정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미흡하다고 판단됨. 또 관련자의 말에 의하면 채용신이 1905년 제작한 작품이 소재가 불명하게 되어 1909년 다시 모사하였다고 하는데, 장래 1905년 그런 원본이 출현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셋째, 채용신은 조선말기에서 현대에 걸쳐 활약하며 많은 작품을 남긴 바, 모덕사본 최익현 초상화는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로 보아 채용신의 대표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단순히 ‘애국지사 최익현’이라는 인물의 의미에 치중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한다면 이 작품보다 더 완성되고 예술적 품격이 뛰어난 다근 채용신의 작품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됨.

넷째, 이 작품의 완성도가 국가지정문화재로는 다소 미흡함은 다음과 같은 점들로 지적할 수 있음. 먼저 이 작품에는 목서가 있어 제작 년대와 작자를 확실하게 알 수 있으나 작품의 크기와 형식, 완성도가 다른 여러 본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크기로 보아도 같이 보존되어 있는 청양백제체험박물관 소장본에 비해 오히려 약간 작다. 교의 아래에 그려진 화문석의 문양은 청양박물관 소장본이 더 정교하다. 또 연대가 비교적 오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족자 끈은 보수되어 교체되었고, 족자봉 하단의 양쪽 마감에는 원래 있었던 비단조각이 떨어져 나갔다(수리이전 이미 망실된 듯 함). 그리고 하단 족자봉에 족자보다 좌우로 약간 길게 석제, 혹은 상아, 목제의 봉을 붙이지 않은 점도 대부분 보물급 조선시대 초상화와는 다른 점이다. 마지막으로 초상화의 세부표현은 안면부의 경우 채용신의 섬세한 표현력을 잘 보여주나, 여타의 부분들, 특히 하반신 비단의 문양 표현 등에는 도식적 반복표현의 방식이 드러나 있다.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손으로 일일이 그려 넣는 수공을 생략하기 위해 목판으로 찍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이는 추후 정밀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덕사본 최익현 초상화는 문화재로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미 충청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231호로 지정되어 그 보존 상황이 양호하므로 굳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후일 충분한 연구조사가 이루어지고, 관련 정황이 완벽히 복원된 후 재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됨.

○ (지정 가치 미흡)

최근 백제문화체험박물관으로 기증된 모덕사본 <최익현 초상>은 한차례의 보존 처리를 거쳐 양호한 상태이며, 제작경위와 연대가 확실한 관복본 초상화이다.

채용신은 1904년 구한말의 유학자인 최익현을 직접 대면하였고, 이를 초상화로 남겼다. <최익현 초상>이 1909년에 그려진 이모본이지만 평생 기개를 굽히지 않았던 최익현의 충신다운 풍모를 그대로 재현한 것은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여진다.

무엇보다도 <최익현 초상>은 채용신의 개성적인 필치가 돋보이는 점, 초상화에 서양화법이 가미되던 조선 후기의 초상화풍에서부터 사진술이 도입된 근대기 초상화까지의 계보를 통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즉 전통화법과 외래 양식의 결합이 채용신에게까지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작품의 의미는 크다.

그러나 현존하는 열 점의 최익현 초상 중에서 가장 역작으로 꼽히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최익현 초상>이다. 심의를 걸치고 모관을 쓴 이 초상화는 2007년 2월 보물 제1501호로 지정된 바 있다. 이 작품에 비해 모덕사본은 여섯 점의 관복본 초상화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한다는 점 외에 이모본이라는 특징과, 안면묘사를 제외하고 복식 등의 표현에서 국립중앙박물관소장본에 비해 작품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와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격상시키기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 초상화 중에는 공신을 비롯하여 명문사대부를 그린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다. 최익현은 자체의 활약상으로 볼 때 역사적인 인물로 존경받을 만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초상화의 작품성만을 놓고 볼 때 여타 조선시대 초상화에 비해 완성도가 낮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보물로 지정하기에 무리라고 판단된다. 현재 충청남도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최익현이라는 인물과 청양을 홍보하는 데 막중하고 가치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한 폭 족자(簇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최익현 초상>은 오사모를 쓰고 단령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상이다. 그림 우측 상단에 “有明朝鮮國勉菴崔先生七十三歲像”라고 예서로 적혀 있고, 비단으로 배접한 뒷면 왼쪽 아래에 “己酉陽月上澣前定山郡守蔡龍臣移摹”라고 역시 예서로 쓰여 있어 이를 따르다면 1905년에 그렸던 것을 1909년 10월 초순에 채용신이 다시 이모한 작품이 된다. 양쪽 무릎 사이로는 붉은 술이 내려오고 그 사이로 “癸巳生 乙酉文科”라고 적힌 호패가 보인다.

그림은 2012년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에서 보존처리를 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현재는 유소 부분을 제외한 푸른 끈만 남아있다. 원래 부착되었던 손상된 유소는 별도로 보관하였다고 보존처리 보고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현장 실사에서는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전에 청양 모덕사(慕德祠)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2016년 10월에 개관한 백제문화체험박물관으로 옮겨서 보관 중이다.



○ 내용 및 특징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이항로(李恒老)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배우고 1855년(철종 6) 명경과에 급제해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대원군과 시정을 비판하고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후 관직생활을 청산하고 우국애민의 위정척사의 길을 택하였다. 을사조약 체결이후 항일 의병활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쓰시마 섬에 유배된 후 단식으로 사망했다.

화가 석지(石芝)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은 조선시대 말기에 무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한제국기인 1900년에 어진도사에 참여했다. 이후 주로 호남을 중심으로 유림, 부호 등의 초상화를 다수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정산군수로 재직 중이던 1905년에 이곳에 거주하던 최익현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다. 당시 후손과 문인들의 의뢰로 네 점의 초상화를 제작했는데 현재 전해지는 것은 없다.

최익현 사후에 채용신에 의해 이모된 초상화는 총 9점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모덕사에 있었던 이 작품이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원래 모덕사에는 1914년 건립당시에 봉안된 최익현 초상화가 있었지만 1922년에 훼손된 후, 1909년 제작된 이 작품을 모처에서 구해와서 다시 봉안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속의 최익현은 실제 인물보다 1/2정도 작은 전신좌상으로 배경은 없고 바닥에 화문석이 깔려있다. 얼굴에 비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신체 비례가 크게 되어 무릎, 흑혜를 과장하여 크게 그려졌다. 높이가 낮은 오사모를 쓰고 있는데 명암 효과를 구사하여 동그란 입체감을 표현했다. 오사모의 하단부에는 동그란 점 10개 정도를 그렸고 각(角)에는 목리문이 있으며 좌우 양쪽 맨 끝에는 흰색을 칠하여 살짝 앞쪽으로 휘어져 빛에 반사되는 듯한 착시효과를 구사하고 있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뚜렷한 윤곽선을 사용하고 무수히 많은 갈색의 가는 선묘를 농담을 조절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곡선을 이루며 가하여 안면의 굴곡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녹색 단령은 윤곽선 없이 강한 명암 대조로 의습선을 표현했다. 운문과 팔보문은 하나씩 그린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목판 같은 것을 사용하여 겹겹이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여러 본의 초상화를 짧은 시간에 손쉽게 제작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식으로 다른 최익현 초상화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바탕에 청색을 칠하고 문양을 찍은 후 다시 그 사이 사이에 녹색을 칠하였다. 가슴에는 쌍학홍배가 붙어 있는데 평면적으로 묘사했고, 그 위로는 높게 올라간 각대를 양쪽 끝이 꺾여 들어가는 듯한 단축법을 사용하여 표현했다. 양쪽 무릎 사이로는 붉은 술이 내려오는데, 술 위쪽의 검은 나무 장식은 빛이 반사되는 듯한 부분을 회색 하의 음영법을 구사하였다. 앉아 있는 의자는 목리문을 뚜렷하게 표현하고, 여기에 깔린 호피는 굵고 거친 필선으로 터력을 묘사했다. 신발은 바닥의 흰 선을 다르게 표현하여 양쪽을 다른 각도로 배치했으며 바닥에는 깔려 있는 화문석은 일부 안료가 박락되었다.

이 초상화는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초상화의 도상을 따르지만 묘법이나 신체 비례

등에서는 서양식 원근법, 명암법이 적극적으로 구사되어 있어 채용신 특유의 새로운 화법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초상화는 이미 채용신이 다른 작품에서도 적용한 것이었고 조선시대 초상화의 전통을 새롭게 높은 경지로 변모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신구 전통이 애매하게 공존하는 흥미로운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

○ 문헌자료

- 조인수, 최익현 도판해설, 『한국의 초상화』 (늘와, 2007)
- 김진아, 「채용신필 최익현 초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7)



○ 현 상

최익현 초상은 채용신이 그린 본이 여러 점 있는데, 모덕사 본의 현상은 다음과 같다. 족자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후면에는 배채 흔적이 잘 남아있다. 후면 상단 푸른 비단과 하단 봉 등을 볼 때 보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족자를 거는 끈도 원형이 아니라 새로 바꾸었으며 늘어뜨리는 후수도 없다. 족자 하단봉 마구리의 비단 마감도 떨어져 나갔는데, 수리 이전 이미 탈락한 듯 하다.

○ 내용 및 특징

오사모(烏紗帽)와 단령(團領)에 표피(豹皮)를 깐 교의에 앉아 있는 정장관복본(正裝官服本) 전신좌상(全身坐像)인데, 이런 상용의 최익현상은 여러 본 남아있다. 다만 모덕사본에는 화면 우측 상부에 “조선국 면암 최익현 선생의 73세 초상(有明朝鮮國勉庵崔先生七十三歲像)”이라고 적혀있고, 족자 뒷면에도 “기유년(1909년) 음력 10월 상순에 전 정산군수 채용신이 이모했다(己酉陽月上澣前定山郡守蔡龍臣移摹)”라는 墨書가 있어 제작시기와 작자가 명기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 내용으로 보아 채용신이 1905년 최익현 생존 당시에 제작했던 초상화를 모본(母本)으로 삼아 최익현 사후(死後), 1909년에 이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기타(소장경위)

청양 모덕사 소장본. 채용신이 1904년 충남 정산(定山, 현재 청양)군수로 부임하여 1905년 청양에 거주하던 최익현의 초상화를 여러 본 제작하였다고 함. 그 중 한 본이 보물 제1510호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최익현 초상(毛冠本)>임. 이 본은 1905년 제작된 정장관복본을 잃어버린 후 1909년에 이모(移摹)한 것으로 전함.

○ 문헌자료

- 천혜봉(1985), 國寶12 書藝·典籍, 예경산업사

- 김진아, 「채용신틸 최익현 초상 研究」, 서울대 석사, 2017.
- 『석지 채용신틸, 붓으로 사람을 만나다』 (국립전주박물관, 2011)
- 정석범, 「채용신틸 초상화의 형성배경과 양식적 전개」, 『미술사연구』, 13호(1999.12), pp.181-206
- 조선미, 「채용신틸의 생애와 예술-초상화를 중심으로」, 『석지 채용신틸』 (국립현대미술관, 2001), pp.26-59

□

○ 현 상

최익현 초상은 이모한 지 103년 만인 2012년 보존 처리된 상태이다. 상황과 배경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두 가지 주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상화의 상황을 장식했던 유소가 심하게 손상되어 이를 제거하고 새롭게 교체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채색 방식에서 전통적인 배채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이다. 배채는 주로 관복과 안면의 전체, 그리고 흉배의 오색운五色雲 중 적운赤雲에 부분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채용신틸은 최익현 초상을 제작할 때 전통적인 채색 기법을 고수하는 한편, 석채와 함께 서양 안료를 함께 사용한 시대적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안면과 복식의 표현에서 극도의 사실성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근대기 초상화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옷주름을 표현할 때 농담을 살려 양감 있게 나타낸 점이라든지 안면을 묘사하는데 농담의 변화를 살려 얼굴의 굴곡과 주름살을 강조하여 입체감을 꾀한 점 등은 조선 후기부터 이어져 온 전통의 일면이다. 그러나 얼굴의 요철凹凸에 가는 붓을 반복적으로 찍어 나타낸 입체감은 근대기 초상화에서 사진과 유사한 방불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안면을 동서남북중東西南北中 오악五嶽으로 볼 때 볼록한 곳인 양볼과 볼록하게 나온 이마, 턱, 그리고 코 등은 담묵조로 그린 반면 골상 중에서 오목한 곳인 미륵골과 미릉골, 아관골, 반추골의 부위는 세필을 반복하여 입체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채용신틸이 최익현 초상을 그릴 때 안면처리에 얼마나 고심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백발에 가까운 머리카락과 수염, 검버섯 자국 등을 있는 그대로 나타냄으로써 최익현의 노년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관복이나 표피, 돛자리 등의 세부표현은 상대적으로 거칠게 보일지 모르지만 옷주름과 관모, 신발 등에는 음영을 가하여 사실감을 더했다. 의자의 나뭇결과 돛자리 문양, 옷이 접힌 부분에 호분을 칠하여 명암 효과를 준 점도 주목된다.

관복을 장식한 구름문양과 팔보문은 목판으로 찍은 듯이 일정한 간격과 크기로 규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문양의 윤곽선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크기와 모양이 약간씩 다르고 불규칙적인 선으로 마무리되어 있어 화가가 직접 손으로 그렸음을 말해준다.

○ 내용 및 특징

최익현崔益鉉(1833~1906)은 조선 말기에 위정척사파를 대표하는 문인이자 우국지사로서 알려져 있다. 본관은 경주, 자는 찬겸贊謙, 호는 면암勉庵이며, 1855년(철종 6) 정시문과에 급제한 후 관직을 두루 거쳤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이 시행한 경복궁 중수와 서원철폐령 등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게다가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였고,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때 의병을 일으켜 무장투쟁에 나섰다. 일본군에 체포되어 쓰시마 섬으로 유배되었다. 당시 옥중에서 고초를 겪었고 급기야 단식투쟁을 하다가 순절하였는데, 당시 유배된 장면을 주제로 그린 <대마도유배도>가 백제문화체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최익현 초상을 그린 석지石芝 채용신蔡龍臣(1850~1941)은 19세기말~20세기 초반에 활동하였다. 그는 1886년(고종 23) 무과에 급제한 이후 칠곡군수, 부산진수군첨절제사, 정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20여 년의 관직 생활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호남 일대에서 화가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전문 화원畫員 출신은 아니었지만 1900년 <태조어진太祖御眞> 모사 작업에 발탁될 정도로 실력이 출중하였고, 고종을 비롯한 역대 임금의 어진을 제작하는 데에도 참여하여 화가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갔다.

그의 초상화법은 전통적인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근대기에 도입된 사진술의 사실성을 추구하면서 화단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갔다. 실제로 그는 공방을 운영하면서 유학자들의 사진을 보고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가 남긴 작품만 거의 1백여 점 이상에 이른다.

그 중에서 채용신이 그린 최익현의 초상화는 10여점이 현전하고 있다. 가장 이른 작품은 최익현이 1900년 충남 정산定山(현 청양)으로 낙향한 이래 후학을 양성하며 지냈던 시기에 그린 것이다. 그러나 『면암집』에는 최익현의 44세(1876년)에 화승이 그의 초상화를 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관직 시절 이미 그의 초상화가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초상화가 1922년 이전에 일제에 의해 소각되었기 때문에 그 전모를 알 수 없으나 이모본으로 추정되는 것이 하동의 운암영당본인 <최익현 초상>이다. 현재는 국립진주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이처럼 채용신이 최익현의 생전에 그린 초상화는 단 한 점뿐이며, 나머지는 거의 사후에 그려진 이모본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1905년 <최익현 초상(毛冠本)>(보물 제1510호)이다. 사후 초상은 1909년, 1911년, 1923년부터 1925년까지 제작되었고, 이외에 1910년대 이전으로 추정되는 두 점과 1920년대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한 점이 있다.

형식상으로 볼 때 관복본 초상은 여섯 점이 남아있다. 1909년 청양 모덕사본(현 백제문화체험박물관소장), 1923년 포천 채산사본, 1924년 순창 지산사본, 연대미상의 개인소장본, 광주대산사본(현 국립광주박물관 기탁) 외에 1925년에 그려진 입상의 관복본 초상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최근 서울 옥션을 통해 국내 모처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덕사慕德祠에 봉안된 <최익현 초상>(백제문화체험박물관소장)도 1909년에 채용신이 직접 이모移摹한 것이다. 이 모덕사본과 도상圖像이 같은 것으로는 경기도 포천 채산사본 및 개인 소장본이 알려져 있으나 두 점 모두 1923년에 이모되었다.

1909년작인 <최익현 초상>은 표피豹皮를 깐 의자에 앉은 전신좌상全身坐像이다. 관리로서의 면모는 오사모烏紗帽와 단령團領을 갖추 입은 모습을 통해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정장관복본正裝官服本 형식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청록색의 단령을 입은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은 공수拱手 자세와 앞을 바라보는 정면상, 화문석 위에 의자를 배치하고 발을 배치한 형식 등은 조선시대의 사대부 초상에서 흔한 보편적인 도상이다. 특히 목화木靴를 신은 양 발은 17세기 공신상에서 흔한 팔八자 모양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머리에 쓴 오사모는 조선후기의 관리들이 쓴 것보다 높이가 낮고 양 뿔의 길이가 짧은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관복의 가슴 아래에는 삽금대鍍金帶를 착용하여 정이품 이상의 면모를 보여주며, 당상문관용 쌍학문으로 장식된 흉배는 고종 연간에 개정된 복식 규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늘날 신분증을 의미하는 호패가 왼 소매 아래로 늘어져 있다. 호패에는 “癸巳生, 乙卯文科”라는 붉은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최익현의 출생연도와 문과에 급제한 연대를 밝혀준다. 화면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조선국 면암 최익현 선생의 73세 초상[有明朝鮮國勉庵崔先生七十三歲像]”라는 목서가 있어 이 초상이 최익현의 73세 때의 모습임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족자의 뒷면에는 “기유년(1909년) 음력 10월 상순에 전 정산군수 채용신이 이모하다[己酉陽月上澣前定山郡守蔡龍臣移摹]”라는 목서를 통해 채용신이 1905년 최익현 생존 당시 그린 초상화를 모본母本으로 삼아 1909년 이모한 사후死後 초상임을 알게 해준다.

13. 부여 무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扶餘 無量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가. 검토사항

‘부여 무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도지사로부터 ‘부여 무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5.7.22)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6.15)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76호(2004.04.10. 지정)
- 명 칭 : 부여 무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扶餘 無量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무량사
-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16 무량사
- 수 량 : 지장보살상 포함 23구
- 규 격 : 지장보살 높이 112.8cm 외
- 재 질 : 목조 도금, 채색
- 조성연대 : 17세기(1640년경)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이 작품은 17세기 전반기 대표적인 조각승 수연의 조각전통을 이어받아 대중성과 작가의 개성을 충분히 드러낸 조형미를 보인다. 지금껏 수연파의 조각 전통의

큰 흐름은 수연→영철→운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고, 이들의 조각흐름은 수연의 순박하고 장대한 형태미에서 강인한 힘이 강조된 남성적인 형태미로 변화해 갔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무량사 지장시왕상을 제작한 의엄은 또 다른 수연과의 조각승으로 주목된다. 기본 바탕은 수연의 전통을 대체로 계승하면서도, 옷 주름은 수연의 선묘 보다 깊고 활달하며, 비례도 훨씬 장대하고 시원스러우며, 예배자의 시선 중심의 움츠린 듯한 자세와 유연한 신체의 윤곽선을 보여주고 있다.

무량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적시한 존상의 수와 현존하는 존상의 수가 꼭 일치하여, 제작당시의 명부도상을 완전하게 갖춘 예에 해당한다. 시주물목을 통해 도상의 구성현황 뿐만 아니라 당시 불상 제작에 사용되었던 재료, 안료, 교착제등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 세세한 복장물목을 통해 당시의 복장의식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일부 시왕의 의좌 뒷면에 존상의 순서를 묵서, 또는 백서로 적어놓아 몇몇 존상을 제외하고 정확한 도상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명부 존상의 도상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조선 17세기 명부도상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는 분명하지만, 정확한 제작시기가 밝혀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제작시기와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 확보 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지정 가치 미흡)

부여 무량사 명부전의 제 존상들은 지장보살상과 진광대왕상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 기록을 통해 조각승 儀嚴 등 12명의 조각승들에 의해 조성된 (현존) 총 23구의 존상들로 확인되었다. 의엄은 보조 조각승 시기인 17세기 초반에 守衍을 보조하며 수련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양식상 차이로 인하여 영철과 운혜처럼 수연의 제자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무량사 명부전 존상들은 불상에 대한 조성자들의 이름이 발원문에 기록되어 있고, 원래의 전체 존상 구성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며, 수조각승으로서 의엄이 조성한 현존 最古의 작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불상들의 제작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원래의 봉안처도 명시적 기록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본 조사위원회는 이상의 사실을 적시하는데 그치고, 국가 문화재 지정 가치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도록 하겠다.

○ (지정 가치 있음)

무량사 명부전의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과 그 권속 일괄이 만들어진 연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기초조사에서 추정된 1640년 무렵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와 유사한 혹은 이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제작된 여수 흥국사 지장시왕상, 진주 청곡사 지장시왕상 등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작품성에 있어서도 무량사 지장보살상은 얼굴의 묘사가 생동감이 있고, 양감

이 풍부하여 마치 실제 승려를 모델로 하여 만든 것처럼 보여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면서도 각 존상의 개성을 살리는 이와 같은 표현이 의엄의 특징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된다. 옷자락은 단순하지만 선이 굵고 깊으며, 탄력적인 선을 그리며 율동적으로 신체를 휘감고 있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은 오른손은 손바닥이 바닥을 왼손은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 아미타구품인의 하품중생인에 가까운데, 두 손을 모두 무릎 위에서 약간 띄워 들고 있는 모습이 주목된다. 지장보살상의 경우는 오른손을 설법인에 가깝게 가슴높이로 드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오른손을 내려서 표현한 경우는 사례가 비교적 드물다. 이러한 방식은 운혜의 지장보살상에서도 몇 점 발견되는 바 있어 아마도 의엄이 자주 표현하던 수인을 운혜가 부분적으로 답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다.

시왕상 역시 각각의 도상이 개성을 지니고 있고, 판관과 사자상 역시 시왕상에 버금가는 위엄과 섬세함을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 2구의 동자상은 복식에 있어 앞은 갈라지고 뒤는 뽀족하게 내려오는 바지를 입었는데, 이는 마치 고구려 무용총 벽화 속에 등장하는 빨나팔을 부는 천인의 바지 모습을 연상케하여 주목된다.

비록 이들 존상들이 원래부터 무량사에 봉안될 목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아직까지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명부전의 존상들은 설령 무량사에 원래부터 봉안되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복장물을 통해 최소한 의엄에 의해 주도된 조각상들에 의해 같은 맥락에서 조성된 일괄 존상임이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그 자체로도 지속적으로 한 공간에 봉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무량사 명부전에 봉안된 조각상들은 17세기의 명부전 도상의 흐름과 전통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작가의 독특한 개성이 반영된 듯 하며, 특히 이러한 특징이 아직까지 조각승 계보에서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의엄이 이 작품을 통해 수연-운혜의 계보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등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판단되어 보물로 지정되어 보존·연구되는데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부여 무량사 명부전은 중층 건물로 유명한 극락보전의 좌측 편에 자리한다. 이곳에는 목조로 만든 지장보살삼존상을 비롯하여 총 23구의 명부의 제존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존상들 모두 허리가 긴 편이며 이로 인해 신체의 비례가 길쭉한 느낌을 준다. 지장보살상은 연화대좌에 앉아 있는데 재료는 몸체는 은행나무, 밑판은 소나무로 밝혀졌다. 목조지장보살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입상을, 그 좌측에는 제1·3·5·7·9 홀수대왕과 귀왕 판관 사자상 3구를, 우측에는 제2·4·6·8·10 짝수 대왕과 귀왕 판관 사자상 3구를 봉안하였다. 명부전 입구의 양측면에는 금강역사 형태를 띤 장군상이 각 1구씩 마주보고 회상의 용위하고 있으며, 정면향인 제1·3 시왕상과 제2·4 시왕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들은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되었다. 동자상 두 구가 남아 있는데, 현재 도난 우려로 별도의 수장고에 보관중이다. 제1 시왕상과 제3시왕상은 원래 위치가 바뀌어 있었으나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묵서명에 따라 본래 위치로 옮겼으며, 전체적으로 오염과 먼지, 안료의 박락 등으로 퇴락되어 보인다.

현재 명부전에 안치된 불상은 모두 배면과 밑판에 각 하나씩 복장공이 마련되어 있다. 각 존상들은 대부분 복장공 내부에 복장물이 납입되었을 것이나, 현재 복장물이 확인된 것은 지장보살좌상과 도명존자, 무독귀왕입상, 제1 대왕이다. 지장보살좌상은 이미 복장공이 열려 있어 대좌 밑으로 복장물이 흘러내려 흩어진 상태였다. 불상의 조성발원문은 지장보살상과 제1 대왕상에서 발견되었다. 발원문 상·하 폭이 긴 장방형이며, 제작시기와 봉안사찰봉안 장소, 발원목적 등에 대한 기록은 빠져있고, 각 존상별 시주자, 물품 시주자, 단순 시주자, 본사질, 연화질, 화원질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성연대와 목적 등을 적은 발원문은 별도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발견된 바 없어 단언하기 어렵다. 이외 발견된 복장물은 주로 표지가 탈락된 경전과 주색다라니 인본이 주류를 이루며, 후령통은 제1진광대왕상에서 발견되었다. 후령통은 삼베로 제작된 황초폭자에 쌓여 있으며 네 면에는 사방주를 붉은색 글씨로 적고 오색실로 꿰뚫어 봉해놓은 상태이다. 보존상 해체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 발원문에 따르면, 이때 만들어진 존상은 靈山會佛像, 地藏, 道明, 無毒, 第1 秦廣大王부터 第10 五道轉輪大王까지 十大王 10구, 判官 2구, 鬼王 2구, 將軍 2구, 童子 2구, 使者 2구 등 모두 24구가 만들어졌으며, 그 중 명부조각과 관련된 작품은 모두 23점이다. 제작연대는 알 수 없지만 다행스럽게 화원질에는 이 불상을 제작한 조각승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다. 이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을 제작한 조각승은 지장과 도명에서 발견된 것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우선 지장보살상 발원문의 화원질에는 僅嚴比丘, 賴罔比丘, 法難比丘, 惠輝比丘, 善行比丘, 印機比丘, 忠信比丘, 僅森比丘, 雲翼比丘, 雲惠比丘, 靈敏比丘, 弘哲比丘이고, 진광대왕상 발원문의 화원질에는 僅嚴比丘, 賴罔比丘, 法難比丘, 惠輝比丘, 善行比丘, 印機比丘, 忠印比丘, 僅森比丘, 雲惠比丘, 弘哲比丘, 靈敏比丘이다.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지만 참

여 화원의 인원에서 약간의 변동이 엿보인다.

수조각승으로 등장하는 의엄은 현재까지 수연의 보조화승으로 이름 정도만 공개되었지만 이 존상을 통해 처음으로 수화승으로 활약했으며 스승인 수연(1615-1639년 활동)의 특징을 보이면서도 독자성을 갖춘 조각승이었음이 확인된다. 수화승 의엄은 수연의 보조 화승으로 나주 다보사 석가여래삼존상 및 나한상(1625년, 6위, 보물 제1834호), 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삼불좌상(1636년, 4위, 보물 제1785호) 제작에 참여하였다. <나주 다보사 영산전의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16나한상 일괄>은 조성발원문을 통해 天啓五年乙丑(1625년)에 德龍山 雙溪寺의 佛像三尊과 16聖衆을 제작하였음이 밝혀졌는데, 의엄은 수연의 밑에 여섯 번째 화원으로 이름이 올라 있어 보조화승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등사 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조성발원문(1636년) 화원질에는 兼 證明 守衍, 靈哲, 密映과 함께 兼 持展 의엄이 쓰여 있어 의엄은 불상을 만든 조각승으로서 만이 아니라 지전 소임도 겸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조각승 法難은 수연을 도와 1636년 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제작한 法蘭과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다섯 번째 화원 善行도 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제작에 참여하였고, 忠信은 1663년에 세워진 화엄사 벽암대사비에 등장하는 벽암문도의 조각승이며, 雲翼은 운혜를 도와 차화원으로 1650년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제작하였는데, 이곳에는 운혜에 앞서 기록되어 있다. 운혜는 보조조각승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조각승인데, 1639년 경 부터 1680년 경 까지 활동하였으며 1650년에는 마곡사의 주지를 지냈고, 1639년 전라남도 고흥 능가사 불상에 수화승으로 처음 등장한다. 1649년 배천 강서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1650년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삼세불상, 1667년 화순 쌍봉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1665년과 1680년 곡성 도립사 목조아미타삼존상 등을 제작하였다.

목조지장보살좌상은 하체에 비해 상체가 긴 편이며 목이 짧아 다소 움츠린 듯한 느낌을 주지만, 당당한 어깨와 넓고 높은 무릎으로 위엄 있는 모습이다. 머리모양은 민머리의 삭발비구형(削髮比丘形)으로, 불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녹색 계열로 두 톤으로 처리하였다. 발제선의 중앙에는 팔자모양의 애교머리를 표현했다. 탄원형의 길쭉한 얼굴은 양감이 과도하지 않으며, 약하게 부풀린 눈두덩에는 반개한 눈을 고요하게 표현하였다. 양미간 사이에서 우뚝하게 솟은 콧날과 실재감 있는 콧망울, 돌출한 입을 통해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었고, 입가를 슬쩍 눌러 존상의 자비로운 미소를 만들었다. 귀의 귓바퀴는 둥글게 돌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둔중하게 내려온 귓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쇠기모양으로 깊게 파낸 상·하각과 연골과 3자형으로 열쇠구멍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상호의 표현은 수연이 1636년에 제작한 전등사 지장보살상의 얼굴과 유사점이 있다. 고개를 숙여 사바세계 중생을 향한 시선처리와 신체의 윤곽선도 자연스럽고 유기적이다. 착의(着衣)는 상의 위에 대의를 변형 편단우견으로 걸친 이중(二重)착의법으로, 상의와 대의 자락이 복부에

서 교차시켜 왼쪽 어깨 뒤로 넘겨 큼직한 나뭇잎 모양으로 마무리 하였다. 불신에 표현된 주름 선은 힘 넘치는 직선과 호선의 주름만으로 간결하게 윤곽선 위주의 선묘를 선보이고 있다. 목에는 삼도가 분명히 표현되었고, 가슴은 좁고 편평하며, 목과 가슴의 경계에는 낮은 둔덕으로 쇠골선을 나타내었다. 군의는 사선으로 한번 접어 주름 잡았고, 17세기 중엽경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가슴에서 단전으로 이어지는 윤곽선은 대체로 명치에서 한번 움츠렀다가 다시 복부 쪽에는 불룩하게 부풀려 신체의 생동감 있는 굴곡을 표출하였다. 두툼하게 조각한 두 손은 조선후기 불상의 통상의 예처럼 따로 제작하여 끼웠으며, 두 손은 모두 무릎 부근까지 내려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댄 설법인을 결하였다. 무릎 앞쪽으로는 골 깊은 주름을 부채살 모양으로 활짝 펼쳤으며, 상체의 주름과 달리 이곳의 주름은 억양이 깊고 입체적이며 탄력이 있다.

우선 좌협시 도명존자는 가사장삼을 걸친 청년 비구형으로 공순히 합장하였고, 무독귀왕은 조익관을 쓰고 제왕의 복장을 착용하였으며 두 손을 다소곳이 포개 모으고 손 가리개로 덮었다. 무독귀왕의 넓은 소매에는 꽃모양의 프릴을 덧달아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조익관과 프릴장식이 달린 복식을 착용한 무독귀왕은 그 유례가 드물다.

시왕상은 용두와 봉두로 장식된 등받이와 손걸이가 있는 의자에 엉덩이가 꼭 끼는 좁은 의자에 의좌 또는 반가좌로 앉았다. 시왕상들은 꽃잎모양으로 멧을 낸 양관을 쓰고 수염을 짧게 길렀으며, 붉고 푸른 곡령대수포와 치마를 둘러 입었다. 치마 위에는 의대를 두르고 광대회를 길게 늘어뜨렸다. 얼굴은 심판자의 모습답게 단엄하며, 이마나 눈언저리, 입가 등 짓는 표정에 따라 생기는 잔주름까지 세세하게 표현하여 명부존상의 위엄을 드러내었다. 관복의 어깨와 가슴에는 능화형(稜花形)으로 꾸며진 흉배를 표현하고 임금과 신하의 그것과 같이 용과 학, 구름 등을 그려 넣었는데, 최근의 것이고 원래의 것을 토대로 개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왕상의 자세는 의자에 의좌 또는 반가좌로 앉아 경을 읽거나 홀을 들고 대체로 17세기의 시왕상의 활달한 모습과 달리 차분하고 엄숙하게 조성되었다.

비록 제작시기를 기록한 발원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각승 의엄은 지금껏 밝혀진 그의 활동시기를 통해서 볼 때, 17세기 전반과 중반에 활약한 조각승임은 분명하고, 이 무량사 지장시왕상에서 드러나는 수연의 조각적 여운이 짙은 조각적 특징을 통해서도 수연의 활동 시기와의 어느 정도 겹쳐져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무량사에서 한창 불사가 진행되던 시기인 17세기 전반기, 그 중에서도 의엄이 수조각승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큰 시기 1640년경으로 보이므로 1640년대에 조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목조지장보살좌상의 제작기법은 몸체와 무릎, 밑판을 따로 제작하여 접합한 접목식으로, 밑판과 무릎판, 몸체 총 3개의 나무판을 철 꺾쇠를 사용하여 고정시켰다. 부정형의 팔각대좌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의 청판에는 적색과 백색·녹색

안료로 채색한 모란과 잎사귀문을 따로 조각하여 붙였는데, 현재 좌·우면의 마지막 칸과 첫 번째 칸은 유실되었다. 가장 윗단 상면에 동자주를 끼웠던 홈 13개가 남아 있으나 동자주는 유실된 상태이다. 한편, 대좌 하단부의 내면에서는 묵서명이 남아 있는데 지장시왕상의 조성과 관련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十三年...雲邊○山

○五月初... 依墨雲盡峯○

萬壽山 ○○造成一尊無



그림 287 지장보살좌상 대좌 안쪽 묵서

이 명문이 적혀져 있는 가장 윗부분은 대좌를 제작하기 위해 목재를 가공하면서 일부 깎여나가 연호가 있는 부분은 현재 없어진 상태이다. 중간부분 역시 대좌 대의 하판과 상판을 연결하는 목재 기둥에 의해 일부 글자가 가려져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이 외에도 대좌 하단부의 나무판에서는 묵으로 그린 꽃그림들이 있었으며 내면에서도 ‘(無)量寺華’ 라는 묵서명문과 동자승려 그림, 다양한 형태의 모란과 꽃그림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그림은 제4시왕상의 손에 들고 있는 목판에도 보이는데 “南無阿彌陀佛 南無觀音菩薩 南無地藏菩薩...無量寺...” 라고 쓰여진 글 밑에 대나무나 난과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

○ 문헌자료

- 부여군, 「부여 무량사 지장보살 및 시왕상 연구」, 부여군, 2014
- 정은우, 「17세기 부여 무량사 명부전 불상과 발원문 분석」, 『동악미술사학』 17, 동악미술사학회, 2015



그림 292 목조지장보살삼존상



그림 293 제1.3.5.7.9 대왕



그림 293 제2·4·6·8·10 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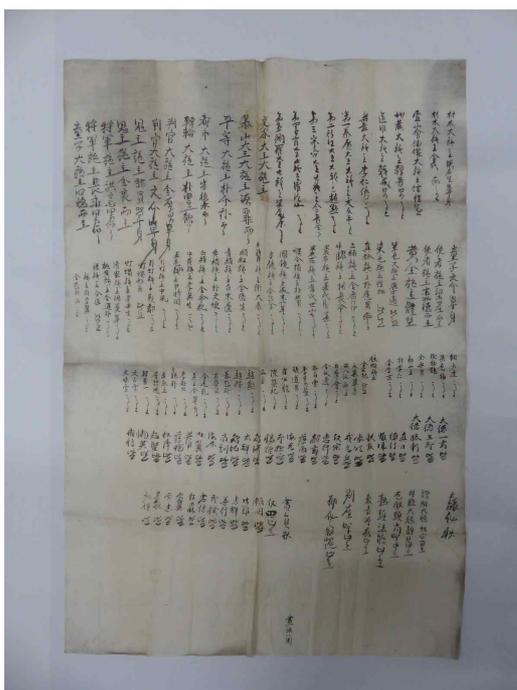


그림 290 지장보살좌상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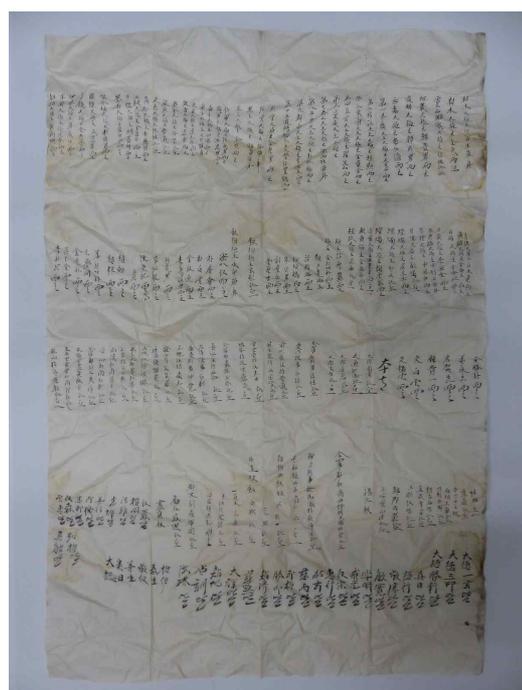


그림 291 제1진광대왕상 원문

○ 지장보살좌상 원문(願文)

• 종이, 58.0×86.8cm

材木大施主梁石生單身

材木大施主金氏兩主

靈山會佛像大施主信性比丘

地藏大施主韓貴男兩主

道明大施主韓戒男兩主

無毒大施主李仁億兩主

第一秦廣大王大施主文及平兩主

第二初江大王大施主趙點兩主

第三宋帝大王大施主金貴金兩主

第四五官大王大施主羅漢山兩主

第五閻羅大王大施主梁芴原兩主

變成大王大施主

泰山大王大施主源丙非兩主

平等大施主朴介補兩主

都市大施主崔德奉兩主

轉輪大施主朴豐鶴兩主

判官大施主金厚男單身

判官大施主文介單身

鬼王施主諸貴單身

鬼王施主金衰兩主

將軍施主洪懇男兩主

將軍施主長永男兩主

童子大施主四德兩主

2단

童子文介單身

使者施主梁尹生兩主

使者施主忞德兩主

黃金施主體笠兩主

柒色大施主學通比丘

柒色施主性旭比丘

眞粉大施主朴應男兩主

三綠施主金者斤伊兩主

牛膠施主柵長命兩主

褰布施主姜氏後壽兩主

暴布施主崔氏世山兩主
候令桶施主朴出男兩主
圓鏡施主成^忞年兩主
方鏡施主金^韶金兩主
^末醬施主徐大春兩主
綃紅施主金^{德(?)}生兩主
青綃施主白木蓮兩主
黃綃施主朴文^煥兩主
白綃施主金^命紀兩主
牛黃施主李無生兩主
五色絲施主申時^同兩主
引灯施主申鳳兩主
引灯施主敬^鄰兩主
灯燭妙云比丘
灯燭施主房壬生兩主
清蜜施主供莫年兩主
^桃黃施主金進^补兩主
經施主會海比丘
施主許厚翼兩主
金^忞^补兩主
3단
鞠少達兩主
梁芑梅兩主
徐^杜鵲兩主
金守男兩主
鄭西立兩主
許厚仁兩主
金厚吉兩主
鐵物施主
金玄^剋比丘
永惠單身
安八僅兩主
朴摩會兩主
金僅^逸兩主
朴白^雪兩主
李多勿沙里兩主

張道男兩主
崔必龍兩主
陳榮紀兩主
五月兩主
趙勳兩主
趙釋兩主
姜韶福兩主
玄夢同兩主
金芑礼兩主
吳玉金單身
李补只兩主
金勝福兩主
姜永立兩主
房韶先兩主
韓貴一兩主
文白雲兩主
文晞雲兩主
4단
大德一玄比丘
大德三印比丘
大德勝軒比丘
眞日比丘
德行比丘
敬淳比丘
敏及比丘
學明比丘
戒元比丘
僅宗比丘
惠行比丘
紹玄比丘
慈雨比丘
海元比丘
印哲比丘
勝哲比丘
智濟比丘
太輝比丘

智均比丘

尚訓比丘

海林比丘

双翼比丘

英准比丘

慈悅比丘

僅逢比丘

智堅比丘

懶英比丘

戒悟比丘

5단

緣化秩

證明大德性空比丘

持殿大德靜日比丘

芑飯頭尚印比丘

熟頭法能比丘

○青源應比丘

別座暉罔比丘

勸化寂遷比丘

畫員秩

僅嚴比丘

賴罔比丘

法難比丘

惠輝比丘

善行比丘

印機比丘

忠信比丘

僅森比丘

雲翼比丘

雲惠比丘

灵敏比丘

弘哲比丘

畫法○

○ 제1진광대왕상 원문(願文)

• 종이, 58.0×86.0cm

1단

材木大施主梁石生單身

材木大施之金氏兩位

靈山會佛像大施主信性比丘

地藏大施主韓貴男兩主

道明大施主韓戒男兩主

無毒大施主李仁億兩主

第一秦廣大王大施主文及平兩主

第二初江大王大施主趙點兩主

第三宋帝大王大施主金貴金兩主

第四五官大王大施主羅漢山兩主

第六變成大王大施主

第七泰山大王大施主源西非單身

第八平等大王大施主朴珍福兩主

第九都市大王大施主崔德奉兩主

第十五道轉輪大王大施主朴豐鶴兩主

判官大施主金厚男兩主

判官大施主珍單身

鬼王大施主儲貴單身

鬼王大施主金衰兩主

將軍大施主張永男兩主

將軍大施主洪懇男兩主

童子大施主四德兩主

童子大施主文介單身

使者大施主梁允生兩主

使者大施主忞德兩主

黃金大施主体笠比丘

柒色大施主學通比丘

柒色大施主性旭比丘

眞粉大施主朴應男兩主

三綠大施主金者斤兩主

牛膠大施主柵長明兩主

裹布大施主崔世山兩主

喉令桶大施大朴出男兩主

圓鏡大施主成^壽年兩主

方鏡大施主金^韶金兩主

供養大施主吳應生兩主

^{末醬}大施主徐大春兩主

紅綃大施主朴尙煥兩主

2단

青綃大施主白木蓮兩主

黃綃大施主金德生兩主

白綃大施主金^命絕兩主

牛黃大施主李無金兩主

五色絲大施主申時同單身

引燈大施主申鳳伊兩主

引燈大施主敬^憐比丘

燈燭大施主房壬生兩主

燈燭大施主妙云比丘

燈燭大施主鞠雲龍兩主

清蜜大施主^洪莫年兩主

^桃黃施主金進^補兩主

經紙大施主^靈海比丘

施主許厚翼兩主

施主金^韶^補兩主

鞠少達兩主

梁群梅兩主

徐頭鵲兩主

朱守男兩主

許厚仁兩主

金厚吉兩主

鐵物施主玄剋比丘

鐵物施主永伊單身

安八僅兩主

朴摩會兩主

朴白雲兩主

金僅逸兩主

李多勿沙里兩主

張道男兩主

崔必龍兩主

陳榮紀兩主
五月兩主
趙勳兩主
趙釋兩主
姜韶補兩主
玄夢同兩主
金芻禮兩主
吳玉金兩主
李補只兩主
3단
金勝補兩主
姜永立兩主
房韶先兩主
韓貴一兩主
文白雲兩主
文稀雲兩主
本寺
大德圓澤(?)比丘
大德知淳比丘
大德守惠比丘
大德玄哲比丘
全羅都判事信性比丘
慶尙諫事印祐比丘
前松廣任持學通比丘
前玉龍持任寶峻比丘
官書堂持任先日比丘
瑞峯持任玄應比丘
全羅都叢攝玉修比丘
長安住持海淪比丘
忠清諫事印軒比丘
廣凌判事神覺比丘
元曉住持處允比丘
證心持任贊嚴比丘
慶尙諫懶英比丘
山城僅僧法琳比丘
本寺大都鑿弘濟比丘

玉泉持任玉軒比丘
南漢和尚清玉比丘
安心和尚知軒比丘
全羅都刻子靈淨比丘
本縣官畫員僅卞比丘
支石里書堂和尚住和比丘
龍興持任應教比丘
4단
性旭比丘
應森比丘
本寺所任秩
鐘頭法蘭比丘
持殿知照一比丘
持寺海哲比丘
直歲幸安比丘
三剛僅哲比丘
維那戒翼比丘
上安室印浩比丘
緣化秩
全羅都和尙無證明大德性空比丘
禪宗判事無佛像持殿淨日比丘
芑飯頭供養尙仁比丘
雜物兼熟頭法能比丘
元熙比丘
外直炊飯尙默比丘
一負木元應比丘
來往僧雪筠比丘
治匠趙忠礼兩主
都大別座暉罔比丘
勸化寂還比丘
畫員秩
僅嚴比丘
賴罔比丘
法難比丘
惠輝比丘
善行比丘

印機比丘
忠印比丘
僅森比丘
雲惠比丘
弘哲比丘
靈敏比丘
5단
大德一玄比丘
大德三印比丘
大德勝軒比丘
眞日比丘
德行比丘
敬淳比丘
敏寬比丘
學明比丘
戒元比丘
僅宗比丘
惠行比丘
紹玄比丘
慈雨比丘
印哲比丘
勝印比丘
智濟比丘
慈默比丘
大輝比丘
智均比丘
尙訓比丘
海琳比丘
哲伊
春生
敬僅
善生
貴日
大起

□

○ 현 상

현재 부여 무량사의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협시하여 삼존을 이루고, 삼존의 좌우로 시왕, 판관, 귀왕, 사자, 장군 등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으며, 수장고에 있는 2위의 동자를 더해 모두 23체의 존상이 봉안, 소장되어 있다. 주존인 지장보살상은 나무로 구성되어 도금이 베풀어진 상태이며, 시왕상 등은 나무로 구성되어 채색된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지장보살상과 제1진광대왕상의 腹藏에서 발견된 묵서 발원문에 의해 조각승들의 이름이 밝혀졌으나, 아무데서도 봉안사찰, 봉안전각, 제작시기 등 불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 불상들을 조성한 조각승은 首彫刻僧 儀嚴을 비롯한 12명인데, 의엄이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불상은 최초로 발견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조각승 의엄은 1625년 나주 다보사 영산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조성에 수조각승 守衍의 아래에서 5/8위로 참여한 조각승인데, 본 무량사 명부전의 존상들을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것이다. 즉, 의엄은 守衍-靈哲-雲惠-敬林으로 이어진 수연파 조각승의 계보에 속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작품의 양식적 유사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단하기 어렵다. 수연을 중심으로 한 守衍派는 17세기 전반에 守衍과 靈哲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기도의 해안지역에서 활동하였고, 17세기 후반에는 雲惠와 敬林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만약 儀嚴이 수연 계보에 속할 수 있다면, 영철과 운혜 사이에 자리할 가능성이 있다.

명부전 존상 배치(2017년)

시왕 6	시왕 4	시왕 2	무독귀왕	지장보살	도명존자	시왕 1	시왕 3	시왕 5	
시왕 8								시왕 7	
시왕 10								시왕 9	
귀왕								귀왕	
판관								사자	
사자								판관	
	장군							장군	

守衍(1625년 나주 다보사 영산전 석가불상 발원문), 雲惠(무량사 명부전 발원문) 등 수연과 조각승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언급된 발원문의 기록과 달리, 이 지장보살상의 전반적인 양식적 특징은 전형적인 수연과의 양식과 연관이 크지 않다. 귀의 표현이 수연과 유사하거나, 왼쪽 어깨의 옷주름 표현이 영철-운혜와 비슷하다는 점 정도가 수연과 조각승과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얼굴, 수인, 착의법 등 중요 표현에서 수연과와 다른 점이 많다. 수연과의 작품들에서 공통적인 특징으로 언급되는 오른쪽 어깨 아래의 옷자락 표현도 다르며, 오른팔을 높이 들어 올리지 않은 수인의 표현은 수연과 조각승들에게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방식이기도 하다. 얼굴의 양감이나 입체감을 표현하는 방식도 독자적이다. 지장보살상에는 조선 후기 불상 중에서도 매우 강한 양감과 입체감이 표현되어 있는데, 특히 입 주위를 우묵하게 처리하여 주변의 뺨이나 턱과 분리시키고 도드라지게 하거나, 앞을 향해 벌여지도록 하여 귀 내부의 입체적 굴곡이 잘 보이도록 한 귀의 표현 등도 守衍이나 靈哲의 작품에서 나타난 표현 방식과 다르다. 의엄의 기록상의 계보와 양식상의 특징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추가 자료의 출현을 통해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扶餘 無量寺 木造地藏菩薩坐像 造成發願文」¹³⁾ 白紙墨書, 86.8×58.0cm.

村木大施主梁石生單身	童子文介單身	鞠少達兩主	大德一玄比丘	緣化秩	
村木大施主金氏兩主	使者施主梁尹生兩主	梁芴梅兩主	大德三印比丘	證明大德性空比丘	
靈山會佛像大施主信性比丘	使者施主恚德兩主	徐杜鵑兩主	大德勝軒比丘	持殿大德靜日比丘	
地藏大施主韓貴男兩主	黃金施主體笠	余守男兩主	眞日比丘	芴飯頭尙印比丘	
道明大施主韓戒男兩主	染色大施主學通比丘	鄭西立兩主	德行比丘	熟頭 法能比丘	
無毒大施主李仁德兩主	染色施主性旭 比丘	許厚仁兩主	敬淳比丘	裏青 源應比丘	
第一秦廣大王大施主文及平兩主	眞粉施主朴應男兩主	金厚吉兩主	敏官比丘	別座暉罔 ¹⁴⁾ 比丘	
第二初江大王大施主趙點兩主	三練施主金者斤伊兩主	鐵物施主	學明比丘	勸化寂還比丘	
第三宋帝大王大施主金貴金兩主	牛膠施主權 ¹⁵⁾ 長命兩主	金玄烈比丘	戒元比丘		
第四五官大王大施主羅從山兩主	裹布施主姜氏後春兩主	永春單身	儀宗比丘		
第五閻羅大王大施主梁芴屎兩主	裹布施主崔氏世山兩主	安八儀 ¹⁶⁾ 兩主	惠行比丘	畫貞秩	畫法蘭
變成大王大施主	喉令桶施主朴出男兩主	朴摩會兩主	紹玄比丘	儀嚴 ¹⁷⁾ 比丘	
泰山大王大施主源西非兩主	圓鏡施主成恚年兩主	金儀逸兩主	慈雨比丘	賴罔比丘	
平等大施主朴介福兩主	方鏡施主金倪金兩主	朴白雪兩主	海元比丘	法難比丘	
都市大施主崔德奉兩主	末醬施主徐大春兩主	李多勿沙里兩主	印哲比丘	惠輝比丘	
轉輸大施主朴豐鶴兩主	綃紅施主金德生兩主	張道男兩主	勝哲比丘	善行比丘	
判官大施主金厚男單身	青綃施主白木蓮兩主	崔必龍兩主	智濟比丘	印機比丘	
判官大施主文介單身	黃綃施主朴文煥兩主	陳榮紀兩主	太輝比丘	忠信比丘	
鬼王施主諸貴單身	白綃施主金命紀兩主	五月兩主	智均比丘	儀森比丘	
鬼王施主金襄兩主	牛黃施主李無生兩主	趙勳兩主	尙訓比丘	雲翼比丘	
將軍施主洪懇男兩主	五色絲施主申時同兩主	趙釋兩主	海林比丘	雲惠比丘	
將軍施主長永男兩主	引灯施主申風兩主	姜齡福兩主	双翼比丘	靈敏比丘	
童子大施主四德兩主	引灯施主敬鄰兩主	玄愛同兩主	英准比丘	弘哲比丘	
	灯燭妙云 比丘	金芴禮兩主	慈悅比丘		
	灯燭施主房壬生兩主	吳玉金單身	儀澤比丘		
	清蜜施主洪莫年兩主	李福只兩主	智堅比丘		

13) 2017.6.15 조사. 송은석 석문, 고경 교열.

14) 원문에는 '罔' 결자.

15) 원문은 柵. 이하 동일.

16) 원문은 仅. 이하 동일.

17) 원문은 卍.

桃 ¹⁸⁾ 黃施主金進福兩主	金勝福兩主	懶英比丘
經施主會海比丘	姜永立兩主	戒悟比丘
施主許厚翼兩主	房昶先兩主	
金懿福兩主	韓貴一兩主	
	文白雲兩主	
	文晞雲兩主	

*「扶餘 無量寺 木造第1秦廣大王坐像 造成發願文」¹⁹⁾ 白紙墨書, 86.0×58.0cm.

村木大施主梁石生單身	青綃大施主白木蓮兩主	金勝福兩主	性旭比丘	
村木大施主金氏 兩位	黃綃大施主金德生兩主	姜永立兩主	應森比丘	大德一玄比丘
靈山會佛像大施主信性比丘	白綃大施主金命絕兩主	房昶先兩主	本寺所任秩	大德三印比丘
地藏大施主韓貴男兩主	牛黃大施主李無金兩主	韓貴一兩主	鍾頭法蘭比丘	大德勝軒比丘
道明大施主韓戒男兩主	五色絲大施主申時同單身	文白雲兩主	持殿知照比丘	眞日比丘
無毒大施主李仁德兩主	引燈大施主申鳳伊兩主	文晞雲兩主	持寺海哲比丘	德行比丘
第一秦廣大王大施主文及平兩主	引燈大施主敬憐比丘	本寺	直歲幸安比丘	敬淳比丘
第二初江王大施主趙點兩主	燈燭大施主房壬生兩主	大德圓澤比丘	三剛儀哲比丘	敏寬比丘
第三宋帝王大施主金貴金兩主	燈燭大施主妙云比丘	大德知淳比丘	維那戒翼比丘	學明比丘
第四五官王大施主羅從山兩主	燈燭大施主鞠雲龍兩主	大德守惠比丘	上安室印浩比丘	戒元比丘
第六變成王大施主	清蜜大施主洪莫年兩主	大德玄哲比丘	緣化秩	儀宗比丘
第七泰山王大施主源西非單身	桃黃施主金進福兩主	全羅都判事信性比丘		惠行比丘
第八平等王大施主朴玠福兩主	經紙大施主靈海比丘	慶尙諫事 印祐比丘	全羅都和尙兼證明大德性空比丘	紹玄比丘
第九都市王大施主崔德奉兩主	施主許厚翼兩主	前松廣住持學通比丘	禪宗判事兼佛像持殿淨日比丘	慈雨比丘
第十五道轉輪王大施主朴豐鶴兩主	施主金懿福兩主	前玉龍持任玄峻比丘	芻飯頭供養 尙仁 比丘	印哲比丘
判官大施主金厚男兩主	鞠少達兩主	官書榮持任先日比丘	雜物兼熟頭 法能 比丘	勝印比丘
判官大施主玠單身	梁群梅兩主	瑞峯持任玄應比丘	元熙 比丘	智濟比丘
鬼王大施主儲貴單身	徐頭鵬兩主	全羅都叢攝玉修比丘	外直炊飯 尙默 比丘	慈默比丘
鬼王大施主金襄兩主	朱守男兩主	長安住持海淪比丘	負木 元應 比丘	大輝比丘
將軍大施主張永男兩主	許厚仁兩主	忠淸諫事印軒比丘	來往僧 雪筠 比丘	智均比丘
將軍大施主洪懇兩兩主	金厚吉兩主	廣陵判事神覺比丘	冶匠 趙忠禮 兩主	尙訓比丘
童子大施主四德兩主	鐵物施主玄烈比丘	元曉住持處允比丘	都大別座 暉罔 比丘	海琳比丘
童子大施主文介單身	鐵物施主永伊單身	證心持任贊嚴比丘	勸化 寂還 比丘	哲伊
使者大施主梁允生兩主	安八儀兩主	慶尙諫懶英比丘	書負秩	春生
使者大施主恁德兩主	朴摩會兩主	山城儀僧法琳比丘	儀嚴比丘	敬儀
黃金大施主體笠比丘	朴白雪兩主	本寺大都鑿弘濟比丘	賴罔比丘	善生
染色大施主學通比丘	金儀逸兩主	玉泉持任玉軒比丘	法難比丘	貴日
染色大施主性旭比丘	李多勿沙里兩主	南漢和尙清玉比丘	惠輝比丘	大起
眞粉大施主朴應男兩主	張道男兩主	安心和尙知軒比丘	善行比丘	
三線大施主金者斤兩主	崔必龍兩主	全羅都刻子靈淨比丘	印機比丘	
牛膠大施主權長明兩主	陳榮紀兩主	本縣官書負儀卞比丘	忠印比丘	
裹布大施主崔世山兩主	五月兩主	支石里書堂和尙信和比丘	儀森比丘 弘哲比丘	
喉令桶大施主朴出男兩主	趙勳 兩主	龍興持任應教比丘	雲惠比丘 靈敏比丘	
圓鏡大施主成壽年兩主	趙釋 兩主			
方鏡大施主金祀金兩主	姜懿福兩主			
供養大施主吳應生兩主	玄夢同兩主			
末醬大施主徐大春兩主	金芻禮 ²⁰⁾ 兩主			
紅綃大施主朴尙煥兩主	吳玉金兩主			
	李福只兩主			

*「扶餘 無量寺 木造地藏菩薩坐像 臺座 墨書」²¹⁾ 1448년(추정), 나무에 墨書.
(正統)²²⁾十三年²³⁾.....雲邊■山

18) 원문에는 杼로 표기.

19) 2017.6.15 조사. 송은석 석문, 고경 교열.

20) 원문은 礼.

21) 2017.6.15 조사. 송은석 석문, 고경 교열.

五月初……………■墨雲盡峯■
萬壽山²⁴⁾……………■造成一尊²⁵⁾

본 목서 기록은 지장보살상의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세밀한 촬영과 조사를 통하여 지장보살상 및 시왕상과 직접 관련 있는 기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

○ 현 상

목조불상 일괄의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지장보살상은 두 손이 분리되는 별도의 목재로 제작되었으며, 본체에 박히는 안쪽 부분에는 금속고리를 부착하여 끈이 묶여있다. 복장구멍 안으로는 몇 개의 목재를 연결한 ‘ㄷ’자형 철제격쇠가 보이며, 내부 전체를 붉은색으로 쓰여진 다라니를 도배했던 흔적이 남아있으나 등판쪽에 비해 앞쪽은 박락이 심하다. 녹색으로 채색된 머리 부분의 뒷부분에 일부 박락이 있고, 뒷면 허리 위쪽으로도 금박의 박락이 보인다. 안면에서는 귀 앞부분으로 수직으로 금박의 균열이 보인다.

대좌는 상판을 드러내면 상대 윗면에 먹으로 그린 보상화문 등의 그림과 함께 주변으로 네모 혹은 세모(팔각의 모퉁이 부분)의 구멍이 열지어 뚫려있는데, 간주(탱주)와 같은 목재기둥을 끼웠던 구멍으로도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의 상판과 상대는 같은 팔각형이지만 평면 구성이 같지 않고, 상판에는 이러한 구멍이 연결되는 흔적도 보이지 않아 이 상판부재는 후에 교체가 있었거나, 혹은 현재의 대좌가 지장보살상의 원래 대좌가 아닐 가능성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의 층급받침이 있는 상판은 대좌의 상대와 모습이 유사한데, 마치 상대가 두 번 반복되어 겹쳐있고, 그 사이에 팔각형의 상판이 삽입된 독특한 형태인데, 이러한 현상태가 대좌의 원형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 내용 및 특징

조각양식적으로 의엄은 수연이 수화사로 활동한 나주 다보사, 강화 전등사 등의 불사에 참여한 바 있어 수연의 조각기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무량사 명부전 조상에 함께 참여시킨 운혜는 17세기 후반기에 활발히 활동한 조각승인 바,

22) ‘正統’으로 추정됨. ‘十三’의 위에 위치한 연호로 추정되는 글자의 하부가 ‘儿’자임. 17세기 이전 중국 元明清代 연호 중 끝 글자의 하부가 ‘儿’이고 13년이 있는 사례는 ‘正統’뿐임.
23) 정통13년 1448년으로 추정됨. 판목의 연대 1448년은 儀嚴의 활동시기인 17세기 전반과 차이가 있으므로 본 불상의 제작 연대와 관련은 없다고 판단됨.
24) 만수산은 무량사가 위치한 산임. 본 판목이 원래 무량사에 봉안되었던 불상의 대좌 등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명부전 존상들의 원 봉안처가 무량사였을 가능성을 보여줌.
25) 一尊을 조성하였다는 기록은 명부전 존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

의엄은 결국 수연과 운혜라는 두 조각승의 계보를 연결해주는 위치에 있는 조각승이며, 이번에 처음으로 수화승으로 활약한 예가 발견된 셈이다. 이를 통해 17세기 전반에서 후반으로 이어지는 조각양식 변화의 한 단면을 추정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작품으로 판단된다.

시왕에 딸린 권속의 경우, 판관과 사자는 좌우 각각 3구씩 대칭으로 봉안되었는데, 3구는 각각 시왕과 비슷한 금관을 쓴 상 1구와 복두를 쓴 상 2구로 구성되어 있다. 향좌측에 위치한 사자 중의 1구는 오른팔이 상의 소매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매우 독특한 모습으로 서있다.

두 구의 금강역사는 몸을 휘감고 있는 옷자락을 입체감있게 표현하였으며, 목 뒤로 펼쳐진 불꽃문양으로 장식된 둥근 옷자락이 휘날리는 모습도 별도의 부재를 달아 섬세하게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동자상 2구는 얼굴 부위에 안료 박락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특히 바지를 입은 모습이 선명히 부각되어 특이하다.

○ 기타(소장경위)

지장보살상 대좌 묵서에서 현재 무량사가 위치한 ‘만수산’이란 내용이 보여 이들 존상들이 원래부터 무량사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묵서명은 대좌에만 국한된 내용일 수도 있다. 따라서 원래부터 무량사에 봉안되었던 것일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아직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문헌자료

무량사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인조연간에 중건되었으며, 주불전인 극락전의 소조아미타삼존불은 복장물을 통해 현진에 의해 1633년에 조성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현재 지장보살 및 시왕일괄상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1640년은 이로부터 7년 뒤이며, 특히 조성을 주도한 의엄은 현진과는 다른 유파로 분류되고 있는 수연과 계보에 속하는 승려로서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한 사찰 안에서 다양한 계보의 승려들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4.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제2 초강대왕도) 固城 玉泉寺 地藏菩薩圖 및 十王圖(第2 初江大王圖)

가. 검토사항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제2 초강대왕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한불교조계종으로부터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제2 초강대왕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12.5)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6.12.2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제2 초강대왕도)
(固城 玉泉寺 地藏菩薩圖 및 十王圖(第2 初江大王圖))
- 소 유 자 : 옥천사
- 소 재 지 :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71-9 옥천사
- 수 량 : 1폭
- 규 격 : 화면 세로 141.5cm, 가로 98.4cm
- 재 질 : 견본채색
- 조성연대 : 1744년(영조 20)
- 제 작 자 : 曉岸, 最賢, 尙悟, 抱勤, 證淳, 智心, 證閑, 至誠, 能學, 德熙, 德岑, 幻機, 日閑 등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옥천사 <지장보살 및 시왕도>는 1744년에 명부전에 봉안된 불화이다. 그 중 옥천사 <第二初江大王圖>는 시왕도 10폭 중 1975년에 도난을 당한 2폭 중의 1폭으로 판단된다. 당시 제1대왕도와 제2대왕도 2폭이 도난을 당해 행방을 알 수 없었으나, 최근에 제2초강대왕도(1폭)가 프랑스에서 발견되어 국내 옥천사로 되돌아왔다.

제2초강대왕도는 원래의 화면 크기보다 가장자리의 네 변이 잘려나간 상태로 화기 존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같은 1조의 작품인 <지장보살 및 시왕도> 9폭 가운데 6폭에 묵서 화기가 남아있다. 화기 내용은 건륭9년 즉, 1744년에 연화산 옥천사 명부회에 봉안하기 위해 수화승 효안(曉岸)을 비롯한 총 13명의 화승그룹과 연화질을 밝히고 있다.

효안은 1701년부터 1741년에 이르기까지 직지사권역에서 탁휘(卓輝) 휘하의 성징(性徵)과 설잠(雪岑) 그룹에 속해 활약하였으며, 1744년에 이르러 고성 옥천사로 이동하여 대규모의 불화불사를 주도하였다. 효안을 비롯한 13명의 화승그룹은 지장보살 시왕도 제작 외에 같은 해 옥천사 대법당 영산회상도, 삼장보살도 등의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불화불사 활동에 적극 동참한 그룹들이다.

수화승 효안이 주도한 <지장보살 및 시왕도>는 도상들의 섬세한 필치를 비롯하여 착의에 보이는 소형 문양, 안정적인 설채법 등이 돋보인다. 제2초강대왕도 역시 동일 표현기법을 지닌 작품이다.

이에 옥천사 <지장보살 및 시왕도>(9폭)는 2010년 12월에 보물 제1693호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어 오고 있으므로, <지장보살 및 시왕도>의 1조(組)에 속하는 제2초강대왕도 역시 보물 제1693호에 포함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옥천사 지장보살도와 시왕도는 2폭이 결실된 상태였으나, 18세기 후반 시왕도의 전형적인 작품이자 18세기 명부계 불화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되어 보물 제1663호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환수된 제2 초강대왕도는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도상과 작품의 완결성을 한층 높여준다는데 그 의의가 크고, 파리 국립기메박물관, 문화재청, 국외문화재단, 옥천사 등 국내외 관련기관의 긴밀한 공조로 환수한 사례로도 높게 평가할 만하다. 옥천사 지장보살도는 이미 유존하는 지장보살도 1폭과 시왕도 8폭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회수된 제2 초강대왕도 역시 이미 지정된 보물 제1663호에 포함시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환수의 의의도 되살리고, 나머지 한 폭도 속히 제자리를 찾아 완전한 형태를 갖추어 있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본 <제2 초강대왕도>는 <범어사 시왕도(1742년)>와 함께 현존하는 시왕도 중 비교적 제작연대(1744년)가 이른 18세기 전반기의 작품이다. <통도사 시왕도(1775년)>, <화방사 시왕도(1855년)>, <화암사 시왕도(1858년)> 등 대부분 18세기 후반 이후의 작품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비추어볼 때에도 중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시왕도 중에서도 양식상 완성도가 높아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인정된다.

현재 옥천사에는 지장보살도와 시왕도 중 8폭이 보물 제1693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불화는 이 시왕도 중 1폭으로 1975년 도난되어 프랑스로 유출되었던 것을 환수한 것이다. 현재 하단의 화기가 결실되었으나 화면 구성, 필치, 채색 등 화풍이 현존 옥천사 시왕도 8폭과 일치하여 옥천사 명부전 지장시왕도의 오른쪽(向左)에 봉안되었던 제2초강대왕도임이 확실하며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보물 제1693호로 편입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원래 화면 크기보다 가장자리의 네 변이 잘려나간 상태로, 현재 세로141.5cm, 가로 98.4cm 크기이다. 가로 폭은 비단 2매(54.8+43.6cm)를 결봉하여 한 화폭을 형성하였는데, 본존 지장보살의 화폭과 달리 비단의 결목이 매우 곱고 가는 변형평직이다. 화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옥천사 <第二初江大王圖>는 세로 141.5cm, 가로 98.4cm 크기의 결이 고운 비단 바탕에 채색으로 그린 불화이다. 화면 향우측 상단에 주색 바탕에 묵서로 ‘第二初江大王’이라는 방제명을 적고 있다. 初江大王은 망자의 49제 중 2·7제의 판결을 관장하는 두번째 대왕이다. 초강대왕은 화면 상단 중앙에 탁자를 앞에 두고 법피를 걸친 용두장식 의자에 우측(향좌측)을 향해앉아 망자들의 죄상을 다스리고 있다. 대왕은 양관을 착용하고 소매가 긴 적색의 대수의를 걸쳤으며, 오른손에는 홀을, 왼손에는 붓을 각각 쥐고 모습이다. 탁자 앞쪽에는 두루마리를 허리에 끼고 녹의를

착용한 녹사 1위가 대왕을 대하고 있고, 그 양측으로 겨드랑이에 두루마리를 낀 녹사 1위, 홀이나 두루마리를 쥐거나 합장한 모습의 판관 3위, 봉선·일월선 등의 의식구를 쥔 여성 4위, 보따리를 든 동자 2위, 깃발과 허개 번을 든 귀졸 2위 등 총 14위가 초강왕을 에워싸고 있다. 천공에는 짙은 군청을 바르고 적색·녹색·황색 등의 채운으로 장식하였다.

화면 하단에는 적색·녹색·황색 등의 구름을 경계로 그 아래쪽에 망자(亡者)들의 지옥고(地獄苦)를 묘사하였다. 왼쪽(향우측)에는 망자를 형틀에 세워 묶어놓고 귀졸이 힘껏 망자의 장을 빼내는 추장지옥(抽腸地獄) 장면을 묘사하였고, 반대편 오른쪽에는 백마를 탄 명부사자, 두루마리를 펼쳐든 녹사와 합장형의 지장보살, 두루마리와 깃발을 든 동자, 목에 칼을 쥔 망자와 이를 지켜보는 귀졸 등을 그렸다.

표1. 옥천사 <시왕도>에 보이는 지옥도상

	명칭	크기 (세로×가로cm)	주요 지옥 도상
1	제1진광대왕도	*도난품	丁身地獄(추정)
2	제2초강대왕도	141.5×98.4	抽腸地獄
3	제3송제대왕도	149.0×101.3	舌耕地獄(拔舌地獄)
4	제4오관대왕	149.0×101.2	鑊湯地獄
5	제5염라대왕도	149.0×114.8	業鏡地獄, 碓磑地獄(椿磨地獄)
6	제6변성대왕도	149.0×115.2	刀山地獄
7	제7태산대왕도	149.0×114.1	鋸解地獄
8	제8평등대왕도	149.0×114.2	石碓地獄(壓石地獄)
9	제9도시대왕도	149.0×113.5	寒冷地獄(寒水地獄), 權衡
10	제10오도전륜대왕도	149.0×113.6	黑暗地獄, 六道輪廻

표2. 옥천사 <지장보살 및 시왕도> 제작에 참여한 화사

	작품명칭	크기 (세로×가로cm)	화승명
1	지장보살도	155.0×205.3	登階曉岸 最賢 尙悟 抱勤 證淳 智心 證閑 至誠 能學 德熙 德岑 幻幾 日(閑)
2	제1진광대왕도	확인 불가능(도난품)	
3	제2초강대왕도	141.5×98.4	네 변이 잘렸음(화기 확인 불가능)
4	제3송제대왕도	149.0×101.3	曉岸 證淳 至誠 日閑
5	제4오관대왕도	149.0×101.2	없음
6	제5염라대왕도	149.0×114.8	없음
7	제6변성대왕도	149.0×115.2	없음
8	제7태산대왕도	149.0×114.1	曉岸 最賢 尙悟 抱勤 證淳
9	제8평등대왕도	149.0×114.2	最賢
10	제9도시대왕도	149.0×113.5	一閑 幻幾
11	제10오도전륜대왕도	149.0×113.6	登階曉岸

<사진>

	
<p>도1.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1744년)</p>	<p>도2. 고성 옥천사 제2초강대왕도(1744년)</p>
	
<p>도3. 제2초강대왕도 지옥상(하단)</p>	



○ 내용 및 특징

이 작품은 40여 년 전 도난 되어 2016년 9월 프랑스 한 개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문화재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 문화재가 프랑스로 흘러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은 대략 이러하다. 한 프랑스인이 1981년 인사동 고미술상으로부터 구입한 뒤 프랑스로 가져가 35년간 보관했다. 그는 지난 5월 프랑스 국립기메박물관에 “작품을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비쳤고, 이에 기메박물관이 문화재청에 관련사실을 알렸다. 조계종은 중앙기록관에 보관된 서류에서 이 그림이 1976년 11월 12일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계종은 문화재청, 옥천사와 협력해 소장자를 설득했고, 결국 소정의 기증 사례비를 주고 옥천사로 환수하는데 합의했다.(연합뉴스, 2016.9.28)

이 작품은 기존에 보물 제1693호(2010.12.21 지정)로 지정되어 있는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의 일부에 해당한다. 지정 당시부터 10폭의 시왕도 중 <제1 진광대왕도>와 <제2 초강대왕도>가 결실된 상태에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지정되었는데, 이번 환수 계기로 지장시왕도가 좀 더 완전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회수된 초강대왕도는 제1 진광대왕의 처소에서 재판관을 받은 후 다시 7일 뒤에 奈河津을 건너 초강왕의 처소에 다다른 죄인들이 겪게 되는 지옥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고성 옥천사 시왕도는 한 폭에 각 1위의 시왕을 묘사한 형식이다. 대체로 채운으로 상·하 2단으로 구획하고 상단에는 둥근 등받이를 갖춘 의좌에 앉은 시왕을 중심으로 권속들이 에워쌌고, 하단에는 지옥장면을 연출한 모습이다. 이러한 형식은 1742년에 제작된 범어사 시왕도에서 그 전례를 찾을 수 있지만, 현재 소재불명이다. 이후의 시왕도는 범어사본과 옥천사본을 토대로 의자에 앉은 시왕 뒤편으로 병풍을 추가하여 일단의 양식 변화가 생겨난다. 이처럼 옥천사본 시왕도는 조선 후기의 양식 변화를 읽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아 있는 다른 시왕도와 마찬가지로 화면은 채운(彩雲)으로 상·하 2단으로 구분하고, 상단에는 대왕과 판관, 사자 등 권속들을, 하단에는 형을 집행하는 지옥 장면을 묘사하였다. 시왕은 머리에는 원유관을 쓰고, 높고 둥근 등받이를 갖춘 의자에 앉아 심각한 눈빛과 굳게 다문 입을 통해 엄정한 심판자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측면관을 하였으며, 얼굴의 묘사가 세밀하고 사실적이다. 시왕의 앞쪽에는 장방형의 검은 방제란 안에 흰색 글씨로 ‘松亭月照之日’적은 책상이 놓여 있으며, 책상 위에는 향로와 붓과 벼루, 책 등 여러 가지 文房四友들을 두었다. 시왕 주위에는 판관, 녹사, 천녀, 천동들이 둥글게 에워싸고 있다. 초강대왕의 윤곽은 우선 굵고 열은 주색 선으로 윤곽을 잡고, 이를 따라 짙고 가는 황색 선으로 다시 한 번 선을 그어 윤곽을 분명히 드러내었는데, 다른 인물에도 동일한 기법이 적용되었으며, 다른 시왕도에서도 공통한다. 시왕의 얼굴은 육색 바탕에 위에 다시 검붉은 바림을

올려 생동감과 입체감을 드러내었다. 하단에는 죄인의 배꼽에서 창자를 꺼내는 모습이 그려졌고, 이외 목에 칼을 쓴 죄인 앞에서 판관이 두루마리를 펼쳐 죄목을 읽는 장면, 이들을 구제하러 온 지장보살의 모습, 백마를 탄 사자가 바쁘게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 등이 그려졌다.

화제의 위치는 남아 있는 시왕도는 대체로 좌측(향우측) 상단 측면 붉은 바탕에 내려쓰기로 되어 있으나, 이 시왕도는 우측(향좌측)상단에 마련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현재 화면은 사방 가장자리 붉은색 선을 따라 새롭게 표장되었고, 화기부분은 도난 당시 잘려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둥글고 높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은 시왕을 중심으로 이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화면의 구성과 채운으로 구분한 상하 2단 구도, 열고 굽은 선위에 다시 짙고 가는 선으로 윤곽을 잡은 필선, 그리고 화제를 쓰는 방식과 글씨체, 세부 문양 등 모든 면에서 남아 있는 시왕도와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이 제2초강대왕도는 옥천사 지장시왕도의 일부로 제작된 시왕도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p>그림1 제2초강대왕도(환수)</p>	<p>그림2 화제</p>
	
<p>그림3 초강대왕과 권속(상단)</p>	<p>그림4 지옥장면(하단)</p>

<참고도판> 보물 제1663호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그림 299 지장보살도



그림 300 제3 송제대왕도



그림 301 제5오관대왕



그림 302 제5염라대왕도



그림 303 제6변성대왕도



그림 304 제7태산대왕도



그림 305 제8평등대왕도



그림 306 제9도시대왕도



그림 307 제10오도전륜대왕도

□

○ 현 상

화면의 오른쪽 구름 윗부분에 얼룩이 있으나 화면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며, 채색 등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하단의 화기(畵記) 부분이 잘려져 버렸다.

○ 내용 및 특징

경남 고성 옥천사는 높지는 않지만 빼어난 경관으로 손꼽히는 연화산 중턱에 위치한 고찰이다. 대웅전 옆에 샘이 있어 옥천사로 일컬어졌다고 한다. 문무왕 16년(676) 의상대사(義湘大師 : 625~702)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수차례 중창되며 사택이 이어졌으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가람이 소멸되었고, 이후 학명대사(學明大師)에 의해 인조 17년(1640)부터 중창과 훼손이 지속되어왔다. 현재의 건물은 모두 19세기 이후에 건립된 것이다.

조선시대 명부전에는 본존으로 지장보살상과 지장보살도(혹은 지장시왕도), 그리고 그 좌우에 시왕상 및 시왕도가 봉안되는 것이 원칙이다. 옥천사 명부전 역시 동일한 도상이 봉안되어 있었으나 1975년 지장시왕도 좌우의 제1진광대왕도와 제2초강대왕도가 도난되어 현재는 향좌측 벽에 제3송제대왕도, 제5염라대왕도, 제7태산대왕도, 제9도시대왕도, 그리고 향좌측 벽에 제4오관대왕도, 제6변성대왕도, 제8평등대왕도, 제10오도전륜대왕도의 8폭 만이 남아있다.

초강대왕도를 비롯한 옥천사 시왕도는 동일한 구도와 표현법을 보여준다. 화면의 내용은 상하로 구분되며, 상부에는 각 대왕이 망자(亡者)를 심판하는 장면, 하단에는 지옥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심판장면이 2/3를 차지하고 있다. 초강대왕은 원유관(遠遊冠)을 쓰고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아 있으며 고개를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고 오른 손에는 홀(笏), 왼손에 붓을 들고 있다. 치켜올라간 눈꼬리와 눈썹, 꼭 다문 입 등 엄격한 심판관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대왕의 탁자 좌우에 6인의 판관(判官)과 녹사(錄事)가 명부를 보고하거나 홀을 잡고 있거나 관모를 만지고 있다. 이들 뒤로 주머니를 받쳐 든 선악동자(善惡童子) 한쌍이 좌우에 시립하여 있고, 그 뒤로 일월선(日月扇)과 번(幡)을 든 선녀와 옥졸인 우두(牛頭), 마두(馬頭)가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심판 광경 아래로 채운(彩雲)을 경계로 지옥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예수시왕생칠경』의 제2 초강대왕의 찬문에는 “이칠일에 망인은 나하(奈河)를 건너는데 천만의 무리가 열지어 강을 건너가네”라 하여 나하를 건너야 초강왕전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2 초강대왕도에는 나하는 표현되지 않는다. 조선 후기 초강대왕도의 지옥 장면에는 옥졸이 묶여있는 죄인의 배꼽에서 창자를 길게 뽑아 내는 광경, 칼을 쓰고 대기하고 있는 죄인, 지장보살과 동자, 명부를 들고 있는 판관, 말을 타고 망자를 데리러 가는 사자(使者) 등이 묘사되어 있다.

화면 전체적으로 적색과 녹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으나 18세기 후반기의 채색보다

는 채도가 높아 어둡지 않은 편이며 대왕의 얼굴 모습, 문양, 설채법 등이 옥천사 시왕도와 동일하여 1744년에 함께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장시왕도와 시왕도 8폭의 화기를 통해볼 때 이들은 수화승 효안(曉岸)을 비롯하여 최현(最賢), 상오(尙悟), 포근(抱勤), 증순(證淳), 지심(智心), 증한(證閑), 지성(至誠), 능학(能學), 덕희(德熙), 덕잠(德岑), 환기(幻幾), 일한(日閑) 등 모두 14명의 화승이 제작한 것을 알수 있다. 효안은 경북 황악산 직지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으로 「직지사천불전중창기」(1702)와 「천불전상량문」에는 수화승 성징(性澄)과 함께 직지사 천불전 단청과 개금불사, 그리고 용문사괘불(1705)를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효안은 명료하고 깔끔한 필선으로 각 존상의 균형있고 단엄한 모습을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비교적 탁하고 어둡지 않은 적녹색과 갈색 등을 구사하여 격조있고 완성도 높은 화면을 완성하였다.

○ 기타(소장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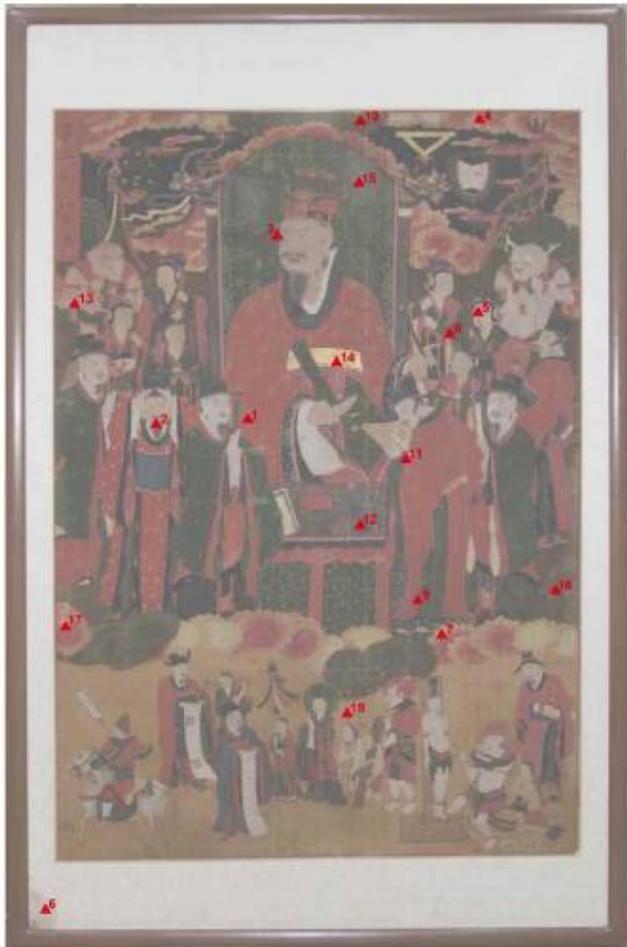
2016년 5월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에서 취득 대상 유물인 본 초강대왕도에 대하여 문화재청에 도난문화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문화재청(문화재감정관실)에서는 이 작품이 1979년 3월 8일 조계종 총무원으로 도난신고(1975년 도난)된 것임을 확인하였고, 이후 유상기증 형태로 옥천사로 환수된 것이다. 해외유출 문화재의 환수라는 점도 특기할 사항이다.

육천사 제2초강대왕도는 액자 형태로 보관되어 있고 액자 내부의 화면 규격은 가로 98.1cm, 세로 141cm이다. 현미경 관찰 결과 두 쪽의 견직물이 실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좌측부터 1쪽의 너비는 54.6cm, 2쪽 너비는 약 43.5cm이다.

화면에서 관찰되는 손상 유형은 과거 꺾임, 안료 박락, 결실 등의 물리적 손상과 얼룩 및 이물질로 인한 표면오염, 과거에 이루어진 보수 부분이 있다. 이 중에서 과거 화면 꺾임과 이로 인한 안료 박락, 과거 보수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화면 전체적으로 과거 화면 꺾임이 관찰되며, 이와 같은 부분에서 안료 박락 및 바탕 직물의 끊김, 들뜸 현상이 함께 관찰되었다. 견직물은 마직물에 비해 열화가 빠르고 바스라지기 쉬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화면 꺾임, 안료 박락, 화면 결실 등의 손상이 더 발생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 현재는 액자 형태로 보관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다.

화면 얼룩은 주로 우측에서 관찰되며 갈색 얼룩이 세로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으며, 그 외에도 부분적으로 갈색 반점 및 오염물에 의한 얼룩이 관찰된다.



도 1. 육천사 제2초강대왕도 손상상태 세부위치

하단 장황 비단에 습해에 의한 얼룩이 확인된다.

안료 손상은 화면 전체적으로 박락, 균열, 들뜸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녹색, 적색, 청색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특히 녹색 안료가 채색된 의자 및 의복의 경우 넓은 부분에 걸쳐 박락, 들뜸 현상이 나타나며, 과거에 화면이 꺾였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과 화면 폭 연결부분에서도 안료 박락이 나타났다.

과거 보수부분은 화면 중앙의 의자의 녹색 안료 채색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이 부분의 녹색 안료 박락이 특히 심하며, 바탕직물이 결손된 상태에서 배접지 위에 주변과 비슷한 색으로 채색하여 색 맞춤 하였다.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명칭변경

안건번호 동산 2017-04-015

15. 보물 제1629호 신한첩 지정명칭 및 번호 변경

가. 검토사항

보물 제1629-1호 ‘신한첩-신한첩 건’ 및 보물 제1629-2호 ‘신한첩-신한첩 끈’의 명칭 및 번호 변경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제1629-1호 ‘신한첩-신한첩 건’ 및 보물 제1629-2호 ‘신한첩-신한첩 끈’에 대해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어, 관계전문가 조사('17.7.17, 7.19)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본 위원회에서 명칭 및 번호 변경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면 변경 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지정경위

- 지정신청
 - '09년 “우리 나라의 옛글씨(어필·조선전기 명필)” 대상 일괄 공모 추진
 - 서예분야 제1차 소위원회('09.05.14), 5~9월 지정조사 대상에 추천
 - 서예분야 제2차 소위원회('09.09.30), 보물 지정검토 대상으로 추천
- 현지조사 : 이완우(전) 이동국(전) 선주선(관계전) ('09.05~09월)
- 문화재위원회
 - 검토 : 09년도 제6차 회의('09.10.08.) 지정예고 하기로 검토함(붙임 1)
 - 심의 : 09년도 제7차 회의('09.12.10.) 보물로 지정 의결
- 지정일 : '10.01.04(관보 제17166호)

라. 지정명칭 변경

- 변경 전 : 신한첩-신한첩1(宸翰帖-宸翰帖 1), 신한첩-신한첩2(宸翰帖-宸翰帖 2)

- 변경 후 : 신한첩-신한첩 건(宸翰帖-宸翰帖 乾), 신한첩-신한첩 곤(宸翰帖-宸翰帖 坤)
- 변경사유 : 동일 유형의 국가지정동산문화재(국보·보물)의 지정명칭 명명(命名)방식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지정명칭을 변경함.
- 변경일: 2010.08.25(관보 제17328호, 문화재위원회('10.08.12) 의결)

- ※ 2차년도 옛글씨 일괄공모 자문회의에서 명칭 변경을 권고함.(’10.1.15.)
- 참석자 : 최승희(위원장), 이완우(전), 이동국(전), 서병패(청), 선주선(관)
- 변경내용
 - 보물 제1629-1호 신한첩-신한첩 1(宸翰帖-宸翰帖 1)→한글어찰-신한첩 건(한글어찰-宸翰帖 乾)
 - 사유 : 보물 제1629-2호 ‘신한첩-신한첩 2’의 발문(정진석)에 언급되는 ‘宸翰帖 乾’과 내용이 동일하며, 편지의 서체도 ‘宸翰帖 坤’과 동일하여 당시 ‘宸翰帖 坤’과 짝을 이루어 함께 만들어진 ‘宸翰帖 乾’으로 봐야 함(현재의 표장은 후대에 개장된 것임).
 - 보물 제1629-2호 신한첩-신한첩 2(宸翰帖-宸翰帖 2)→한글어찰-신한첩 곤(한글어찰-宸翰帖 坤)
 - 사유 : 원래 표제가 ‘宸翰帖 坤’으로 되어 있음(당시 표장이 남아 있으며, 발문(정진석)에도 이 첩을 ‘宸翰帖 坤’이라 하였음).

마. 재검토 요청내용

- 지정예고 기간에 보물 제1629-2호 소장기관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서 명칭 및 번호 재검토 요청(붙임 2)
 - 두 첩은 확연히 다른 자료이므로 두 첩을 연결된 한 세트의 완질로 파악하는 것은 오류임. 따라서 지정번호가 연결되어 부여되어서는 안되며, 지정 명칭 역시 두 첩이 가진 고유한 형태·내용·제목에 맞게 각기 재변경되어야 함.
 - 보물 제1629-1호 신한첩-신한첩 건 → 숙명신한첩
보물 제1629-2호 신한첩-신한첩 곤 → 신한첩 곤
- 이종덕(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민원 제기(’13. 7월)(붙임 3)
 - 보물 제1629-2호 신한첩-곤(이하 ‘숙휘신한첩’)의 발문에 나오는 ‘신한첩 건’은 보물 제1629-1호 신한첩-건(이하 ‘숙명신한첩’)이 아님. 그 근거는
 - ① 숙휘신한첩은 숙휘공주 집안을 통해 전래되다가 순조 2년(1802, 숙휘공주 남편인 청평위 정제현의 5대손인 정진석)에 성첩되었으며, 숙명신한첩은 명성왕후 졸년인 숙종9년(1683)에서 장렬왕후 졸년인 숙종 14년(1688) 사이에 성첩되었음. 즉 각기 다른 집안에서 다른 시기에 성첩됨.

② 정진석의 발문에서 말하는 ‘신한첩 건’은 ‘4조 어필’로 언서(한글)가 아니라 한문으로 쓴 것을 가리키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네 분의 임금을 가리키는 것임. 숙명신한첩에는 효종, 현종, 장렬왕후, 인선왕후, 명성황후 등 5명의 발신자가 있어 맞지 않음.

○ 이완우 위원에게 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수차례 요청했으나(‘14.8월, 11월) 회신 받지 못함.

바. 조사자 검토 의견

□ (변경 타당)

○ 내용 및 가치

신한첩(宸翰帖)이란 ‘신한(宸翰)을 묶어 놓은 책’인데, 국어사전에서는 ‘신한’은 ‘임금이 몸소 쓴 문서나 편지’라고 풀이하여 놓았다. 그런데 실제로 ‘신한’은 임금만이 아니라 임금에 준하는 왕비나 대비의 편지도 포함한다. ‘임금이 손수 쓴 글씨’를 뜻하는 ‘어필(御筆)’ 또는 ‘어서(御書)’ 또한 임금만이 아니라 왕비나 대비의 글씨를 가리키기도 한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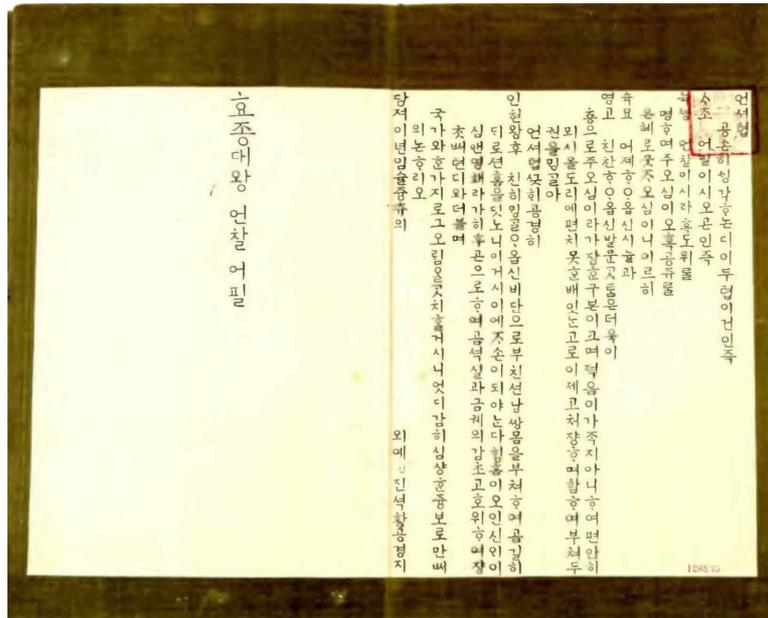
『숙명신한첩』은 1962년에 발견되어 한동안 고 김일근 교수가 소장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신한첩은 표지가 떨어져 나가고 맨 뒷부분도 훼손되어 몇 장이 떨어져 나갔는지 알 수 없으나 현재의 상태로 미루어 최소한 1장은 떨어져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 김일근 교수는 이 신한첩을 구득한 뒤 스스로 직접 표지를 만들고 ‘淑明宸翰帖’이란 표제를 써 붙였다. 그리고 이 『숙명신한첩』과 구별하기 위하여 『신한첩(宸翰帖) 곤(坤)』을 『숙휘신한첩』이라 재명명한 것이다.

『숙휘신한첩』은 본디 이름이 『신한첩(宸翰帖) 곤(坤)』이니 건곤(乾坤)의 이치로 보아 이와 짝이 되는 『신한첩(宸翰帖) 건(乾)』이 있게 마련이다. 『신한첩 곤』은 성첩자가 서문에서 달리 ‘언서첩’이라고 지칭하였다. 언서(諺書) 즉 한글로 쓰인 것을 ‘곤’이라고 하였으니, ‘건’은 진서(眞書) 즉 한문으로 쓰인 것일 터이다.

『신한첩 곤』은 고 김일근 교수가 1955년 대구에서 구득하고 『이조어필언간집』을 간행하여 전모를 밝혔는데, 현재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그 뒤 1982년(혹 1983년이라고도 함)에 『신한첩 건』이 출현하여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한첩 건』의 서문 첫머리는 “恭惟茲貳帖 乾則四祖御筆 坤則六聖諺札[공손히 생각하건대 건은 곧 4조의 어필이요, 곤은 곧 6성의 언찰이다.]”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언서첩’의 서문에서 “공손히 생각함·논디 이 두 텃이 건인 즉 ㅅ·조 어필이시오 곤인즉 녹성 언찰이시라”라고 한 구절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26) 이종덕, 「장렬왕후의 한글 편지」 66쪽.

것이다. 숙휘공주의 남편인 인평위(寅平尉) 정제현(鄭齊賢)의 5대손인 정진석(鄭晉錫)이 순조 2년(1802) 8월에 작성한 『신한첩 건』과 『신한첩 곤』의 성첩 서문은 하나는 한문으로 적혀 있고, 다른 하나는 한글로 적혀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 ‘신한첩’이 2첩으로 되어 있는데, ‘건첩’은 4조 곧 네 분 임금님의 한문 필적이시고, ‘곤첩’은 6성 곧 여섯 분의 임금이나 왕비의 한글 편지라는 것이다.



『신한첩(宸翰帖) 곤(坤)』의 ‘효종대왕 언찰 어필’

○ 지정경위

2009년 ‘우리나라의 옛글씨(어필·조선전기 명필)’ 대상 일괄 공모 추진에서 서예분야 제1차 소위원회(2009.05.14.) 5-9월 지정조사 대상에 추천, 서예분야 제2차 소위원회(2009.09.30.) 보물 지정검토 대상으로 추천하고 현지조사는 이완우(전) 이동국(전) 전주선(관계전)(2009.05-09월) 등이 실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6차 회의(2009.10.08.)에서 지정예고하기로 검토하였고, 2009년도 제7차 회의(2009.12.10.)에서 보물로 지정 의결을 심의하여 2010년 1월 4일에 지정하였다.(관보 제17166호)

2009년 12월 10일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 동산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록에 의하면,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숙명신한첩』과 계명대학교 소장 『신한첩 곤』에 대한 지정 여부에 대해 지정가치 있음으로 인하여 각각 보물 제1629-1호 신한첩-신한첩 1(宸翰帖-宸翰帖 1)과 보물 제1629-2호 신한첩-신한첩 2(宸翰帖-宸翰帖 2)로 지정 의결하고, 2010년 1월 3일에 보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2010년 1월 15일 2차년도 옛글씨 일괄공모 자문회의에서 명칭 변경을 권고하여 보물 제1629-1호 신한첩-신한첩 1(宸翰帖-宸翰帖 1)을 한글어찰-신한첩 건(한글어찰-宸翰

帖 乾), 보물 제1629-2호 신한첩-신한첩 2(宸翰帖-宸翰帖 2)를 한글어찰-신한첩 곤(한글어찰-宸翰帖 坤)으로 2010년 8월 25일에 변경하였다.

○ 명칭변경 예고 관련 접수의견과 향후 계획

2010년 7월 21일에 최경훈(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문헌실)이 신한첩-신한첩 1을 신한첩-신한첩 건, 신한첩-숙명신한첩을 신한첩-신한첩 곤으로 명칭 변경 요청의견서를 제출하여 명칭 및 번호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2017년 7월 4일 김성배는 김은영에게 이종덕과 자신이 2013년 22일과 23일에 주고받은 메일을 보내어 보물 제1629-2호 신한첩-곤(숙회신한첩)의 서문에 나오는 ‘신한첩 건’은 보물 제1629-1호 신한첩 건(숙명신한첩)이 아님을 알렸다. 그 근거의 하나는 『숙회신한첩』은 숙회공주 집안을 통해 전래되다가 순조 2년(1802, 숙회공주 남편인 인평위 정제현의 5대손인 정진석)에 성첩되었으며, 『숙명신한첩』은 명성왕후 졸년인 숙종 9년(1683)에서 장렬왕후 졸년인 숙종 14년(1688) 사이에 성첩되었다. 즉 각기 다른 집안에서 다른 시기에 성첩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진석의 발문에서 말하는 ‘신한첩 건’은 ‘4조 어필’로 언서(한글)가 아니라 한문으로 쓴 것을 가리키고 효종·현종·숙종·영조 네 분의 임금을 가리키며, 『숙명신한첩』에는 효종·현종·장렬왕후·인선왕후·명성왕후 등 5명의 발신자가 있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완우 위원에게 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수차례 요청했으나(2014년 8월, 11월)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2017년 6월 28일에 ‘보물 제1629-1호 신한첩 건’, ‘보물 제1629-2호 신한첩 곤’ 총 2첩에 대한 지정 명칭 및 번호 재검토를 위한 현지실사 여부를 결정하고 전주선(전 위원), 광노봉(위원), 김남형(전문위원)에게 위임하였다.

○ 『숙명신한첩』 · 『신한첩 곤』의 발신자 · 수신자

현재 『숙명신한첩』에 전하는 편지는 모두 67건이다. 이외에 한 건이 더 있지만 두어 글자만 알아볼 수 있고 나머지는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판독문 자료에 포함시키기가 어렵다. 다만 효종대왕의 한글 편지 중 한 편에 숙명공주가 부왕에게 보낸 문안 편지의 본문이 서명만 제외된 채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이를 또 한 편의 편지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숙명신한첩』에 전하는 실제 한글 편지는 모두 68편이 된다. 이에 대한 발신자·수신자·편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편목명과 순서가 효종대왕 어셔(9편), 현종대왕 어셔(2편), 대왕대비 어셔(2편), 인선왕후 어셔(53편)로 되어 있다. 대부분 한 면에 두 편씩 성첩되어 있으며 매

『숙명신한첩』의 발신자와 수신자

발신자	수신자	편수
효종	숙명공주(딸)	8
	숙명공주 내외	1
현종	숙명공주(누나)	2
장렬왕후	숙명공주(손녀)	2
인선왕후	숙명공주(딸)	53
명성왕후	숙명공주(시누이)	1
숙명공주	효종(부친)	1
	합계	68

『신한첩 곤』(『숙회신한첩』)의 발신자와 수신자

발신자	수신자	편수
효종	숙회공주(딸)	2
현종	인선왕후(어머니)	2
	인평위(매제)	1
숙종	숙회공주(고모)	6
장렬왕후	숙회공주(손녀)	2
인선왕후	숙회공주(딸)	16
명성왕후	숙회공주(시누이)	1
인현왕후	숙회공주(시고모)	5
	합계	35

면마다 편명이 적혀 있다. 이외에 신한첩 맨 끝에 편명이 보이지 않은 채 분리되어 있는 편지가 1편 있는데, 이것은 필체와 사연 및 수신자에 대한 상대 높임법으로 미루어 현종의 비인 명성왕후가 쓴 편지임이 분명하다.²⁷⁾ 이에 대한 발신자·수신자·편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한첩 곤』(『숙회신한첩』)의 ‘언서첩’이란 제목으로 시작하는 한글 서문은 후손 정진석이 임술년(1802)에 첩을 만들면서 작성한 것이다. 내용은 두 첩을 만들었는데, 건(乾)은 사조[효종·현종·숙종·영조]의 한자로 된 어필이고, 곤(坤)은 육성[효종·현종·숙종·인선왕후·명성왕후·인현왕후]의 한글 편지라는 것이다. 수신자는 숙회공주와 남편인 인평위 정제현이다. 이 집안에 전해지던 편지의 크기가 고르지 않아 모두 한 곳에 모아 편안히 모시고자 두 첩(한문·한글)으로 장황하였다. 마지막 행에서는 ‘당저이년임술중추의 외예신진석황공경지’라는 연도와 작성자의 이름이 있다(지금 임금[순조]이 즉위한 지 두 번째 해인 1802년 음력 8월에 외손인 진석이 황공하게 삼가 기록함). 언서첩 끝에는 인현왕후가 친히 만들어 준

27) 이종덕, 「『숙명신한첩』에 대한 몇 가지 고찰」 8-9쪽,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 국립청주박물관 2011.

비단 주머니 한 쌍이 붙어 있었는데, 현재는 떨어져 없어지고 흔적만 남아 있다.

○사조(四祖)와 육성(六聖)

2009년 12월 10일 ‘동산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록’ 4-5쪽 문화재전문위원 이완우 조사자 검토 의견에 의하면, “ ‘건(乾)인즉 사조(四祖) 어필(御筆)이시오 곤(坤)인즉 육성(六聖) 언찰(諺札)이시라’ 했는데, ‘사조 어필’은 국립청주박물관의 효종·현종·장렬왕후·인선왕후 어찰을 가리키며, ‘육성 언찰’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의 효종·현종·숙종·인선왕후·명성왕후·인현왕후 어찰을 가리킨다. 또 한글 필치가 국립청주박물관의 ‘○○대왕어셔’나 ‘○○왕후어셔’라고 쓴 것과 같아 이들 첩이 건곤으로 함께 장황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종덕은 ‘사조 어필’은 언서(한글)로 쓴 국립청주박물관의 효종·현종·장렬왕후·인선왕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쓴 것으로 효종·현종·숙종·영조 네 분의 임금을 가리킨다고 하였다.²⁸⁾ 이는 고 김일근 교수가 1982년 ‘신한첩(宸翰帖) 건(乾)’이 발견되어 확인한 것이라고 한다.²⁹⁾ 그리고 『숙명신한첩』의 발신자들은 효종·현종·장렬왕후·인선왕후·명성왕후 등 다섯인데, 이는 성책 서문에서 ‘사·조 어필’이라고 한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

『숙휘신한첩』 발신자의 편지들 맨 앞에 따로 속표지를 삽입하여 각각 ‘효종대왕 언찰 어필’·‘현종대왕 언찰 어필’·‘숙종대왕 언찰 어필’·‘인선왕후 언찰 어필’·‘명성왕후 언찰 어필’·‘인현왕후 언찰 어필’이라고 소제목을 적어 놓았다. 그러므로 서문에서 말한 ‘육성’은 효종·현종·숙종·인선왕후·명성왕후·인현왕후를 가리킨다. 그런데 실제 편지를 살펴보면 인선왕후의 편지에 포함된 것 중 처음 2편이 장렬왕후의 것이다. 『숙휘신한첩』을 성첩한 이가 필체와 문장 종결 방식을 정밀하게 살피지 않아서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인선왕후의 편지로 잘못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장렬왕후가 대왕대비로 생존해 있던 때에 성첩된 『숙명신한첩』에서는 올바르게 파악하여 장렬왕후의 편지를 인선왕후의 것과 구분하여 ‘대왕대비어셔’로 분류하여 놓았기 때문에 『숙휘신한첩』 중에서 이것과 동일한 필체로 쓰인 맨 처음 2편의 편지가 장렬왕후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보물 제1629-2’의 해제에서는 성첩 서문에서 ‘6성’이라고 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7성’임을 밝히는 것이 좋다.³⁰⁾

○지정명칭 및 번호

현재까지 나타난 신한첩의 명칭은 신한첩-신한첩 1·신한첩-신한첩 건·숙명신

28) 『한국의 옛글씨』 도록 100쪽.

29) 김일근, ‘인간의 연구’ 60쪽 각주55.

30) 이종덕, 「장렬왕후의 한글 편지」 68-69쪽.

한첩·신한첩-신한첩 2· 신한첩 곤· 숙휘신한첩 등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한첩-신한첩 1과 신한첩-신한첩 2는 신한첩을 구별하는 명칭으로 올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수신자의 주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신한첩 건은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계명대학교 소장본인 신한첩 곤의 상대적인 명칭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한첩 곤은 한글 편지이고, 이와 상대적인 신한첩 건은 한문 편지이기 때문에 한글 편지인 국립청주박물관의 소장본을 신한첩 건이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셋째, 숙휘신한첩은 비록 고 김일근 교수가 숙명신한첩과 구별하기 위하여 재명명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현종이 매제인 인평위 정제현과 인선왕후에게 보낸 편지가 함께 있어 순수한 숙휘신한첩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상을 참고할 때 가장 이상적인 지정명칭은 『淑明宸翰帖』과 『宸翰帖 坤』이라 하겠다. ‘숙명신한첩’은 이 방면에 대한 고 김일근 교수의 연구 성과와 자신이 직접 표제를 써서 붙였다는 점에서 그의 안목을 존중하고 동의할 만하다. ‘신한첩 곤’은 표제를 따른 것이고, 또한 명칭변경 요청 사유에 부합하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함께 짝을 이루었던 ‘신한첩 건’의 출현 여지를 남긴다는 데에 있다. 『淑明宸翰帖』과 『宸翰帖 坤』은 또한 현재 표제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큰 이의가 없을 것이다.

현재 상태의 표제(標題)



『淑明宸翰帖』



『宸翰帖 坤』

지정번호는 현재까지 두 첩을 건·곤으로 보았기 때문에 청주국립박물관 소장본은 보물 제1629-1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본은 보물 제1629-2호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두 첩은 발신자의 일부가 겹칠 뿐 수신자가 다르고 전래 경위와 성첩 시기도 같지 않다. 따라서 두 첩은 서로 독립적이고 이것이 지닌 고유한 형태·내용·표제에 맞게 일련번호보다는 분리하여 별도의 지정번호를 부여함이 옳을 것 같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문화재청에서 소개하는 문화재에 대한 설명은 신뢰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다면 이에 따른 과급 효과도 감당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는 문화재를 사랑하고 우리의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정은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가장 수정이 시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숙명신한첩』과 『신한첩 곤』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편수에 대한 정확성.
- 둘째, 사조(四祖)와 육성(六聖)의 정확한 인명과 칠성(七聖)에 대한 시비.
- 셋째, 『신한첩 건』에 대한 존재 여부와 정확한 설명.

□ (변경 타당)

보물 제 1629-1호 신한첩 건과 2호 신한첩 끈에 대한 지정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상기 두 첩의 명칭에 대한 오류와 예에 상응한 논란은 2009년 “우리나라 옛 글씨(어필·조선전기 명필)” 대상 일괄공도 지정조사이후 모 조사위원 보고서의 착오로부터 당 해에 보물로 지정된 명칭에서 기인되었다.

2010년 최경훈씨 2014년 이종덕씨 등이 명칭변경요청을 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명료한 회답을 못한 것에 대하여 당시 지정조사에 참여한 장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자언한다.

1. 두 첩의 개요

1) 청주 박물관 소장의 보물 제 1629-1호 신한첩 건에 대하여 언급하면, 이 첩은 숙명공주가 효종·현종·강렬왕후·인선왕후·명성왕후 등 다섯 분으로부터 받은 편지첩을 장첩한 것이다. 아마도 시택인 심씨 집안에서 장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 김일근 교수가 소장하였을 때 표지를 다시 만들고 「淑明宸翰帖」이라고 표제를 직접 써 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2)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 소장된 보물 제1629-2호 신한첩 끈은 숙위공주가 효종·숙종·강렬왕후·인선왕후·명성왕후·인현왕후 등 여섯 분으로부터 받은 편지와 인평위 경제현에게 보낸 현종의 편지글 등 모두 일곱 건의 편지를 시택인 정씨가문에서 장첩한 것이다.

1802년에 장첩된 이첩의 표지에는 「宸翰帖」 擘이라고 쓰여져 있으며, 서문에는 정진석이 건은 四冊의 어필이며 끈은 六冊의 언찰이라 밝히고 있다. 「신한첩」 건이 1982년에 발견되었다는 기록은 전하지만 현재 행방은 알 수 없다.

끈 건첩은 네 임금의 한문글씨이고 끈첩은 여섯 분의 임금이나 왕후의 한글 편지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고 김일근 교수는 이를 숙명신한첩과 대별하여 「淑徽宸翰帖」으로 명명한다 바 있다.

2. 현상

두 첩은 가문이 다르기에 강황의 격도나 형식도 다르다. 동산도서관 소장본이 보관 상태나 품위 등에서 월등하다고 하겠다.

특히 청주박물관 소장본은 매장마다 곰팡이가 미세하게 퍼져 있어 시급한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3. 결론

1) 계명대학교 고문헌실 최경훈씨가 제기한 표지에 쓰여진대로 <宸翰帖> 坤과

<淑明宸翰帖>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고 주장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2) <宸翰帖> 坤은 <宸翰帖> 乾과 짝을 이루었던바 짝을 기다린다는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淑明宸翰帖>은 선행연구자인 고 김일근 교수의 안목과 연구 성과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동의할 만 하다고 판단한다.

3) 다만 김일근 교수가 주장 했던 대로 <宸翰帖> 坤을 <淑徽宸翰帖>으로 할 경우 한장이 인평위가 받은 것이기에 부적절하다.

4) 또한 서로 다른 독립된 첩임을 감안할 때 지정 일련번호인 1·2호 역시 삭제되어 각각 분리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본다.

□ (변경 타당)

의견서

국립 청주 박물관 소장. 보물 제 1629-1호 「신한첩 - 건(乾)」과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보물 제 1629-2호 「신한첩 - 곤(坤)」의 명칭 및 지정 번호에 대한 계명대학교 측의 재검토 요청과 이종덕 씨의 민원 제기와 관련하여 현장 조사와 민원 내용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1. 명칭

보물 제 1629-1호 「신한첩 - 건(乾)」은 효종 · 현종 · 인조계비 장렬왕후 · 효종비 인선왕후 등 네 분이 효종의 제 3녀인 숙명공주에게 보낸 한글 어찰을 모아 장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첩은 「효종 · 현종 · 장렬왕후 · 인선왕후 신한첩」이라 명명하여야 할 것이나 국가지정 문화재의 호칭으로서는 지나치게 번잡하여 적절치 않으므로 수신자 위주로 명명하여 「숙명공주 수신 신한첩」이라고 함이 온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신한첩 - 곤(坤)」은 효종 · 현종 · 숙종 · 장렬왕후 · 인선왕후 · 인현왕후 등 일곱 분이 효종일 제4녀인 숙휘공주, 효종비 인선왕후(2동, 발신자: 현종), 숙휘공주의 남편 인명위(1동, 발신자: 현종) 등 세 분에게 보낸 한글 어찰을 모아 1802년 인평위의 5대 손인 정진석이 성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첩도 「효종 · 현종 · 숙종 · 인선왕후 · 명성왕후 · 인현왕후 신한첩」이라 명명하여야 할 것이나 「신한첩 - 건(乾)」과 같은 이유로 수신자 위주로 명명하여 「숙휘공주, 인선왕후, 인명위 수신 신한첩」으로 명명함이 온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문헌의 경우 가능한 한 해당 문헌의 기존 표제를 고수해 온 전통에 따라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신한첩 - 건(乾)」은 「숙명 신한첩」으로 개칭하고,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신한첩 - 곤(坤)」은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이다.

2. 지정 번호

청주국립박물관 소장 보물 1629-1호 「신한첩 - 건(乾)」과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보물 1629-2호 「신한첩 - 곤(坤)」은 발신자 일부가 겹칠 뿐 수신자가 다르고, 전래 경위 · 작첩 시기 등도 전혀 다른 별개의 자료이다. 따라서 이 두 신한첩에 연결된 지정 번호를 부여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별개의 지정 번호를 부여함이 온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7월 27일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동산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록

일 시 : 2009. 12. 10(목) 15:00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뜨락
참석위원 : 최승희, 김리나, 김완두(미산스님), 송일기, 신승운, 이영훈, 이
오희, 정우택, 최 건
간 사 : 김성배 서 기 : 오춘영

안건번호 동산 2009-12-005

3. 신한첩(宸翰帖)

가. 심의사항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숙명신한첩”과 계명대학교 소장 “신한첩 곤”에 대한 지정 여부를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우리 청에서는 지정의 합리성 및 객관성 제고를 목적으로 ‘동종문화재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옛글씨(어필·조선전기 명필)”를 대상으로 공모하였음.
- 서예분야 제1차 소위원회(‘09.05.14)에서 공모 접수된 100건 184점 중 42건 68점이 추천되었고, 5월~9월에 걸친 지정조사 중 18건 55점의 직권조사가 추가되어 총 60건 123점에 대해 현지조사 하였으며, 제2차 소위원회(‘09.09.30)에서 총 20건 40점의 서예작품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대상으로 추천되었음.
-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숙명신한첩”과 계명대학교 소장 “신한첩 곤”은 현지조사자 3인 및 서예분야소위원회(‘09.09.30)가 지정 대상으로 추천한 문화재

로 본 위원회 제6차 회의결과('09.10.08)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예고('09.11.04.~'09.12.03.)하고,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한첩 - 숙명신한첩(宸翰帖 - 淑明宸翰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신한첩 - 숙명신한첩(宸翰帖 - 淑明宸翰帖)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청주박물관)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393번지
- 수 량 : 1첩
- 규격(세로×가로) : 42.3×26.2cm
- 재 질 : 지본묵서(紙本墨書)
- 형 식 : 첩장(帖裝)
- 제작연대 : 17세기
- 내용 및 특징

효종(孝宗, 1619~1659), 현종(顯宗, 1641~1674), 인조계비 장렬왕후(莊烈王后, 1624~1688),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 1618~1674)가 효종의 셋째딸 숙명공주(淑明公主)에게 보낸 한글어찰을 모은 첩이다. 숙명공주는 청평위(淸平尉) 심익현(沈益顯, 1641~1683)과 혼인하였다. 수록된 어찰은 효종 7통, 현종 2통, 장렬왕후 2통, 인선왕후 54통 모두 65통이다. 현재 제1면은 따로 떼어져 액장(額裝)되어 있으며, 제2면은 분실되었으나 사진은 남아 있어 원래 66통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문화재전문위원 이완우

○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가치 있음)

- 이 어찰첩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의 《신한첩(宸翰帖)》,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의 ‘명안공주관련유물(明安公主關聯遺物)’(보물 제1220호)로서 현종,

명성왕후(明聖王后, 1642~1683), 숙종의 한글어찰을 수록한 《어필첩(御筆帖)》 등과 함께 조선왕실의 한글어찰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특히 이 첩은 표지가 개장되었지만 첩 크기나 수록 어찰에서 계명대 소장품과 짝을 이루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지정가치 있음) (서면조사)

- 수록인물의 시대도 그러하지만 한글서체 변천과정에서 고체에서 궁체로 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17세기 대표적인 필적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관련분야 연구 자료의 기준이 된다.
- 내용상으로도 당시 일반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운 국왕과 공주 왕후의 구중궁궐(九重宮闕) 속 내밀한 일상을 볼 수 있는 사연들을 담고 있어 더욱 중요하다.
- 이 어찰첩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의 《신한첩(宸翰帖)》, 강릉시오죽헌 시립박물관의 ‘명안공주관련유물(明安公主關聯遺物)’(보물 제1220호)로 현종, 명성왕후(明聖王后, 1642-83), 숙종의 한글어찰을 수록한 《어필첩(御筆帖)》 등과 함께 조선왕실의 한글어찰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 (지정가치 있음)

- 숙명공주가 모아 간직한 효종·인선황후·현종 등의 한글글씨를 모아 장정한 첩이다. 당시 왕의 한글 필치와 왕후의 궁체의 필치를 접할 수 있는 한글서에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봉서의 형식과 내용도 아울러 살필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 예술,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2) 신한첩 - 신한첩 곤(宸翰帖 - 宸翰帖 坤)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신한첩 - 신한첩 곤(宸翰帖 - 宸翰帖 坤)
- 소 유 자 : 계명대학교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번지 동산도서관
- 수 량 : 1첩

- 규격(세로×가로) : 42.4×26.4(cm)
- 재 질 : 지본묵서(紙本墨書)
- 형 식 : 첩장(帖裝)
- 제작연대 : 17세기

○ 내용 및 특징

이 첩은 효종(孝宗, 1619~1659), 현종(顯宗, 1641~1674), 숙종(肅宗, 1661~1720),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 1618~1674), 현종비 명성왕후(明聖王后, 1642~1683), 숙종비 인현왕후(仁顯王后, 1667~1701)가 효종의 넷째딸 숙휘공주(淑徽公主)에게 보낸 한글어찰을 모은 것이다. 숙휘공주는 연일정씨 인평위(寅平尉) 정제현(鄭齊賢)과 혼인하였다. 수록 어찰은 효종 2통, 현종 3통, 숙종 6통, 인선왕후 18통, 명성왕후 2통, 인현왕후 5통 모두 36통이다.

- 문화재전문위원 이완우

○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가치 있음)

- 처음의 상황 그대로 남아 있는데, 표지에 “宸翰帖 坤”이란 제서가 쓰여 있듯이 원래 건곤(乾坤) 2첩이었다. 특히 앞쪽에 실린 정제현의 후손 정진석(鄭晉錫, 1779~?)의 1802년 한글 지문(識文)을 통해 제작내력을 알 수 있다. 그중 “건(乾)인 즉 사조(四祖) 어필(御筆)이시오 곤(坤)인 즉 육성(六聖) 언찰(諺札)이시라” 했는데, ‘사조 어필’은 국립청주박물관의 효종·현종·장렬왕후·인선왕후 어찰을 가리키며, ‘육성 언찰’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의 효종·현종·숙종·인선왕후·명성왕후·인현왕후 어찰을 가리킨다. 또 한글 필치가 국립청주박물관의 “○○대왕어셔”나 “○○왕후어셔”라고 쓴 것과 같아 이들 첩이 건곤으로 함께 장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지정가치 있음) (서면조사)

- 수록인물의 시대도 그러하지만 한글서체 변천과정에서 고체에서 궁체로 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17세기 대표적인 필적이 다수 수록되어있어 관련분야

연구 자료의 기준이 된다.

- 특히 궁체가 정형화되는 18,19세기 한글필법이 한자필법과 멀어졌다면 여전히 이 시기에는 한자 한글필법이 그다지 다르지 않음을 이 서첩을 보면 알 수 있다.
- 내용상으로도 당시 일반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운 국왕과 공주의 부녀관계나 왕후의 구중궁궐(九重宮闕) 속 내밀한 일상을 볼 수 있는 사연들을 담고 있어 더욱 중요하다.
- 이 어찰첩은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신한첩(宸翰帖)》,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의 ‘명안공주관련유물(明安公主關聯遺物)’(보물 제1220호)로 현종, 명성왕후(明聖王后, 1642~1683), 숙종의 한글어찰을 수록한 《어필첩(御筆帖)》 등과 함께 조선왕실의 한글어찰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 (지정가치 있음)

- 숙명신한첩과 거의 비슷한 류이다. 효종,인선황후,현종,명성황후,숙종,인연왕후의 다양한 한글서풍과 왕의 필사본 국한혼용의 사례들을 같이 접할 수 있다. 한글 서예와 어찰의 형식 등 그 사료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 한글서예의 변천과 궁체의 성립 등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라. 제2차 소위원회('09.09.30) 회의결과

- 참석자 : 최승희(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 신승운(문화재위원), 서병패(문화재전문위원), 이완우(문화재전문위원)
- 검토결과 :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검토할 가치가 있음.

조사보고서 전문

□

(1) 신한첩(宸翰帖) 1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신한첩(宸翰帖) 1
- 소 유 자 : 국립청주박물관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명암동
- 수 량 : 1첩
- 규 격 : 42.3×26.2cm
- 재 질 : 지본묵서
- 형 식 : 帖裝
- 제작연대 : 17세기
- 현상 및 내용 :

이것은 효종(孝宗, 1619-59), 현종(顯宗, 1641-74), 인조계비 장렬왕후(莊烈王后, 1624-88),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 1618-74)가 효종의 셋째딸 숙명공주(淑明公主)에게 보낸 한글어찰을 모은 첩이다. 숙명공주는 청평위(淸平尉) 심익현(沈益顯, 1641-83)과 혼인하였다. 수록된 어찰은 효종 7통, 현종 2통, 장렬왕후 2통, 인선왕후 54통 모두 65통이다. 현재 제1면은 따로 떼어져 액장(額裝)되어 있으며, 제2면은 분실되었으나 사진은 남아 있어 원래 66통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

이 어찰첩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의 《신한첩(宸翰帖)》,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의 보물 제1220호 명안공주관련유물(明安公主關聯遺物)로 현종, 명성왕후(明聖王后, 1642-83), 숙종의 한글어찰을 수록한 《어필첩(御筆帖)》 등과 함께 조선왕실의 한글어찰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특히 이 첩은 표지가 개장되었지만 첩 크기나 수록 어찰에서 계명대 소장품과 짝을 이루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기 타

* 수록 어찰 목록:

(1) 孝宗, <한글어찰 1>, 32.0×19.2cm- 따로 떼어져 額裝됨.

* 제2면 효종의 한글어찰 탈락, 사진 있음, 32.0×15.8cm

(2) 孝宗, <한글어찰 2>, 32.0×16.5cm

- (3) 효종, <한글어찰 3>, 35.3×15.3cm
- (4) 효종, <한글어찰 4>, 35.3×18.2cm- 여백에 숙명공주 답서가 쓰임.
- (5) 효종, <한글어찰 5>, 24.4×23.3cm
- (6) 효종, <한글어찰 6>, 26.9×11.4cm
- (7) 효종, <한글어찰 7>, 26.9×13.4cm
- (8) 顯宗, <한글어찰 1>, 1661년 윤7월 7일, 29.1×42.5cm
- (9) 현종, <한글어찰 2>, 19.0×31.0cm
- (10) 莊烈王后, <한글어찰 1>, 26.5×11.0cm
- (11) 장렬왕후, <한글어찰 2>, 26.5×13.5cm
- (12) 仁宣王后, <한글어찰 1>, 26.5×14.2cm
- (13) 인선왕후, <한글어찰 2>, 26.5×20.0cm
- (14) 인선왕후, <한글어찰 3>, 26.3×21.8cm
- (15) 인선왕후, <한글어찰 4>, 26.3×15.8cm
- (16) 인선왕후, <한글어찰 5>, 28.3×22.0cm
- (17) 인선왕후, <한글어찰 6>, 28.3×10.5cm
- (18) 인선왕후, <한글어찰 7>, 28.0×16.5cm
- (19) 인선왕후, <한글어찰 8>, 28.0×14.2cm
- (20) 인선왕후, <한글어찰 9>, 28.0×15.3cm
- (21) 인선왕후, <한글어찰 10>, 28.0×18.5cm
- (22) 인선왕후, <한글어찰 11>, 25.8×12.5cm
- (23) 인선왕후, <한글어찰 12>, 25.8×18.8cm
- (24) 인선왕후, <한글어찰 13>, 25.8×11.5cm
- (25) 인선왕후, <한글어찰 14>, 25.8×11.2cm
- (26) 인선왕후, <한글어찰 15>, 26.4×14.0cm
- (27) 인선왕후, <한글어찰 16>, 26.4×15.0cm
- (28) 인선왕후, <한글어찰 17>, 26.4×16.0cm
- (29) 인선왕후, <한글어찰 18>, 26.4×12.0cm
- (30) 인선왕후, <한글어찰 19>, 26.5×11.5cm
- (31) 인선왕후, <한글어찰 20>, 28.8×20.6cm
- (32) 인선왕후, <한글어찰 21>, 29.0×18.0cm

- (33) 인선왕후, <한글어찰 22>, 29.0×14.8cm
- (34) 인선왕후, <한글어찰 23>, 29.3×16.5cm
- (35) 인선왕후, <한글어찰 24>, 31.2×17.0cm
- (36) 인선왕후, <한글어찰 25>, 29.7×12.5cm
- (37) 인선왕후, <한글어찰 26>, 29.7×15.0cm
- (38) 인선왕후, <한글어찰 27>, 30.5×18.5cm
- (39) 인선왕후, <한글어찰 28>, 30.5×15.2cm
- (40) 인선왕후, <한글어찰 29>, 30.5×22.3cm
- (41) 인선왕후, <한글어찰 30>, 30.5×11.8cm
- (42) 인선왕후, <한글어찰 31>, 33.5×19.6cm
- (43) 인선왕후, <한글어찰 32>, 33.5×13.5cm
- (44) 인선왕후, <한글어찰 33>, 31.5×20.8cm
- (45) 인선왕후, <한글어찰 34>, 31.5×13.0cm
- (46) 인선왕후, <한글어찰 35>, 30.5×17.3cm
- (47) 인선왕후, <한글어찰 36>, 30.5×16.3cm
- (48) 인선왕후, <한글어찰 37>, 30.5×15.2cm
- (49) 인선왕후, <한글어찰 38>, 30.5×16.5cm
- (50) 인선왕후, <한글어찰 39>, 29.8×18.5cm
- (51) 인선왕후, <한글어찰 40>, 27.6×21.8cm
- (52) 인선왕후, <한글어찰 41>, 29.3×14.5cm
- (53) 인선왕후, <한글어찰 42>, 29.3×19.3cm
- (54) 인선왕후, <한글어찰 43>, 28.3×11.8cm
- (55) 인선왕후, <한글어찰 44>, 28.3×20.0cm
- (56) 인선왕후, <한글어찰 45>, 26.2×9.6cm
- (57) 인선왕후, <한글어찰 46>, 30.1×16.0cm
- (58) 인선왕후, <한글어찰 47>, 33.1×13.8cm
- (59) 인선왕후, <한글어찰 48>, 33.1×13.5cm
- (60) 인선왕후, <한글어찰 49>, 33.2×17.2cm
- (61) 인선왕후, <한글어찰 50>, 33.2×17.6cm
- (62) 인선왕후, <한글어찰 51>, 32.4×16.8cm

- (63) 인선왕후, <한글어찰 52>, 32.4×14.0cm
- (64) 인선왕후, <한글어찰 53>, 33.0×17.6cm
- (65) 인선왕후, <한글어찰 54>, 34.1(31.0)×7.5cm

(2) 신한첩(宸翰帖) 2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신한첩(宸翰帖) 2
- 소 유 자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
- 수 량 : 1첩
- 규 격 : 42.4×26.4cm
- 재 질 : 지본묵서
- 형 식 : 帖裝
- 제작연대 : 17세기
- 현상 및 내용 :

이 첩은 효종(孝宗, 1619-59), 현종(顯宗, 1641-74), 숙종(肅宗, 1661-1720),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 1618-74), 현종비 명성왕후(明聖王后, 1642-83), 숙종비 인현왕후(仁顯王后, 1667-1701)가 효종의 넷째딸 숙휘공주(淑徽公主)에게 보낸 한글어찰을 모은 것이다. 숙휘공주는 연일정씨 인평위(寅平尉) 정제현(鄭齊賢)과 혼인하였다. 수록 어찰은 효종 2통, 현종 3통, 숙종 6통, 인선왕후 18통, 명성왕후 2통, 인현왕후 5통 모두 36통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

처음의 장황 그대로 남아 있는데, 표지에 “宸翰帖 坤”이란 제서가 쓰여 있듯이 원래 건곤(乾坤) 2첩이었다. 특히 앞쪽에 실린 정제현의 후손 정진석(鄭晉錫, 1779-?)의 1802년 한글 지문(識文)을 통해 제작내력을 알 수 있다. 그중 “건(乾)인 즉 사조(四祖) 어필(御筆)이시오 곤(坤)인 즉 육성(六聖) 언찰(諺札)이시라” 했는데, ‘사조 어필’은 국립청주박물관의 효종·현종·장렬왕후·인선왕후 어찰을 가리키며, ‘육성 언찰’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의 효종·현종·숙종·인선왕후·명성왕후·인현왕후 어찰을 가리킨다. 또 한글 필치가 국립청주박물관의 “○○대왕어셔”나

- (5) 현종, <한글어찰 3>, 25.7×28.8cm
- (6) 肅宗, <한글어찰 1>, 27.5×23.7cm
- (7) 숙종, <한글어찰 2>, 27.5×24.0cm
- (8) 숙종, <한글어찰 3>, 26.5×23.3cm
- (9) 숙종, <한글어찰 4>, 26.5×21.1cm
- (10) 숙종, <한글어찰 5>, 25.5×27.3cm
- (11) 숙종, <한글어찰 6>, 29.5×15.5cm
- (12) 仁宣王后, <한글어찰 1>, 16.6×15.5cm
- (13) 인선왕후, <한글어찰 2>, 16.6×17.1cm
- (14) 인선왕후, <한글어찰 3>, 32.8×16.6cm
- (15) 인선왕후, <한글어찰 4>, 30.5×15.1cm
- (16) 인선왕후, <한글어찰 5>, 32.0×18.5cm
- (17) 인선왕후, <한글어찰 6>, 29.3×22.0cm
- (18) 인선왕후, <한글어찰 7>, 25.5×22.5cm
- (19) 인선왕후, <한글어찰 8>, 29.4×21.6cm
- (20) 인선왕후, <한글어찰 9>, 29.0×20.5cm
- (21) 인선왕후, <한글어찰 10>, 30.0×18.8cm
- (22) 인선왕후, <한글어찰 11>, 28.5×21.0cm
- (23) 인선왕후, <한글어찰 12>, 28.5×19.8cm
- (24) 인선왕후, <한글어찰 13>, 21.4×25.0cm
- (25) 인선왕후, <한글어찰 14>, 27.0×24.1cm
- (26) 인선왕후, <한글어찰 15>, 22.6×14.8cm
- (27) 인선왕후, <한글어찰 16>, 22.6×27.1cm
- (28) 인선왕후, <한글어찰 17>, 26.6×31.5cm 양면
- (29) 인선왕후, <한글어찰 18>, 24.6×33.9cm 양면
- (30) 明聖王后, <한글어찰 1>, 34.6×38.6(37.5)cm
- (31) 명성왕후, <한글어찰 2>, 32.3×18.2cm
- (32) 仁顯王后, <한글어찰 18>, 32.6×12.8cm
- (33) 인현왕후, <한글어찰 18>, 32.6×4.5cm **
- (34) 인현왕후, <한글어찰 18>, 31.2×28.4 cm

(35) 인현왕후, <한글어찰 18>, 29.5×15.9cm

(36) 인현왕후, <한글어찰 18>, 29.5×13.7cm

□

(1) 신한첩(宸翰帖) 1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신한첩(宸翰帖) 1

○ 소유자 : 국립청주박물관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명암동

○ 수 량 : 1첩

○ 규 격 : 42.3×26.2cm

○ 재 질 : 지본묵서

○ 형 식 : 帖裝

○ 제작연대 : 17세기

○ 현상 및 내용 :

- 이첩의 유래는 본래 개인 소장품이었으나 최근 현재 소장처로 이전되었다.

- 작품은 효종(孝宗, 1619-59), 현종(顯宗, 1641-74), 인조계비 장렬왕후(莊烈王后, 1624-88),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 1618-74)가 효종의 셋째딸 숙명공주(淑明公主)에게 보낸 한글어찰을 일괄로 모은 첩으로 계명대 신한첩(宸翰帖)과 쌍으로 보인다.

- 숙명공주는 청평위(淸平尉) 심익현(沈益顯, 1641-83)과 혼인하였는데, 수록어찰은 효종 7통, 현종 2통, 장렬왕후 2통, 인선왕후 54통 모두 65통이다. 현재 1면은 떼어져 액자로 되어 있으며, 2면은 사진만 남아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

- 수록인물의 시대도 그러하지만 한글서체 변천과정에서 고체에서 궁체로 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17세기 대표적인 필적이 다수 수록되어있어 관련분야 연구 자료의 기준이 된다.

- 내용상으로도 당시 일반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운 국왕과 공주 왕후의 구중궁궐

(九重宮闕) 속 내밀한 일상을 볼 수 있는 사연들을 담고 있어 더욱 중요하다.

- 이 어찰첩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의 《신한첩(宸翰帖)》,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의 보물 제1220호 명안공주관련유물(明安公主關聯遺物)로 현종, 명성왕후(明聖王后, 1642-83), 숙종의 한글어찰을 수록한 《어필첩(御筆帖)》 등과 함께 조선왕실의 한글어찰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 기 타

- * 수록 어찰 목록: (1) 孝宗, <한글어찰 1 - 7 >
- (2) 顯宗, <한글어찰 1 -2 >
- (3) 莊烈王后, <한글어찰 1 - 2>
- (4) 仁宣王后, <한글어찰 1 - 52>

(2) 신한첩(宸翰帖) 2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신한첩(宸翰帖) 2
- 소유자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
- 수 량 : 1첩
- 규 격 : 42.4×26.4cm
- 재 질 : 지본묵서
- 형 식 : 帖裝
- 제작연대 : 17세기
- 현상 및 내용 :

- 이 첩은 앞에서 본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신한첩(宸翰帖)》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효종(孝宗, 1619-59), 현종(顯宗, 1641-74), 숙종(肅宗, 1661-1720),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 1618-74), 현종비 명성왕후(明聖王后, 1642-83), 숙종비 인현왕후(仁顯王后, 1667-1701)가 효종의 넷째딸 숙휘공주(淑徽公主)에게 보낸 한글어찰을 모은 것이다.

- 숙휘공주는 연일정씨 인평위(寅平尉) 정제현(鄭齊賢)과 혼인하였는데, 효종 2

통, 현종 3통, 숙종 6통, 인선왕후 18통, 명성왕후 2통, 인현왕후 5통 모두 36통이 수록되어 있다.

- 본래 표구 표지에 “宸翰帖 坤”이란 제서가 쓰여 있듯이 원래 건곤(乾坤) 2첩이었는데, 그중 “건(乾)인 즉 사조(四祖) 어필(御筆)이시오 곤(坤)인 즉 육성(六聖) 언찰(諺札)이시라” 한 바와 같이 ‘사조 어필’은 국립청주박물관의 효종·현종·장렬왕후·인선왕후 어찰을 가리키며, ‘육성 언찰’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의 효종·현종·숙종·인선왕후·명성왕후·인현왕후 어찰을 가리킨다.

○ 문화재 지정 가치

- 수록인물의 시대도 그러하지만 한글서체 변천과정에서 고체에서 궁체로 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17세기 대표적인 필적이 다수 수록되어있어 관련분야 연구 자료의 기준이 된다.

- 특히 궁체가 정형화되는 18,19세기 한글필법이 한자필법과 멀어졌다면 여전히 시기에는 한자 한글필법이 그다지 다르지 않음을 이 서첩을 보면 알 수 있다.

- 내용상으로도 당시 일반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운 국왕과 공주의 부녀관계나 왕후의 구중궁궐(九重宮闕) 속 내밀한 일상을 볼 수 있는 사연들을 담고 있어 더욱 중요하다.

- 이 어찰첩은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신한첩(宸翰帖)》,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의 보물 제1220호 명안공주관련유물(明安公主關聯遺物)로 현종, 명성왕후(明聖王后, 1642-83), 숙종의 한글어찰을 수록한 《어필첩(御筆帖)》 등과 함께 조선왕실의 한글어찰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 기 타 : 수록어찰 목록

鄭晉錫, <한글識文>

(1) 孝宗, <한글어찰 1 -2 > 顯宗, <한글어찰 1 -3 >

肅宗, <한글어찰 1 - 6 > 仁宣王后, <한글어찰 1 - 24 >

□

- 숙명신한첩은 숙명공주가 모아 간직한 효종·인선왕후·현종 등의 한글글씨를 모아 장정한 첩이다. 당시 왕의 한글 필치와 왕후의 궁체의 필치를 접할

수 있는 한글서예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봉서의 형식과 내용도 아울러 살필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 예술,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 숙명첩 곤은 숙명신한첩과 거의 비슷한 류이다. 효종,인선황후,현종,명성황후, 숙종,인연왕후의 다양한 한글서풍과 왕의 필사본 국한혼용의 사례들로 같이 접할 수 있다. 한글 서예와 어찰의 형식등 그 사료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 한글서예의 변천과 궁체의 성립 등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마. 심의결과 : 국가문화재(보물) 지정

<붙임2>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이의 제기 내용

명칭변경 예고 관련 접수 의견

□ 신한첩 - 신한첩 1(보물 제1629-1호), 신한첩 - 신한첩 2(보물 제제 1629-2호)

○ 의견제시자 : 최경훈(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문헌실,)

○ 문화재청 명칭 변경예고

- 신한첩 - 신한첩 1 → 신한첩 - 신한첩 건

- 신한첩 - 신한첩 2 → 신한첩 - 신한첩 곧

○ 변경 요청 의견

- 신한첩 - 신한첩 1 → 신한첩 - 속명신한첩

- 신한첩 - 신한첩 2 → 신한첩 - 신한첩 곧

○ 변경 요청 사유

- 두 첩은 확연히 다른 자료이므로 두 첩을 연결된 한 세트의 완질로 파악한 것은 오류임. 따라서 지정 번호가 연결되어 부여되어서는 안되며, 지정 명칭 역시 두 첩이 가진 고유한 형태·내용·계목에 맞게 각기 재변경 되어야 함.

<의견 전문>

보물 1629호 <신한첩>의 지정 번호 및 명칭 관련 의견서

<신한첩>의 기존 명칭이 보물1629-1호는 '신한첩 - 신한첩 1', 보물1629-2호는 '신한첩 - 신한첩 2'로 되어 있고, 변경 명칭은 '1, 2'를 '건, 곧'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 전후의 두 명칭 모두 두 첩을 합쳐 한 세트의 완질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그 결과 두 자료는 확연히 다른 자료임에도 동일한 지정 번호를 부여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수신자와 소장처가 서로 다른 두 자료를 왕실의 편지를 모았다는 점에 착

안하여 일반 명사인 <신한첩>의 하위 항목 성격으로 <신한첩 - 신한첩 권>, <신한첩 - 신한첩 권>과 같이 부여하였으나 이는 적절하지 못하며 다른 자료로 각기 다른 지정번호를 부여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두 첩에 수록된 편지를 받은 사람[집안]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乾坤 두 첩으로 작첩될 수 있었겠습니까?

숙명 공주는 靑松人 沈益顯(1641-1683; 靑平尉)과 혼인을 하였고, 숙휘 공주는 迎日人 鄭齊賢(1642-1662; 寅平尉)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본디 궁중의 필적이 민가에 보관되는 것은 금기시되었고, 민가에 보관될 때는 내용을 필사하고 원본은 세초하여 궁중에 반납하였는데(윤경수; pp.163-164), 이를 여기면서 두 집안에서 상의하여 한 집안에 모아서 하나는 권, 하나는 권으로 하여 함께 작첩했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숙명 공주는 숙휘 공주보다 순위로 실령 두 집안의 편지를 모아 작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숙명공주의 시대인 심씨 집안에서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계명대 소장본 <宸翰帖 坤>에 수록된 정진석의 한글 서문(1802) 가운데 “이 두 첩이 건인즉 조 어필이시오 곤인즉 녹성 언찰이시라…”와 “숙묘 어제 읍신 시늬와 영고 친찬 읍신 발문…”이란 기록을 통하여, 乾은 현재 전하지 않아 실체는 알 수 없지만 효종, 현종, 숙종, 영조의 御筆(숙종의 시, 영조의 발문 등)로 추정되고, 坤은 계명대 동산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어 효종, 현종, 숙종, 인선왕후, 명성왕후, 인현왕후의 한글 편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진석의 서문에는 숙명공주가 왕실로부터 받은 언찰을 받아서 함께 작첩한다는 등 숙명공주 관련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계명대 소장본과 국립청주박물관 소장본의 외형적인 형태를 비교해 보아도 확연히 구분되어 함께 작첩되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휘공주가 왕실로부터 받은 글씨첩인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의 <宸翰帖 坤>은 숙명공주가 받은 편지첩인 국립청주박물관 소장본과는 별개의 자료임을 확연히 알 수 있으며, 지정 번호 또한 동일 자료에 부여하는 ‘지정번호-1.2’ 혹은 ‘지정번호-乾·坤’ 등으로 부여할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지정 번호를 부여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러한 사례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개국공신녹권이 녹권을 받은 인물별로 각기 지정되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동일 불경임에도 권차나 제작 방식(인출, 목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정 번호를 달리 부여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둘째, 전적 문화재의 명칭은 해당 문화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서명을 채택하므로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본은 표지 서명인 <宸翰帖 坤>을 따라 변경 예고

된 명칭 그대로 합이 적절하며, 국립청주박물관 소장본은 표지 서명인 <淑明宸翰帖>을 따라 <淑明宸翰帖>으로 다시 정하는 것이 향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두 문화재에 대한 개별 지정번호 부여와 명칭 재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21일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문헌실 *김미은*

참고문헌

尹敬洙, “淑徽宸翰帖의 研究 - 價値와 書式을 中心하여.” 外大語文論集 3(1987), pp.157-184.

김일근, “宮中間巷間 往復文書의 禁忌(Taboo)攷.” 국어국문학 53(1982), p.53.

김일근, 『이조어필언간집』(서울: 경인문화사, 1972)

별첨: 계명대 소장 <신한첩 곤>과 국립청주박물관 <淑明宸翰帖> 표지 사진



계명대 소장 <신한첩 곤>과 국립청주박물관 <淑明宸翰帖> 표지 사진

<붙임3> 이종덕 기고문

(“문장렬왕후의 한글 편지” 『말과 글』 148호, 한국어문기자협회, 2016 가을)

말글연구

장렬왕후의 한글 편지

[이종덕]
조선시대 한글 편지 연구가
재가법단 톰비니 사무총장



‘조대비(趙大妃)’로 일컬어지는 조선의 왕후가 두 명 있다. 한 명은 인조(仁祖)의 계비 장렬왕후(莊烈王后)요, 다른 한 명은 추존왕인 익종(翼宗)의 비 신정왕후(神貞王后)이다. 이번에는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 양주 조씨(楊州趙氏, 1624~1688)의 한글 편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장렬왕후는 열다섯 살 때인 1638년에 왕비로 책봉되었는데, 1649년 인조가 죽자 대비가 되고, 1659년 효종(孝宗, 1619~1659)이 죽자 대왕대비가 되었다. 그런데 효종이 죽었을 때 복상(服喪) 문제가 정치 문제화되어 이른바 예송(禮訟)이 벌어졌다. 서인(西人)의 기년설(基年說, 1년 복)에 대하여 남인(南人)이 삼년설(三年說)을 들고 나왔으나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1674년 효종 비 인선왕후(仁宣王后, 1618~1674)가 죽자 서인은 대공설(大功說, 9개월 복), 남인은 기년설을 주장하여 예송이 재현되었다. 이번에는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

다. 이렇게 장렬왕후는 의붓아들과 며느리의 상을 당했을 때에 정쟁의 빌미가 되었던 것이다. 장렬왕후는 그 후에 손자인 현종(1641~1674)과 손자며느리인 명성왕후(明聖王后, 1642~1683)마저 먼저 보냈다. 하지만 차남으로 왕위를 계승한 효종과 달리 현종은 장남이었으므로 더 이상 예송이 재현되지는 않았다.

열다섯 어린 나이에 서른 살이나 더 나 많은 인조의 비가 되어 11년을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장렬왕후는 아들 효종이나 며느리 인선왕후보다 나이가 어리고 소생도 없다. 그런 터인지라 손주들, 즉 효종의 아들딸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사랑했던 듯하다. 그 증거라도 되는 듯이 효종의 둘째 딸인 숙명공주(淑明公主, 1640~1699)와 셋째 딸인 숙휘공주(淑徽公主, 1642~1696)에게 보낸 한글 편지가 각각 2편씩, 총 4편이 남아 있다.

먼저 숙명공주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자.

글썽 보고 무스(無事)히 이시니 깃거하며 어제 상궁(尙宮)들 다녀오나를 기별(奇別) 듯고 친(親)히 본 듯 든¹⁾ 흥기(興氣) 아므라타²⁾ 업스며 어제는 날이 호릴가 녀네(念慮) 1) 2)이업더니 날도 요코 무스(無事)히 디내니 다행(多幸) 깃브기 아므라타 업스나 두긋거온³⁾ 상(相)도 보디 못호는 줄을 애들며 네일을 싱각호니 더욱 가지 3) 굿버³⁾ 디내엿네

<현대어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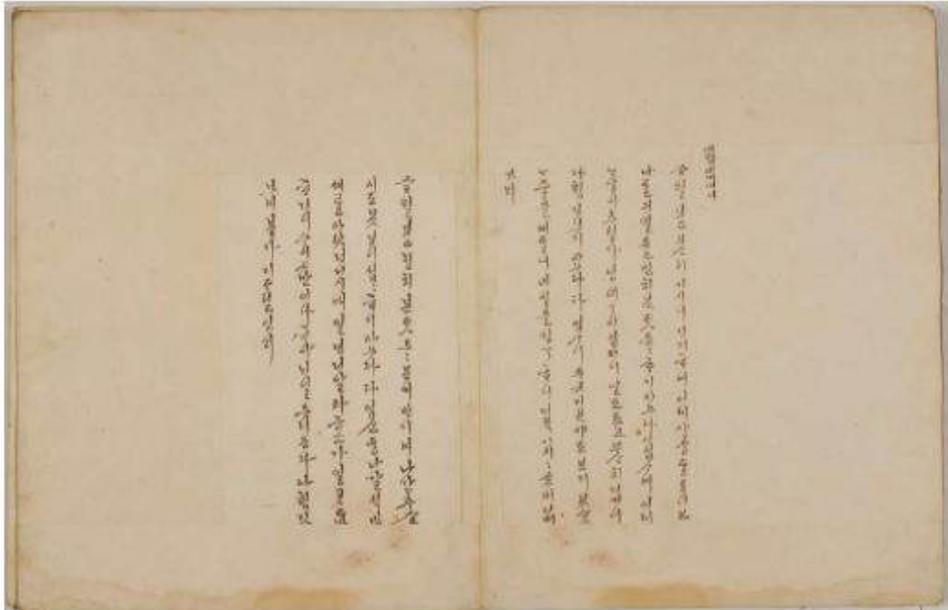
편지 보고 무사히 있으니 기뻐하며 어제 상궁들 다녀오거늘 기별 듣고 친히 본 듯 든든하기가 무어라 이를 말이 없으며 어제는 날이 호릴까 염려가 그지 없었는데 날도 좋고 무사히 지내니 다행하고 기쁘기 무어라고 이를 말이 없으

1) 아므라타 : 아무러하다.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서, '아므라타'는 '없다'와 통합하여 '무어라 이를 말이 없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관용 표현이다.

2) 두긋거온 : 매우 기쁘. '두긋겁다' 또는 '두긋겁다'는 '매우 기쁘다'를 뜻하는 옛말.

3) 굿버 : 마음이 짝하여, '굿버다'는 '연짚고 나쁘다'를 뜻하는 '굿-'에 접미사 '-버-'가 결합된 것이다.

나 매우 기쁜 모양도 보지 못하는 줄을 애달파하며 옛일을 생각하니 더욱
가지가지로 마음이 짝하여 지내었네.



▲ 숙명신한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 편지는 「숙명신한첩」에 실려 있다. 그 원본을 살펴보면, 대체로 마주보기 2쪽에 각각 한 편씩 붙이거나, 좀 긴 편지는 한 편을 2쪽에 걸쳐 붙여 놓았는데, 마주보기 2쪽 중 오른쪽에서 사연을 적은 속지의 바로 오른쪽 윗부분에 매년 “효종대왕어셔”, “현종대왕어셔”, “대왕대비어셔”, “인선왕후어셔”라고 적어 편지의 발신자를 밝혀 놓았다. 그중에서 “대왕대비어셔”는 시호인 ‘효종’, ‘현종’, ‘인선왕후’ 등과 달리 발신자를 ‘대왕대비’라고 지칭하였는데, 이는 이 신한첩을 성첩할 때 바로 그 대왕대비가 생존해 있음을 나타낸다. 숙명공주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대왕대비’는 장렬왕후밖에 없다. 여기서 이 「숙명신한첩」이 성첩된 것은 숙종 때, 그것도 장렬왕후가

대왕대비로 생존해 있을 때임을 알 수 있다. 이 신한첩의 마지막 부분에는 현종의 비 명성왕후(明聖王后)의 편지 한 편이 실려 있는데, 안타깝게도 몹시 훼손된 채 “인선왕후어서”라고 쓴 편지의 왼쪽에 붙어 있다. 아마도 명성왕후의 편지 오른쪽에 해당하는 종이가 완전히 낙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명성왕후의 편지에 대한 편명이 있었다면, 시호가 아니면 ‘왕대비’로 적혀 있었을 것이므로 이 신한첩의 성첩 시기를 좀 더 좁혀 추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편지 사연은 특별해 보이는 것이 없다. 상궁들이 다녀왔다는 말로 미루어, 대비전의 상궁을 숙명공주의 집에 보냈던 듯하다. 아마도 숙명공주의 집안에 어떤 큰일이 있었던 듯한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날씨를 걱정했던 것으로 미루어 그 일은 집 밖에서 치러지는 것인 듯하다. 옛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잔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큰일과 관련하여 무언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 편지의 왼쪽에 붙어 있는 편지도 마저 살펴보자.

글썩 보고 친(親)히 본 듯 든* 문내 반기며 나간 후(後) 글씨도 못 보니
 섭* 흐기 아프라 업손 둥(中) 나갈 적 병세(病勢)를 아랴던 거시매 일명(一
 定) 더 알파흐는가 일코고 념(念)흐더니(4) 쉬이 그만이나 흐야 너일(來日) 드
 러온다 다행(多幸) 깃브며 불가 기다리고 있네

<현대어 역>

편지 보고 친히 본 듯 든든하고 문내 반기며 나간 후 글씨도 못 보니 섭섭하
 기 무어라 이를 말이 없는 중 날 갈 적 병세를 알았던 것이매 분명히 더 아파하
 는가 일코고 염려했는데, 쉬이 그만이나 하여 내일 들어온다 (하니) 다행하
 고 기쁘며 불가 기다리고 있네.

4) 념(念)흐더니: 염려하더니. ‘념(念)하다’는 단순히 ‘생각하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다’를 뜻한다.

이 편지에서는 숙명공주가 병세가 더 심해졌을까 염려하다가 편지를 받고 적이 편찮아져서 편지를 받은 다음날 궁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알고 다행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손녀가 출가한 후에 궁에 들어와 만나보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이미 출가하기 전부터 조손간의 정이 두터웠음을 알려 준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할머니인 장렬왕후가 손녀인 숙명공주에게 ‘하랴’를 쓰지 않고 ‘하계’를 쓴다는 점이다. 혼인을 하여 성인이 되었으니 대접하여 ‘하계’를 쓸 수도 있겠으나, 숙명공주의 어머니인 인선왕후가 보낸 편지들에서 모두 ‘하랴’를 쓰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의붓아들이 낳은 손녀들일지라도 엄연히 손녀가 아니던가.

장렬왕후가 숙명공주의 동생인 숙휘공주에게 보낸 편지는 어떤가?

글월 보고 야간(夜間) 묘히 이시니
 깃브며 날포 드러와 든*이 지내다가
 훔쩍 나가니 섭* 하*기 아프리타 업서
 오던 때를 칭각고 더욱 섭* 하니 슈
 라나 먹어도 마시 업술가 일컬리며
 쏘 수이 불 일만 기다리고 있네

<현대어 역>

편지 보고 밤사이에 잘 있으니 기뻐
 며 날포 들어와 든든히 지내다가 훔쩍 나가니 섭섭하기 무어라 이를 말이 없어
 오던 때를 생각하고 더욱 섭섭하니 수라나 먹어도 맛이 없을까 일컬으며 또 쉬
 이 불 일만 기다리고 있네.



▲ 숙휘신한첩(계명대 동산도서관)

사연의 내용은 숙명공주에게 보낸 편지와 별 차이가 없다. 숙휘공주가 궁에 들어와 함께 지내니 든든했다고 하며, 궁에서 나가니 섭섭하고 얼른 다시 보기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또 다른 편지를 마저 살펴보자.

글썩 보고 친히 본 듯 든든
문내 깃브며 더위병이 낫는가 시브니 위연(嗚然)
민망(憫惘) 고로오라 내 디내여시니 더욱 보는 듯 낮디 못흐되 나는 이제는 복
동(腹中) 거복던 것도 다 흐리고 먹기도 상시(常侍)나 다르디 아녀 디내네

<현대어 역>

편지 보고 친히 본 듯 든든하고 못내 기쁘며 더위병이 낫는가 싶으니 얼마나 피로우랴. 내가 (더위병을) 겪었으니 더욱 보는 듯 잊지 못할 것이로세. 나는 이제는 뱃속이 거복하던 것도 다 낫고 먹기도 평소나 다르지 않게 지내네.

더위병을 앓고 있는 숙휘공주의 소식을 알고 자신도 겪어 보아서 그 힘든 경상을 보는 듯하다고 하며,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있다. 역시 특별한 사연은 없으나 시시콜콜한 사정을 적어 보내는 것이 여간한 정이 아닌 듯하다. 그런데 숙휘공주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상대높임법은 숙명공주와 똑같이 ‘흐계’를 쓰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숙명공주와 숙휘공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두 ‘흐계’를 쓰고 있다는 것은 어찌면 편지를 쓴 시기와 관련될 듯하다. 인선왕후가 숙명공주나 숙휘공주에게 보낸 편지들은 대부분 두 공주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에 보낸 것들이다. 그러니 딸들이 비록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흐려’를 쓸 만큼 어리게 여겨졌을 법하다. 그런데 할머니가 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흐계’를 했다면, 이는 수신자인 숙명공주나 숙휘공주가 꽤 나이가 들었을 때 보낸 것일 가능성이 높다. 숙명공주나 숙휘공주

의 아들들이 혼인한 뒤라면 아마도 수신자가 손녀라고 하더라도 ‘후라’가 아니라 ‘후계’를 썼을 직하다.

끝으로 이 편지들이 실려 있는 신한첩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인다. 신한첩(宸翰帖)이란 ‘신한(宸翰)을 묶어 놓은 책’인데, 국어사전에서는 ‘신한’을 ‘임금이 몸소 쓴 문서나 편지’라고 풀이하여 놓았다. 그런데 실제로 ‘신한’은 ‘임금’만이 아니라 임금에 준하는 왕비나 대비의 편지도 포함한다. ‘임금이 손수 쓴 글씨’를 뜻하는 ‘어필(御筆)’ 또는 ‘어서(御書)’ 또한 임금만이 아니라 왕비나 대비의 글씨를 가리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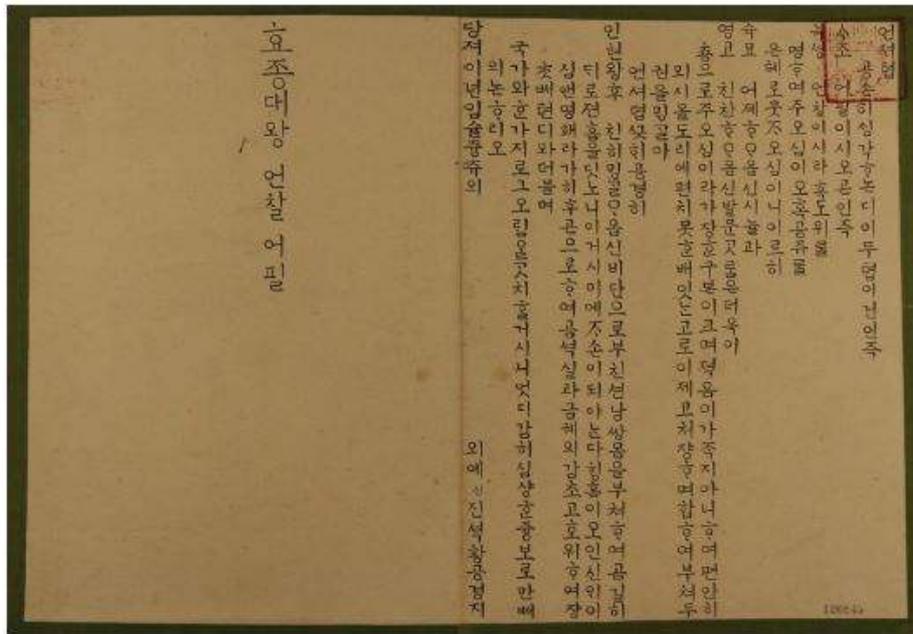
고 김일근 교수가 『연간의 연구』에서 ‘숙휘신한첩(淑徽宸翰帖)’이라고 명명한 것은 실제로는 ‘宸翰帖(신한첩) 冊(冊)’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표지가 떨어져 나가기는 하였지만, 이 ‘신한첩 冊’과 발신자가 거의 겹치는 편지첩이 숙명공주의 집안에 전하는 것이 있어서, 고 김일근 교수가 수신자를 기준으로 ‘신한첩 冊’을 ‘숙휘신한첩’, 숙명공주 집안에 전해온 것을 ‘숙명신한첩’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신한’의 뜻으로 보면 ‘효종 신한첩’, ‘인선왕후 신한첩’과 같이 명명하여야 마땅하겠지만, 실제의 신한첩에 발신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발신자가 아닌 수신자의 이름을 넣어 명명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숙명공주 수신 신한첩’, ‘숙휘공주 수신 신한첩’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간결하게 줄여 ‘숙명신한첩’, ‘숙휘신한첩’이라고 한 것이다.

『숙휘신한첩』의 본디 이름이 ‘宸翰帖 冊’이니 ‘건곤(乾坤, 곧 天地)’의 이치로 보아 이와 짝이 되는 ‘宸翰帖 冊’이 있게 마련이다. ‘宸翰帖 冊’은 성첩자가 서문에 서 달리 ‘언서첩’이라고 지칭하였다. 언서(諺書), 즉 한글로 쓰인 것을 ‘곤(坤)’이라고 하였으니, ‘건(乾)’은 진서(眞書), 즉 한문으로 쓰인 것일 터이다. ‘宸翰帖 冊’은 고 김일근 교수가 1955년에 대구에서 구득하여 『이조어필연간집』을 간행하여 전모를 밝혔는데, 현재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 뒤 1982년



▲ 신한첩권,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에 ‘宸翰帖 乾’이 출현하여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宸翰帖 乾’의 서문 첫머리는 “恭惟茲貳帖 乾則四祖御筆 坤則六聖謄札(공손히 생각하건대 건은 곧 4조의 어필이요, 곤은 곧 6성의 언찰이다)”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언서첩’의 서문에서 “공손히 생각하느니 이 두 텃이 건인즉 스조 어필이시오 곤인즉 녹성 언찰이시라”라고 한 구절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숙취공주의 남편인 청평위(淸平尉) 정제현(鄭齊賢)의 5대손인 정진석(鄭晉錫)이 순조 2년(1802) 8월에 작성한 ‘宸翰帖 乾’과 ‘宸翰帖 坤’의 성첩 서문은 하나는 한문으로 적혀 있고 하나는 한글로 적혀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 ‘신한첩’이 2첩으로 되어 있는데, ‘건첩’은 4조, 곧 네 분 임금님의 한문 필적이시고, ‘곤첩’은 6성, 곧 여섯 분의 임금이나 왕비의 한글 편지라는 것이다.



▲ 숙취신한첩 중 '유조대왕 언찰 어필'(계정대 동산도서관)

「숙명신한첩」은 1962년에 발견되어 한동안 고 김일근 교수가 소장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신한첩은 표지가 떨어져 나가고 맨 뒷부분도 훼손되어서 몇 장이 떨어져 나갔는지 알 수 없으나 현재의 상태로 미루어 최소한 1장은 떨어져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宸翰帖 冊’을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했던 고 김일근 교수는 이 신한첩을 구득한 뒤, 스스로 직접 표지를 만들고 ‘淑明宸翰帖’이라는 표제를 써 붙였다(이는 필자가 여러 해 동안 김 교수님을 댁으로 찾아가 보면서 공부할 때에 당신께 직접 들은 것이다). 그리고 이 「숙명신한첩」과 구별하기 위하여 ‘宸翰帖 冊’을 「숙휘신한첩」이라 재명명한 것이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2010년 1월 4일에 「숙명신한첩」과 「숙휘신한첩」을 하나로 묶어 보물 제1629호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보물의 명칭을, 「숙명신한첩」은 ‘신한첩-신한첩 권’(보물 제1629-1호)으로, 「숙휘신한첩」은 ‘신한첩-신한첩 권’(보물 제1629-2호)으로 정하였다. 딱하게도 보물 제1629-1호의 명칭과 해설에 오류가 있다. 숙휘공주 집안을 통해 전래된 ‘신한첩’은 성책 서문에서 밝힌 대로 한문으로 된 ‘권’과 언문으로 된 ‘권’으로 이루어졌고, 「숙명신한첩」은 숙종 때, 「숙휘신한첩」은 순조 때에 그것도 각각 다른 집안에서 성첩되었는데, 어찌 이 둘이 ‘권-권’의 짝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런데 문화재청 보물 명칭에서는 「숙명신한첩」과 「숙휘신한첩」을 짝지어 ‘신한첩 권’과 ‘신한첩 권’으로 이름을 정했으니 이는 분명한 오해의 소치이다. ‘宸翰帖 冊’이 「숙명신한첩」이 아니고 숙휘공주 집안에서 수신한 「宸翰帖 冊」이 따로 있음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신한첩’ 항목에도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숙명신한첩」에 실린 편지의 발신자들은 효종, 현종, 장렬왕후, 인선왕후, 명성왕후 등 다섯인데, 이는 성책 서문에서 ‘스조 어필’이라고 한 것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숙휘신한첩」의 성첩 서문에서는 ‘宸翰帖 冊’, 곧 ‘언서첩’에 ‘육성(六聖)’의 언찰(한글 편지)이 실려 있다고 하였다. 「숙휘신한첩」은 각 발신자의 편지들 맨 앞에 따로 속표지를 삽입하여 각각 ‘효종대왕 언찰 어필’, ‘현종대왕 언찰 어필’, ‘숙종대왕 언찰 어필’, ‘인선왕후 언찰 어필’, ‘명성왕후 언찰 어필’, ‘인현왕후 언찰 어필’이라고 소제목을 적어 놓았다. 그러므로 서문에서 말한 ‘6성’은 효종, 현종,

숙종, 인선왕후, 명성왕후, 인현왕후를 가리킨다. 그런데 실제 편지를 살펴보면 인선왕후의 편지에 포함된 것 중 맨 처음 2편이 장렬왕후의 것이다. 『숙휘신한첩』의 성첩자가 필체와 문장 종결 방식을 정밀하게 살피지 않아서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인선왕후의 편지로 잘못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장렬왕후가 대왕대비로 생존해 있던 때에 성첩된 『숙명신한첩』에서는 올바르게 파악하여 장렬왕후의 편지를 인선왕후의 것과 구분하여 “대왕대비어서”로 분류하여 놓았기 때문에, 『숙휘신한첩』 중에서 이것과 동일한 필체로 쓰인 맨 처음 2편의 편지가 장렬왕후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물 제1629-2’의 해제에서는 성첩 서문에서 ‘6성’이라고 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7성’임을 밝히는 것이 좋다.⁵⁾

5) 누군가는 이 글의 이 내용이 왜 언급할 수 있었으나, 나라에서 지정한 보물에 대한 것이어서 글이 적었다. 2014년 6월에 필자가 민원 신청의 형태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까지도 민원 처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고 현재의 민원 열람에는 필자의 민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의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문화재 ‘신한첩’을 검색하면 여전히 『숙명신한첩』의 명칭이 ‘신한첩-건’이라고 올라 있기 때문이다.

Ⅲ.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정보 정정

안건번호 동산 2017-04-016

16. 보물 제160호 유성룡 종가 문적 및 보물 제876호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載寧李氏 寧海派 宗家 古文書) 지정정보 변경

가. 검토사항

보물 제160호 유성룡 종가 문적 및 보물 제876호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의 지정정보 변경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4~15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지정정보 변경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보물 제160호 '유성룡 종가 문적' 및 보물 제876호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17.7.13.)를 실시함.
- 위 사안에 본 위원회에서 지정정보 변경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면 변경 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정기조사 결과

- 보물 제160호 유성룡종가문적
 - 기지정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 5점(갑진, 병오, 갑오, 병신, 정유) 외에 추가 1점(정미년, 8장) 확인
- 보물 제876호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 지정수량 불일치 : 12종 중 다음 사항 확인 필요

구분(목록번호)	지정수량	정기조사 확인 내용
1호 명문	173	- 876-1호 명문 5-1. 1점 추가 - 876-1호 명문 146. 낱장 7매 6점 추가 - 위 명문 146-②와 169 중복, 164와 167중복 - 876-2-(4), (14), (24) 각각 문서 1장씩 추가
2호 분재기	53	56

라. 조사자검토의견

□

1) 보물 제160호 유성룡 종가 문적(1963. 1. 21)

구분	현재	실사결과	비고
10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 갑진, 병오, 갑오, 병신, 정유 등 5책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 갑진, 병오, 갑오, 병신, 정유, 정미 등 6책	○ 정미 1책 추가

○ 『유성룡 종가 문적』의 수정 및 보완 사항

- 현재 22점에서 대통력 1점(정미)이 추가되었으므로 23점으로 수정필요

2) 보물 제876호 채령이씨 영해과 종가 고문서(1986. 10. 15)

□ 보물 제876-1호: 명문(明文)

번호	현재	실사결과	비고
1	가정십일년이월초이일동서충위의(義衛)이순응전명문	가정십일년이월초이일동서충의위(義衛)이순응전명문	○ 한글음 수정
5-1	결락	嘉靖參拾捌年己未貳月拾伍日僉知李璵前明文	○ 문서 추가
23	萬曆二十一年二月巳二月二十六日寧海居生員李涵前明文	萬曆二十一年二月癸巳二月二十六日寧海居生員李涵前明文	○ “癸”추가
35	萬曆貳拾肆年丙申八月...生員宅前明文	萬曆貳拾肆年丙申八月...[李]生員宅前明文	○ “[李]”추가
40	萬曆貳拾柒年己亥正月初貳日李時淸前明... (37.0cm×30.0cm)	萬曆貳拾柒年己亥正月初貳日李時淸前明... (21.4~37.1cm×30.0cm)	○ 문서 크기 수정
44	만력삼십이년갑진오월초십(拾)일유학이시청전명문 萬曆三十貳年甲辰伍月初拾日幼學李時淸前明文	만력삼십이년갑진오월초십(拾)[일유학]이시청전명문 萬曆三十貳年甲辰伍月初拾[日幼學]李時淸前明文	○ 한글음 수정 ○ 추정문자표시
52	萬曆肆拾捌年庚申七月初乙日李宜寧宅戶尹金處明文	萬曆肆拾捌年庚申七月初七日李宜寧宅戶尹金處明文	○ “乙”을 “七”로 수정
56	崇禎玖年筆丙子九月二十六日兄主前明	崇禎玖年丙子九月二十六日兄主前明文	○ “筆”삭제

	文		
81-1	결락	乾隆三十六年辛卯十一月初四日張泰雲前明文	○ 문서 추가
87	88.乾隆四十四年戊戌[乾隆四十三年]三月三[三]右明文	87.乾隆四十四[三]年戊戌三月三[三]右明文	○ 번호수정(88→87) ○ 연호의 실제 연도를 간략하게 보완
88	87.乾隆四十八年癸卯十二月二十四日同姓七寸侄南三伊處明文	88.乾隆四十八年癸卯十二月二十四日同姓七寸侄南三伊處明文	○ 번호수정(87→88)
105	道光十五年丙申[道光十六年]正月十六日戶興石前明文	道光十五[六]年丙申正月十六日戶興石前明文	○ 연호의 실제 연도를 간략하게 보완
141	光緒十二年戊戌十一月二十日奴順[三]	光緒十二年丙戌十一月二十[日]奴順[三]	○ 干支 등 수정
143	光緒十四年戊子十一[三]金呂史更爲[三]광서십사년무자십일[三]금려사경위[三]	光緒十四年戊子十一[三]金召史更爲[三]광서십사년무자십일[三]김소사경위[三]	○ “뎡”를 “김”로 수정 ○ 한글수정
146	光緒十八年壬辰九月十五日婢順伊前明文	146-1 光緒十八年壬辰九月十五日婢順伊前明文 146-2 標記 146-3 仁上李生員忠孝堂三月十一日~ 146-4 己丑二月日 忠孝堂 146-5 忠孝堂 李生員 146-6 丁亥十月十三日 仁良忠孝堂~ 146-7 仁良忠孝堂宅	○ 모두 7장의 문서이므로 분리
163	奴命先-戊戌[七月]初四日	奴命先-戊戌[月]初四日	○ 추정문자표시변경
167	右文爲後考事[三]	삭제	○ 164의 중복
169	俵記	삭제 (169 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목이 동일한 146-2의 중복으로 판단됨)	○ 146-2의 중복

□ 보물 제876-2호: 분재기(分財記)

번호	현재	실사결과	비고
4	가정이십사년을사정월이십칠[三]노비분금문기	4-1 嘉靖二十四年乙巳正月貳拾柒[三]奴婢分衿文記 4-2 嘉靖二十四年乙巳正月貳拾柒[三]奴婢分衿文記	○ 거의 동일한 내용의 문서이지만 문자가 약간 다른 동일한 제목의 문서가 복수로 전함
14	만력삼십사년병오구월이십일성문	14-1 萬曆參拾肆年丙午九月二十日成文 14- 萬曆參拾肆年丙午九月二十日成文	상동

		2		
24	천계칠년정묘유월삼일자손등처유언	24-1	天啓七年丁卯六月三日子孫等處遺言	상동
		24-2	天啓七年丁卯六月三日子孫等處遺言	

□ 보물 제876-8호: 완문(完文)

번호	현재	실사결과	비고
1	丙戌三月二十九日完文	丙戌三月二十九日南朝璉等完文	○ “南朝璉等” 추가
2	戊午五月日卽接化民李躋榮壽完文	戊午五月日化民李躋榮壽坤等完文	○ “卽接”삭제, “坤等”추가
4	신미십이월일절부고진사리(李)시청처박씨완문	신미십이월일절부고진사이(李)시청처박씨완문	○ 한글음 수정

□ 보물 제876-9호: 완의(完議)

번호	현재	실사결과	비고
1	壬午二月二十五日	壬午二月二十五日完議	○ “完議”추가
2	동치십사년을해오월이십삼일리(李)생원택전완의	동치십사년을해오월이십삼일이(李)생원택전완의	○ 한글음 수정
3	己卯十月十七日	己卯十月十七日完議	○ “完議”추가

□ 보물 제876-12호: 관문(關文)

번호	현재	실사결과	비고
소제목	없음	이 문서들은 말미에 “關”이 있으므로 “移文” 대신 “關文”으로 대체하는 편이 적합함	○ 양식 동일
1	丁亥二月初五日 寧海都護府使	丁亥二月初五日 寧海都護府使關	○ “關”추가
2	辛巳二月二十四日 海都護府使關	辛巳二月二十四日 [寧]海都護府使關	○ “寧”추가

○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의 수정 및 보완 사항

제876-1호: 명문(明文)

- 현재 수량에서 8점(5-1, 81-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이 추가되고, 2점(167, 169)은 삭제되어 6점이 추가됨(현재 173점에서 179점으로 수정)
- 오탈자, 크기 등 수정

제876-2호: 분재기(分財記)

- 현재 수량에서 3점(4-2, 14-2, 24-2)이 추가됨(현재 54점에서 57점으로 수정)
- 크기 등 수정

제876-8호: 완문(完文)

- 오탈자, 크기 등 수정

876-9호: 완의(完議)

- 오탈자, 크기 등 수정

제876-12호: 관문(關文)

- 문서양식 통일을 위해 소제목에는 “移文”대신에 “關文”으로 변경하고, 문서 끝에는 “關”자 보완
- 탈자, 크기 등 수정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보고 사항

I.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 결과 보고

안건번호 동산 2017-04-017

17. 2016·2017년도 문화재보수장비 국고보조사업 관련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 결과보고

가. 보고사항

2016·2017년도 국가지정동산문화재 보수장비 국고보조사업 대상 현상변경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상반기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2016·2017년도 국가지정동산문화재 보수장비 국고보조사업 대상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 결과를 보고하는 것임

다. 추진경과

1) 회의운영 방식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현상변경 안건(국고보조사업) 심의
※ 사업 수행 보존처리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개요, 사전조사 내용, 보존처리 계획의 주안점 등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설명

2) 2017년 소위원회 상반기 개최 결과

- 회의개요

차수	회의날짜	회의내용	참석위원	결과
제1차	‘17.2.17.	‘김성일 종가 전적’ 보존처리 등 17건	박은경, 정광용, 이상현, 정제규, 손영문 등 5명	계획 보완 13건, 재검토 4건
제3차	‘17.4.19.	‘증급유방’보존처리 및 보관함 제작 등 16건	신승운, 최태호, 이화수, 정제규, 손영문 등 7명	계획 보완 15건, 재검토 1건
제4차	‘17.4.21.	‘해남 대흥사 영산회괘불탱’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 등 7건	박은경, 김수철, 손영문 등 3명	계획 보완 7건
제7차	‘17.6.26.	‘정탁문적-약포유고 및 고문서’ 보존처리 등 8건	이상현, 신은미, 이화수, 정제규, 손영문 등 5명	계획 보완 8건

○ 심의 대상 : 2016년·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보물 905호 김성일 종가 전적 보존처리’ 등 48건[재검토 5건 포함, 붙임 1]

붙임. 2016·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 대상 목록(1, 3, 4, 7차) 1부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붙임]

2017년도 제1차 소위원회 현상변경 심의대상 목록

연번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명칭	사업내용	수행업체	결과
1	대구 동구	보물1610	대구 동화사 아미타회상도	아미타회상도 3폭 모사도 제작	간척지류연구소, 동국대 불교미술 문화재조형연구소	계획보완
2	경북 안동	보물905	김성일 종가 전적	보존처리	간척지류연구소	계획보완
3	충남 공주	보물1651	공주 갑사 석가여래삼 세불도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 (금번 검토: 삼세불도)	고창문화재보존	계획보완
4	경북 고령	보물1725	김종직 종가 고문서	연차적 보존처리 및 복제품, 보관함 제작	고창문화재보존	계획보완
5	경북 고령	보물1835	정종 적개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	보존처리 및 영인본, 보관함 제작	고창문화재보존	계획보완
6	전남 강진	보물1843	강진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	보존처리	금강문화재	계획보완
7	경남 통영	보물440	통영 충렬사 팔사품 일괄	팔사품 보존처리	경남문화재	계획보완
8	경북 봉화	보물1666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삼존상 보존처리	해성문화재	재검토
9	경북 봉화	보물896	권별 종가 전적	보존처리(7점)	보림문화재	계획보완
10	경남 양산	보물1351	통도사 괘불탱	보존처리	영산문화재연구소	재검토
11	경남 창원	보물1737	몽산화상육도보설	보존처리, 영인본(2) 및 복제품(1), 보관함 제작	영산문화재연구소	재검토
12	경북 안동	보물1221	김진 초상	보존처리	아람문화재	계획보완
13	경북 안동	보물872	이현보 초상	보존처리	아람문화재	계획보완
14	경북 안동	보물1018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보존처리(4점)	경흥문화재연구소	계획보완
15	경북 안동	보물1019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전적	보존처리(7권)	엔가드	계획보완
16	경북 안동	보물1202	이현보 종가 문적	보존처리(2책)	인디고문화재그룹	재검토
17	경북 안동	보물906	김성일 종가 고문서	보존처리(2점)	오원문화유산	계획보완

2017년도 제3차 소위원회 현상변경 심의대상 목록

연 번	소재 지	지정 번호	지정명칭	사업내용	수행업체	결과
1	경북 문경	보물1748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 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복장유물 보존처리 및 보관함 제작	고송문화재보존	계획보완
2	전남 보성	보물1800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	복장유물(9점) 보존처리	해성문화재보존	계획보완
3	경북 안동	보물1202	이현보 증가 문적	보존처리	안다문화재연구소	계획보완
4	경남 창원	보물1737	몽산화상육도보설	보존처리 및 복제품, 보관함 제작	영산문화재연구소	계획보완
5	충북 괴산	보물1380	신경행 청난공신교서 및 관련문적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보존처리 5종6점, 영인본 9점)	한영문화재	계획보완
6	경북 예천	보물494	정탁문적-약포유고 및 고문서	보존처리	두영문화재보존	재검토
7	대구 달서	보물 1051-2	분류두공부시(언해)권 11~12	분류두공부시(2권1책) 보존처리 및 복제본 제작	경흥문화재연구소	계획보완
8	대구 달서	보물1465	도은선생집	도은선생집(5권1책) 보존처리 및 복제본 제작		
9	대구 달서	보물1466	진일유고	진일유고(4권1책) 보존처리 및 복제본 제작		
10	대구 달서	보물1702	삼봉선생집 권1	삼봉선생집(1권1책) 보존처리 및 복제본 제작		
11	대구 달서	보물1703	수계선생비점맹호연집	수계선생비점맹호연 집(3권1책) 보존처리 및 복제본 제작		
12	대구 달서	보물1704	신간상명산법	신간상명산법(2권1책) 보존처리 및 복제본 제작		
13	대구 달서	보물 710-6	동인지문사육 권7~9	동인지문사육 권7~9 (3권1책) 보존처리 및 복제본 제작		
14	경기 용인	보물1406	이십삼 상대회도 및 김 중환 교지	김중환 교지 보존처리 및 보관상자 제작	고창문화재보존	계획보완
15	경기 용인	보물1577	증급유방	증급유방 보존처리, 포갑 및 보관함 제작		
16	강원 춘천	보물1479	유숙 초상 및 관련 교지 (계획 용역)	유숙 초상, 초상함, 관련 교지 보존처리 및 보관상자 제작		

2017년도 제4차 소위원회 현상변경 심의대상 목록

연번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명칭	사업내용	수행업체	결과
1	경남 양산	보물1351	통도사 괘불탱	보존처리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계획보완
2	전남 해남	보물1552	해남 대흥사 영산회괘불탱	괘불합 보존처리 및 괘불탱 모사도 제작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계획보완
3	경북 예천	보물487	정탁 초상	보존처리	영축문화재보존	계획보완
4	경북 봉화	보물1666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지장보살삼존상 보존처리	해성문화재보존	계획보완
5	경북 경주	보물1615	경주 왕릉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존처리	아람문화재	계획보완
6	충남 예산	보물 568-2	윤봉길의사 유품	보존처리 (편지 등 25점)	비산문화재	계획보완
7	경북 영주	보물881	장말손 유품	보존처리 (폐도 1점)	팜클	계획보완

2017년도 제7차 소위원회 현상변경 심의대상 목록

연번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명칭	사업내용	수행업체	결과
1	경북 예천	보물494	정탁문적-약포유고 및 고문서	보존처리	두영문화재보존	계획보완
2	경북 봉화	보물1379	축서사 괘불탱	보존처리 (복장유물, 함 포함)	두영문화재보존	계획보완
3	전남 구례	보물1363	화엄사 대응전 삼신불탱	모사도 제작	사찰문화재보존 (영산)	계획보완
4	전남 강진	보물1315	무위사 극락전 내벽사면벽화	보존처리(27점)	영산문화재연구소	계획보완
5	경북 영주	국보46	부석사 조사당 벽화	기초조사 및 모사도 제작	해성문화재보존	계획보완
6	경북 영주	보물1005	장말손 종가 고문서	보존처리 및 복제본 제작 (2017년도 사업)	정재문화재보존	계획보완
7	경남 양산	보물 965-2	육경합부	보존처리 (2017년도 사업)	영축문화재보존	계획보완
8	경남 양산	보물 738	문수사리보살좌상승무생계경	보존처리 (2017년도 사업)	영축문화재보존	계획보완